연구보고 2021-2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저 자 최효미, 이정원, 김자연, 이재희, 김태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자 연** (육아정책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재 희**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5-3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이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4차년도 연구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2021년 연구인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육아 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일자리 및 가구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고충에 더하여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해야 한다는 이중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무엇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자리 상실, 소득 저하, 자녀 돌봄 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내용에 더하여 저소득 가구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에 있어 연동패널 방식을 준용하고 하고 있어 201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변화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하다 하겠다. 또, 매해 영유아 가구의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신생아 표본(신규 가구) 및 대체 표본(대체 가구)를 추가 구축하여, 적정 규모의 표본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차년도 기준 가구 표본 추적률은 87.1%이며, 전체 표본 가구 수는 1,933가구, 아동 설문 응답자는 총 2,832명(이 중 영유아는 2,401명)으로, 전국 단위 조사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패널 조사 연구와는 달리 당해연도 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당해연도 연구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이 이뤄진다는 점도 연구의 장점이라 하겠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및 특히나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응답해주신 신생아 표본 가구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일 뿐 아니라 조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까다로운 연구임에도 열성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일러두기

□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는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실시되는 과제로, 4차년도(2021년) 기준 2개의 세부 연구과제로 구성.

- 4차년도 연구 기준 2개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연구과제1 :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 연구과제2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 세부 연구과제는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실태 관련 설문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공유하고 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각 과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됨.
- 세부 과제의 구성과 세부 과제별 연구 내용 등은 시의성을 반영하여 매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2차년도(2019년)까지는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으나, 3차년도에는 양육비용연구와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를 통합하여 2개 과제로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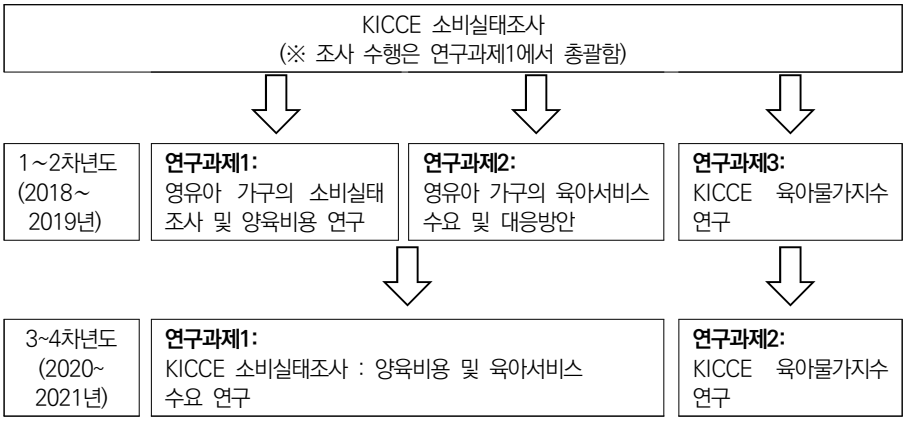
- 2차년도까지 분리되어 운영되던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연구'를 3차년도부터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수행하였음.
- 이는 연구 수행 과정의 효율성 증진 및 추적조사 비용의 확보를 위한 조치임.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모든 세부과제를 지원하는 통합 조사이나, 조사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과제1에서 포괄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성격의 조사로, 1차년도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에 따라 3차년도 아동용 설문 응답 대상은 초등 2학년까지로 확장되었으나, 4차년도 예산상 이유로 초등 1학년까지만 조사함.

- 단, 매해 신생아 표본을 고려하여 신규 표집을 실시하고 있어, 영유아 표본은 모든 연령을 포괄하고 있음.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자료: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연구(Ⅲ).

□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각 세부과제별 연구 범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과제 1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생활비 지출, 가계경제 현황,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초등 돌봄 이용 실태 및 수요, 육아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
- 연구과제 2 : 체감 물가, 경제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 등

목차

요약 1

Ⅰ. 서론 2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5
2. 연구 내용 28
3. 연구 방법 31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36

Ⅱ. 연구 배경 43
1. 선행 연구 고찰 45
2. 육아 지원 정책 동향 53

Part Ⅰ 2021년 KICCE 기초분석 81

Ⅲ.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83
1.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85
2. 설문 구성 및 변화 90
3. 응답자 특성 98

Ⅳ.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09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112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115
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132
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137
5.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 결과 분석 143

Ⅴ.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59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61
2.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92
3.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205
4.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228

PartⅡ 심층분석: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격차 251

Ⅵ.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지원금 효과 253
1. 심층 분석 개요 255
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양육비용 261
3.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281

PartⅢ 결론 및 정책 제언 287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289
1.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292
2.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308
3.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326

참고문헌 343

Abstract 353

표 목차

〈표 Ⅰ-2-1〉 4차년도(2021년) 주요 연구 내용 ····· 31
〈표 Ⅰ-3-1〉 부모 심층 면담 실시 현황 ····· 35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 36
〈표 Ⅰ-4-1〉 양육비용 산출 기준 ····· 37
〈표 Ⅰ-4-2〉 육아서비스 범주 ····· 39
〈표 Ⅰ-4-3〉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 ····· 40
〈표 Ⅱ-1-1〉 코로나19 전후 가계소비 및 양육비용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 49
〈표 Ⅱ-1-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관련 선행연구 ····· 52
〈표 Ⅱ-2-1〉 코로나19 관련 육아 분야 비용 지원 정책 (2020년 중앙 정부) 54
〈표 Ⅱ-2-2〉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 56
〈표 Ⅱ-2-3〉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 56
〈표 Ⅱ-2-4〉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6월 기준) ····· 57
〈표 Ⅱ-2-5〉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지원 ····· 60
〈표 Ⅱ-2-6〉 코로나19 전후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과 탄력근무 활용 인원 ····· 62
〈표 Ⅱ-2-7〉 육아 시간 지원 정책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2021) · 63
〈표 Ⅱ-2-8〉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서비스 센터 현황 (분소 포함) ····· 64
〈표 Ⅱ-2-9〉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 실적 ····· 65
〈표 Ⅱ-2-10〉 2021년 기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비대면 부모교육 사업 · 68
〈표 Ⅱ-2-11〉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특별지원 서비스 ····· 69
〈표 Ⅱ-2-12〉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편 내용 ····· 70
〈표 Ⅱ-2-13〉 2021년 아이돌보미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시간당) ····· 71
〈표 Ⅱ-2-14〉 2021년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시간당) ····· 71

〈표 Ⅱ-2-15〉 2021년 아이돌보미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 71
〈표 Ⅱ-2-16〉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중앙부처) ····· 74
〈표 Ⅱ-2-17〉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지원분야 ····· 76
〈표 Ⅱ-2-18〉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연령기준 ····· 77
〈표 Ⅱ-2-19〉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소득기준 ····· 78
〈표 Ⅱ-2-20〉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지원분야 ····· 78
〈표 Ⅱ-2-21〉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연령기준 ····· 79
〈표 Ⅱ-2-22〉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소득기준 ····· 79
〈표 Ⅲ-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나이) ····· 87
〈표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수(2018~2021년) ····· 88
〈표 Ⅲ-1-3〉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1년) ····· 88
〈표 Ⅲ-2-1〉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4차년도) · 91
〈표 Ⅲ-2-2〉 본조사 설문의 개요 (1~4차년도) ····· 92
〈표 Ⅲ-2-3〉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가구 특성 및 양육비용 경감 ·· 93
〈표 Ⅲ-2-4〉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95
〈표 Ⅲ-2-5〉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소비성향 및 미래 전망 관련 문항 95
〈표 Ⅲ-2-6〉 아동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영유아 ····· 96
〈표 Ⅲ-2-7〉 아동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초등 ····· 98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1년) : 막내자녀 연령별 ····· 99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1년) ····· 100
〈표 Ⅲ-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1년) ····· 101
〈표 Ⅲ-3-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1년) · 101
〈표 Ⅲ-3-5〉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02
〈표 Ⅲ-3-6〉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 103
〈표 Ⅲ-3-7〉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 (2018~2021년) ····· 104
〈표 Ⅲ-3-8〉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 104
〈표 Ⅲ-3-9〉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2018~2021년) ····· 105
〈표 Ⅲ-3-10〉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1년) ····· 105
〈표 Ⅲ-3-11〉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년) ····· 106

〈표 Ⅲ-3-1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2021년) ····· 107
〈표 Ⅲ-3-13〉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2021년) ····· 107
〈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 112
〈표 Ⅳ-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 114
〈표 Ⅳ-1-3〉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1년, 영유아 가구표본) · 114
〈표 Ⅳ-1-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영유아 가구표본) ····· 115
〈표 Ⅳ-2-1〉 비목별 월평균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 116
〈표 Ⅳ-2-2〉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18
〈표 Ⅳ-2-3〉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 119
〈표 Ⅳ-2-4〉 가구 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21
〈표 Ⅳ-2-5〉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 121
〈표 Ⅳ-2-6〉 가구 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22
〈표 Ⅳ-2-7〉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 123
〈표 Ⅳ-2-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 123
〈표 Ⅳ-2-9〉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 125
〈표 Ⅳ-2-10〉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25
〈표 Ⅳ-2-1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26
〈표 Ⅳ-2-12〉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127

〈표 Ⅳ-2-13〉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0년, 실질비용) ····· 128
〈표 Ⅳ-2-14〉 비목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 130
〈표 Ⅳ-2-15〉 가구특성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9~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 131
〈표 Ⅳ-2-16〉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0년, 실질비용) ····· 132
〈표 Ⅳ-3-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1+2순위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133
〈표 Ⅳ-3-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 134
〈표 Ⅳ-3-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 134
〈표 Ⅳ-3-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 : (2021년, 영유아 가구)135
〈표 Ⅳ-3-5〉 가구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21년, 영유아 가구) ····· 135
〈표 Ⅳ-3-6〉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21년, 영유아 가구) ····· 136
〈표 Ⅳ-3-7〉 세제혜택 수혜여부 (2019~2021년) ····· 137
〈표 Ⅳ-3-8〉 세제혜택 인지여부 (2019~2021년) ····· 137
〈표 Ⅳ-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1년) · 138
〈표 Ⅳ-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1년) ····· 139
〈표 Ⅳ-4-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1년) ····· 139
〈표 Ⅳ-4-4〉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18~2021년) ····· 140
〈표 Ⅳ-4-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2021년) ····· 141
〈표 Ⅳ-4-6〉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0~2021년) ····· 142
〈표 Ⅳ-4-7〉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1년) ····· 143
〈표 Ⅴ-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1년) ····· 162
〈표 Ⅴ-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1년) ····· 163

〈표 Ⅴ-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1년) ·· 165
〈표 Ⅴ-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1년) ····· 166
〈표 Ⅴ-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1년) · 166
〈표 Ⅴ-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비중 (2018-2021년) ····· 167
〈표 Ⅴ-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 (2018-2021년) · 167
〈표 Ⅴ-1-8〉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 변화 및 이용 계획 개수 (2021년) ····· 168
〈표 Ⅴ-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1년) ····· 169
〈표 Ⅴ-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1년) ····· 171
〈표 Ⅴ-1-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2018~2021년) ····· 172
〈표 Ⅴ-1-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2021년) ····· 172
〈표 Ⅴ-1-13〉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월평균 세부비용 (2018~2021년) ····· 173
〈표 Ⅴ-1-14〉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1년) · 175
〈표 Ⅴ-1-15〉 반일제 이상 기관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및 월 평균 수업 횟수, 만족도 (2021년) ····· 175
〈표 Ⅴ-1-16〉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2021년) ····· 176
〈표 Ⅴ-1-17〉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1년) ····· 177
〈표 Ⅴ-1-18〉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1년) ····· 178
〈표 Ⅴ-1-19〉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1년) ····· 178
〈표 Ⅴ-1-20〉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 180
〈표 Ⅴ-1-21〉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1년) ····· 181
〈표 Ⅴ-1-22〉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1년) ····· 181
〈표 Ⅴ-1-2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21년) · 182
〈표 Ⅴ-1-24〉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1년) ····· 183
〈표 Ⅴ-1-25〉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1년) ····· 184
〈표 Ⅴ-1-26〉 단시간 학원 유형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년) ····· 185
〈표 Ⅴ-1-27〉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1년) ····· 185

〈표 Ⅴ-1-28〉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1년) ····· 186
〈표 Ⅴ-1-29〉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및 이용하지 못한 기관 유형 ····· 186
〈표 Ⅴ-1-30〉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1년) ····· 187
〈표 Ⅴ-1-31〉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1년) ····· 188
〈표 Ⅴ-1-32〉 시간제 일시보육 및 키즈카페 만족도 (2018-2021년) ····· 189
〈표 Ⅴ-1-33〉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1년) ····· 190
〈표 Ⅴ-1-34〉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1년) ····· 191
〈표 Ⅴ-2-1〉 가구특성별 육아서비스 이용 (2019-2021년) ····· 192
〈표 Ⅴ-2-2〉 초등돌봄교실 하교시간대별 비중 (2021년) ····· 193
〈표 Ⅴ-2-3〉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유형 (2020-2021년) ····· 193
〈표 Ⅴ-2-4〉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 (2019-2021년) ····· 194
〈표 Ⅴ-2-5〉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오후 및 저녁돌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 (2019-2021년) ····· 195
〈표 Ⅴ-2-6〉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19-2021년) ··· 195
〈표 Ⅴ-2-7〉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 (2020-2021년) ····· 196
〈표 Ⅴ-2-8〉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 (2021년, 중복응답) ····· 197
〈표 Ⅴ-2-9〉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개수 (2020-2021년) ····· 197
〈표 Ⅴ-2-10〉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비용 (2019-2021년) ····· 198
〈표 Ⅴ-2-11〉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서비스 만족도 (2021년) ····· 198
〈표 Ⅴ-2-12〉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2020-2021년) ····· 199
〈표 Ⅴ-2-13〉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줄인 경험 및 프로그램 (2021년) ····· 199
〈표 Ⅴ-2-14〉 초등1학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9~2021년) ····· 200
〈표 Ⅴ-2-15〉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과목별 이용 비중 (2021년) ····· 201
〈표 Ⅴ-2-16〉 문화센터 과목별 이용 비중 (2021년, 문화센터) ····· 201
〈표 Ⅴ-2-17〉 초등1학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9~2021년) ·· 202
〈표 Ⅴ-2-18〉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9~2021년) · 202
〈표 Ⅴ-2-1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1년) ····· 203
〈표 Ⅴ-2-20〉 연도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1년) ····· 204
〈표 Ⅴ-2-21〉 단시간 학원 과목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년) ····· 204

〈표 Ⅴ-2-22〉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유형 (2021년, 중복응답) ····· 205
〈표 Ⅴ-3-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0년, 중복응답) ····· 206
〈표 Ⅴ-3-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2019~2020년) ····· 207
〈표 Ⅴ-3-3〉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1년) : 전체가구 ····· 209
〈표 Ⅴ-3-4〉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1년) : 전체 가구 ····· 211
〈표 Ⅴ-3-5〉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정도 (2021년) : 전체가구 ····· 212
〈표 Ⅴ-3-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1년, 중복응답) : 전체 가구 ····· 214
〈표 Ⅴ-3-7〉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여부 (2021년) : 전체 가구 ····· 215
〈표 Ⅴ-3-8〉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 빈도 (2021년) : 전체 가구 ····· 216
〈표 Ⅴ-3-9〉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 가구 ····· 217
〈표 Ⅴ-3-10〉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1년) : 전체 가구 ····· 218
〈표 Ⅴ-3-11〉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1년) : 전체 가구 ····· 219
〈표 Ⅴ-3-12〉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 가구 ····· 220
〈표 Ⅴ-3-13〉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1년) : 전체 가구 ····· 221
〈표 Ⅴ-3-14〉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가구 ····· 222
〈표 Ⅴ-3-15〉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 223
〈표 Ⅴ-3-16〉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 225
〈표 Ⅴ-3-17〉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 225
〈표 Ⅴ-3-18〉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가구 ····· 226
〈표 Ⅴ-4-1〉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1년) ····· 228
〈표 Ⅴ-4-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1년) · 229
〈표 Ⅴ-4-3〉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 230

〈표 Ⅴ-4-4〉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1년) ····· 231
〈표 Ⅴ-4-5〉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1년) ·· 232
〈표 Ⅴ-4-6〉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9-2021년) ····· 232
〈표 Ⅴ-4-7〉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19-2021년) : 1+2+3순위 ····· 233
〈표 Ⅴ-4-8〉 희망서비스 종류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2021년, 1+2순위응답) ····· 234
〈표 Ⅴ-4-9〉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1년) ····· 236
〈표 Ⅴ-4-10〉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36
〈표 Ⅴ-4-11〉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37
〈표 Ⅴ-4-12〉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38
〈표 Ⅴ-4-13〉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39
〈표 Ⅴ-4-14〉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40
〈표 Ⅴ-4-15〉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 240
〈표 Ⅴ-4-16〉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1
〈표 Ⅴ-4-17〉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2
〈표 Ⅴ-4-1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2
〈표 Ⅴ-4-19〉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3
〈표 Ⅴ-4-2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3
〈표 Ⅴ-4-21〉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244
〈표 Ⅴ-4-22〉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1년) ····· 247
〈표 Ⅴ-4-23〉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 248
〈표 Ⅴ-4-24〉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 249
〈표 Ⅵ-1-1〉 분석 대상 가구 특성 ····· 257

〈표 Ⅵ-1-2〉 분석 대상 자녀 특성 ····· 258
〈표 Ⅵ-1-3〉 분석 대상 부모 특성 ····· 259
〈표 Ⅵ-2-1〉 분위별 가구소득 ····· 262
〈표 Ⅵ-2-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특성 ····· 263
〈표 Ⅵ-2-3〉 가구소득 분위별 자녀 특성 ····· 264
〈표 Ⅵ-2-4〉 가구소득 분위별 부모 특성 ····· 265
〈표 Ⅵ-2-5〉 차수별 가구소득 분위 변화 ····· 266
〈표 Ⅵ-2-6〉 가구소득 분위(2차년도 기준)별 실질 가구소득 변화 비중 ····· 267
〈표 Ⅵ-2-7〉 가구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 268
〈표 Ⅵ-2-8〉 자녀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 269
〈표 Ⅵ-2-9〉 부모 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 269
〈표 Ⅵ-2-10〉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 270
〈표 Ⅵ-2-11〉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식비 ····· 271
〈표 Ⅵ-2-12〉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교육/보육비 ····· 272
〈표 Ⅵ-2-13〉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여가/문화생활비 ····· 273
〈표 Ⅵ-2-14〉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 273
〈표 Ⅵ-2-15〉 (로그)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 275
〈표 Ⅵ-2-16〉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 276
〈표 Ⅵ-2-17〉 소득분위별 (로그)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 278
〈표 Ⅵ-2-18〉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 279
〈표 Ⅵ-2-19〉 소득분위별 시차 효과 비교 ····· 280
〈표 Ⅵ-3-1〉 가구소득 분위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3차년도) ·· 282
〈표 Ⅵ-3-2〉 가구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3차년도) ····· 282
〈표 Ⅵ-3-3〉 자녀특성 및 부모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3차년도) ····· 283
〈표 Ⅵ-3-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로그)에
미친 영향 : DID ····· 285
〈표 Ⅶ-2-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2019-2020) ····· 319
〈표 Ⅶ-3-1〉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 관련 심층 면담 주요 내용 요약 · 335
〈표 Ⅶ-3-2〉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액 (2021년 기준) ····· 338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차별 연구 주제 ····· 29
[그림 Ⅱ-2-1]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정책 현황 ····· 72
[그림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1~4차) ····· 86
[그림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1년) ····· 89
[그림 Ⅳ-2-1] 총 양육비용 분포 비교 (2020~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 117
[그림 Ⅳ-2-2] 비목별 총 양육비용 분포 비교(2020~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 118
[그림 Ⅴ-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1년) ····· 162
[그림 Ⅴ-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1년) ····· 170
[그림 Ⅴ-3-1]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여부, 이용횟수 (2021년) : 전체가구 224
[그림 Ⅴ-3-2]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 227
[그림 Ⅴ-4-1] 연도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18-2021년) ····· 235
[그림 Ⅴ-4-2] 가구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 245
[그림 Ⅴ-4-3] 맞벌이가구의 희망하는 직접돌봄 방식 (2021년) ····· 245
[그림 Ⅴ-4-4]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0-2021년) ····· 246
[그림 Ⅴ-4-5]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 248
[그림 Ⅵ-2-1] 조사차수별 가구소득 분포 ····· 263
[그림 Ⅵ-2-2] 조사차수별 총 양육비용 분포 ····· 267
[그림 Ⅶ-1-1] 정책 기본 방향 및 개요 ····· 291
[그림 Ⅶ-1-2]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취약 가구 지원 ····· 295
[그림 Ⅶ-1-3]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취약 가구 지원 ····· 297
[그림 Ⅶ-1-4]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지원 (예시) ····· 300

[그림 Ⅶ-2-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위드코로나 대응 ····· 315
[그림 Ⅶ-2-2]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위드 코로나 대응 ····· 317
[그림 Ⅶ-3-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 330
[그림 Ⅶ-3-2]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육아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 332

요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4차년도 연구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 특히 2021년 연구인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함.

- 육아 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일자리 및 가구소득을 유지해야하는 고충에 더하여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중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무엇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자리 상실, 소득 저하, 자녀 돌봄 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본 연구는 201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해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행태를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음.

나. 연구 내용

□ 4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가구 단위 :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 아동 단위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초등1학년 일인당 양육비용 포함 - 양육부담 및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공공 기관 돌봄(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등)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유형 및 개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제한 및 수요 - 긴급돌봄, 시간지원 정책 활용 의향
시의성 주제	사회적 상황 변화 반영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 온라인 수업 실태 - 통신 및 온라인 교육(매체 및 미디어) 활용 실태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활용 • 가정 내 비대면 양육 실태(교재교구 활용, 독서 활동 등) •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 - 시간 지원 정책 활용 실태
주제별 심층 분석 (종단자료 분석)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 지원금 효과 - 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격차 및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효과 분석

주: 주제별 심층 분석은 4차년도 자료가 아닌 기 구축 자료(2~3차)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변화 관련 참고문헌 및 정책 현황 검토.
- 정책 현황 DB화 및 분석 :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비용 지원과 저소득 가구(한부모 가구 지원 포함)은 정책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이를 DB화하여 유목화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

□ KICCE 소비실태조사(4차년도)

- 3차년도(2020년) 원표본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패널조사).
- 3차년도(2020년) 원표본 가구 중 조사에 실패한 가구에 대한 대체 표본 가구 추가 구축.
- 4차년도(2021년) 신생아 표본(2020년 하반기 출생아 및 2021년 상반기 출생아) 가구 신규 구축.
- 4차년도 설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비대면 육아서비스 및 가정 내 돌봄, 부모지원서비스 등의 설문을 개발하여 추가함.

□ 심층 분석 : 종단 자료 분석

-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 및 공적 지원금 효과를 분석함.
- 특히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여, 양극화 현상을 고찰하고자 함.

□ 심층 면담 (FGI)

- 비대면 육아서비스 관련 부모 대상 심층 면담
  - 비대면 육아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활용 등을 고려하여, 설문 개발 과정에 반영.
  - 총 3회, 15명에 대해 실시함.
- 저소득 영유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
  - 심층 분석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양육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심층 면담 실시.
  - 총 4회, 12명에 대해서 실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영유아 부모에 국한.
-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 관련 심층 면담
  - 육아지원 정책을 탐색하도록 하여, 육아지원 정책 탐색 경로 상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함.
  - 출산 경험이 없는 일반인 여성 2명으로 하여금 3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탐색하도록 한 후,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면담 진행.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 총 11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함.

라.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양육비용 산출 기준

- 양육비용 산출 방식은 1차년도 연구 이후 동일하게 유지.
  -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총 양육비용과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영유아 양육비용, 가구 단위 지출 비용이 아닌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됨.
- 단,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상의 기준 통일을 위해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 집단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 표본으로 조정함.

□ 육아서비스 및 비대면 육아서비스의 범주

- 본 연구의 '육아서비스'에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개별돌봄서비스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 가정 내 양육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등 7개 유형)이 포함됨.
- 비대면 육아서비스는 육아서비스 중에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육·교육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어플리케이션 포함), 육아용품 구매 및 대여 등이 포함됨.

□ 연구 대상 범위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조사 표본 전체를 원표본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해 추적 조사 대상 표본이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1세씩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초등 2학년이하 아동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함.
-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매해 확장되는 표본을 감당할 수 없어, 막내 자녀 연령이 초등 1학년이하인 가구까지만 조사함.

2. 연구 배경

가. 선행연구 고찰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 변화와 정책 효과

- 다수의 선행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서 저소득(혹은 저임금), 저학력, 여성 등이 더 위험한 집단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돌봄 공백의 발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시간 지원 정책의 필요성, 긴급돌봄 지원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내용임.
-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나. 육아 지원 정책 동향

□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동향

- 비용 지원 정책과 어린이집, 유치원 온라인 수업과 놀이 꾸러미 활동, 맞춤돌봄 교실 정책 현황을 고찰함.
  - 비용 지원 정책의 경우 지자체 사업이 다수로, DB화하여 유목화 함.

□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휴직,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령 개정 사항을 고찰함.

□ 가정 내 돌봄 지원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부모 지원 서비스로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지원 정책을 살펴봄.

□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동향

- 복지로에 탑재된 저소득 가구 및 한부모 가구 지원, 영유아 지원 사업을 DB화하여 분석함.
-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총 6개에 불과하지만, 저소득 가구 지원 사업은 총 64개, 영유아 가구 지원은 25개에 달함.

Part Ⅰ

□ Part Ⅰ은 보고서의 Ⅲ장부터 Ⅴ장까지의 내용으로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에 해당함.

□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주요 내용이지만, 전년도 자료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Ⅳ장 5절은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3.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가.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표본 추적 및 구축

- 전년도 조사 표본 전체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추적 조사 실패 가구에 대한 대체 표본 구축, 신생아 표본(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출생아) 가구 신규 구축 실시.
- 단, 4차년도 조사는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추적 조사의 대상을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1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함.
- 4차년도 가구 표본 추적률은 87.1%이며, 전체 표본 가구 수는 1,933가구임.
  - 추적 대상 표본 1,679가구 중 추적성공 가구 표본 수는 1,463가구이며, 216개 가구가 대체 가구로 신규 구축됨.
  - 신생아 표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54가구를 신규 구축함.

□ 조사 도구 및 조사 시기

- 2차년도(2019년) 조사까지는 TAPI조사가 시행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이설문(PAPI)로 실시.
- 조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동일 시점에 조사를 실시함.

나. 설문 구성 및 변화

□ 육아 가구의 일반 특성 및 소득, 소비 지출,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은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설문 항목임.

□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행태 변화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춤.

- 유연근무 활용 실태와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및 부모지원 서비스 활용 실태를 묻는 설문이 대거 추가됨.
- 반면, 전년도(3차, 2020년) 정책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되었던 보육지원 체계 관련 문항과 시간표 조사 등의 문항은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하였음.

다. 응답자 특성

□ 전체적인 가구 특성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이 표본이 잘 유지되었음.

□ 가구소득은 4차년도(2021년) 영유아 가구 기준 월평균 485만6천원(실질비용)으로, 3차년도(2020년) 502만3천원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아동 설문 응답자는 총 2,832명이며, 이 중 영유아는 2,401명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태(2021년 활용에 한함)는 다음과 같음.

- 출산 휴가 : 부의 경우 6.7%, 모는 13.6%가 활용한 경험이 있음.
- 육아 휴직 : 부 2.8%, 모는 18.6% 활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부 1.6%, 모 6.7% 활용.
- 가족돌봄휴직 : 부 1.0%, 모 2.1% 활용.
- 가족돌봄휴가 : 부 1.9%, 모 3.1% 활용.
  -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부 5.6일, 모 4.7일.
- 유연근무 : 재택근무 - 부 11.3%, 모 14.5%; 시차출퇴근 - 부 4.0%, 모 6.5%; 선택근로제 - 부 2.1%, 모 2.7%; 원격근무 - 부 3.5%, 모 3.3%; 전환형 시간선택제 - 부 0.7%, 모 1.9% 활용

4.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 영유아 가구 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실질 비용으로 환산된 값임.

가.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4차년도(2021년)에 28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식비 지출은 코로나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4차년도(2021년)에는 3차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엥겔지수 : 4차년도(2021년)에 28.5로 3차년도(2020년) 보다는 낮지만, 2차년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슈바베지수 :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4차년도 기준 8.1임.
- 엔젤지수 : 4차년도(2021년) 기준 26.8로, 3차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나.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가구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총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119만6천원으로, 이 연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34만3천원으로 가장 높음.
  - 3차년도(2020년)와 비교할 때, 4차년도(2021년) 총 양육비용 중 식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비목에서 총 양육비용 지출이 증가함.
  - 특히 교육/보육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경향을 보임.
- 총 양육비용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4차년도(2021년)의 총 양육비용은 3차년도에 비해 보다 넓게 퍼져있는 양상을 보이며, 총 양육비용의 편차가 더 커진 것(=양극화가 진행)으로 분석됨.
- 영유아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에 월평균 86만1천원으로, 총 양육비용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아동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61만2천원으로, 3차년도(2020년)에 비해 평균 2만9천원가량 증가했으나,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는 1만8천원가량 적은 수준을 보임.
  -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4차년도(2021년) 기준 19.1%로, 3차년도보다는 높고, 2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낮음.
  - 비목별 지출이나 가구특성별 지출 현황은 총 양육비용과 경향성을 같이 함.
-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79만9천원임.
  - 이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61만2천원에 비해 18만7천원이 높으며, 만6세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인 73만6천원에 비해서도 6만3천원가량 높은 수치임.

□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아동수당의 주된 활용처는 1+2순위 기준(4차년도) 식비(59.9%), 개인유지비(41.7%), 교육/보육비(32.7%), 저축 등 금융상품(29.3%) 등임.
-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는 1+2순위 기준 주로 식비(81,4%), 개인유지비 (45.8%), 교육/보육비(20.3%)로 활용됨.
- 세제 지원 혜택은 수혜 수준이 높지 않고, 인지 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양육비용이 충분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임.
-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는 해마다 교육/보육비, 식비, 개인유지비 순의 비중을 보이는데, 4차년도에는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낮아진 반면,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함.
-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우선 지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해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4차년도(2021년) 기준 34.1%였음.

□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 결과 분석

-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대다수는 양육비용 중에서 식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생계유지를 넘어선 추가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이는 생애 초기 자녀가 저소득 가구라는 낙인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에서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들 또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 중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사업은 저소득 기저귀 지원 사업과 영양 플러스 사업이며,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고연령의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은 실제로 육아 지원 사업에 비해 일반적인 생계보조 형태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를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
-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비를 제외하고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양육비용 비목은 의료비였으며, 고연령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와 문화여가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함.
- 저소득 가구 내에서도 정책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함.
- 저소득 영유아 가구는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과 같이 취약 여부가 2개 이상 중첩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
  - 한부모 가구의 부모가 일자리를 획득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정책 수혜 중복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 사업들이 다수 있어, 오히려 한부모 가구 부모들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가.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제 이상 기관

- 이용 비중 : 4차년도(2021년) 조사 기준, 영유아 2,371명 중 50.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28.8%, 반일제이상 학원 등 1.3%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이 80.5%임.
  -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자는 19.5%로, 3차년도(2020년) 27.6%에 비해서는 매우 낮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년도(2019년) 수준을 회복함.

- 4차년도(2021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중은 66.3%,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은 73.5%,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은 51.0%였음.

- 이용 시간 : 4차 조사 기준 어린이집은 35.0시간, 유치원은 34.5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29.5시간임.
- 이용 비용 : 4차년도 조사 기준 어린이집 이용시 월평균 이용 비용은 6만6천원, 유치원은 13만2천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시 85만6천원임.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2019년)에 비해 낮고,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용은 14만4천원이 높음.
- 서비스 만족도 : 4차 조사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모두 5점 만점 기준 4.0점의 만족도를 보임.
- 온라인 수업 : 어린이집에서는 2.6%가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유치원에서는 5.8%,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6.9%가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었음.
  -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3.6점, 유치원 이용의 경우가 3.1점, 기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3.5점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임.

□ 시간제 사교육

- 이용 기관 : 4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형학습지는 15.0%, 문화센터 5.7%,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4%,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1%, 개인 및 그룹지도 1.4% 순으로 나타남.
  - 단시간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학원 중단과 대면형 집체교육이 기피되었던 2020년 3차 조사 결과에서 12.9%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의 이용률 이상으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
  - 비대면형 시간제 사교육인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율은 4차년도(2021년) 기준 6.6%로 3차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시간 : 단시간 학원은 주당 평균 4.2시간으로,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용시간도 가장 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였음.

-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0.8시간,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7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8시간, 문화센터 1.2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1.9시간을 이용함.

- 이용 비용 : 월평균 이용비용이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월평균 19만8천원을 지출함.
  - 다음으로는 단시간 학원 월평균 이용비용이 16만4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과 교육용온라인콘텐츠 9만5천원,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만5천원, 방문형학습지 8만원, 문화센터 5만1천원 순임.
-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방문형 교구활동'과 '개인 및 그룹지도'로 5점 만점에 평균 4.1점임.
-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아 본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3.0%로, 주로 학습 관련 교과목(영어 외 언어(한글 포함), 수학 및 과학)에서 실시됨.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약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됨.

□ 기타서비스

- 시간제 일시보육 : 영유아 중 4차년도에는 0.7%가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11.3회 이용했으며, 1회당 3시간 48분 이용하며, 월평균 3만원의 비용을 지출함.
- 키즈카페 :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24.9%가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1차(47.2%)~2차년도에(57.7%) 비해는 낮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3차년도에(14.7%)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양상을 보임.
  - 월평균 이용 횟수는 1차(2018년)에 2회에서 4차(2021년)에 1.5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회 이용 시의 이용 시간은 1차(2018년) 2.0시간에서 4차(2021년) 2.2시간으로 약간 증가함. 키즈카페 이용 시 1시간당 이용비용은 4차(2021년) 기준 8천원이었음.

나.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공공 기관 지원 서비스

- 이용 비중 : 4차년도(2021년) 조사 기준, 초등 돌봄교실 이용 비중은 23.1%

로, 2차년도(2019년) 16.6%에 비해서는 증가함.

- 방과후 학교 이용율은 4차년도 기준 38.5%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4.5%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2차년도(2019년) 이용율인 6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마을돌봄 이용율은 4차년도 기준 1.7%로, 3차년도(2020년) 2.6%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초등돌봄교실 개선 요구 사항 : 4차년도(2021년) 1+2+3순위 기준 돌봄프로그램 다양화 요구(77.0%)가 가장 높으며,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44.9%), 돌봄전담교사의 추가 배치(35.0%) 순임.
- 방과후 학교 개선 요구 사항 : 4차년도(2021년) 1+2+3순위 기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으며, 수강인원확대 40.3%, 프로그램의 질제고 37.7%,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33.6% 순.

□ 시간제 사교육

- 이용 기관 : 4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84.6%로 매우 높았으며, 방문형학습지는 26.3%,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9.2%, 개인및 그룹지도 5.0%, 비방문 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 4.8%, 문화센터 3.0%,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9% 순으로 나타남.
  - 단시간 학원의 경우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2020년 3차 조사 결과에서는 이용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2차년도에 비해 높은 이용율을 보임.
  - 초등학령기 아동의 경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 비중이 9.2%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이용 시간 : 단시간 학원은 주당 평균 7.3시간이었으며, 나머지 서비스는 2시간 이하로 길지 않음.
- 이용 비용 :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은 2차(2019년), 3차(2020년), 4차(2021년) 각각 월평균 22만원, 23만2천원, 24만4천원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은 월평균 10만원 내외였으며, 문화센터의 경우 3만9천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5점 만점에 평균 4.0점임.

-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아 본 경우는 교과목별로 0.7%~14.9%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데, 주로 학습 관련 교과목(영어, 영어 외 언어(한글 포함), 수학 및 과학)에서 이용 비중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해 단시간 학원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2.1%로, 상당수가 코로나 19로 단시간 학원에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됨.

다.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 이용 비중 : 2차년도(2019년) 11.8%, 3차년도(2020년) 9.0%, 4차년도(2021년) 12.3%로, 다른 육아서비스 이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4차년도(2021년) 조사 기준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주당 평균 이용 시간과 월평균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 17.6시간, 20만1천원.
  - 민간 육아도우미 : 21.0시간, 70만9천원.
  - 조부모 돌봄 : 22.5시간, 33만7천원.
  -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 24.2시간, 29만7천원.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 하루 중 8시간, 주말에는 13시간 6분이었음.
  -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함께하였던 부모 직접 돌봄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42분, 주말 평균 12시간 54분인 것으로 나타남.
- 가정 내 양육 시간 중 전자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평일 평균 1시간24분, 주말 평균 2시간 6분임.
- 가정의 가정 내 양육 부담은 '다소 부담됨'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고, '적당함' 30.7%, '별로 부담 안됨' 21.0%, '매우 부담됨' 9.8%, '전혀 부담안됨' 3.5% 순으로 응답됨.
  - 가정 내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

들어서'로 62.6%가 가장 많고,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48.0%, '양육과정에서(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37.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33.7% 등임.

- 장난감 대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비중은 5.6%, 도서대여를 이용한 비중은 15.5%임.
  - 장난감 대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 대여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을 통해 이용했다고 응답됨.
-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4%였으며,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는 평균 3.3회임.
  - 육아 물품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으로 53.8%임.
- 육아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요구 :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50.2%),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35.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33.6%),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제공(26.7%), 물품의 소독 및 위생 관리 철저(26.6%),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 가능한 형태로 제공(18.4%),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5,7%) 순임.
-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율 : 부모교육 7.4%, 부모 상담 10.8%, 육아멘토 0.7%.
  - 이용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이용 횟수는 부모교육 평균 2.2회, 부모상담 1.4회, 육아멘토 2.3회.
  - 부모교육은 양육방법(69.9%),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37.8%), 보호자의 역할'(30.8%)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부모 상담의 경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80.3%). 양육방법(59.1%), 보호자의 역할(26.9%)이 주요 내용으로 조사됨.
- 부모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요구 : 프로그램 확대(30.2%),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30.0%), 일대일 (맞춤)서비스의 확대(29.9%),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27.6%),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26.8%), 서비스 홍보 강화(20.2%) 순으로 응답됨.

라.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유치원 이용(37.1%)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돌봄(33.7%)을 선호.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53.0%)과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23.4%)에 높은 선호를 보임.
-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로는 방과후 학교(4차년도 기준 66.1%)가 가장 높음.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정부 지원 부족 부분으로 매해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4차년도 응답 기준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19.5%),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15.2%)에 요구가 높은 편임.
  - 정부 지원이 부족한 서비스별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매해 비중은 차이를 보이지만, 항목 간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긴급 돌봄 대응

-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은 1+2순위 기준(4차년도) 부모가 직접 돌봄(83.1%),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 돌봄(42.1%), 긴급 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37.6%) 순임.
  -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 직접 돌봄 방식은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를 사용(33.1%),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29.5%), 재택근로를 사용(16.0%) 순임.
-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3차와 4차 조사에서 모두 가족돌봄 휴가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필요한 정책별 제도 개선 최우선 사항으로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휴가 사용일수의 연장,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사용의 의무화, 아이돌봄지원제도는 비용 지원의 확대가 꼽힘.

Part Ⅱ
6.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지원금 효과

가. 심층 분석 개요

□ 2차(2019년)~3차년도(2020년) 자료를 패널 자료로 연결하여 분석함.

- 분석에 활용된 총 관측치는 3,344가구로, 2차년도 1,665가구, 3차년도 1,679가구임.

□ 분석 방법

- 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패널 분석 방법 중 이원 고정 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 적용.
-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 효과 : 패널 1차 차분 모형을 적용한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으로 분석.

나.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양육비용

□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구소득의 변화

-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본 결과, 2차년도(2019년) 0.2224이던 것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 0.2025로 오히려 영유아 가구 내 불평등도는 코로나19 전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총 양육비용 변화

- 3차년도(2020년)에는 2차년도(2019년)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분석됨.
  -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크게 발생하면서, 교육/보육비가 급감함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 총 양육비용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총 양육비용의 감소가 특정 소득 분위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님.

□ 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코로나19 확산 초기 총 양육비용에는 시차효과가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하위10%(1분위)의 경우에만 시차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이는 하위10%(1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총 양육비용이 결정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줄일 수 있는 양육비용이 많지 않았음을 시사함.

다.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 코로나19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 3차년도(2020년) 조사 기준 코로나19 공적 지원금을 수혜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0%로, 가구소득이 상위10%(10분위)인 경우에만 수혜 비중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임.

□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 패널 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원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 경감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단, 심층 분석의 결과는 2차(2019년)과 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효과에 국한됨.

- 즉, 코로나19가 장기화된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를 활용할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Part Ⅲ

7.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됨.

가.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생애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비용(자녀에 대한 투입 비용)의 격차 축소에 방점을 두고 제언이 이루어짐.

□ 이와 관련한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아동수당 플러스 도입 검토	- 명칭 통합 및 지원 방식 일원화 - 한부모 가족 추가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조정 - 저소득 가구 아동수당 및 저소득 다자녀 가구 아동 수당 등의 추가 신설
의료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확대 ▸ 무료 예방접종 범위 확대 ▸ 의료바우처 등을 통한 접종비 지원 - 과다한 의료비 지출 방지 ▸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마련 ▸ 과잉 진료 기관은 차후 정책 사업 참여 제한 - 의료 보험 지원 확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린이 질환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좀 더 확대 ▸ 어린이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하여 납입해주어 보장성을 강화
스포츠 바우처 및 문화 바우처 활용도 제고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대상 연령 하향 조정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월 상한 이용액 조정 - 접근성 개선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의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업종 제한 등을 적용하되 특정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의 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의 자립 지원 및 보육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지원의 저소득 가구 기준을 상향 조정 - 한부모 가족 구직촉진수당 도입이나 고용촉진장려금 강화 -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비용(본인 부담금)의 추가적 지원 - 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권을 배정

나.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와 관련한 제언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공공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이와 관련한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공공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 교사 대 아동 비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 ▸ 아동 1인당 수업 공간의 충분히 확보 ▸ 쾌적한 교실환경 - 공공 육아 인프라 ▸ 공공도서관, 체험시설(박물관 등), 공공 놀이 공간의 정상적 운영 ▸ 온라인 사전 예약 제도 운영 검토 - 온종일 돌봄 및 육아 인프라 확충 ▸ 기존의 공급 계획에 근거한 꾸준한 공급 확대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확대 ▸ 물품 꾸러미 지원의 확대 ▸ 활동 방법에 대한 지도서 제공 ▸ 물품 다양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및 물품 품질의 질적 개선 - 육아 물품 대여 관련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배송 서비스 지원 ▸ 공공 부분의 육아 지원 인프라 확대 ▸ 이동식 도서관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물품 다양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및 물품 품질의 질적 개선
에듀테크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 공공형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어린이 에듀테크 체험관 설치 ▸ 기존 과학관 및 체험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설치 확장
온라인 부모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온라인 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 양육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 ▸ 보다 전문적인 부모 교육 실시 ▸ 부모 상담을 결합한 형태의 맞춤형 부모 교육 서비스의 제공 - 부모 교육 참여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 - 부모 양육 상담 지원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다.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제언은 기존에 이미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활용도가 낮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임.

□ 이들 정책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언되었으며,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육아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 관련 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혹은 관련 사이트 간 연계 및 링크 강화) - SNS 혹은 어플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알림 서비스 제공 - 통합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 ▸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정책 혹은 통합 플랫폼을 안내 - 정책 신구비교표 등 과거이력 사항을 함께 탑재하여 제공 - 정책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의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상향 조정 -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경우 제도 활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강화
단시간 돌봄 공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	-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안내 브로셔 제작, 배포 ▸아동수당 및 2022년 도입되는 영아수당 신청 시 제도 홍보 강화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하교 시간대 공급 확대 필요

I

서 론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0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4차년도 연구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비용 지원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1])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 및 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1년 연구인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돌봄 분야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는 아동 돌봄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채 보육·교육기관의 휴원/휴교가 실시되면서(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31.[2]), 돌봄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긴급 돌봄, 맞벌이 육아 가구를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김아름·박은영, 2020; 김동훈·김은영, 2020), 가족돌봄휴가 제도 등의 법안 정비가 이뤄짐에 따라(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4]) 심각한 수준의 돌봄 공백 발생은 방지된 것으로 보인다.

---

1) 자세한 내용은 연구 범위를 참조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2021. 3. 1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2021. 3. 11.).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2021. 3. 11.).

그러나, 육아 가구 부모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양육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최윤경, 2020: 2; 은기수, 2020: 40),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육아 문제를 감당하기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육자가 경험하는 소득 손실, 이동 제한, 가정 내 양육 부담 증가는 전업 주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은기수, 2020: 45; 정익중, 2020a: 48), 아동의 과다한 미디어 노출 위험 증가(정익중, 2020b: 23),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 감소(정익중, 2020b: 27), 청소년의 우울감 증가(Jentsch, B. & Schnock, B., 2020: 3[5]),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 증가(정익중, 2020a: 48), 빈곤 노출 위험 증가(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et al, 2020)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가정 내 양육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녀(가족)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져 양육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일부 보고되기는 하였다(은기수, 2020: ; Jentsch, B. & Schnock, B., 2020: 4[6]).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구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며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Jentsch, B. & Schnock, B., 2020: 4[7]), 양육에서의 불평등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높은 가구들은 결국 가구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소비 패턴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된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특히, 보육·교육시설의 운영 제한에 따라 자녀 돌봄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되게 되며(은기수, 2020; Jentsch. B. & Schnock, B., 2020[8]; 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5)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6)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7)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이는 다시 가구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자녀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Jentsch, B. & Schnock, B., 2020[9]; Malik, R., Hamm, K., Lee, W. F,, et al, 2020)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즉, 육아 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일자리 및 가구소득을 유지해야하는 고충에 더하여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10]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해야 한다는 이중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무엇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자리 상실, 소득 저하, 자녀 돌봄 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Malik, R., Hamm, K., Lee, W. F,, et al, 2020; Blundell, R., Dias, M., Joyce, R., et al, 2020[11]),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4차년도 연구인 올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의 노동시장 이탈 위험과 가구소득의 변동,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에서의 양극화 및 불평등 현상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가정 내 양육 부담 증가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육아서비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67~170 & 185) 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양육 부담 증가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예컨대 아동 방임, 미디어 중독,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등)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숙고해보았다.

또,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의 4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므로, 일차적으로는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성공적 조사와 자료 구축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패널 조사로 수행되며[12], 신생아 가구 표본의 신규 추가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

8)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9)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10)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교육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의 안전을 의미함.

11)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12) 단, 추적 조사 대상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 이하인 경우로 제한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2. 연구 내용

가. 연차별 연구 내용[13)]

본 연구는 총 5개년 연속 과제의 4차년도 연구로, 연차별 연구 내용은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총괄 수행한 과제[14)]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연구 범위를 확정하고 기초적인 양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주거 환경과 공유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8).

2차년도에는 패널 추적 원칙 및 신규 표본, 대체 표본 구축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2019년 양육비용 등을 산출하고,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등에 관한 심층 분석(1차년도 자료 활용)을 실시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8). 이와 함께 2019년도 주요 정책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도입과 세제 혜택 변동에 대한 육아가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가구의 가계 상태 변화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26~27). 또한,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인지와 제도에 대한 선호 등을 조사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26~27). 이에 더하여 전년도 자료(1~2차년도)를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는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26~27).

4차년도 연구는[15)]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중 주요 부분인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 구축이 완료된 2차(2019년)~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Ⅲ장

13) 연속과제 성격상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 25~26)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둠.
14) 1~2차년도는 '양육비용 연구', 3~4차년도는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를 의미함.
15) 전년도 상반기까지 연구 계획상으로는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 하반기 시의성 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음.

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4차년도 연구는 조사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추적 대상 표본을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2014년생)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Ⅰ-2-1] 연차별 연구 주제

연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공통 항목	○ 양육비용 연구 : 가구 및 아동 특성,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소비문화, 육아지원 정책 변화 및 인지,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 육아서비스 연구 :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반일제 이상 기관, 사교육서비스) 실태,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공공 기관 돌봄, 사교육서비스) 실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3차년도 조사 이 후 양육비용 연구와 육아서비스 연구 과제 통합됨.				
심층 분석		-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격차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변화	-초등 전환기자녀 양육비용 및 돌봄서비스 이용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 지원금 효과**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소비실태 추이 분석
시의성 조사	-육아용품 및 공유 경제, -주거 현황	-아동수당 도입 및 세제 개편 -초등 아동 설문 추가	-코로나19 영향 및 긴급돌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지 및 의견	**-비대면 육아 서비스 활용 -가정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영아수당 활용 실태
KICCE 소비 실태 조사 표본의 특징	-1차년도 표본 구축 (2012년생~2018년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1학년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18하반기, 2019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2학년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19하반기, 2020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1학년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20하반기, 2021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신규표본 추가 (2021하반기, 2022상반기 출생아)

주: 1) 연차별 상황에 따라 연구 주제와 조사 표본은 변경될 수 있음.
3) 4차년도 조사 기준 추적 대상 표본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2014년생)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며, 이는 조사 예산의 한계로 인한 조치임. 단, 매해 출생아 신규 표본은 지속적으로 추가 표집하여 조사함.

자료: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6, [그림 Ⅰ-2-1]을 수정 보완함.

나. 4차년도(2021년도) 연구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에서는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수행과 이를 활용한 2021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16]. 4차년도 시의성 주제로 설문 조사에 새롭게 포함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와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다. 육아서비스 이용은 영유아 자녀와 초등1학년 자녀로 구분하여, 공공 기관 뿐 아니라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정 양육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내 돌봄 지원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와 관련한 설문을 대폭 보강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연구 기간 상 당해연도 조사 완료 후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워 차년도에 실시하는 심층 분석 주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로, 기 구축이 완료된 자료(2~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육아 가구의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 파생되는 양극화 현상, 공적 지원금의 영향 등에 보다 방점을 두어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무엇보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반적인 돌봄 및 교육 사각지대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숙고해보았다.

16) 본 연구에서 육아서비스 수요는 협의의 의미로 주로 육아서비스의 이용 행태, 즉 소비 패턴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서비스의 수요(량) 예측 등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27).

〈표 Ⅰ-2-1〉 4차년도(2021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가구 단위 :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 아동 단위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초등1학년 일인당 양육비용 포함 - 양육부담 및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공공 기관 돌봄(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등)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유형 및 개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제한 및 수요 - 긴급돌봄, 시간지원 정책 활용 의향
시의성 주제	사회적 상황 변화 반영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 온라인 수업 실태 - 통신 및 온라인 교육(매체 및 미디어) 활용 실태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활용 - 가정 내 비대면 양육 실태(교재교구 활용, 독서 활동 등) -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 - 시간 지원 정책 활용 실태
주제별 심층 분석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 지원금 효과 - 소득 분위별 양육비용 격차 및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효과 분석

주: 심층 분석은 4차년도 자료가 아닌 기 구축 자료(2~3차)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7, 〈표 Ⅰ-2-1〉과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1) 선행연구 검토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 문항 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의 변화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때 비단 육아

지원 정책에 국한된 효과가 아닌 전반적으로 육아 가구의 행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소비 행태 및 육아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정책 현황 DB화 및 분석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정책 동향의 경우는 전년도 연구에서 이미 다룬 정책[17]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양하고, 4차년도(2021년)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비용 지원, 비대면 육아서비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심층 분석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저소득 가구 지원(한부모 가구 지원 포함)등에 대해 주로 검토하였다.

이때, 코로나19 지원금과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은 정책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이를 DB화하여 유목화 하였으며, DB화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DB화 작업에 포함된 주요 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정책 현황 표로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나. KICCE 소비실태조사(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해 추적 조사를 통한 패널 조사 성격을 갖는 조사로서, 4차년도 조사 또한 기 구축이 완료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4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막내 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매해 적정 수준의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 추적에 실패한 원표본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육아가구로 대체 표본을 추가 구축하였다.

또,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표본의 연령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해 신생아 표본을 250가구씩 추가 표집하였으며, 4차년도 연구에서도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표본 구축을 실시하였다.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에 제시하였다.

---

17)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보육지원체계, 시간 지원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는 Ⅲ장~Ⅴ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매해 조사되는 공통설문 문항으로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한 경우는 1~3차년도 연구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 변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단,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보고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올해 연구에서 시의성이 낮은 표들은 대거 부표로 구분하여, 보고서-부록 편에 수록하였다.[18)]

다. 심층 분석 : 종단자료 분석

연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당해연도 조사가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당해연도에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에 차년도 연구에서 전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 및 공적 지원금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양육비용 변화의 경우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 구축이 완료된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2019년)~3차(2020년)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라. 심층 면담(FGI)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 개발과 일반적인 설문 내용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대상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총 3개 주제로 구분되는데, 설문 개발을 위해 실시된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 심층 분석 주제와 연관된 저소득 영유아 가구 양육 부담, 정책 제언 구체화를 위해 실시한 육아지원 정책 인지 경로 탐색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된다.

1) 비대면 육아서비스 관련 부모 대상 심층 면담

연구 초반에는 4차년도 시의성 주제로 선정된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18) 본문과 연관성이 높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표의 결과는 본문 중 간략히 언급했으며, 부표 번호를 제시하여 색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설문 개발을 위해 초등1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심층 면담은 총 3회,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심층 면담의 내용은 주로 설문 개발 과정에서 설문 내용으로 반영하여 수용하였다.

2) 저소득 영유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

한편, 4차년도 연구의 심층 분석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의 충격이 양육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탐구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총 4회,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서 일반 가구에 비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의 육아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보았다.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녀연령 및 모취업 특성, 가구소득(기초생계/차상위계층)을 고려하여 모집된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상대적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분위(1~3분위)에 속한 경우 혹은 실질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하위 범주인 299만원이하에 속하는 경우 등을 지칭하기도 하며, 육아 지원 정책 사업 중 저소득 가구 지원으로 분류되는 경우[20] 등도 저소득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 부모 심층 면담의 경우 최하위 분위의 어려움을 보다 면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를 기초생계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하여 모집하였으며, 모집 결과 해당 대상자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저소득 가구 대상 심층 면담 결과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양육부담을 다루고 있는 Ⅳ장에 마지막 절인 5절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 관련 심층 면담(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앞서 두 종류의 심층 면담 진행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들의 정책 인

19) 구체적인 심층 면담 참석자의 특성은 〈부표 2-1〉을 참조하기 바람.
20) 정책 사업별로 저소득 가구 기준이 모두 상이함.

지도가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항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언급됨에 따라,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3일 동안 탐색하도록 지시한 후, 탐색 결과를 가지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 중 1명은 주로 영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정책(저소득 가구 지원 포함)을 탐색하도록 하였고, 다른 1명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가정한 상태에서 저출산 지원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이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3일간 탐색한 육아지원 정책의 범위와 경로를 확인하고, 대상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탐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과 심층면담의 결과[21]는 본 연구의 정책 제언 중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연구 기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올해 실시하지 못한 맞벌이 가구 대상 심층 면담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구인 3차년도(2020년) 연구에서 진행된 맞벌이 가구 대상의 심층 면담 자료[22]를 참고하였다.

〈표 Ⅰ-3-1〉 부모 심층 면담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수	대상자 특성	주요 면담 내용
1회	3. 29	3명	초1이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	비대면 육아서비스 설문 개발
2회	3. 29	5명	초1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대면 육아서비스 설문 개발
3회	3. 30	7명	초1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	비대면 육아서비스 설문 개발
4회	9. 28	3명	영아자녀가 있는 외벌이 차상위층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5회	9. 28	2명	유아자녀가 있는 맞벌이 기초생활수급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6회	9. 28	4명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외벌이 기초생활수급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7회	9. 30	3명	유아자녀가 있는 외벌이 차상위층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8회	11. 3	2명	아직 아이가 없는 일반인 여성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면담 전 시뮬레이션 진행)

21) 시뮬레이션 및 심층면담의 결과 또한 본문이 아닌 정책 제언 파트에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22) 녹취파일 및 전사 자료.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도출 등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의성 주제 및 심층 면담 주제와 연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3	조사 분야 실무전문가 3인	4차년도 조사 설계 관련
2회	3. 17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3인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 및 설문 개발
3회	3. 17	유아교육 전문가 1인(서면자문)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 및 설문 개발
4회	3. 25	육아정책분야 전문가 3인	착수보고
5회	4. 6	육아정책분야 전문가 3인(원내 멘토링)	설문 초안 검토
6회	4. 14	조사 전문가 5인	설문 초안 검토
7회	4. 30	조사업체 면접원	설무조사 면접원 교육
8회	6. 23	육아정책분야 1인, 유아교육1인, 경제 분야1인	중간보고 (연구추진 및 내용 점검)
9회	10. 8	조사 분야 실무전문가 2인	조사결과 재산출 및 오류 확인
10회	10. 28	육아정책분야 2인, 유아교육1인	최종보고 (보고서 및 정책제언 검토)
11회	11. 8	조사 분야 실무전문가 3인	조사결과 보고회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양육비용 산출 기준

본 연구에서 소비란 전반적인 소비 행동과 연관된 광의의 의미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지불 행위 혹은 금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지출'로 표기하였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28). 한편, 본 연구에서 산출되는 양육비용[23]은 크게 3가지로, 먼저는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총 양육비용과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영유아 양육비용, 가구 단위 지출 비용이 아닌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1~122).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은 다시 아동의 연령

23) 양육비용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분담금에 해당하는 '양육비'와의 구분하기 위해 '양육비용'으로 표기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28~30).

을 기준으로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과 초등(학령)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구분된다.

〈표 Ⅰ-4-1〉 양육비용 산출 기준

산출단위	양육비용 구분		표본 대상 기준	산출 대상 범주
가구	총 양육비용		막내 자녀 연령이 영유아(만0~6세)인 가구 (=영유아 가구)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학령기 이상 포함)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만 0~6세, 미취학)
아동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영유아 가구	각 연령별 아동
		초등1학년	초등1학년(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육아 가구)	

주: 초등은 초등1학년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여 산출.
자료: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연구, pp.121-122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양육비용 산출 방식은 1차년도 연구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는 정의이나,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상의 기준 통일을 위해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 집단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영유아 가구 표본[24]을 원표본으로 구축한 이후, 2차년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가구용 설문 조사의 응답 기준이 되는 막내 자녀의 연령이 해마다 1세씩 증가하여, 3차년도 연구에서는 초등2학년(만8세)까지 확장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조사 표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표본 가구에 대해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양육비용을 산출할 경우, 전체 표본에서 초등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과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총 양육비용 등이 과대 산출될 위험이 있다. 즉, 통상 영유아 자녀에 비해 초등학령기 자녀의 양육비용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양육비용이 높은 표본 가구의 비중과 수가 많아져서 총 양육비용을 과대 산출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인 가구만을 남긴 상태에서 재산출하여 보정하였다. 이로 인해 1~3차년도(2018~2020년) 양육비용이 전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양육비용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산출 방식의 변경이 아닌 표본

24)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만0~6세, 미취학)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정의됨.

집단의 변경에 따른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즉, 이 연구의 총 양육비용은 막내 자녀 연령이 영유아(만0~6세)인 영유아 가구의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학령기 이상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25)]

나. 육아서비스 및 비대면 육아서비스의 범주

'육아서비스'는 보육·교육서비스를 포함해 자녀 양육과 관련해 영유아 가구가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의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정원·이정림·김태우, 2018: 31)이다.

2차년도 연구까지는 양육비용 연구와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가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육아서비스 수요 부분에서 비용(현금)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이정원·이정림·김태우, 2018: 31), 3차년도 이후 연구과제 통합에 따라 육아서비스에 비용(현금) 지원 부분은 제외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일러두기). 또한, 3차년도 연구 이후 설문 분량 축소를 위해 응답 빈도가 낮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의 육아지원 프로그램, 공간 지원 등도 아동용 설문 조사에서 별도 조사 하지 않았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b: pp.403~432). 반면, 2차년도 이후 추적 조사로 인해 확장된 표본인 초등 아동용 조사에서는 방과후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시간제 사교육 활용과 관련된 설문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b: pp.403~432).

올해 연구인 4차년도 조사에서는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설문을 보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육아서비스'란 가족 이 외의 타인과 대면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육아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앞서 정의된 '육아서비스' 이 외에도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가정 내 돌봄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반일제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학교 등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현황도 조사하였다.

25) 영유아 양육비용과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또한 영유아 가구 표본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정의상 초등이상 학령기 자녀의 양육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집단 조정(전체표본→영유아 가구표본)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음.

〈표 Ⅰ-4-2〉 육아서비스 범주

구분			영유아	초등
육아 지원	서비스 지원	기관 보육·교육	반일제 이상(어린이집/유치원)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일시보육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등	
		개별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아이돌보미, 혈연 도우미	
	시간 지원		육아휴가·휴직, 가족돌봄 휴가·휴직, 유연근무	
	가정 내 돌봄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 부모 지원 서비스	
사교육	반일 이상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단시간 학원	
			기타 사교육 :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형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p.31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b).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Ⅲ) -부록-, p.403~432 (아동조사 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대표적인 비대면 사교육 서비스로는 비방문형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재교구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애초 대면으로 제공받는 사교육 서비스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활용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즉, 본 연구의 비대면 육아서비스란 1~3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었던 육아서비스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며, 육아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대면인지 비대면 방식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만, 기존의 육아서비스에 더하여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과 관련된 육아 지원 영역을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 양육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이용한 물품 및 미디어 콘텐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모두 비대면 육아서비스 영역에서 포괄하여 조사하였다. 즉, 도서/교재 등을 구입 혹은 대여하여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동과 함께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 돌봄의 일환으로 미디어 혹은 전자 매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장난감이나 교구를 구매 혹은 대여하여 자녀와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모두 비대면 육아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모 교육, 육아 상담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서비스 또한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에 포함된다.

〈표 Ⅰ-4-3〉 비대면 육아서비스 범주

구분		내 용
교육/보육	반일제 이상 기관, 학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정규)수업
	공공 돌봄(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긴급 돌봄
	사교육 서비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단시간 학원
		비방문형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육아용품 구매/대여	장난감, 도서, 교구, 물품 꾸러미 등
	미디어 콘텐츠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부모 지원 서비스		(비대면) 부모 교육, 부모 커뮤니티, 육아상담 등

주: 교육/보육 부문은 기존의 육아서비스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이며, 육아용품 구매/대여, 부모 지원 서비스는 1차년도 연구에서 육아 지원 영역으로 일부 내용을 다루었음.

다. 연구 대상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범위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범주에 연동하여 결정된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가구를 '영유아 가구'로 지칭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일러두기). 즉, '영유아 가구' 내에는 영유아 자녀 이 외의 초등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후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였으므로, 가구 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0세~초등1학년(만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없는 가구가 추적 표본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가구를 포괄하여 '육아 가구'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일러두기).

3차년도 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를 모두 추적 조사함과 동시에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여, 가구 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0세~초등2학년(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올해 조사인 4차년도 조사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표본은 가구 내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0세~초등1학년(만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이다.

다시 말해서, 추적 표본 가구를 결정짓는 기준인 막내 자녀의 상한 연령을 기준

으로 1차년도는 만6세(영유아 가구), 2차년도와 4차년도는 초등1학년(만7세), 3차년도는 초등2학년(만8세)이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상의 안정성 및 결과 수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 양육비용 산출 결과의 분석 대상 범위를 영유아 가구에 국한하였다. 반면, 아동 단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는 조사된 표본을 최대로 활용하여 산출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막내 자녀 연령이 초등1학년(만7세) 이하인 육아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26]

26)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의 범주가 바뀜에 따라 전년도 보고서에 보고된 결과 값과 본 연구의 결과 값이 차이를 보임. 단,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개요 부분에서는 그 간의 연구 수행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당해연도 조사 표본 전체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II

연구 배경

01 선행 연구 고찰

02 육아 지원 정책 동향

Ⅱ. 연구 배경

1. 선행 연구 고찰

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 변화와 정책 효과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인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분석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된 선행연구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의 소비 변화를 주로 관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집계 자료를 활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가구의 소비 패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초기 확산 단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긴급조치(shut down)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노동자 입장에서 실직 위험의 증가)와 소득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급격한 사회·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밝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에서 저소득(혹은 저임금), 저학력, 여성 등이 더 위험한 집단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2020)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가구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transaction-level 가구 재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다.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2월 26에서 3월 10일 사이)에서 가계 지출은 특히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신용 카드 사용과 식품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였다(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10 & 22). 그러

나, 이 후 미국 전역에 감염병이 확산되면서는 오히려 소비가 크게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11 & 22~24).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지역은 요식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13).

한편, 비교적 빠르게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 변화를 살펴본 연구인 장재영(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는 위축된 것이 맞지만, 비대면 소비활동(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주목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됐던 3월과 8월의 온라인 판매액이 전년 최고치였던 11월 판매액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재영, 2021: 5). 반면, 오프라인 판매액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소매 판매액이 큰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장재영, 2021: 5). 즉, 코로나19로 인한 지출감소가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 효과를 상쇄했으며, 반대로 훨씬 크게 급감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의 침체가 온라인 소비로 인해 일정 부분 방지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장재영, 2021: 6~8). 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온라인 판매는 품목별로 상이한데,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농축산물, 생활용품, 가구, 음식 서비스 등과 같은 실내 활동 관련 품목은 크게 증가하고,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 의복, 신발 등의 품목은 온라인 판매액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장재영, 2021: 9).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2020)[27]은 코로나19가 고용과 생계 부양 능력, 가족생활과 건강 등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수준,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집단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요식업, 여가서비스, 예술분야, 비약품 분야 소매업 등)에 여성, 청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었다(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 2020: 8[28]).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mothers)의 실직 혹은 사직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 2020: 8[29]). 반

27)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28)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면, 고소득,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용이하고, 뜻밖의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저축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 2020: 23[30]).

Piyapromdee, S. & Spittal, P.(2020)는 코로나19가 근로자의 소득, 자산, 가구 특성 등을 통해 영국의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논문으로, 가구 패널 자료(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를 활용하고 있어 가구 소비 패턴 변화와 관련한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iyapromdee, S. & Spittal, P.(2020)에 따르면, 저학력자와 저연령 근로자가 실직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여성의 실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9~11). 결과적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20). 반면, 고소득 가구들은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하여 소득의 감소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 속에서도 소비 수준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21). 즉, 팬데믹 상황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불평등은 결국 소비의 불평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24). 이에 더하여, Piyapromdee, S. & Spittal, P.(2020: 29)는 영국의 고용 유지 지원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과 미국의 긴급 수당 지원(Economic Impact Payment)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미국의 일시성 지급이 소비수준을 유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지만, 노동시장의 혼란이 장기화 될 경우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영국의 CJRS는 보다 장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장기간 소비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았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29).

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2020)은 긴급조치로 인해 경제활

29)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30)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31) 단, Piyapromdee, S. & Spittal, P.(2020: 9)에 따르면,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필수노동자에 흑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아시안계 혹은 혼혈 근로자는 흑인에 비해 3배나 실직 확률이 높음.

동이 제약된(Shut-down) 3개월 간 아일랜드의 실업 발생을 예측하고, 이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동과 재정 지원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2020)에 따르면, 긴급조치가 시행된 3개월간 실업이 약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위 가정을 적용한 경우 즉 약 60만명이 실직할 것을 가정했을 때, 재정 지원이 전혀 없을 때(시나리오 A) 국가재정은 소득세 감소 등으로 분기당 41억 유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 2020: 8). 반면, 긴급 실업 수당(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시나리오 B)를 지원하게 되면 재정 부담은 48억 유로로 더 증가하게 되나, 일시적인 임금 보전책(Temporary Wage Subsidy Scheme)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시나리오 C: PUP + TWSS) 시나리오 B와 비교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 2020: 8). 이때, 정책적 개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 40만 가구가 가처분 소득이 2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주당 350 유로의 PUP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그 비중이 약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 2020: 8~9). 그런데, 이러한 재정 지원의 효과는 미혼 가구의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나며,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 2020: 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필수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 소비 증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구의 소비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 가구의 가계 지출과 양육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효미(2021: 2)에 따르면, 육아 가구의 가계 소비 지출과 양육비용 또한 코로나19 전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 가구의 소비 감소는 주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 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더 큰 특징을 보였다(최효미, 2021: 2~3).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최효미, 2021: 2~3).

〈표 Ⅱ-1-1〉 코로나19 전후 가계소비 및 양육비용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연도)	대상 국가	주요 분석 대상	주요 내용
장재영 (2021)	한국	온라인 소비 변화	-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시기의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크게 증가. - 온라인 소비 증가가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감당함. - 품목별로 식품, 가전 등 실내활동과 관련된 품목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
최효미 (2021)	한국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 육아 가구의 가계소비 및 영유아1인당 양육비용은 코로나19 이후 소폭 감소함.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감소는 주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 감소에 기인함. -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이 높아져,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했음을 짐작케 함.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미국	시기별 소비 지출액 분석 (transaction-level 가구 재정 데이터를 활용)	-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2월 26에서 3월 10일 사이)에서 가계 지출은 특히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식품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 - 이후 전역에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소비가 크게 급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지역은 특히 요식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소비가 급감하였음.
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2020)	아일랜드	실업발생, 재정소요, 가처분소득 변화	- 실업수당형태의 지원은 재정 소요액이 크나,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단,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재정지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효과가 제한적임.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2020)	영국	생활 각 영역(고용, 재택근로, 교육투자, 건강 등)에서의 불평등	- 여성, 청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음.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실직 혹은 사직 확률이 높음. - 고소득,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 확률이 높으며,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여 가계 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큼. -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Piyapromdee, S. & Spittal, P.(2020)	영국	소득, 자산, 가구특성에 따라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	- 저학력자와 저연령 근로자가 실직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여성의 실직이 높음. - 모든 가구의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불평등은 결국 소비의 불평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됨. - 미국의 일시성 비용 지원(EIP)은 단기적으로 소비수준 유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지만, 노동시장의 혼란이 장기화 될 경우 효과성이 낮음. 반면, 영국의 CJRS는 보다 장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장기간 소비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님.

주: 논문의 표기 순서는 저자명 기준으로 가나다ABC 순임.

자료: 1) 장재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KISDI Perspectives, 2021년 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최효미(2021).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육아정책연구소.
3)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The Review of Asset Pricing Studies, 10(4), 834-862.
4) Beirne K., Doorley, K., Regan, M., et al(2020). The Potential Costs and Distributional Effect of Covid-19 Related Unemployment in Ireland. Budget Rerspectives 2021, Paper 1.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ESRI).
5)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et al(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 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6) Piyapromdee, S. & Spittal, P.(2020).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Covid-19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Fiscal studies, 41(4), 805-827.

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2020년 코로나19 감염위험 발생 후 육아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실태와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감염위험단계별 시기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말 시점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의 7월초 시점의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18)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3월 말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9%가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62), 기관이용은 영유아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64). 7월에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 6월 한달 간 자녀가 이용한 주된 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모직접양육의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자녀돌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모 함께 돌봄의 비율도 33.2%로 응답되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66).

한편 일하는 부모의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이용에 있어서는 모의 이용률이 부에 비해 높은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 2020: 71).

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2020)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살펴보면서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재원하는 기관이 휴원 또는 휴교하는 기간 동안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본 비율과 부모외 돌봄(조부모, 육아도우미, 기관 긴급돌봄 이용 등)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부모 직접 돌봄의 비율이 62.0%로 부모 외 돌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직접 돌본 경우 어머니가 돌본 비율이 80%로 어머니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 2020: 130).

한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 돌봄 외에는 기관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가 25.6%, 사교육 기관 이용 15.9%, 아이 혼자 있음 14.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0.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6.4%, 지역사회 공동육아

1.9% 순으로 나타났다(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 2020: 132).

영유아 및 초등2학년까지의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3차년도 연구에서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서비스의 이용 및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93~196).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을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밖에 어머니의 연월차 사용 38.6%, 아버지의 연월차 사용 22.3%, 아이 혼자 둠 20.5%, 긴급돌봄센터 이용 18.5%, 부모 중 한 명의 육아휴직 사용 18.3%, 부모 중 한 명의 재택근로 사용 15.1%, 어머니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 14.9% 순으로 응답되었다. 세부적인 응답 항목으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가장 많으나, 어머니·아버지의 휴가, 휴직, 재택근로 등의 사용을 통한 '부모 직접 돌봄'의 형태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부모가 직접 돌본 형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2020: 13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할 경우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휴가와 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94) 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2020), 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2020)의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과이다.

전국의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모의 직접 돌봄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전 맞벌이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5시간 3분을 썼으나, 코로나19로 휴원, 휴교사태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이 외부 유급 돌봄시설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47분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은기수, 2020: 40).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시간은 이 보다도 더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에 하루 평균 9시간6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12시간 38분으로 절대적 시간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부부간 분담비율에서도 전업주부의 분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은기수, 2020: 41). 즉,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은 일하는 부모뿐 아니라, 전업 주부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은기수, 2020: 48).

한편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의 연구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동일한 패널가구에 대해 매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연령 및 연도에 따른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3차년도 조사인 2020년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에는 영유아 대상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단시간 학원과 같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비대면형 사교육(비방문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등)의 이용은 증가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66-167). 초등 1,2학년 학생의 경우도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2차년도 조사에 비해 2020년 3차년도 조사에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통신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유형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집체교육을 기피하는 경향과 반대로 비대면, 소그룹, 일대일 방식의 사교육을 선호하게 되면서 발생한 변화로 분석되었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85).

〈표 Ⅱ-1-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관련 선행연구

저자(연도)	조사대상	주요 내용
은기수(2020)	전국의 만0~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남녀	- 코로나 19 이후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양적 증가 -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시간 양적 증가 및 부부간 자녀 돌봄 비율의 불균형 심화
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2020)	막내 자녀 연령이 10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이 맞벌이 가구의 부모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시 부모가 직접 돌본 비율이 62.0%, 부모직접돌봄 시 어머니의 기여가 80%
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2020)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만0~9세)의 주 양육자 1차(3월)/ 2차(7월) 두차례 조사 실시	- 코로나상황 전후로 약 59%가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경험. -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시 가정내 부모직접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 - 부모직접양육시 어머니의 자녀돌봄 비율이 높으나, 2차 조사에서 부모 함께 돌봄 비율이 상승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2018년에 구축된 영유아가 있는 가구 패널 추적 조사(3차년도)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시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부모의 직접돌봄 위주(부모의 휴가, 휴직, 유연근로, 가족돌봄휴가 등 이용)로 자녀 돌봄 실시. - 휴가, 휴직, 유연근로, 가족돌봄휴가 이용 비율이 모에 편중 - 영유아의 기관 이용 비율 1,2차년도 대비 하락 - 단시간사교육 이용 비율 하락 - 비대면형 사교육 이용 다소 증가

주: 저자명 기준 가나다순.
자료: 1)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2) 조숙인·김나영·장미나 외(2020).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
3) 최윤경·박원순·최윤경 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4)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2. 육아 지원 정책 동향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 통상적인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현황이 매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차수 조사 이후 크게 변동한 정책 혹은 당해연도 연구에서 심층 분석 혹은 시의성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과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에 보다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변화한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원 정책과 비대면 육아서비스, 특히 가정 내 돌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올해 심층 분석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DB한 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동향

1) 비용 지원 정책

코로나19 육아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있었던 '아동돌봄쿠폰'을 들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4월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 가구에 대해서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32]). '아동돌봄쿠폰'은 주요 카드사(8개)를 통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며, 대체로 돌봄포인트로 지급(총 197개시군구, 94.7%)되었으나, 32개 시군구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33]).

한편, 2020년 9월 4차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아동 틀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지원'이 실시되어,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9. 25: 1). 2020년 9월의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1차 '아동돌봄쿠폰' 지원에 비해 지원 대상 연령이 중학생 학령기 아동까지를 포괄하며 크게 확장되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472 (인출일: 2021. 6. 23.).
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472 (인출일: 2021. 6. 23.).

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령기 아동의 경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중학생 학령기 아동의 경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9. 25: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돌봄쿠폰'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원되었으며,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지원되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9. 25: 1).

〈표 Ⅱ-2-1〉 코로나19 관련 육아 분야 비용 지원 정책 (2020년 중앙 정부)

구분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수준	재원	지원방식
아동돌봄 쿠폰	2020.4	아동수당 수급 아동 (0~83개월)	아동 1인당 40만원	전액 국비	- 카드사(8개) - 시군구별로 돌봄포인트 혹은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	2020.9	중학생 학령기 이하 아동	미취학: 1인당 20만원 초등 :1인당 20만원 중등 : 1인당 15만원	전액 국비 (4차 추경예산)	- 미취학 : 아동수당 계좌 - 초/중등: 스쿨뱅킹 계좌 - 학교밖: 신청 기준 - 복지시설 거주 아동 : 디딤씨앗통장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 https://www.korea.kr/ 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472 (인출일: 2021. 6. 23.).
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0. 9. 25.).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이 외에 시군구별로 별도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시행 중인 광역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자료는 17개 시도 홈페이지 및 코로나 지원금 관련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DB화하여 분류 및 정리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부표 3-1〉에 제시하였으며, 출처는 부표의 하단에 정리하였다.[34]

본 연구가 육아 가구에 대한 연구이므로, 17개 시도의 코로나19 지원 비용 지원 또한 육아 가구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노동자 중심의 비용 지원 정책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17개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중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제외하되, 프리랜서나 예술인(1인)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였으며, 가구 또는 가구원에 대한 지원을 한정하여 정

34) 본문은 DB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출처는 부표 하단에 제시하고 별도의 부록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였음.

리하였다. 단, 지원내용은 현금 또는 현물지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 등은 제외하였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지원과 근로자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지원에는 해당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령),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일반(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시도민 전체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일반(재난지원금)으로 분류하였다. 근로자에는 대상에 따라 예술인 대상인 근로자(예술), 운수업 종사자 근로자(운수), 비정규직, 프리랜서, 실직자, 특수고용형태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취약),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기타)로 분류하였다.

DB화 된 자료의 분석 결과, 시도에 따라 서울이 9개로 지원 사업의 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7개, 광주 6개, 경기 5개, 경북 5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과 충북은 관련 사업이 없었다. 예술인 지원은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6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원금은 동일하게 50만원이었다. 운수업 종사자 지원은 서울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7개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기사는 서울,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남이 지원하고 서울만 지원금이 100만원이고 나머지 시도는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전자는 인천, 광주, 전남, 경북이 지원하며 인천은 100만원 나머지 시도는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주는 유일하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정책은 울산, 경기, 전북이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은 세대별로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와 전북은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35].

35) 보고서 가독성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출처 또한 〈부표 3-1〉에 제시된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Ⅱ-2-2〉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단위 : 건

시도	일반				근로자				계
	일반	연령	취약계층	재난지원	예술	운수	취약	기타	
전체	10	5	7	3	6	11	6	1	49
서울	1	4	1	0	0	1	2	0	9
부산	0	0	0	0	1	0	1	0	2
대구	0	0	1	0	0	0	0	0	1
인천	0	0	0	0	1	2	0	0	3
광주	0	0	1	0	1	3	1	0	6
대전	–	–	–	–	–	–	–	–	–
울산	1	0	1	1	0	0	0	0	3
세종	1	0	0	0	1	0	0	0	2
경기	1	0	2	1	0	0	1	0	5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0	0	0	0	0	1	0	0	1
전북	1	0	0	1	0	0	0	0	2
전남	0	0	0	0	1	2	0	0	3
경북	2	0	1	0	0	1	0	1	5
경남	3	1	0	0	1	1	1	0	7
제주	–	–	–	–	–	–	–	–	–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부표 3-1〉 표 각주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표 Ⅱ-2-3〉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단위 : 만원

시도	예술인	운수업 종사자			재난기본소득[1]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운전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서울	·	100	·	·	·
부산	50	·	·	·	·
인천	50	50	100	·	·
광주	50	50	50	50	·
울산	·	·	·	·	10
세종	50	·	·	·	·
경기	·	·	·	·	10
충남	·	50	·	·	·
전북	·	·	·	·	10
전남	50	50	50	·	·
경북			50	·	·
경남	50	50	·	·	·

주: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울산은 세대별 10만원이며, 경기와 전북은 1인당 10만원임.
자료: 정리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부표 3-1〉 표 각주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각 시도의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표 3-1〉에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각 시도가 2021년 6월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원 사업 중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비대면 학습 지원'과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경북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사업 정도만이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비대면 학습 지원'의 대상자는 청소년(만13~15세, 중학생)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육아 가구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36]). 서울시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은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라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원(최대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37]). 경북의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사업은 만12세이하 자녀를 위해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경상북도 홈페이지[38]).

〈표 Ⅱ-2-4〉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6월 기준)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서울	일반(연령)	비대면 학습지원	청소년(만13~15세)	중학생 1인당 15만원
서울	일반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최대 75만원)
서울	일반(연령)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
경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서비스요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 적용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 납부 후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자료: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2)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BD_CODE=bbs_gongji&cmd=2&B_NUM=74330001&B_STEP=74330000&V_NUM=) (인출일: 2021. 6. 13.).

3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3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38)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BD_CODE=bbs_gongji&cmd=2&B_NUM=74330001&B_STEP=74330000&V_NUM=) (인출일: 2021. 6. 13.).

2) 어린이집, 유치원 온라인 수업과 놀이 꾸러미 활동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경우, '키즈노트' 등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를 사용하여 가정 내 보육활동과 소통을 진행해왔다(베이비뉴스, 2020. 9. 3.[39]).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가정에 어린이 안전예방수칙, 기본생활 습관 등의 교육 자료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아이의 하루일과와 가정생활 등을 공유하여 장기간의 보육 공백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쌍방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베이비뉴스, 2020. 9. 3.[40]).

어린이집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시청과 연계해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집 유아들의 배움 지원을 위해 '빛고을 e-놀이터·이야기 선물·집콕 놀이꾸러미' 등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에듀인뉴스, 2020. 7. 17.[41]). 광주시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 부모의 가정돌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유치원 원격수업을 위한 가정연계 놀이 콘텐츠를 어린이집에도 제공하였다(에듀인뉴스, 2020. 7. 17.[42]).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유치원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2021년 1월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및 교육부 포털(i-누리)사이트에 탑재되어 희망하는 교원, 학부모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21. 1. 17.[43]).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별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원격교육을 도입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포털(i-누리)사이트는 '배움 누리', '나눔 누리', '도움 누리', '소통 누리', '학부모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배움 누리'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

39) 베이비뉴스(2020. 9. 3.). 키즈노트, 코로나19 속 어린이집·유치원 원격수업 대안으로 주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1 (인출일: 2021. 7. 2.).
40) 베이비뉴스(2020. 9. 3.). 키즈노트, 코로나19 속 어린이집·유치원 원격수업 대안으로 주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1 (인출일: 2021. 7. 2.) 내용을 재구성함.
41) 에듀인뉴스(2020. 7. 17.). 다양한 유아 콘텐츠 로그인 없이 이용,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광주시청과 원격수업 협치 실현,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 (인출일: 2021. 7. 2.).
42) 에듀인뉴스(2020. 7. 17.). 다양한 유아 콘텐츠 로그인 없이 이용,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광주시청과 원격수업 협치 실현,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 (인출일: 2021. 7. 2.).
43)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21. 1. 17.). 2021 유치원 원격교육은 이렇게,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516&step1=3&step2=1#none (인출일: 2021. 7. 2.).

련하여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자료」,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부모 지원자료」, 「놀이꾸러미 목록 및 관련 자료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자료를 재조직하여 놀이꾸러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자료」는 원격교육을 위한 준비 자료와 디지털 자료 활용 및 소통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부모 지원자료」는 가정에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와 정서지원, 올바른 미디어의 사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44].

포털(i-누리)사이트 '배움 누리'에서는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계절별·월별 놀이꾸러미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놀이 활동을 위한 동영상 등 지원하고 있다. '배움 누리'를 통해 「계절놀이그림(봄, 여름, 가을, 겨울)」, 「놀이지도(봄, 여름, 가을, 겨울)」, 「놀이카드(봄, 여름, 가을, 겨울)」를 놀이꾸러미 형태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i-누리 포털사이트[45]).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놀이꾸러미는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배부되는 일종의 교구로서, 유아가 집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놀이하거나 가정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상상을 더 해 다양한 놀이를 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이다. 유치원에서 교사는 국가 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기초하여 놀이꾸러미를 구성하고 각 가정으로 배부하며 유치원 상황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주 단위로 배부된다(김은영·강은진·권미경 외, 2020a).

포털(i-누리)사이트의 '나눔누리'에서는 코로나19대응 가정연계놀이의 일환으로 시도별 긴급돌봄 정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 유아교육진흥원도 놀이꾸러미 형태(예,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집콕놀이 보따리',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방콕 꾸러미')의 활동자료나 유아 놀이 교재·교구 대여 서비스(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를 시행하고 있다(i-누리 포털사이트[46]).

각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및 놀이꾸러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

44) i-누리 포털사이트, http://i-nuri.go.kr (인출일: 2021. 7. 2.).
45) i-누리 포털사이트, 배움누리, https://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60&manage_idx=66 (인출일: 2021. 7. 2.).
46) i-누리 포털사이트, 나눔누리,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2021. 7. 2.).

〈표 Ⅱ-2-5〉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지원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서울	집콕 놀이	256,825
부산	안전나라 여행	집콕놀이 보따리
세종	재미있는 놀이	유아생태놀이 프로그램
대구	진흥원 놀이터	놀이꾸러미 4종
인천	방콕놀이, 오늘은 뭐 먹을까, 책읽어주는 엄마	방콕 꾸러미
광주	빛고을, e-놀이터, 온라인 나눔밴드	북 드라이브 스루, 놀이감 드라이브 스루, 집콕 놀이 꾸러미, 희망씨앗 및 건강 3종세트
대전	집콕놀이	교육자료 대여서비스
울산	뭐하고 놀지	놀이보따리 책보따리
경기	해아뜰 놀이자료	놀이마켓 서비스, 해아뜰드림 놀잇감
강원	오늘뭐해? 집에서 놀이해 등	
충북	신나게 놀자	교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충남	집안도서관, 집안놀이터, 집안 공부방	
전북	애들아 마음껏 놀자, 아이 숲 좋아	유아놀이 교재교구 대여서비스
전남	재미팡, 놀이팡	재미주리 옛놀이
경북	놀이활동코너, 교재도서 대여 서비스 등	
경남	가정학습 자료 지원	도서 대여 및 놀이자료 택배 서비스 등
제주	가정에서 놀아요, 와글와글 놀아샘의 놀이자료	도서, 가족놀이 지원

자료: i-누리 포털사이트, 도움누리, 코로나19 대응 가정연계놀이,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2021. 10. 25.).

한편 포털(i-누리)사이트의 '학부모 코너'에서는 부모 놀이 워크숍, 자녀와의 놀이방법, 놀이 기획방송, 놀이 자료에 대한 소개, 전국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홈페이지 주소 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는 2021년부터 EBS 홈페이지를 통해 EBS '우리 집 유치원' 콘텐츠 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놀이' 코너, '가정통신문', '부모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 부모들은 긴 시간 유아와 함께 가정에서 지내는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은영·강은진·권미경 외, 2020b).

코로나19 상황으로 앞당겨진 유아의 원격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부의 2020년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이 초·중등교육에도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유치원이 지원하는 확장된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김은영·강은진·권미경 외, 2020a: 6~7).

3) 맞춤돌봄 교실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계획을 통해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설명자료, 2020. 2. 14.[47]).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과 후 과정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돌봄은 학부모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아침·저녁 돌봄 등 방과 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전면 전환이 아니어도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쉼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과 후 과정 참여는 맞벌이, 저소득, 한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우선하여 보장하고, 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참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나.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Work-Life Balance)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로 구분된다. 이들 유연근무제 유형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48]). 유연근무제도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연근무제도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연구인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41~50)에서 이미 자세히 제도를 설명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은 생략하였다.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유연근무제의 실제적인 활용이 2020년 2월 25일 지원

47) 교육부 설명자료(2020. 2. 14.).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97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 (인출일: 2021. 7. 2.).

48)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지원, http://worklife.kr/website/index/m2/support2.asp (인출일: 2021. 5. 11.).

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에 대폭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6.[49]).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절차 간소화 이후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서 3,792명(2020.2.25.~3.5 기간 동안 전체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중 60.8%)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 유연근무제 형태의 지원신청은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6.[50]).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해 2018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에서 유연근무제도 중 어떠한 것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74.4%에 달하는 것에 비해(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 2019)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활용 인원의 변화는 코로나19이전과 이후에서도 크게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이재용·김정숙, 2020).

〈표 Ⅱ-2-6〉 코로나19 전후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과 탄력근무 활용 인원

구분	2019년		2020년		
	총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탄력근무제 활용인원	총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변화율 (2019-2020년)	탄력근무제 활용인원
전체	56,742 (100.0%)	53,482 (94.3%)	103,776 (100.0%)	82.9%	70,788 (68.2%)
광역	21,018 (100.0%)	20,766 (98.8%)	47,832 (100.0%)	127.6%	29,315 (61.3%)
기초	35,724 (100.0%)	32,719 (91.6%)	55,944 (100.0%)	65.0%	41,473 (74.1%)

자료: 이재용·김정숙(2020). Post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8.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 지원 정책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이 크게 수정, 확대되었다. 2021년 기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연간 20일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25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51]).

4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3. 6.).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278 (인출일: 2021. 6. 23.).
50)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3. 6.).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278 (인출일: 2021. 6. 23.).
5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2019년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Ⅱ-2-7〉 육아 시간 지원 정책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2021)

구분	개정일 (시행일)			
	2019. 8. 27 (2019. 10. 1)	2020. 9. 8 (2020. 9. 8)	2020. 12. 8 (2020.12.8.)	2021.5.18. (2022.5.19.)
출산전후 휴가 등에 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일수 10일로 확대 -청구기한 확대 -분할 사용 -불이익처우 금지 등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상향 (1회→2회)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시간 상한 조정 (30→35시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분할 사용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 -자녀 양육 돌봄 사용 사유에 포함 -불이익 처우 금지 등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휴가일수 연장 (10일→20일) -한부모가족 휴가 일수 연장(25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법 비교, https://www.law. go.kr/LSW/LsiJoLinkP.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200002# (인출일: 2021. 11. 1.).

한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용 지원이 이워지고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연장 시행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1. 7. 11.[52]). 이러한 비용지원을 통해 2021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1일 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1. 7. 11.[53]).

52)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1. 7. 11.).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8 (인출일: 2021. 10. 25.).

다. 가정 내 돌봄 지원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1) 장난감 대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지원하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이다. 실제적인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 대여 서비스 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 계획 및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54]).

〈표 Ⅱ-2-8〉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서비스 센터 현황 (분소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센터 수	82	86	92	98	109
사업장 수	162	196	201	215	231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운영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인출일: 2021. 7. 1.).

전국적으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오히려 대여 건수와 이용자 수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9년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 대여 실적은 대연건수 295만5,545건, 이용자수는 200만3,11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대여건수 130만6,366건, 이용자 수 77만2,83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55]).

53)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1. 7. 11.).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8 (인출일: 2021. 10. 25.).
5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운영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인출일: 2021. 7. 1.).
5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운영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인출일: 2021. 7. 1.).

〈표 Ⅱ-2-9〉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 실적

단위 : 건, 명

지역	총계		장난감		도서	
	대여건수	이용자수	대여건수	이용자수	대여건수	이용자수
총계	12,023,319	8,515,023	9,192,536	6,329,848	2,830,783	2,185,175
2016년	2,404,090	2,017,612	1,911,887	1,437,399	492,203	580,213
2017년	2,574,168	1,764,788	1,990,377	1,371,891	583,791	392,897
2018년	2,783,150	1,956,665	2,094,530	1,448,340	688,620	508,325
2019년	2,955,545	2,003,119	2,220,351	1,467,788	753,194	535,331
2020년	1,306,366	772,839	975,391	604,430	330,975	168,409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운영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인출일: 2021. 7. 1.).

2) 도서대여

도서 대여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 작은도서관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4일 시행되었다. 작은도서관법은 제1장 제3조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56].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여주시도서관의 경우 '책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통해 책 소독기로 소독이 완료된 상태의 책을 대여하고 있으며(동아일보, 2020. 3. 31.[57]), 부산 사상구의 사상도서관에서는 '임산부·영유아 도서배달 서비스'를 통해 사상구 내 임산부나 영유아(12개월) 가족에게 임산부 도서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부산 사상도서관 홈페이지[58]) 경기도 안산시 안산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도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소장도서를 택배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안산시 안산상록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59]).

56)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0504&lsiSeq=180691#0000 (인출일: 2021. 7. 1.).)

57) 동아일보(2020. 3. 31.). "책 배달됩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https://29street.donga.com/article/all/67/2025713/1 (인출일: 2021. 7. 1.).

58) 부산 사상도서관 홈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도서배달,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504007002000 (인출일: 2021. 7. 2.).

59) 안산시 안산상록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내 생애 첫 도서관, https://lib.ansan.go.kr/firstlibrary.do?sitekey=5&gwan= (인출일: 2021. 7. 2.).

도서대여 이외에도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마포구 내 정보소외계층 중 초등학생 이하(독서능력 기준)의 대상에게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마포구립서강도서관 홈페이지[60]).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에도 '행복나눔 찾아가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정보의 수혜가 어려운 수원시내 시설원과 복지관 내 기초생활수급자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책나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61]).

3) 부모 지원 서비스 :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등

한편, 부모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여러 부처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전달체계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교육부 산하의 유아교육진흥원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이미화·김은설·김길숙 외, 2016: 5).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분화된다.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62]).

한편, 부모교육에 대한 여러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부모교육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교육 강의실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강의용 매뉴얼과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의 발달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60)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홈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https://mplib.mapo.go.kr/sglib/MENU1207/CONT4067/contents.do (인출일: 2021. 7. 1.).
61)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https://www.suwonlib.go.kr/intro/guide02.asp (인출일: 2021. 7. 1.).
6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전달체계도,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40/contents.do (인출일: 2021. 6. 30.).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63]). 해당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모교육강사 메뉴얼(서면자료)은 공통영역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부모, 학령기 부모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소년 예비부모와 성인 예비부모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64]). 이와 더불어 아버지, 가족 특성별, 주제별 상담에 대한 특화된 자료도 제공된다. 부모교육 동영상 자료는 자녀의 생애주기와 자녀가 속한 가족특성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비동거 가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65]).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한 예로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자녀를 위해 자녀의 연령 (12개월 이하, 48개월 이하, 만 12세 이하)에 따라 필요한 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6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비대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대면 부모교육은 유튜브에 탑재된 온라인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의 신청에 따라 관련 놀이키트(꾸러미)를 보급하는 방식의 비대면 공통 부모교육 사업이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67]). 공통 부모교육 총 5개 주제 (클로버-부모대상,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와 연계된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모교육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놀이키트를 보급하며, 놀이키트는 온라인 콘텐츠와 연계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68]).

---

6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o?mid=mda777&cd=kps (인출일: 2021. 6. 30.).
6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o?mid=mda777&cd=kps (인출일: 2021. 6. 30.).
6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o?mid=mda777&cd=kps (인출일: 2021. 6. 30.).
6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목록, 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안내, https://yeongju.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o?seq=125560 (인출일: 2021. 6. 30.).
6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부모교육은 놀이키트 보급, 놀이자료집 보급, 놀이방법 제안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놀이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교육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69]). 2021년 기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중심의 비대면 부모교육 사업으로 '집에서도 놀(면서)자(란다)!', '놀이를 부탁해', '놀(면서)자(란다) 알(수록)자(란다)!'를 진행하고 있으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70]), 2021년에도 2020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아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10〉 2021년 기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비대면 부모교육 사업

교육구분	교육내용 (사업내용)	2020년 실적
집에서도 놀(면서)자(란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 탑재된 온라인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의 신청에 따라 관련 놀이키트(꾸러미)를 보급하는 비대면 공통 부모교육 사업	11,775회 / 121,641명
놀이를 부탁해	센터별로 선정한 다양한 놀이활동 방법을 담은 자료집 보급을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자녀놀이기회를 제공하고, 놀이 활성화를 지원하는 비대면 공통 부모교육 사업	자료집 배포 34,647부 / 놀이키트(꾸러미) 배포 20,067 건
놀(면서)자(란다) 알(수록)자(란다)!	부모·자녀의 놀이영상 관찰 후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 적절한 상호작용, 가정에서 연계·확대할 수 있는 놀이방법을 제안하고, 놀이 진행 시 부모가 느낀 어려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비대면 공통 부모교육 사업	83회 / 427명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4)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71]). 이와 관련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해당하

6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6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7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며, 연간 정부 지원시간인 840시간 한도와 별도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72]).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73]). 특별 지원 내용은 2021년 3월 2일 부터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제공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74]).

〈표 Ⅱ-2-11〉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특별지원 서비스

구분		비고
보건 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지원		-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연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단,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50%할증적용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up (인출일: 2021. 6. 30.).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은 정부 지원 신청 및 결정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는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연계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 만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 돌보미에게 인계

7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048 (인출일: 2021. 6. 30.).
7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048 (인출일: 2021. 6. 30.).
7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up (인출일: 2021. 6. 30.).
7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up (인출일: 2021. 6. 30.).

하는 이용자 준수사항이 보완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2). 이외에도 정비지원시간 확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이용제한 규정 보완, 이용자 준수사항 보완, 서비스 운영절차 명확화, 장기 대기 가정 배려 등의 기존의 시행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1~3).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시간 확대 등에 대한 개편내용은 〈표 Ⅱ-2-12〉부터 〈표 Ⅱ-2-15〉에 제시하였다. 2021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 수준 인상에 따라 각 지원유형별로 정부 지원금액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정과 이외(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가정, 장애아동 가정)를 구분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일반가정 정부 지원 비중이 85%인데 반해 일반가정 이외 가정은 정부 지원 비중이 90%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1. 19[75]). 이러한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금액 확대와 시간 확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의 가능성이 일반가정보다 더 큰 취약계층 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2-12〉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편 내용

구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편 내용		
		2020년	2021년	비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영아종일제	9,890원	10,040원	
	시간제	-일반형 9,890원 -종합형 12,860원	-기본형 10,040원 -종합형 13,050원	
	질병감염아동	11,860원	12,050원	
	기관연계	16,740원	16,870원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서비스	연 720시간	연 840시간	정부지원 시간 확대
정부지원 비율	일반가정	-시간제 '나'형 취학전 : 55% -영아종일제 '가'형 : 85% -질병감염아동 '나'형 : (취학전) 55%	-시간제 '나'형 취학전 : 60% -영아종일제 '가'형 : 85% -질병감염아동 '나'형 :(취학전) 60%	정부지원 비율 확대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별도 요금 규정 없음	-요금규정 신설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1.

7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 1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1 (인출일: 2021. 6. 30.).

〈표 Ⅱ-2-13〉 2021년 아이돌보미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시간당)

단위 : 원

시간당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2020		2021			
	전체 (일반형, 종합형 공통)		일반가정 (기본형, 종합형 공통)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일반형 A	일반형 B	기본형 A	기본형 B	기본형 A	기본형 B
가형	8,407	7,418	8,534	7,530	9,036	8,032
나형	5,440	1,978	6,024	2,008	6,024	2,008
다형	1,484	1,484	1,506	1,506	1,506	1,506

주: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47.
2)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49.

〈표 Ⅱ-2-14〉 2021년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시간당)

단위 : 원

시간당 지원금액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2020	2021	
	전체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가형	7,912	8,534	9,036
나형	5,934	6,024	6,024
다형	1,484	1,506	1,506

주: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45.
2)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47.

〈표 Ⅱ-2-15〉 2021년 아이돌보미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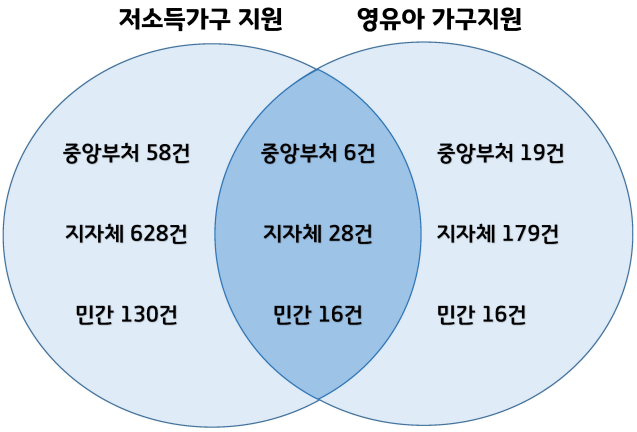
시간당 지원금액	질병감염아동지원					
	2020		2021			
	A형	B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A형	B형	A형	B형
가형	10,081	8,895	10,243	9,038	10,845	9,640
나형	6,523	5,930	7,230	6,025	7,230	6,025
다형	5,930	5,930	6,025	6,025	6,025	6,025
라형	5,930	5,930	6,025	6,025	6,025	6,025

자료: 1)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49.
2)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52.

라.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동향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정책 인지 경로로 가장 잘 알려진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 64개, 지자체 656개, 민간 146개의 사업에 달하며,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영유아 대상의 지원 정책을 검색하면 중앙부처 사업이 25건, 지자체 207건, 민간 32건의 사업이 검색되었다(복지로 홈페이지[76]). 그런데, 저소득과 영유아를 조합하여 검색할 경우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6건, 지자체 28건, 민간 16건으로 크게 줄어든다(복지로 홈페이지[77]).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복지로에 등재된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DB화하여 제시하였다. DB 구축 시 참조한 자료의 목록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단, 관련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주요 정책은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해 〈부표 3-3〉~〈부표 3-6〉에 제시하였으며, 출처도 하단에 명기하였다.[78]

[그림 Ⅱ-2-1]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정책 현황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76)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77)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78) 본문은 DB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출처는 〈부표 3-3〉~〈부표 3-6〉 하단에 제시하고 별도의 부록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였음.

1)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중앙부처)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으로 검색되는 6개의 중앙부처 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이다. 이들 사업 중 드림스타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심층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제도를 알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었다(복지로 홈페이지[79]).

79)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표 Ⅱ-2-16〉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중앙부처)

서비스명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지원대상: 만12세(초등학생)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 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사업 대상으로 추가 가능	-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발달 영역별 목표를 달성 -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등	수시	맞춤형 서비스 물품지원, 후원자 연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아동복지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선천성이상아(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청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1회성	현금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 의료비 지원(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검사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보청기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 영유아이면서 양측성 난청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난청확진검사비 - 보청기지원	1회성	현금지급	난청으로 인한 언어지능 발달장애 등 예방(모자보건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보장시설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월	전자바우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 지원대상: 저소득층가구의 영아(0세~24개월)에게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월	전자바우처	저소득층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서비스명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지원	한부모가족수급가구 대상 - 조제분유: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스포츠강좌 이용권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지원연령: 만5~18세 유·청소년	범죄피해가정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 인원 내에서 선정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월	전자바우처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지속적 스포츠 활동 기회 보장

주: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9.
2) 보건복지부(2021a). 2021 모자보건사업 안내. p.5, p.33, p.285, p.290,
3)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2020. 12.).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p.1, 6.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0 (인출일: 2021. 10. 26.).

2)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그 외)

가) 지원분야

저소득가구 혹은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분야를 정리하였다. ‘교육/보육’에는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이나, 다문화가정 언어 발달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포함하였으며, ‘의료’ 의료비, 예방접종,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포함하였다 ‘문화’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등의 지원을 포함하였으며, ‘급여(비용, 저축)’ 아동수당, 생활지원금, 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을 포함하였고, ‘식비(급식포함)’은 급식비, 우유급식, 농식품 바우처 등을 포함하였고, ‘주거’에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공동생활가정, 주택바우처 등의 지원을 포함하였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총 28건이며, 급여 12건, 식비 6건, 주거 6건, 교육/보육 2건, 의료 1건, 문화1건이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은 총 58건이며, 의료지원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급여 15건, 교육/보육 5건, 문화 4건, 식비 4건, 주거 3건이 있었다. 영유아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은 총 19건이며, 교육/보육 지원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6건, 급여와 주거 지원은 각각 1개였다.

〈표 Ⅱ-2-17〉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지원분야

단위 : 건

구분	교육/보육	의료	문화	급여 (비용, 저축)	식비 (급식포함)	주거	계
저소득 영유아 가구(지자체)	2	1	1	12	6	6	28
저소득가구(중앙)	5	27	4	15	4	3	58
영유아가구(중앙)	11	6	0	1	0	1	19

주: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혹은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나) 연령기준

저소득가구 혹은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분류하였다. 지원 대상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경우,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며,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만 분류하였다. 또한, 해당 연령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연령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연령 기준은 영아 만0~2세, 유아 만3~6세, 청소년 만7~18세, 성인 만18세 이상을 의미한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연령기준이 없는 지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대상 9건, 유아 및 영아 대상은 각각 7건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 중 연령기준이 없는 것이 34건, 청소년 대상 15건, 성인 대상 12건, 유아 대상 10건, 영아 대상 6건이며, 영유아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은 유아 대상이 16건, 영아 대상 15건, 청소년 대상 13건, 연령구분이 없는 지원이 3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2-18〉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연령기준

단위 : 건

구분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	없음
저소득 영유아 가구(지자체)	7	7	9	0	19
저소득가구(중앙)	6	10	15	12	34
영유아가구(중앙)	15	16	13	0	3

주: 1) 지원 대상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경우,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며,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만 분류하였음.
2) 해당연령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연령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함.
3) 영아 만0~2세, 유아 만3~6세, 청소년 만7~18세, 성인 만18세 이상을 의미함.
4)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혹은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다) 소득기준

저소득 혹은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 사업 내용의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대상 소득범위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기준을 가지는 지원에 대해서는 범위에 상관없이 일괄 기타로 분류하였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자체 지원 28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0건, 차상위 이하 6건,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1건, 그 외 기타는 4건, 소득기준이 없는 지원이 7건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 58건 중 차상위 이하를 대상하는 지원이 25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20건,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2건, 기타 9건, 소득기준 없음 2건이며, 영유아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 19건 중 소득기준이 없는 지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으며, 차상위 이하 지원 2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2-19〉 저소득가구 및 영유아가구 지원: 소득기준

단위 : 건

구분	기초생활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	없음	계
저소득 영유아 가구(지자체)	10	6	1	0	0	0	0	4	7	28
저소득가구(중앙)	20	25	0	2	0	0	0	9	2	58
영유아가구(중앙)	0	2	1	1	1	1	1	1	11	19

주: 1) 지원 대상 소득범위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중복없음).
2)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기준을 가지는 지원은 일괄 '기타'로 분류하였음.
3)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혹은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3)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가) 지원분야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은 총 24건이며, 지원분야에 따라 교육/보육 지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및 급여 지원이 각각 4건, 식비 및 주거 지원이 각각 3건, 문화 지원이 1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2-20〉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지원분야

단위 : 건

구분	교육/보육	의료	문화	급여 (비용, 저축)	식비 (급식포함)	주거	계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9	4	1	4	3	3	24

주: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가구상황 '한부모·조손'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나) 연령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12건, 유아대상 8건, 영아대상 6건, 성인대상 6건이며, 연령기준이 없는 지원이 9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2-21〉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연령기준

단위 : 건

구분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	없음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6	8	12	6	9

주: 1) 지원 대상이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경우,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며,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만 분류하였음.
2) 해당연령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연령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함.
3) 영아 만0~2세, 유아 만3~6세, 청소년 만7~18세, 성인 만18세 이상을 의미함.
4)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혹은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다) 소득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24건 중 소득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차상위 이하지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원 2건,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지원 2건, 기타 6건, 소득기준이 없는 지원이 1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2-22〉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소득기준

단위 : 건

구분	기초생활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	없음	계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2	13	0	2	0	0	0	6	1	24

주: 1) 지원 대상 소득범위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중복없음).
2)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기준을 가지는 지원은 일괄 '기타'로 분류하였음.
3)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서 생애주기 '영유아' 혹은 가구상황 '저소득'으로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Part I

2021년 KICCE 기초분석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01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02 설문 구성 및 변화

03 응답자 특성

Ⅲ.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1.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가. 표본 추적 및 구축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3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영유아 가구’를 패널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일반적인 가구 패널 조사와는 달리[80] 전년도 조사 성공 원표본을 기준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매해 영유아 모든 연령을 포괄하기 위해 신생아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도 조사 성공 원표본이 아닌 1차년도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경우 아동의 연령이 매해 1세씩 상승하여 신생아 및 영아 표본의 추적 조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추적 조사를 통한 패널 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매해 각 연령별 아동의 적정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추적 조사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 동질적인 가구 특성을 가진 가구로 원표본을 대체한다. 결과적으로 매해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 표본의 수가 250가구 내외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원표본 가구를 대체하는 원칙은 추적 조사에 실패하여 대체하게 된 원표본 가구와 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이 동일하고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최대한 대체 표본으로 인한 표본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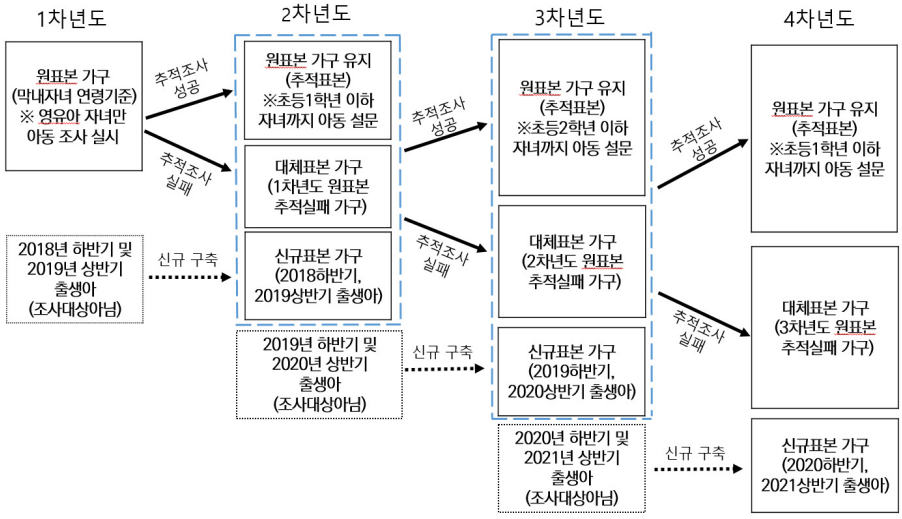
이와 함께 해마다 자녀의 연령이 1세씩 자연 증가하기 때문에, 매해 조사 자료가 영유아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년도 하반기 신생아 및 조사 당해연도 상반기 신생아를 각 125가구씩 추가적으로 신규 표집하여 구축한다. 이 같은 조사 추적

80) 일반적인 가구 패널 조사(예: 노동패널, 복지패널조사 등)의 경우 1차년도 원표본으로 구축된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형태임.

81) 단, 조사구 내에서 기존 패널 표본과 동일 특성의 가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로 확대하여 조사함.

과 대체 표본 및 신규 표본 가구 구축 원칙은 2차년도 조사 이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원칙으로 4차년도(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1~4차)



주: 가는 점선은 당해연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굵은 점선은 추적 대상 원표본 가구를 의미함.
자료: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68. [그림 Ⅲ-1-1]을 수정 보완함.

다만, 4차년도 조사의 경우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추적 조사의 대상을 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 중 '영유아 가구[82]'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년도 조사 성공 가구를 매해 추적 조사하고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기 때문에 매해 표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 1세씩 증가하여 표본이 매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표본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성이 높은 어린 연령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연령의 자녀 집단에 대한 추적 조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각 년도 원표본 가구의 기준(막내 자녀의 연령)별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 가구는 만0~6세(2018년 상반기~2012년생)까지

82)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6세 이하인 가구.

영유아 가구로, 만0세(2018년생)은 상반기 출생아만 125가구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구축된 원표본 가구를 모두 추적 조사하고 2018년 하반기 신생아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를 각 125가구 추가 구축하여,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만0세(2019년 상반기)부터 초등1학년인 만7세(2012년생)까지를 조사 대상 가구로 하였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사된 3차년도 연구는 표본이 더욱 확장되어 만0세(2020년 상반기)부터 초등2학년인 만8세(2012년생)까지를 조사 대상 가구로 하였다. 4차년도 연구는 3차년도 기준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추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내 자녀 연령이 만0세(2021년 상반기)부터 초등1학년인 만7세(2014년생)까지인 가구를 조사하였다.

〈표 Ⅲ-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나이)

출생년도	출생시기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2021	상반기				0세
2020	하반기				1세
	상반기			0세	1세
2019	하반기			1세	2세
	상반기		0세	1세	
2018	하반기		1세	2세	3세
	상반기	0세	1세		
2017		1세	2세	3세	4세
2016		2세	3세	4세	5세
2015		3세	4세	5세	6세
2014		4세	5세	6세	7세(초1)
2013		5세	6세	7세(초1)	
2012		6세	7세(초1)	8세(초2)	

주: 1) 셀 안의 연령은 만나이(생활연령)로, 당해연도 조사 당시 해당 출생년도 아동의 연령을 의미함. 연령이 기재되지 않고 사선 처리된 경우는 당해연도 조사 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2) 검은색 음영 표기 부분은 당해연도 신생아 표본으로 신규 표본 가구를 의미하며, 회색 음영 표기 부분은 초등학령기가 조사된 차수와 조사된 연령 구간을 표시한 것임.

1차년도(2018년) 가구 표본은 1,648가구였으며, 2차년도(2019년) 1,902가구, 3차년도(2020년) 2,15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4차년도(2021년)는 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7세(초등1학년)까지를 표본 대상 가구로 해서, 최종적으로 1,933가구를 조사하였다. 한편, 아동용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 수는 영유아 기준으로 1차년도 2,277명, 2차년도 2,324명, 3차년도 2,368명, 4차년도 2,401명으로, 영유아 표본 또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 내 신생아의 출생과 신규 표본

구축 과정에서 손위 영유아 자녀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수(2018~2021년)

단위 : 가구, 명

구분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가구 표본		1,648	1,902	2,156	1,933
아동 조사	영유아	2,277	2,324	2,368	2,401
	초등1학년	-	452	441	431
	초등2학년	-	-	469	-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69.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2018년) 원표본 1,648가구 중에서 2차년도(2019년) 1,243가구(75.4%)가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 추적 조사에 실패한 405가구는 원표본과 동일한 조사구 내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 자녀수, 맞벌이 가구 여부 등 가구 특성이 최대한 유사한 가구로 대체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8년 하반기 신생아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가 있는 가구를 254가구 신규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총 1,902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1,634가구(85.9%)가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고,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표본 중 막내자녀가 1,679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1,463가구(87.1%)가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

〈표 Ⅲ-1-3〉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1년)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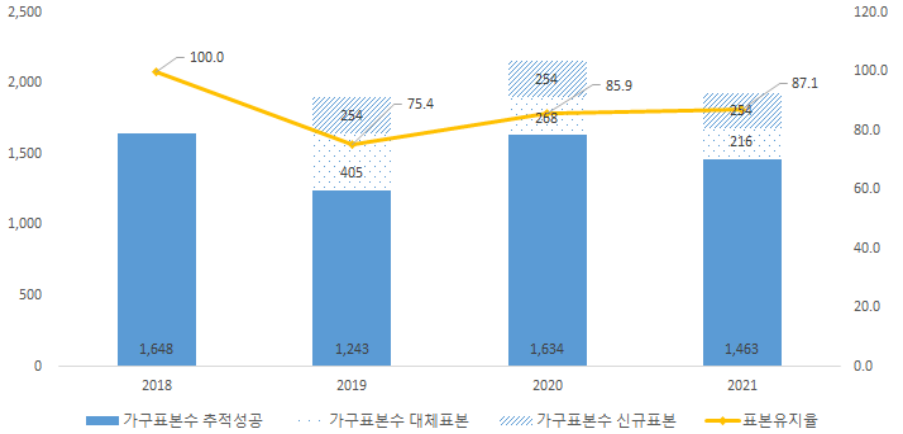
구분	전체 표본 수	추적대상 표본 수	당해연도 조사성공 가구 특성			표본 추적률
			추적성공 가구표본 수	대체가구 표본 수	신규가구 표본 수	
1차년도 (2018년)	1,648					
2차년도 (2019년)	1,902	1,648	1,243	405	254	75.4
3차년도 (2020년)	2,156	1,902	1,634	268	254	85.9
4차년도 (2021년)	1,933	1,679	1,463	216	254	87.1

주: 1) 전년도 '추적성공표본+대체표본+신규표본'을 추적 대상 표본으로 함.
2) 추적 대상 표본이 매해 변동되는 이유는 당해연도 신생아 표본과 대체 가구가 매해 추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4차년도는 추적대상 표본 연령이 낮아짐.
3) 표본 유지율은 (당해년도 추적 성공 표본/당해년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해 새롭게 구축되는 대체 가구 표본과 신규 가구 표본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구 패널 조사의 추적 방식과는 약간 상이한 연동 패널 조사 방식을 접목한 패널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표본 유지율이 당해연도 추적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2차년도에 비해 3, 4차년도 표본 유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림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1년)

단위 : 가구, %



주: 1) 전년도 '추적성공표본+대체표본+신규표본'을 추적 대상 표본으로 함.
2) 추적 대상 표본이 매해 변동되는 이유는 당해연도 신생아 표본과 대체 가구가 매해 추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4차년도는 추적대상 표본 연령이 낮아짐.
3) 표본 유지율은 (당해년도 추적 성공 표본/당해년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조사 도구 및 조사 시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도구는 2차년도 조사까지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년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시간의 대면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종이설문(PAPI)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68).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조사 설계 등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된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미친 3차년도(2020년) 조사도 동일한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였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69). 4차년도(2021년) 조사 또한 전년도 조사와 조사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진행하여, 양육비용 지출 등에서 계절성으로 인한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되는 일체의 비용, 즉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등은 매년 5월~7월 소비자물가(2015년=100기준) 평균값을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실질비용 환산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1차년도) 104.13, 2019년(2차년도) 104.83, 2020년(3차년도) 104.81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4차년도에는 107.49로 크게 증가하였다(KOSIS 홈페이지[83]).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강수량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분석은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 된 값으로, 이후 자료정제(클리닝) 및 재조사(차년도 조사 포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자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조금씩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2. 설문 구성 및 변화

가. 설문 구성의 개요 및 변화

이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내용의 변화와 4차년도 설문 변경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8년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21년 4차년도 조사까지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의 변경은 당해연도 시의성 주제 및 표본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였다. 1차년도(2018년)에는 양육비용 설문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 설문을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온라인조사를 통해 공유 경제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후 2차년도(2019년)에는 아동수당 지원이 시작되는 첫해로,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과 관련된 문항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때 아동수당의 영향을 받는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관련 문항도 세분하여 조사하도록 설문이 수정되었다. 반면, 응답 부담

83) KOSIS 홈페이지,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7001&checkFlag=N (인출일: 2021. 10. 13.).

경감을 위해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과 같이 단기간에 선호가 변동되지 않는 설문 문항을 대거 축소, 통합하거나 삭제하였다. 또, 1차년도에는 아동별로 조사되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가구용 설문에서 조사하였다. 이는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육아서비스와 달리 가구 단위로 수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차년도 설문 구조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표본 추적 조사에 따라 초등아동용 설문을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Ⅲ-2-1〉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4차년도)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2차년도 (2019)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항 축소 통합	응답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가구용으로 이관	서비스 활용 양태를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초등아동용 설문 개발 및 추가	표본 확대
3차년도 (2020)	긴급돌봄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제도 도입
	시간표 형태로 설문 전환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조합방식 확인
4차년도 (2021)	유연근무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가정내 돌봄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설문 복원	3차년도 한시 설문으로,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설문으로 복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각 년도 설문지 개발 관련 회의 자료.

3차년도(2020년) 설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 관련 문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의 변화 등에 관한 설문이 많이 추가되었다. 또한, 3차년도(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인지 및 의견을 묻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에 관한 문항이 대거 보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육아서비스의 조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시간표 형태로 변경하였다.

올해 연구인 4차년도(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의 변화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이 변경되었다. 단, 3차년도

와 같이 응답자가 체감하는 주관적 인식이 아닌 구체적인 행태 위주로 설문을 수정 보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가정 내 양육의 증가와 비대면 육아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방점을 두었으며, 어떠한 비대면 육아서비스를 활용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이용의향 등을 질문하는 문항을 대거 추가하였다. 또한, 육아 가구 부모들의 유연근무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반면, 보육지원체계 제도의 도입이 완료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문항을 상당수 삭제하고, 시간표 형태의 설문 조사 또한 육아서비스별 이용시간을 묻는 기존 설문 형태로 복원하였다.

1차~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 설문의 주요 내용과 변화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Ⅲ-2-2〉과 같다.

〈표 Ⅲ-2-2〉 본조사 설문의 개요 (1~4차년도)

<table>
<tr><th>설문종류</th><th>설문 주요 내용</th><th>1차년도
(2018년)</th><th>2차년도
(2019년)</th><th>3차년도
(2020년)</th><th>4차년도
(2021년)</th></tr>
<tr><td rowspan="14">가구용
조사</td><td>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td><td>○</td><td>○</td><td>○</td><td>주택관련 문항
추가</td></tr>
<tr><td>가구의 경제활동</td><td>○</td><td rowspan="2">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아동수당,
세제 지원
문항 추가</td><td rowspan="2">코로나19로 인한
변동 문항 추가,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td><td rowspan="2">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현황 추가,
코로나19 변동
문항 축소,
세목 조정</td></tr>
<tr><td>가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td><td>○</td></tr>
<tr><td>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td><td>○</td><td>설문축소 및 통합
(초등포함으로
수정)</td><td>2차년도 기준
설문 축소</td><td>×</td></tr>
<tr><td>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td><td>○</td><td>○</td><td>×</td><td>×</td></tr>
<tr><td>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td><td>○</td><td>○</td><td>설문축소</td><td>×</td></tr>
<tr><td>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td><td>×</td><td>×</td><td>×</td><td>문항 추가</td></tr>
<tr><td>개별돌봄서비스</td><td>×</td><td>○</td><td>○</td><td>○</td></tr>
<tr><td>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td><td>×</td><td>○</td><td>○</td><td>○</td></tr>
<tr><td>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td><td>×</td><td>×</td><td>○</td><td>○</td></tr>
<tr><td>육아 소비 성향</td><td>○</td><td>○</td><td>○</td><td>○</td></tr>
<tr><td>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td><td>○</td><td>일부 문항만 조사</td><td>○</td><td>○</td></tr>
<tr><td>육아 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td><td>온라인 조사</td><td>×</td><td>×</td><td>×</td></tr>
<tr><td>육아품목 물가 체감</td><td>온라인 조사</td><td>본 설문에서 조사</td><td>○</td><td>○</td></tr>
<tr><td>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td><td>온라인 조사</td><td>본 설문에서 조사</td><td>○</td><td>○</td></tr>
</table>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아동용 조사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이용시간(기본보육 시간) 관련 문항 및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이용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개별돌봄서비스	○	가구용으로 이관	×	×
아동용 조사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 초등돌봄교실 이용				
	- 방과후학교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물가체감, 육아물가 전망은 이 연구가 아닌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항임.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1, 〈표 Ⅲ-2-1〉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나. 가구용 설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의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용 설문에서는 3차년도에는 미취업모의 취업 의향과 관련된 문항을 다수 포함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이를 정리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활용도와 요구가 증가한 유연근무 및 시간 지원 정책의 활용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 부분에서 보건의료비 조사와 관련하여, 건강보조식품 등의 활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기/집기류의 경우 PC/노트북/테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 관련 지출을 세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주택과 관련하여 전용면적과 방수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표 Ⅲ-2-3〉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가구 특성 및 양육비용 경감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구원 구성	○	○	○	○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미취업모]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1 :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기타	지난 1개월 1회 수령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2 : 아동수당	×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부모 노동시간 변동 등	×	×	문항 신설	×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코로나19 공적지원금 활용처	×	×	×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	○	문항간소화
아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	×	○	×	×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	×	×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	○	×	×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	보육지원 체계개편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	○	○	보건의료 예시보강, 기기/집기 세목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	문항 간소화	문항 간소화	주택평수 추가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	○	○	○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2~73, 〈표 Ⅲ-2-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4차년도 가구용 설문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을 대거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양육 부담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문항은 가정 내 양육시간, 부모 직접 돌봄시간, 전자기기 활용 시간,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지원 서비스(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놀이체험,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등) 활용, 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활용

등이다. 반면 전년도에 조사되던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관련 문항은 인지도 및 수혜율이 높지 않는데 반해, 설문 분량 및 응답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어 2차년도 이후 조사하지 않았다.

〈표 Ⅲ-2-4〉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	×	문항 신설	×
가정내 부모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	×	×	문항 신설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	○	○	×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	○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용 설문	○	○	○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	×	×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긴급돌봄 대응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2~73, 〈표 Ⅲ-2-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본 연구보다는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과 관련성이 높은 물가체감 등의 문항과 미래 사회 전망 등의 문항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Ⅲ-2-5〉 가구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소비성향 및 미래 전망 관련 문항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육아상품 가격상승 시 구매패턴	○	문항 일부 수정	○	○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지출 변화	○	○	○	○

세부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소득감소 시 지출 변화(탄력성)	○	○	○	○
육아품목 물가 체감 : 소비재/내구재/서비스 구입 경험, 구입 경로, 가격 체감, 부담정도	온라인 조사	○	○	○
과거, 현재 및 미래 사회·경제적인 위치	○	문항추가	○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경제 전망	○	×	×	×
미래 자녀세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	×	×
부모 부양책임, 노후준비와 자녀양육 지출 비중	○	×	×	×
경제 인식 및 물가 체감 : 경기 체감, 가계 상황에 대한 체감, 소비자 물가 및 육아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2~73, 〈표 Ⅲ-2-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다. 아동용 설문

한편, 영유아용 아동 설문에서는 3차년도 조사 당시 시간표 단위로 묻던 설문 문항을 4차년도에는 다시 육아서비스별로 이용 시간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 외에 4차년도 설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와 각 육아서비스별로 비대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서비스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생긴 육아서비스와 이를 대체하여 활용한 육아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Ⅲ-2-6〉 아동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영유아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주로 돌보는 사람	○	○	×	×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	×	×
자녀의 기관 이동 경험	×	○	×	×
기관 이동 경로	×	○	×	×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어린이집 이용자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유치원 이용자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문화센터	이용 기관, 이용 종류, 이용 비용	○	○	○	횟수, 시간 문항 추가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	○	이용 사유 삭제	○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가구용 설문으로 이관	×	×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
	비대면 서비스 이용	×	×	×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기타 육아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키즈카페만 질문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4~75, 〈표 Ⅲ-2-3〉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초등 아동 설문은 3차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을 묻는 문항을 일부 추가하였다. 단, 4차년도 아동설문의 응답 대상은 초등1학년이하 자녀로, 초등학령기 표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략한 형태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 Ⅲ-2-7〉 아동용 설문 비교 (1~4차년도) : 초등

세부문항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등하교시간,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	하교시간만 질문	정규시간 조사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이용하는 육아서비스 종류		×	×	○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초등돌봄 교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신청 유형, 이용 유형, 이용 시간, 만족도,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이용 이유,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개선사항	○	○	○
방과후 학교 이용 자녀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종류, 희망 프로그램, 이용 이유,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원하는 양육 미이용 사유	○	문항 간소화	○
문화센터	이용 기관, 종류, 이용 비용	○	○	횟수, 시간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의향	×	×	○
시간제 사교육	학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이용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간, 이용비용, 비용 부담 정도, 서비스 만족도, 이용 이유	○	문항 간소화	○
	기타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개수, 이용 개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비용 부담 정도, 서비스 만족도, 방문학습지 이용 이유, 비방문학습지나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 이유,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이유	○	문항 간소화	○
	비대면 서비스 이용	×	×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기타 육아 서비스	기타 육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빈도, 1회당 이용시간, 시간당 이용비용, 비용 부담 정도, 서비스이용 만족도, 키즈카페 이용 이유,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용 이유	○	×	×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1차년도는 초등학령기 자녀는 아동조사 대상이 아님.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74~75, 〈표 Ⅲ-2-3〉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설문지.

3. 응답자 특성

가. 표본 가구 특성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추적대상 표본 및 성공 가구 수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3-2〉와 같다.

가구 기준 전체 표본 수는 1,933가구이며 추적에 성공하여 조사한 가구는 1,463가구, 이탈로 인해 대체한 표본이 216가구, 신규로 추가된 가구는 254가구였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0세 157가구, 1세 310가구, 2세 303가구, 3세 268가구, 4세 223가구, 5세 215가구, 6세 232가구, 7세(초등 1학년) 225가구로 나타났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신생아(0세와 1세)를 매해 각 125명씩 신규 표본으로 추가하며, 전년도 조사 표본의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4차년도(2021년)는 3차년도(8세, 초등2학년까지 조사)와 달리 7세(초등 1학년)까지만 추적 조사하였다.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1년) : 막내자녀 연령별

단위 : 가구(%)

구분	가구 기준			
	전체 표본 수	추적성공	대체 표본	신규 표본
전체	1,933 (100.0)	1,463 (75.7)	216 (11.2)	254 (13.1)
2014년생 (7세)	225 (100.0)	196 (87.1)	29 (12.9)	-
2015년생 (6세)	232 (100.0)	199 (85.8)	33 (14.2)	-
2016년생 (5세)	215 (100.0)	186 (86.5)	29 (13.5)	-
2017년생 (4세)	223 (100.0)	196 (87.9)	27 (12.1)	-
2018년생 (3세)	268 (100.0)	235 (87.7)	33 (12.3)	-
2019년생 (2세)	303 (100.0)	260 (85.8)	43 (14.2)	-
2020년생 (1세)	310 (100.0)	162 (52.3)	22 (7.1)	126 (40.6)
2021년생 (0세)	157 (100.0)	29 (18.5)	-	128 (81.5)

주: 1) 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의미함.
2) 추적성공은 전년도(1-3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가구를 추적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아 표본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연도별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3-3〉과 같다.

전체 가구 표본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4차년도에 3명이하는 31.9%, 4명 51.0%, 5명이상 17.1%로 나타나, 연도별로 3명이하 가구 비중은 점차 줄고 4명이상의 가구 비중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4차년도 모두 3.9명으로 같았으며, 1차년도만 3.8명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비중은 4차년도에 43.3%로 연도별로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차년도에 299만원 이하는 11.4%, 300~399만원 이하 27.2%, 400~499만원 이하 25.9%, 500~599만원 이하 17.7%, 600만원 이상 17.7%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표본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4차년도에 3명이하 가구는 31.7%, 4명 51.5%, 5명이상 16.9%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표본과 동일하게 3.9명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는 42.1%로 연도별로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차년도에 299만원 이하는 11.7%, 300~399만원 이하 27.9%, 400~499만원 이하 26.2%, 500~599만원 이하 17.1%, 600만원 이상 17.1%로 나타났다.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1년)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가구 표본				영유아 가구 표본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가구원수	3명이하	609 (37.0)	638 (33.5)	704 (32.7)	617 (31.9)	609 (37.0)	542 (32.6)	527 (31.4)	541 (31.7)
	4명	781 (47.4)	952 (50.1)	1,087 (50.4)	986 (51.0)	781 (47.4)	843 (50.6)	858 (51.1)	880 (51.5)
	5명이상	258 (15.7)	312 (16.4)	365 (16.9)	330 (17.1)	258 (15.7)	280 (16.8)	294 (17.5)	288 (16.9)
평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8	3.9	3.9	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2 (46.2)	856 (45.0)	960 (44.5)	837 (43.3)	762 (46.2)	738 (44.3)	735 (43.8)	720 (42.1)
	외벌이	886 (53.8)	1,046 (55.0)	1,196 (55.5)	1,096 (56.7)	886 (53.8)	927 (55.7)	944 (56.2)	989 (5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21.8)	273 (14.4)	158 (7.3)	221 (11.4)	359 (21.8)	239 (14.4)	118 (7.0)	200 (11.7)
	300~399만원 이하	474 (28.8)	536 (28.2)	471 (21.8)	525 (27.2)	474 (28.8)	468 (28.1)	372 (22.2)	476 (27.9)
	400~499만원 이하	374 (22.7)	493 (25.9)	634 (29.4)	501 (25.9)	374 (22.7)	435 (26.1)	512 (30.5)	448 (26.2)
	500~599만원 이하	201 (12.2)	298 (15.7)	402 (18.6)	343 (17.7)	201 (12.2)	268 (16.1)	296 (17.6)	293 (17.1)
	600만원 이상	240 (14.6)	302 (15.9)	491 (22.8)	343 (17.7)	240 (14.6)	255 (15.3)	381 (22.7)	292 (17.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자녀수에 따라서는 전체 가구의 경우, 4차년도에 1명 32.3%, 2명 52.9%, 3명이상 14.8%,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소폭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4차년도에 1명 32.2%, 2명 53.2%, 3명이상 14.5%,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표 Ⅲ-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1년)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자녀수	1명	638 (38.7)	660 (34.7)	725 (33.6)	625 (32.3)	638 (38.7)	559 (33.6)	543 (32.3)	551 (32.2)
	2명	818 (49.6)	987 (51.9)	1,125 (52.2)	1,022 (52.9)	818 (49.6)	878 (52.7)	889 (53.0)	910 (53.2)
	3명이상	192 (11.7)	255 (13.4)	306 (14.2)	286 (14.8)	192 (11.7)	228 (13.7)	247 (14.7)	248 (14.5)
평균 자녀수		1.7	1.8	1.8	1.8	1.7	1.8	1.8	1.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전체 가구의 경우, 대도시 39.5%, 중소도시 45.8%, 읍면지역 14.6%로 나타나 연도별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비중이 다소 줄고, 중소도시 비중이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도 대도시 39.2%, 중소도시 45.7%, 읍면지역 15.1%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Ⅲ-3-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1년)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662 (40.2)	762 (40.1)	865 (40.1)	764 (39.5)	662 (40.2)	664 (39.9)	670 (39.9)	670 (39.2)
	중소도시	717 (43.5)	833 (43.8)	952 (44.2)	886 (45.8)	717 (43.5)	728 (43.7)	746 (44.4)	781 (45.7)
	읍면지역	269 (16.3)	307 (16.1)	339 (15.7)	283 (14.6)	269 (16.3)	273 (16.4)	263 (15.7)	258 (15.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가구 소득 특성[84)]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다음의 〈표 Ⅲ-3-6〉과 같았다. 전체 가구 기준 4차년도(2021년)에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488만5천원으로 3차년도 501만8천원보다 적었으며, 1차년도 444만6천원, 2차년도 475만7천원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4차년도 맞벌이가구 561만4천원, 외벌이가구 43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4차년도 1명인 경우 455만6천원, 2명 503만1천원, 3명이상 경우에는 50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4차년도(2021년)에 485만6천원, 맞벌이가구는 558만8천원, 외벌이 가구는 432만3천원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가구 448만2천원, 2명인 경우 504만3천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표본 가구에 비해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자녀수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으며, 맞벌이 가구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에서 막내자녀가 초등1학년인 가구들의 소득 수준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서는 살짝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3-5〉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444.6	475.7	501.8	488.5	444.6	471.5	502.3	48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8.8	557.1	571.0	561.4	518.8	549.7	571.9	558.8
	외벌이	380.9	409.2	446.3	432.8	380.9	409.2	448.1	432.3
자녀수	1명	437.6	460.9	474.4	455.6	437.6	456.2	470.5	448.2
	2명	443.5	479.9	516.0	503.1	443.5	479.0	517.3	504.3
	3명이상	472.4	498.0	514.5	508.4	472.4	479.9	518.0	500.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세목별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4차년도(2021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431만7천원으로 3차년도(2020년) 보다 높지만, 2차년도(2019년)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11만1천원으로 예년에 비해

84)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기준)를 활용하여 모든 값을 실질함.

높았으며,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21만6천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13만6천원, 사적이전소득 5만원, 기타소득 5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4차년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426만4천원,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은 11만원이었으며,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23만3천원으로 전체 표본에 비해 영유아 가구 표본이 평균 1만7천원 가량 높았다. 이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이 초등 가구에 비해 좀 더 높음을 암시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13만1천원, 사적이전소득 5만5천원, 기타소득 6만2천원으로 전체 가구와 영유아 가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3-6〉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428.3	435.2	410.2	431.7	428.3	429.2	403.2	426.4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3.8	6.2	4.0	11.1	3.8	6.2	3.6	11.0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9.2	23.3	21.5	21.6	9.2	26.2	25.6	23.3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	55.7	13.6	-	-	58.2	13.1
사적이전소득	1.8	4.5	4.6	5.0	1.8	2.9	5.3	5.5
기타소득	1.4	6.6	5.8	5.5	1.4	7.0	6.4	6.2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을 살펴보면, 4차년도(2020년) 전체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38.2%가 받았으며, 보육료 지원(영아) 47.0%, 누리과정지원(유아) 68.1%, 아동수당 99.8%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유아) 그리고 아동수당은 매년 수혜가구가 늘어났으며, 보육료 지원(영아)는 3차년도(2020년)에 줄어든 후 다소 늘어났다. 특히, 아동수당은 99.8%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41.9%, 보육료 지원(영아) 53.1%, 누리과정지원(유아) 65.5%, 아동수당 99.8%로 나타나 연도별 경향은 전체 가구와 유사하였다.

〈표 Ⅲ-3-7〉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 (2018~2021년)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가정양육수당	25.5	29.8	31.9	38.2	25.5	33.6	40.5	41.9
보육료 지원(영아)	56.7	54.6	39.3	47.0	56.7	61.5	50.5	53.1
누리과정지원(유아)	38.7	41.6	58.0	68.1	38.7	39.2	63.4	65.5
아동수당	-	83.3	88.8	99.8	-	93.6	99.0	99.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은 전체 가구의 경우, 4차년도(2021년)에 가정양육수당 월평균 17만5천원, 보육료 지원(영아) 43만1천원, 누리과정지원(유아)[85] 26만4천원, 아동수당 13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수혜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유아 가구도 전체 가구와 평균 수혜 금액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가정양육수당	15.8	16.0	16.6	17.5	15.8	16.1	16.7	17.7
보육료 지원(영아)	27.6	26.2	32.4	43.1	27.6	26.3	32.4	43.1
누리과정지원(유아)	19.9	20.9	21.5	26.4	19.9	20.8	21.7	27.8
아동수당	-	9.5	9.5	13.1	-	9.5	9.5	13.6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 아동 특성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아동은 총 2,832명이었으며, 남아는 1,489명(52.6%), 여아는 1,343명(47.4%)으로 나타나, 2차년도 남아 비중 52.8%보다는 작았지만, 1차년도 51.0%, 3차년도 52.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4차년도에 총 2,401명으로 남아는 1,247명(51.9%), 여아는 1,154명(48.1%)으로 1차년도 남아 비중 51.0%보다는 컸으나, 2차년도 53.6%, 3차년도 52.7%보다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5)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은 누리과정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Ⅲ-3-9〉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				영유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100.0 (2,277)	100.0 (2,324)	100.0 (2,368)	100.0 (2,401)
성별	남아	51.0 (1,161)	52.8 (1,465)	52.1 (1,708)	52.6 (1,489)	51.0 (1,161)	53.6 (1,245)	52.7 (1,248)	51.9 (1,247)
	여아	49.0 (1,116)	47.2 (1,311)	47.9 (1,570)	47.4 (1,343)	49.0 (1,116)	46.4 (1,079)	47.3 (1,120)	48.1 (1,154)

주: 1)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자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1년생(0세) 140명, 2020년생(1세) 278명, 2019년생(2세) 319명, 2018년생(3세) 349명, 2017년생(4세) 382명, 2016년생(5세) 434명, 2015년생(6세) 467명, 2014년생(7세, 초1) 463명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의 경우 2014년생(7세, 초1)까지만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Ⅲ-3-10〉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1년)

단위 : %(명)

출생년도	해당차시 연령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	2차	3차	4차				
2021년생	-	-	-	0세	-	-	-	5.6 (160)
2020년생	-	-	0세	1세	-	-	4.8 (158)	11.2 (316)
2019년생	-	0세	1세	2세	-	5.7 (158)	9.8 (321)	12.5 (353)
2018년생	0세	1세	2세	3세	5.6 (127)	10.7 (297)	10.1 (331)	13.0 (367)
2017년생	1세	2세	3세	4세	11.7 (267)	10.7 (296)	10.2 (333)	12.8 (363)
2016년생	2세	3세	4세	5세	13.0 (295)	12.1 (336)	11.6 (379)	14.3 (404)
2015년생	3세	4세	5세	6세	15.6 (356)	14.8 (410)	12.9 (424)	15.5 (438)
2014년생	4세	5세	6세	7세 (초1)	16.2 (370)	14.6 (406)	12.9 (422)	15.2 (431)
2013년생	5세	6세	7세 (초1)	-	17.7 (403)	15.2 (421)	13.5 (441)	-

출생년도	해당차시 연령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	2차	3차	4차				
2012년생	6세	7세 (초1)	8세 (초2)	-	20.2 (459)	16.3 (452)	14.3 (469)	-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주: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라.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4차년도(2021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부모에게만 질문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이용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이다.

출산휴가는 부의 경우 6.7%가 사용하였으며, 모는 13.6%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부 2.8%, 보는 18.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부 1.6%, 모 6.7%로 나타나 부보다 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며, 다만 이용률이 20%를 넘지 않았다.

〈표 Ⅲ-3-11〉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년)

단위 : %(명)

구분	부				모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출산휴가	6.7	93.3	100.0	(1,889)	13.6	86.4	100.0	(861)
육아휴직	2.8	97.2	100.0	(1,889)	18.6	81.4	100.0	(86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6	98.4	100.0	(1,889)	6.7	93.3	100.0	(86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족돌봄휴직[86] 및 가족돌봄휴가[87] 이용 경험은 가족돌봄휴직은 부는 1.0%, 모는 2.1%였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부 1.9%, 모 3.1%로 나타났으며 평균 휴가일수는 부 5.6일, 모 4.7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6)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시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함.
87) 가족돌봄휴가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만 지원되며, 가족돌봄휴직 중 최대 10일까지는 가족돌봄휴가로 차감 가능함.

〈표 Ⅲ-3-1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2021년)

단위 : %, 일(명)

구분	부					모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	
가족돌봄휴직	1.0	99.0	-	100.0	(1,889)	2.1	97.9	-	100.0	(861)
가족돌봄휴가	1.9	98.1	5.6	100.0	(35)	3.1	96.9	4.7	100.0	(2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재택근무[88]는 부 11.3%, 모 14.5%, 시차출퇴근[89]은 부 4.0%, 모 6.5%, 선택근로제[90] 부 2.1%, 모 2.7%, 원격근무[91] 부 3.5%, 모 3.3%, 전환형시간선택제[92] 부 0.7%, 모 1.9%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자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재택근무 이용률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3〉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2021년)

단위 : %(명)

구분	부				모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재택근무	11.3	88.7	100.0	(1,889)	14.5	85.5	100.0	(861)
시차출퇴근	4.0	96.0	100.0	(1,889)	6.5	93.5	100.0	(861)
선택근로제	2.1	97.9	100.0	(1,889)	2.7	97.3	100.0	(861)
원격근무	3.5	96.5	100.0	(1,889)	3.3	96.7	100.0	(861)
전환형시간선택제	0.7	99.3	100.0	(1,889)	1.9	98.1	100.0	(86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88)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를 수행.
89) 시차출퇴근: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는 한에서 출퇴근 시간 조절.
90) 선택근로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91)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92) 전환형시간선택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 만료 후 전일제로 복귀.

Ⅳ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0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0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0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05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 결과 분석

Ⅳ.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Ⅳ장은 육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공적지원금 활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1~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용 설문이 주로 활용되었다.

4차년도 연구보고서의 특징은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산출 대상이 되는 표본의 기준을 영유아 가구에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3차년도(2020년)까지 가구조사의 표본이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매 1세씩 증가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에 초등 1학년(2014년생)까지만 조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막내자녀 연령 상한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양육비용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4차년도(2021년)에는 막내자녀 연령이 영유아(만6세 이하)인 가구, 즉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93] 이때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만7세)이상인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되지만, 영유아 가구에 포함된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은 총 양육비용 등에 모두 반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 년도 조사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 값은 부표에 별도로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본고에 보고된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은 2015=100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값으로, 소비자물가는 본 연구의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매해 5~7월 소비자물가를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1차년도(2018년) 104.83, 2차년도 104.13, 3차년도 104.81이 적용되었으며, 4차년도에는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107.49를 적용하여 환산되었음을 밝혀둔다.[94]

93) 단, 4차년도 조사 기준 초등 입학을 유예한 7세 아동 1명은 영유아 가구 표본에 포함됨.
94) 자료 정제 과정에서 일부 자료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후 공개되는 원자료와 보고서 수치가 일부 불일치할 수 있음.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4차년도(2021년)에 28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2019년0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코로나19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며 소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지출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4차년도에는 물가상승이 크게 발생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명목 지출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기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67.6	(100.0)	280.7	(100.0)	276.2	(100.0)	287.4	(100.0)
1.식비(외식비포함)	77.9	(29.9)	79.5	(28.3)	89.8	(32.5)	88.4	(31.8)
1-1.외식비	24.0	(9.0)	24.9	(8.9)	26.2	(9.5)	26.4	(9.3)
3.기기/집기	6.0	(1.9)	7.6	(2.7)	10.4	(3.8)	12.1	(3.3)
4.피복비(의류및신발)	17.5	(6.6)	17.8	(6.3)	17.9	(6.5)	18.8	(6.6)
5.보건/의료비	6.8	(2.6)	8.5	(3.0)	10.8	(3.9)	11.7	(4.0)
6.교육/보육비	39.4	(13.4)	41.2	(14.7)	28.6	(10.4)	35.7	(11.2)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1.0	(11.0)	30.1	(10.7)	21.8	(7.9)	24.1	(8.0)
7-1.가족여행 등	19.0	(6.6)	18.3	(6.5)	10.5	(3.8)	13.4	(4.3)
7-2.관람 체험학습	3.9	(1.5)	3.8	(1.4)	1.2	(0.4)	1.6	(0.5)
7-3.완구	3.8	(1.4)	3.9	(1.4)	4.4	(1.6)	4.4	(1.6)
7-4.도서구매	4.3	(1.5)	4.1	(1.5)	4.7	(1.7)	4.2	(1.4)
8.교통비	25.3	(10.0)	26.3	(9.4)	24.9	(9.0)	24.7	(9.0)
9.통신비	16.4	(6.7)	16.8	(6.0)	17.1	(6.2)	16.8	(6.3)
9-1.휴대전화비	12.0	(4.9)	11.6	(4.1)	12.2	(4.4)	12.4	(4.7)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9)	12.9	(4.6)	14.0	(5.1)	14.0	(5.1)
11-2.보험	34.9	(11.6)	40.0	(14.3)	40.8	(14.8)	41.0	(14.6)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비목별로는 여전히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식비 지출은 코로나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교육/보육비의 경우 3차년도(2020년)에 2차년도(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에는 다소 상승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보육비는 2018년 39만4천원(13.4%), 2019년 41만2천원(14.7%)에 달했으나, 2020년 28만6천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35만7천원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3차년도(2020년) 코로나 전후로 지출이 크게 감소한 비목은 여가문화생활비로, 이 또한 4차년도에는 회복세로 전환되긴 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비목은 비목에 따라 증감 양상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큰 폭의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들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액이 커지는 현상은 매해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2021년 기준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들은 월평균 235만3천원의 생활비를 지출한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은 월평균 421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Ⅳ-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299.5	312.9	307.7	318.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0.7	334.2	332.4	346.3
	외벌이	281.4	296.0	288.5	297.8
	t	6.9***	6.9***	8.3***	8.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3.2	238.6	228.6	235.3
	300~399만원 이하	267.9	273.9	259.1	279.1
	400~499만원 이하	321.3	317.3	289.9	313.0
	500~599만원 이하	325.8	353.2	328.7	343.8
	600만원 이상	420.4	404.3	387.3	421.0
	F	168.7***	114.0***	115.3***	126.7***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가구생활비 총액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엥겔지수는 4차년도(2021년)에 28.5로 3차년도(2020년) 보다는 낮지만, 1, 2차년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생활비 총액 중 주거비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는 해마다 큰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생활비 중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으로 산출되는 엔젤지수는 2021년 26.8로, 3차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엔젤지수는 1차년도(2018년)에 29.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Ⅳ-1-3〉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1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엥겔지수	26.5	26.1	30.0	28.5
슈바베지수	8.7	8.4	8.5	8.1
엔젤지수	29.1	27.9	26.7	26.8

주: 1) 엥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엥겔지수와 슈바베 지수가 높은데 반해, 엔젤지수가 약간 낮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엥겔지수와 슈바베지수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엔젤지수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본 연구의 엔젤지수가 영유아 양육비용, 즉 영유아에게 투입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Ⅳ-1-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엥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8.5	8.1	26.8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7.3	7.7	27.1
	외벌이	29.4	8.4	26.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9.1	10.2	27.8
	300~399만원 이하	29.7	8.3	26.5
	400~499만원 이하	29.3	7.8	26.3
	500~599만원 이하	27.7	7.4	27.7
	600만원 이상	26.0	7.3	26.6

주: 1) 엥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가구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119만6천원으로, 본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차년도(2018년)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110만6천원이었으며, 2차년도(2019년)에는 118만1천원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였던 3차년도(2020년)에는 112만1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었다.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34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보육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27만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시기를 제외하면 양육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큰 비목이다.

한편, 양육비용 중 식비는 1차년도 23만5천원이었으며, 2차년도 25만1천원 소

폭 상승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차년도(2020년)에는 29만8천원까지 크게 증가하며, 자녀 양육비용 중 가장 평균 지출액이 큰 비목이었다. 4차년도(2021년)에는 자녀에게 소요되는 식비가 월평균 28만2천원으로 3차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1, 2차년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출 양상을 보였다.

3차년도와 비교할 때, 4차년도 총 양육비용 중 식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비목에서 총 양육비용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육/보육비 증가가 눈에 띄는 변화라 볼 수 있다. 한편, 여가문화생활비 또한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한 비목이었나, 4차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가족여행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여행 등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 비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로 인해 점차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1〉 비목별 월평균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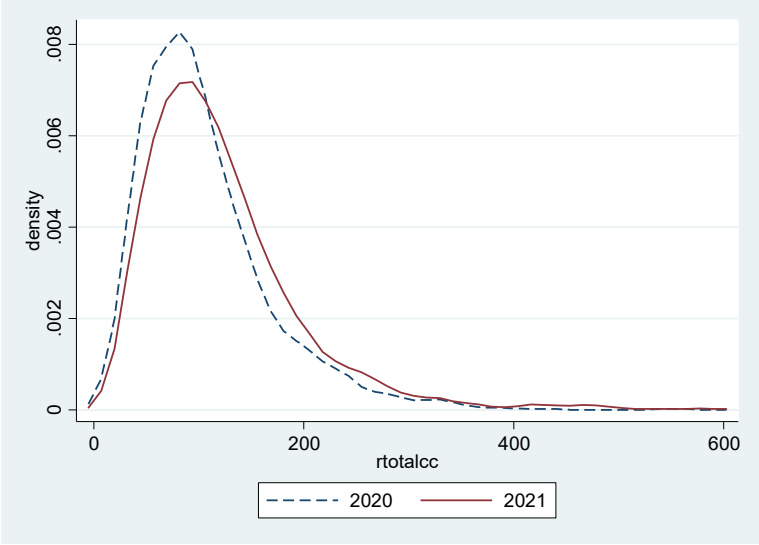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110.6	118.1	112.1	119.6
(사례수)	(1,648)	(1,665)	(1,679)	(1,709)
1.식비(외식비포함)	23.5	25.1	29.8	28.2
1-1.외식비	5.6	6.0	7.0	6.6
3.기기/집기	2.8	3.1	4.1	5.0
4.피복비(의류및신발)	8.9	9.4	10.1	10.6
5.보건/의료비	4.2	5.1	6.2	6.5
6.교육/보육비	37.7	40.0	27.5	34.3
7.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8.4	17.4	14.3	15.4
7-1.가족여행 등	8.5	8.3	5.0	6.2
7-2.관람 체험학습	2.2	2.1	0.7	1.0
7-3.완구	3.6	3.5	4.2	4.3
7-4.도서구매	4.1	3.4	4.3	3.9
8.교통비	0.6	0.7	0.9	0.7
9.통신비	0.5	0.6	0.8	0.7
9-1.휴대전화비	0.4	0.5	0.7	0.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0	5.5	6.3	6.4
11-2.보험	9.1	11.2	12.0	11.9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총 양육비용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3차년도(2020년)은 4차년도(2021년)에 비해 왼쪽으로 편포되고 보다 밀집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4차년도(2021년)의 총 양육비용은 3차년도에 비해 보다 넓게 퍼져있는 양상을 보이며, 총 양육비용의 편차가 더 커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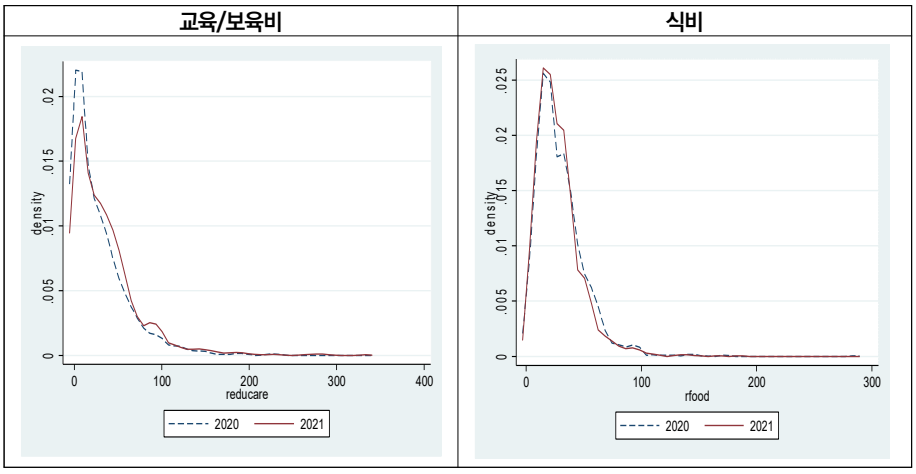
[그림 Ⅳ-2-1] 총 양육비용 분포 비교 (2020~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주: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하였으며, 커널밀도 추정치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총 양육비용 지출 비용이 많은 상위 2개 비목인 교육/보육비와 식비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보육비의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3차년도(2020년)의 교육/보육비가 낮은 수준에서 밀집된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4차년도(2021년) 교육/보육비는 보다 넓게 분포하며 전반적으로 3차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오른쪽으로 이동)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식비의 경우에는 3차년도(2020년)와 4차년도(2021년) 지출 비용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식비 지출 비용이 높은 구간에서는 4차년도가 3차년도에 비해 보다 왼쪽으로 밀집된 분포를 보였다.

[그림 Ⅳ-2-2] 비목별 총 양육비용 분포 비교(2020~2021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주: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하였으며, 커널 밀도 추정치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영유아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비용, 즉 영유아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에 86만1천원으로, 총 양육비용과 유사하게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한 이후 4차년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4차년도(2021년) 영유아 양육비용은 3차년도(2020년)에 비해서는 평균 3만9천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 88만3천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목별 특징 또한 총 양육비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 양육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높은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4차년도 21만4천원이었다. 이는 3차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액수이긴하나, 총 양육비용에 비해서는 증가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 증가가 영유아 자녀보다는 초등 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표 Ⅳ-2-2〉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88.2	88.3	82.2	86.1
(사례수)	(1,648)	(1,665)	(1,678)	(1,933)
1.식비(외식비포함)	18.4	18.8	22.0	20.9
1-1.외식비	4.4	4.4	5.0	4.7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3.기기/집기	2.4	2.5	3.2	3.2
4.피복비(의류및신발)	7.0	7.2	7.8	8.1
5.보건/의료비	3.7	4.2	5.0	5.2
6.교육/보육비	29.5	28.2	17.3	21.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5.2	13.6	11.3	12.2
7-1.가족여행 등	6.9	6.5	3.9	4.8
7-2.관람 체험학습	1.8	1.5	0.5	0.7
7-3.완구	3.2	3.0	3.6	3.8
7-4.도서구매	3.3	2.6	3.3	2.9
8.교통비	0.3	0.4	0.6	0.4
9.통신비	0.0	0.1	0.2	0.0
9-1.휴대전화비	0.0	0.0	0.1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3	4.6	5.4	5.4
11-2.보험	7.4	8.6	9.3	9.2

주: 1)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총 양육비용 지출액이 큰 특징이 있으며, 가구소득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 또한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됐다. 4차년도(2021년) 기준 총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88만6천원이었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67만원으로 1.9배가량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년도(2019년)와 4차년도(2021년)의 가구소득별 총 양육비용을 비교해보면, 299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와 600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4차년도에 더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300~599만원 구간에 속한 가구들의 총 양육비용은 2차년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2021년의 총 양육비용 증가는 가구소득의 양쪽 극단, 즉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총 양육비용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2-3〉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사례수)	110.6 (1,648)	118.1 (1,665)	112.1 (1,679)	119.6 (1,709)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9.7	126.2	122.5	131.4
	외벌이	102.7	111.6	104.0	111.0
	t	5.3***	4.4***	6.0***	4.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7.9	87.1	82.2	88.6
	300~399만원	95.6	98.8	88.2	98.6
	400~499만원	122.0	121.7	103.6	116.5
	500~599만원	120.0	132.6	124.9	132.4
	600만원 이상	163.4	161.3	146.2	167.0
	F	89.2***	57.4***	59.8***	30.3***
총 자녀수	1명	80.0	79.4	71.5	73.1
	2명	120.7	128.3	122.3	131.2
	3명이상	169.1	173.6	164.5	180.3
	F	198.6***	221.0***	273.0***	21.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가구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양상은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됐다. 4차년도(2021년) 기준 영유아 양육비용은 맞벌이 가구 94만원, 외벌이 80만4천원이며,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73만1천원인데 반해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는 93만8천원이었다. 영유아 양육비용의 격차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여,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는 68만5천원인데 반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3만2천원이었다(표 Ⅳ-2-4 참조).

가구소득에서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더 큼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44.5%(4차년도 기준)를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데 반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는 21.5%(4차년도 기준)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18.4%(4차년도 기준)인데 반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44.8%를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가구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으며,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Ⅳ-2-5 참조).

〈표 Ⅳ-2-4〉 가구 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사례수)		88.2 (1,648)	88.3 (1,665)	82.2 (1,678)	86.1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6.7	95.0	89.2	94.0
	외벌이	81.0	82.9	76.7	80.4
	t	5.7***	4.2***	4.9***	5.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5.0	65.0	62.3	68.5
	300~399만원	75.1	75.7	68.9	74.1
	400~499만원	96.7	92.5	76.0	82.4
	500~599만원	96.0	95.2	90.7	96.5
	600만원 이상	129.1	118.9	102.9	113.2
	F	68.3***	38.9***	32.6***	60.8***
총 자녀수	1명	80.0	79.4	71.5	73.1
	2명	93.4	93.4	88.2	92.0
	3명이상	93.2	90.5	83.8	93.8
	F	11.6***	10.5***	18.4***	28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표 Ⅳ-2-5〉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27.3	27.9	24.2	27.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4.9	22.5	24.9
	외벌이	29.9	30.4	25.4	29.5
	t	-4.6***	-3.3***	-3.3***	-3.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40.8	44.8	44.5
	300~399만원	27.0	28.1	24.7	27.8
	400~499만원	26.9	27.1	23.1	25.9
	500~599만원	21.6	24.2	22.8	24.1
	600만원 이상	20.7	20.9	19.6	21.5
	F	16.9***	12.7***	54.5***	29.2***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4
	2명	30.2	30.7	25.6	28.4
	3명이상	40.5	40.0	34.7	44.8
	F	62.7***	39.9***	102.9***	41.5***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또한 총 양육비용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총 양육비용에 비해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특성에 따라 격차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3차년도 이전까지는 총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았으나, 4차년도에는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6〉 가구 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전체		22.1	20.9	17.9	19.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9.6	18.8	16.8	18.0
	외벌이	24.2	22.7	18.8	21.1
	t	-4.0***	-4.1***	-3.0**	-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4	30.0	34.4	31.3
	300~399만원	21.3	21.6	19.3	21.0
	400~499만원	21.3	20.7	17.0	18.4
	500~599만원	17.3	17.4	16.6	17.5
	600만원 이상	16.5	15.3	13.8	14.3
	F	15.7***	19.8***	56.6***	12.4***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4
	2명	23.8	22.1	18.5	20.1
	3명이상	22.9	21.9	17.8	21.6
	F	5.1**	4.9**	1.8	41.5***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한편, 비목별 가구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세목인 완구류 지출 비용과 도서구매 비용 등의 지출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었다. 보건/의료비와 피복비 등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생활비의 약 60%가량이 자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었으며, 식비의 32.6%가 자녀의 식비에 해당하였다. 연도에 따라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의 변화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보건/의료비에서 자녀를 위한 지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가문화생활비 중 특히 도서구매에서 자녀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35.8	36.6	35.5	36.3
1.식비(외식비포함)	30.7	32.4	33.2	32.6
3.기기/집기	50.4	44.0	43.7	43.6
4.피복비(의류및신발)	54.1	56.4	58.3	59.3
5.보건/의료비	71.5	68.1	61.9	59.7
6.교육/보육비	96.6	96.5	96.1	96.2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2.9	62.0	69.7	68.4
7-1.가족여행 등	45.7	46.7	47.5	45.6
7-2.관람 체험학습	61.8	56.3	58.8	61.4
7-3.완구	95.0	91.0	94.7	97.5
7-4.도서구매	92.4	85.4	90.6	94.3
8.교통비	3.0	3.2	4.2	3.1
9.통신비	2.5	3.1	4.4	3.8
9-1.휴대전화비	3.1	3.7	5.1	4.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2.5	43.7	44.5	46.0
11-2.보험	30.4	31.2	32.6	31.9

주: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총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생활비 중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4차년도(2021년) 기준 완구류에 대한 지출의 86.7%가 영유아 양육비용이었다. 한편,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비와 도서구매를 위한 지출이 약 70%가량이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출이었다.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과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의 격차만큼이 결국 초등학령기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보육비와 도서구매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즉, 가계 지출에 있어 교육/보육비와 도서구매는 영유아 자녀보다는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에게 좀 더 많이 투자되는 경향성이 있다 하겠다.

〈표 Ⅳ-2-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29.1	27.9	26.7	26.8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식비(외식비포함)	24.6	24.8	25.2	24.6
3.기기/집기	43.3	34.6	35.6	32.3
4.피복비(의류및신발)	43.9	43.8	45.7	46.0
5.보건/의료비	63.4	56.9	50.9	48.3
6.교육/보육비	79.1	74.1	67.6	68.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2.8	48.9	56.0	55.2
7-1.가족여행 등	37.4	37.5	37.9	36.1
7-2.관람 체험학습	49.2	40.6	42.9	43.9
7-3.완구	86.9	78.9	81.7	85.7
7-4.도서구매	75.3	63.7	68.3	69.5
8.교통비	1.6	2.0	2.8	2.1
9.통신비	0.3	0.4	0.9	0.3
9-1.휴대전화비	0.3	0.4	0.8	0.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5.7	36.1	37.2	38.0
11-2.보험	25.2	24.3	25.8	24.9

주: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아동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61만2천원으로, 3차년도(2020년)에 비해 평균 2만9천원가량 증가했으나,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는 1만8천원가량 적은 수준을 보였다.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도 점차 높아지는 특징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4차년도에 여전히 발견되었다(표 Ⅳ-2-9 참조).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4차년도(2021년) 기준 19.1%로 3차년도보다는 높고, 1, 2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낮았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매년 발견되는 현상으로, 0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용이 생활비 중 16.8%를 차지하는데 반해, 6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용은 생활비 중 21.6%에 해당하였다(표 Ⅳ-2-10 참조).

〈표 Ⅳ-2-9〉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만원,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63.3 (2,298)	63.0 (2,334)	58.3 (2,368)	61.2 (2,405)
자녀 (생활) 연령	0세	51.4 (128)	51.2 (161)	50.7 (158)	48.9 (161)
	1세	49.1 (267)	51.3 (298)	51.4 (321)	52.3 (316)
	2세	54.9 (299)	55.9 (296)	50.9 (331)	55.8 (354)
	3세	57.3 (360)	56.5 (337)	56.7 (333)	57.8 (367)
	4세	67.6 (372)	64.3 (411)	58.5 (379)	63.9 (363)
	5세	71.3 (407)	68.9 (408)	63.0 (424)	65.0 (404)
	6세	74.1 (465)	78.9 (423)	68.6 (422)	73.6 (440)
	F	22.3**	24.2***	15.2***	16.9***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표 Ⅳ-2-10〉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1 (2,405)
자녀 (생활) 연령	0세	18.1 (128)	16.7 (161)	17.9 (158)	16.8 (161)
	1세	17.9 (267)	17.4 (298)	17.7 (321)	17.4 (316)
	2세	19.4 (299)	18.4 (296)	17.4 (331)	18.2 (354)
	3세	19.9 (360)	18.4 (337)	18.1 (333)	18.3 (367)
	4세	21.4 (372)	20.7 (411)	19.1 (379)	19.3 (363)
	5세	22.8 (407)	21.3 (408)	20.2 (424)	19.8 (404)
	6세	22.8 (465)	23.1 (423)	20.8 (422)	21.6 (440)
	F	17.6**	24.0***	9.2***	12.8***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또한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비목별로 식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차년도(2019년)까지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액이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인 3차년도(2020년)에는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평균 12만3천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식비에 대한 지출(15만6천원)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코로

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 또한 소폭 상승하여 4차년도(2021년)에는 영유아 1인당 평균 15만2천원의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지출 수준은 3차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2차년도(2019년)에 비하면 평균 4만9천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영유아 자녀의 경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존재함으로 짐작케 한다.

반면, 4차년도(2021년) 영유아 1인당 식비 지출액은 평균 14만8천원으로, 3차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2차년도(2019년) 13만4천원에 비하면 1만4천원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여가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4차년도(2021년) 8만7천원으로, 교육/보육비 증감과 유사하게 3차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단, 여가문화생활비에 속하는 세목에 따라서는 완구에 대한 지출은 3차년도에 이어 4차년도에 더욱 증가하였으며, 도서구매 관련 지출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는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즉, 여가문화생활비의 감소는 주로 가족여행 및 관람 체험학습 관련 지출의 감소에 기인하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표 Ⅳ-2-1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63.3	63.0	58.2	61.2
(사례수)	(2,298)	(2,334)	(2,368)	(2,405)
1.식비(외식비포함)	13.2	13.4	15.6	14.8
1-1.외식비	3.1	3.1	3.6	3.4
3.기기/집기	1.7	1.8	2.2	2.3
4.피복비(의류및신발)	5.0	5.1	5.6	5.8
5.보건/의료비	2.6	3.0	3.5	3.7
6.교육/보육비	21.2	20.1	12.3	15.2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0.9	9.7	8.0	8.7
7-1.가족여행 등	5.0	4.7	2.7	3.4
7-2.관람 체험학습	1.3	1.1	0.4	0.5
7-3.완구	2.3	2.1	2.6	2.7
7-4.도서구매	2.4	1.9	2.3	2.1
8.교통비	0.2	0.3	0.4	0.3
9.통신비	0.0	0.0	0.1	0.0
9-1.휴대전화비	0.0	0.0	0.1	0.0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1	3.3	3.9	3.9
11-2.보험	5.3	6.2	6.6	6.5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드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차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조사시기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라 볼 수 있다.

4차년도(2021년)기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8만2천원이며,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 56만3천원이었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50만6천원이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월평균 79만6천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총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73만1천원에 달하지만, 총 자녀 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49만7천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1인당 투입이 적어지는 현상이 뚜렷히 포착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64만9천원이었으나,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57만6천원에 그쳤다.

〈표 Ⅳ-2-12〉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63.3 (2,298)	63.0 (2,334)	58.3 (2,368)	61.2 (2,4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1.5 (1,031)	70.1 (1,000)	65.3 (1,004)	68.2 (992)
	외벌이	56.5 (1,267)	57.6 (1,334)	53.1 (1,364)	56.3 (1,413)
	t	9.3***	7.6***	8.9***	7.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2 (505)	51.8 (300)	48.3 (152)	50.6 (271)
	300~399만원 이하	54.3 (655)	52.8 (671)	50.4 (508)	53.2 (663)
	400~499만원 이하	68.2 (530)	63.2 (637)	52.3 (747)	58.4 (632)
	500~599만원 이하	70.7 (273)	70.1 (364)	62.9 (427)	66.7 (424)
	600만원 이상	92.5 (335)	83.8 (362)	73.4 (534)	79.6 (415)
	F	98.1***	48.6***	50.2***	42.9***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총 자녀수	1명	80.0 (638)	79.4 (559)	71.5 (543)	73.1 (551)
	2명	58.8 (1,300)	60.2 (1,361)	57.0 (1,376)	60.4 (1,386)
	3명이상	49.7 (360)	49.8 (414)	46.2 (449)	49.7 (468)
	F	96.2***	79.1***	78.2***	51.1***
지역 규모	대도시	68.7 (929)	67.2 (911)	58.3 (946)	64.9 (959)
	중소도시	60.9 (985)	59.4 (1,036)	57.5 (1,050)	59.2 (1,078)
	읍면지역	56.2 (384)	62.8 (387)	60.3 (372)	57.6 (368)
	F	17.4***	9.4***	0.9	7.8***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4차년도(2021년) 기준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19.1%로, 3차년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2차년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 외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는 현상이 모든 차수에서 발견됐다.

한편,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4차년도(2021년) 기준 14.1%였다.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높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모든 차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외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고, 총 자녀 수가 많을 가구일수록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2-13〉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명), %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사례수)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1 (2,405)	15.8 (2,298)	14.9 (2,334)	12.7 (2,368)	14.1 (2,4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7	20.6	19.5	19.7	14.5	13.9	12.3	13.1
	외벌이	20.1	19.4	18.5	18.6	16.9	15.7	13.1	14.7
	t	4.6***	3.4***	2.7**	2.8**	-3.6***	-3.1**	-1.8	-3.1**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0.3	21.5	20.8	20.5	21.6	23.9	26.7	23.1
	300~399만원	20.3	19.0	19.5	19.0	15.4	15.1	14.1	15.1
	400~499만원	21.2	19.9	18.0	18.6	15.0	14.1	11.7	13.0
	500~599만원	21.1	19.9	19.3	19.2	12.7	12.8	11.5	12.1
	600만원 이상	21.9	20.5	18.9	18.7	11.8	10.8	9.8	10.0
	F	2.8*	4.7***	4.6**	2.5*	25.2***	40.1***	99.0***	40.2***
총 자녀수	1명	27.6	26.9	25.9	25.6	19.6	18.8	17.0	18.4
	2명	19.2	18.9	18.1	18.5	15.0	14.2	12.0	13.2
	3명이상	14.7	13.9	13.3	13.0	12.2	12.1	9.8	11.5
	F	413.9***	372.2***	384.4***	386.8***	29.2***	29.2***	72.5***	36.0***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월평균 79만9천원으로, 앞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61만2천원(표 Ⅳ-2-9 참조)에 비해 18만7천원이 높았으며, 만6세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인 73만6천원(표 Ⅳ-2-9 참조)에 비해서도 6만3천원가량 높았다.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2차년도(2019년)에는 77만8천원이었으며, 3차년도(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72만1천원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된 4차년도(2021년)에는 79만9천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서도 높았다.

비목별로는 4차년도(2021년) 기준 교육/보육비가 월평균 28만4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식비 16만6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 8만5천원 순이었다.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3차년도(2020년)에 감소했다가 4차년도(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식비는 반대로 3차년도에 크게 증가했다가 4차년도에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차년도(2019년)와 비교할 때 4차년도(2021년)의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은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는 작은데 반해 식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2차년도(2019년) 대비 4차년도(2021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에서 기기/집기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기/집기에 대한 지

출 비용 자체는 크지는 않으나, 2차년도에는 2만8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4차년도에는 6만3천원까지 증가하였다. 기기/집기에는 아동을 위한 책상 등 비품과 전자기기 구매 등이 포함되는데, 초등학령기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표 Ⅳ-2-14〉 비목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총계	77.8	72.1	79.9
(사례수)	(470)	(441)	(429)
1.식비(외식비포함)	15.6	18.1	16.6
1-1.외식비	4.1	4.7	4.6
3.기기/집기	2.8	3.9	6.3
4.피복비(의류및신발)	5.7	5.8	6.3
5.보건/의료비	2.5	3.5	3.6
6.교육/보육비	31.2	22.4	28.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0.5	8.0	8.5
7-1.가족여행 등	5.4	2.7	3.6
7-2.관람 체험학습	1.5	0.4	0.5
7-3.완구	1.6	2.1	1.8
7-4.도서구매	2.1	2.8	2.6
8.교통비	0.4	0.6	0.5
9.통신비	0.8	0.8	0.8
9-1.휴대전화비	0.6	0.6	0.7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2	2.5	2.2
11-2.보험	6.1	6.5	6.6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초등1학년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동 1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조사 차수와 무관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며, 초등1학년 자녀 뿐 아니라 영유아 자녀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다만, 초등1학년 자녀의 경우 영유아 자녀에 비해 가구특성에 따른 1인당 양육비용 지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1

만7천원이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98만9천원으로 격차가 37만2천원에 달했다. 반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50만6천원,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9만6천원으로 격차가 29만원에 그쳤다(표 Ⅳ-2-12 참조). 이를 통해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한 이후 가구 특성에 따라 아동 1인에 대한 투입액의 격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15〉 가구특성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9~2021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77.8	72.1	79.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5.2	80.5	86.9
	외벌이	71.4	65.4	73.9
	t	3.9***	4.1***	3.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2.3	46.4	61.7
	300~399만원 이하	65.3	62.5	67.0
	400~499만원 이하	77.7	67.2	75.7
	500~599만원 이하	84.4	74.0	89.2
	600만원 이상	105.9	89.7	98.9
	F	21.8***	11.9***	11.0***
총 자녀수	1명	100.2	92.8	103.9
	2명	75.9	71.9	78.4
	3명이상	59.2	53.0	66.7
	F	32.8***	26.8***	18.4***
지역 규모	대도시	82.7	71.3	78.2
	중소도시	75.1	72.9	80.6
	읍면지역	70.4	72.1	82.2
	F	3.6*	0.1	0.2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생활비 대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4차년도(2021년) 기준 22.7%이며,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중은 17.1%였다. 생활비 대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 자녀수가 적은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16〉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9~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명), %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사례수)		23.0 (470)	21.8 (441)	22.7 (429)	19.0 (470)	15.1 (441)	17.1 (42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7	23.1	23.0	16.3	14.5	15.7
	외벌이	23.2	20.8	22.5	21.4	15.6	18.3
	t	-0.7	2.7**	3.1**	-1.7	-1.2	-2.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5.4	22.4	23.0	34.2	24.9	23.8
	300~399만원	22.3	21.9	22.2	18.4	17.5	18.8
	400~499만원	22.6	21.1	22.3	17.3	15.1	16.7
	500~599만원	22.2	21.4	23.7	15.5	13.6	16.2
	600만원 이상	23.3	22.8	22.8	12.6	12.1	13.5
	F	1.9	0.7	11***	5.2***	13.9***	11.4***
총 자녀수	1명	31.6	29.0	32.2	23.4	20.6	21.5
	2명	22.1	21.7	22.3	19.5	14.8	17.0
	3명이상	16.5	15.3	17.3	13.2	10.7	14.3
	F	132.8***	70.8***	18.4***	2.5	28.1***	15***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이 절에서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비용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과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세제 지원 혜택 수혜 여부를 활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아동수당 활용 실태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원되는 정책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95]). 이후 2019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

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1. 10. 18.).

되어 만7세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96]).

현금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의 주된 활용처는 1+2순위 기준 4차년도(2021년) 식비, 개인유지비, 교육/보육비, 저축 등 금융상품 순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차년도(2019년)에는 식비 42.1%, 교육/보육비 37.0%, 개인유지비 29.9%, 저축 등 금융상품 29.3%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68.7%로 매우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유지비(41.6%), 저축 등 금융상품(22.6%) 순이었다.

〈표 Ⅳ-3-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1+2순위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명), %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총계	(1,665)	(1,679)	(1,709)
식비	42.1	68.7	59.9
피복비	11.2	13.3	11.2
보건/의료비	8.4	14.7	7.6
교육/보육비	37.0	20.3	32.7
여가 및 문화생활비	18.2	7.8	9.2
개인유지비	29.9	41.6	41.7
저축 등 금융상품	29.3	22.6	29.3
기타	0.7	0.9	0.3
아동수당 받지 않음	-	-	0.5
무응답	23.3	10.2	0.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4차년도(2021년)에는 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긴 하나 비중이 8.8%포인트 가량 낮아진 반면, 교육/보육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32.7%로 12.4%포인트 증가하였다. 4차년도(2021년) 기준 아동수당의 주요 활용처는 식비(59.9%), 개인유지비(41.7%), 교육/보육비(32.7%) 순이었다.

저축 등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의 주요 활용처(상위3개 비목)에 해당하는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에 대한 지출이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식비와 개인유지비에 활용했다

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1. 10. 18.).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반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수당을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Ⅳ-3-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0.9	38.4	29.0	58.4	22.9	39.9	56.1	34.9	38.1
	외벌이	43.0	35.9	30.5	72.0	18.3	43.0	62.6	31.0	44.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1	36.8	28.0	75.4	16.1	46.6	72.5	29.0	45.5
	300~399만원	43.4	32.7	33.3	71.0	17.2	42.8	61.6	30.0	44.7
	400~499만원	43.0	39.3	28.0	66.4	18.9	39.6	58.0	32.8	40.6
	500~599만원	40.3	37.7	36.9	69.3	20.3	42.9	57.0	34.5	40.3
	600만원 이상	34.5	40.4	20.8	66.9	26.5	40.7	54.1	37.3	37.3
총 자녀수	1명	39.0	28.1	36.0	65.0	13.4	50.1	54.1	23.4	49.9
	2명	42.5	40.9	28.1	69.4	24.3	36.8	60.4	37.9	38.0
	3명이상	48.3	43.9	21.5	74.1	21.1	40.5	70.6	33.9	37.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아동수당이 양육비용 부담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 기준 3.5점에서 3.8점 수준으로 보통보다 약간 수준에 그쳤다. 도움정도는 2차년도(2019년)에는 평균 3.5점이었는데, 3차년도(2020년)에는 3.8점까지 높아졌으나, 4차년도(2021년) 3.6점으로 약간 낮아진 것 조사됐다.

〈표 Ⅳ-3-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 점 (명)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아동수당 받지않음		
2차년도 (2019년)	2.2	13.2	29.6	31.5	17.2	6.4	3.5	100.0 (1,665)
3차년도 (2020년)	0.6	8.0	22.9	43.2	25.2	0.1	3.8	100.0 (1,679)
4차년도 (2021년)	1.3	10.8	29.8	40.6	17.4	0.1	3.6	100.0 (1,709)

주: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 실태

4차년도에 새롭게 조사 문항으로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1+2순위 기준 주로 식비(81.4%), 개인유지비 (45.8%), 교육/보육비(20.3%)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는 아동수당에 비해서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1순위 응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 : (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총계	(1,709)	(1,709)	(1,709)
식비	67.3	14.0	81.4
피복비	2.0	12.9	15.0
보건/의료비	2.8	6.5	9.3
교육/보육비	7.0	13.3	20.3
여가 및 문화생활비	3.0	10.1	13.0
개인유지비	11.7	34.1	45.8
저축 등 금융상품	3.7	4.7	8.4
기타	0.3	0.6	0.9
아동수당 받지 않음	0.2	0.1	0.3
무응답	1.9	0.0	1.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 공적 지원금의 주요 활용처(상위 3개 비목)가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과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아동수당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수당을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체계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Ⅳ-3-5〉 가구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

구분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1.4	23.6	43.2
	외벌이	81.4	17.9	47.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9.0	19.0	45.0
	300~399만원	80.3	18.3	46.8
	400~499만원	79.0	19.6	45.5
	500~599만원	80.5	23.2	46.1
	600만원 이상	82.5	22.6	44.5

구분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총 자녀수	1명	76.4	15.1	48.3
	2명	82.9	22.7	44.5
	3명이상	87.1	23.0	44.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아동수당(3.6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6.1%,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6.9%였다.

〈표 Ⅳ-3-6〉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21년, 영유아 가구)

단위 : %, 점 (명)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모름		
0.6	5.8	28.7	46.1	16.9	2.0	3.7	100.0 (1,709)

주: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 세제 혜택 인지 및 수혜 여부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 혜택은 자녀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 대상자녀 기본공제, 자녀 장려금,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등이 있는데, 세제 지원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수혜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적용 대상이 포괄적인 자녀 기본 공제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79.0%(1,129가구)가 수혜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80.1%, 4차년도 78.9%가 수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자녀 기본 공제 이외에 세제 지원 수혜율은 낮은 편으로,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는 4차년도에 다소 높아졌으나 16.1%에 그쳤으며, 자녀 장려금은 4차년도 기준 13.8%,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는 29.7%가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세제 지원 수혜율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세제 지원 정책별로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Ⅳ-3-7〉 세제혜택 수혜여부 (2019~2021년)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자녀 기본 공제	79.0(1,129)	80.1(1,728)	79.0(1,528)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143)	14.7(318)	16.1(312)
자녀 장려금	31.1(291)	13.9(300)	13.1(254)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48.0(511)	33.3(717)	29.7(57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표 Ⅳ-3-8〉 세제혜택 인지여부 (2019~2021년)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알고 있음	구체적 금액은 모름	(수)	알고 있음	구체적 금액은 모름	(수)	알고 있음	구체적 금액은 모름	(수)
자녀 기본 공제	30.0	70.0	(1,129)	23.1	76.9	(1,728)	17.7	82.3	(1,348)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40.6	59.4	(143)	14.2	85.8	(318)	9.9	90.1	(312)
자녀 장려금	59.8	40.2	(291)	42.7	57.3	(300)	41.1	58.9	(236)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33.9	66.1	(511)	27.3	72.7	(717)	24.9	75.1	(48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등을 아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수혜율이 가장 높았던 세제 지원 제도인 자녀 기본 공제의 경우에도 4차년도 기준 구체적인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으며,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지원금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9.9%, 자녀 교육비 공제 소득 공제 기준을 안다는 응답은 24.9%였다. 한편, 자녀 장려금의 경우 수혜율은 세제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낮지만, 지원 금액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 장려금 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제 지원 혜택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 양육비용 부담

영유아 가구에게 양육비용이 충분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3.0점으

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5점 척도로 질문한 2차년도 조사 이후 매해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점수는 3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구소득이 높고, 총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비용 비용 충분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Ⅳ-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1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전체		2.5	(1,648)	3.0	(1,665)	3.0	(1,679)	3.0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	(761)	3.1	(738)	3.2	(735)	3.1	(720)
	외벌이	2.4	(887)	3.0	(927)	2.9	(944)	2.9	(989)
	t	5.8***		2.2**		5.1***		4.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	(359)	2.7	(239)	2.5	(118)	2.6	(200)
	300~399만원	2.4	(474)	2.9	(468)	2.9	(372)	2.9	(476)
	400~499만원	2.6	(374)	3.0	(435)	3.0	(512)	3.0	(448)
	500~599만원	2.6	(201)	3.1	(268)	3.1	(296)	3.2	(293)
	600만원 이상	2.7	(240)	3.3	(255)	3.3	(381)	3.3	(292)
	F	25.2***		17.2***		21.8***		28.3***	
총 자녀수	1명	2.6	(638)	3.1	(559)	3.2	(543)	3.2	(551)
	2명	2.5	(818)	3.0	(878)	3.0	(889)	3.0	(910)
	3명이상	2.3	(192)	2.8	(228)	2.8	(247)	2.7	(248)
	F	15.0***		15.5***		16.6***		25.4***	

주: 1차년도는 4점 척도, 2~4차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는 해마다 교육/보육비, 식비, 개인유지비 순의 비중을 보이는데, 4차년도에는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낮아진 반면,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2021년) 기준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40.6%였으며,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24.3%, 개인유지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11.0%였다. 한편, 문화여가생활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1차년도에 5.0%였으나, 4차년도에는 2.8%에 그쳤다.

〈표 Ⅳ-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1년)

단위 : %, (가구)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수)	(1,648)	(1,665)	(1,679)	(1,709)
1.식비(외식비포함)	17.7	15.5	18.7	24.3
2.주거 관리비	4.0	2.7	1.5	1.3
3.기기/집기	0.8	0.8	0.5	0.6
4.피복비(의류및신발)	1.8	2.0	1.8	1.9
5.보건/의료비	1.6	1.6	1.3	1.5
6.교육/보육비	44.6	48.8	54.6	40.6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0	3.5	2.5	2.8
8.교통비/통신비	0.8	1.0	0.2	0.3
9.개인유지비	7.0	7.7	6.8	11.0
10.금융상품	4.1	4.1	2.4	4.1
11.원리금 상환	-	11.0	7.8	9.5
12.이전지출	0.7	1.0	0.7	1.0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0.5	1.2	0.1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	-	0.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은데 반해, 맞벌이 가구들은 원리금 상환, 금융상품 등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아지는데 반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교육/보육비와 식비 모두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진데 반해,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에 비해 개인유지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4-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1년)

단위 :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 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담되는 비용 없음
전체		24.3	1.3	0.6	1.9	1.5	40.6	2.8	0.3	11.0	4.1	9.5	1.0	0.1	0.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6	1.0	0.6	1.3	1.5	39.6	2.6	0.1	9.7	5.1	12.6	1.7	0.1	1.3
	외벌이	25.6	1.5	0.6	2.3	1.5	41.4	2.9	0.4	11.9	3.3	7.3	0.5	0.1	0.5
	x^2	32.754**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 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담되는 비용 없음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7.5	2.5	2.0	2.0	3.5	28.0	1.5	0.0	12.0	3.5	6.5	0.0	0.0	1.0
	300~399만원	26.5	1.3	0.6	2.7	1.5	38.0	2.7	0.6	13.0	2.7	9.2	0.4	0.0	0.6
	400~499만원	25.4	0.9	0.2	2.0	1.3	43.5	2.9	0.2	10.0	4.5	7.1	0.9	0.0	0.7
	500~599만원	23.5	1.4	0.3	0.7	1.0	38.6	4.4	0.3	10.2	4.1	13.0	2.0	0.3	0.0
	600만원 이상	11.0	1.0	0.3	1.4	1.0	51.0	2.1	0.0	9.2	6.2	12.3	1.7	0.3	2.1
	x^2	127.571***													
총 자녀수	1명	23.6	1.8	1.1	2.7	2.2	23.6	3.6	0.4	20.0	6.0	10.9	2.2	0.0	2.0
	2명	23.2	1.3	0.4	1.4	1.2	49.1	2.7	0.3	7.1	3.1	8.9	0.5	0.1	0.3
	3명이상	30.2	0.0	0.0	1.6	1.2	47.2	1.2	0.0	5.2	3.6	8.9	0.0	0.4	0.0
	x^2	180.48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우선 지출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해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차년도(2021년) 기준 교육/보육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26.4%였다. 한편,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는 14.7%에 그쳤으나, 2차년도(2019년) 이후 25% 이상을 보이며, 4차년도(2021년)에는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비목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3차년도 이후 오히려 지출 비용이 증가한 식비의 경우에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도 3차 이후 증가하여 11%대의 비중을 보였다.

〈표 Ⅳ-4-4〉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18~2021년)

단위 :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수)	(1,648)	(1,665)	(1,679)	(1,709)
1.식비(외식비포함)	8.7	7.2	11.1	11.6
2.주거 관리비	1.6	1.4	1.4	0.8
3.기기/집기	0.4	1.1	2.0	2.0
4.피복비(의류및신발)	0.7	1.4	1.3	1.5
5.보건/의료비	1.0	0.5	1.4	0.9
6.교육/보육비	26.4	25.6	28.8	26.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4.3	15.9	10.5	11.3
8.교통비/통신비	0.4	0.2	0.1	0.1
9.개인유지비	3.1	3.3	3.6	4.2
10.금융상품	14.7	25.0	24.3	26.9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1.원리금 상환	13.7	17.6	15.1	13.5
12.이전지출	0.3	0.4	0.4	0.6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2	0.5	0.1	0.1
14. 추가지출의향없음	14.6	-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차년도(2020년) 31.6%였으며, 4차년도(2021년)에는 더 증가하여 34.1%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2/3정도, 큰 변동이 없는 가구가 상당수 됨을 알 수 있었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Ⅳ-4-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예	아니오	(수)	예	아니오	(수)
전체		31.6	68.4	(1,679)	34.1	65.9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0	68.0	(735)	35.0	65.0	(720)
	외벌이	31.4	68.6	(994)	33.5	66.5	(989)
	x^2	0.073			0.43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2.5	47.5	(118)	47.5	52.5	(200)
	300~399만원 이하	34.4	65.6	(372)	36.6	63.4	(476)
	400~499만원 이하	33.0	67.0	(512)	31.0	69.0	(448)
	500~599만원 이하	29.1	70.9	(296)	29.4	70.6	(293)
	600만원 이상	22.6	77.4	(381)	30.5	69.5	(292)
	x^2	41.006***			23.779***		
총 자녀수	1명	21.4	78.6	(543)	26.1	73.9	(551)
	2명	34.1	65.9	(889)	35.6	64.4	(910)
	3명이상	45.3	54.7	(247)	46.4	53.6	(248)
	x^2	50.428***			33.086***		
지역 규모	대도시	28.4	71.6	(670)	30.1	69.9	(670)
	중소도시	33.8	66.2	(746)	37.0	63.0	(781)
	읍면지역	33.8	66.2	(263)	35.7	64.3	(258)
	x^2	5.506			7.862*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3차년도(2020년)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충당했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19.2%,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헐어 씀(보험 해지 포함)이 18.6% 순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4차년도(2021년)에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어서 소득 내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존의 저축해 돈 돈을 헐어 씀(보험 해지 포함) 25.9%, 은행 기관 등의 대출 지원 11.7%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 가구들이 소비행태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화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Ⅳ-4-6〉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6.6	8.9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43.1	11.1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4.5	1.7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5.7	11.7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헐어 씀(보험 해지 포함)	18.6	25.9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1.7	5.1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19.2	33.3
기타	0.6	2.2
총계(수)	100.0 (531)	100.0 (58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은 가구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었다는 응답(16.9%)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저축을 헐어 씀(32.6%)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중위소득 구간에서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4-7〉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1년)

단위 : %(명)

구분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8.9	11.1	1.7	11.7	25.9	5.1	33.3	2.2	100.0 (58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3	9.5	0.0	12.6	32.6	7.4	29.5	3.2	100.0 (95)
	300~399만원 이하	8.6	8.6	1.1	10.9	28.2	5.2	34.5	2.9	100.0 (174)
	400~499만원 이하	10.1	15.1	4.3	7.2	22.3	3.6	36.0	1.4	100.0 (139)
	500~599만원 이하	3.5	7.0	0.0	19.8	29.1	7.0	32.6	1.2	100.0 (86)
	600만원 이상	16.9	15.7	2.2	11.2	16.9	3.4	31.5	2.2	100.0 (89)
	F	44.363*								

주: ①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②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③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④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⑤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헐어 씀(보험 해지 포함); ⑥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⑦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5.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의 결과를 중심으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를 정리하였다.

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과 지원 요구

1) 양육비용 부담 및 정책 수혜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대다수는 양육비용 중에서 식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저소득 가구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 및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식비가 필수재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저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절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 아무래도 식비가 가장 부담이죠. 식비가.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2)

> (가장 비중이 큰 비목을 질문하자) 식비.(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 전원)

> 식비랑. 그 다음에 병원에 예방접종이 공짜도 있지만. 무료가 아닌 것도 있어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4)

육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생계유지를 넘어선 추가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생애 초기 자녀가 저소득 가구라는 낙인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담에 참여한 저소득 가구 부모들은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며,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자녀에 대한 투자에 있어 다른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한도 끝도 없이 다 해주고 싶죠. 주변은, 아예 친구들 주변만 보더라도 벌써 영어 학원 다니고 있고 영어 학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 미술 전부 다 다니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내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놀 때까지 더 놀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놀이 위주로 그냥 많이 보내고 다 돌리려고 태권도만 보내고 있어요. (중략) 영어랑 미술을 보내고 싶어요. 미술은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소질도 있고 해서 보내고 싶고. 영어는, 그거는 이제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조금 더 빨리 노출시켜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현재 이용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 외에) 미술 하나 더 포함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하필 또 좀 주변에 부유한 아파트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놀이터에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그 놀이터가 멀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주변 제반 환경들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더 이제 좋은 거 만약에 고기를 사줘도 더 한우 먹고 싶다고 해도 호주산으로 돌리고 갈비 먹고 싶고 먹고 싶다고 해도 돼지갈비로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디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체험도 시켜주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드럼을 배우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펜싱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양육비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중략) 요즘 사람들이 우유를 사도 아이 거는 왠지 더 신경 쓰이니까 더 좋은 걸로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꾸 고기든 뭐 옷이든 자꾸 다른 쪽에서 줄여서 배우고 싶다는 거를 더 해주고 싶고 좀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걸 더 해주고 싶은 입장이에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식비 지원 외에도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방면에서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들 또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육아 가구이기 때문에 지원 받게 되는 지원과 일반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이 섞여 있는 형태를 보였다. 실제 저소득 가구들이 받고 있는 대다수의 지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저소득 가구

전체)이며, 육아 지원의 경우에는 보편 지원의 형태로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 중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사업은 저소득 기저귀 지원 사업과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고연령의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막내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구매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 그쪽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중략) 영양 플러스 지원받고 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3)

> 기저귀는 기저귀 바우처로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돈 들어갈 때는 없는데, (중략)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먹어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고 와도 집에서 또 간식을 찾거든요. (후략)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2)

> 영양 플러스는 임신 때 받았어요. 임신 때.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1)

> 드림스타트. 저희 아이가 우유를 진짜 많이 먹는데 우유도 일주일에 7개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실 도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추석 때나 명절 때 한 번씩 (중략)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명절 분위기 나게 선물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저는 기저귀 바우처를 받았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진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저귀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심적으로 도움이 됐었고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문화누리, 문화바우처 하고 드림스타트 거기서도 이제 저도 상담 부모 상담하고 이제 양육 코칭 상담 받았고요. 저희 아이 이제 미술치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거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우리 독서논술에서 선생님이 한 번씩 오셔서 해주시는 거 그거 이제 받고 있어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의료 지원은 못 받아봤어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기저귀, 물티슈. (중략) 저도 (기저귀 지원을) 받았는데 24개월 되니까 이제 끊기더라고요. 그게 끝나니까 부담이.(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2)

그런데,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은 실제로 육아 지원 사업에 비해 일반적인 생계보조 형태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를 높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면

담에 참여한 다수의 가구들이 주거급여 혹은 임대주택 지원 등의 주거 관련 지원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실질적인 현금 지원인 생계급여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주거 급여. 약간 실생활에 진짜 실비로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주거 급여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은 주거거든요. 주거 급여 받고 이런 게 되게. 그리고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올 때도 좀 더 우선순위에서 고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주거 급여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고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 저도 지금 주거 급여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2) 식비 관련 지원 수혜 및 의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식료품 지원(푸드 뱅크, 나라미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유아 가구들 또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식자재 혹은 식품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들 사업은 육아지원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영유아 자녀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양육비용 경감 효과는 일부로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양육비용 중 식비 부담이 큰 만큼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식품 지원이 보다 양질의 식재료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지금 주민센터에서 한 세 달에 한 번씩 짜장 소스 같은 걸 주더라고요. (중략) 짜장 소스만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또 잘 먹는 것도 아니어서 솔직히 그 개월 수에 먹는 음식을 줘야 맞는 건데 (후략)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1)

> 저는 푸드뱅크를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되게 식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영양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가정에 배달이 왔었거든요. 식재료가. 그런 제도가 좀 이런 영유아 저소득 가정의 재료 배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중략)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마스크 비용이나 원치 않게 계속 나가잖아요. 유아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저소득층에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2)

> 좀 유통기한 임박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공산품 같은 거 핫케익, 카레, 볶

음밥, 짜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좀 많이 넣어서 봉투에 담아주시고요. 또 이제 나머지 가끔 영양제 같은 것도 유통기한 임박한 건 많이 주고.(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3) 의료비 부담과 개선 요구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비를 제외하고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양육비용 비목은 의료비였으며, 고연령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와 문화여가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저소득 가구영유아에 대한 의료 지원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기는 하나, 저소득 가구들은 이러한 의료 지원이 심각한 질병과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보호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방 접종의 경우에도 필수 예방 접종 이 외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추가 접종비가 저소득 가구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처치(치과 치료 등), 일종의 건강 증진 측면의 약제비 등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한 정도의 예방 처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건강 증진 측면의 약제비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유 등을 질문하였는데, 저소득 가구의 다수가 이러한 부분을 부가적이거나 과도한 의료적 처치라고 보지 않고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 및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예방접종 중에 돈을 내는 예방접종은 한 번도 안 맞췄어요, 애들을.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4)

치과 같은 데 한 번 가면 치과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 꾸준히 먹이고 있고..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약간 지금 영양제도 저도 좀 꾸준히 먹이다가 한 한두 달 전부터 안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교육도 더 시켜주고 싶은데 또 금액도 부담스럽고.(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아이가 유치원 가면서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갔을 때도 그래서 주변에도 물어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도 여쭤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양제 도움을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영양제를 좀 유산균하고 그때 당시에 홍삼 들어간 거랑 이런 거를 꾸준히 먹였더니 진짜 아이가 그 다음 해에 감기를 안 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저는 의료비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수술비나 치아 보험 같은 거. 그런 거만 해줬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한편 이와 같은 의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영유아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으로 이어져, 보험료 납입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녀가 질병이나 상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 부족하게 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첫째부터 태어나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병원비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목돈으로 이렇게 병원비를 이렇게 대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보험을 조금 대비용 해가지고 들은 상태예요.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3)

제가 형편이 그때 어려워서 아이 낳고 보험을 태아 보험을 안 들었는데 그때 하필 가와사키가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그때 한 목돈으로 7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보험을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들은 게 (후략)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4) 교육/보육비 및 여가문화생활비 관련 지원 요구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보육비와 문화여가생활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비목으로,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비목에 해당한다. 이때, 무상 보육/교육의 실시 및 보편 지원의 확대로 저소득가구라 할지라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교육서비스는 일정 부분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저소득 가구들은 자녀가 생애초기 교육/보육서비스 및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봐 우려하였다. 또, 대상 아동이 취학 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서비스는 놀이 연계 활동, 스포츠 활동 지원 혹은 문화적인 성격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체육이나 예체능 계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고 (중략)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워낙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큰 금액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그걸로 바우처로 감당이 가능해서 괜찮은데 이제 이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3)

저는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연극이라

던가 전시회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 내 몫인 거가 사실 맞는 건데.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처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 살이 지나면 어떤 액티비티한 거 있잖아요. 동물원을 간다던가 놀이동산을 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금액이 작지가 않잖아요. (중략) 수족관이라든지 그런 다양하게 애들이 볼거리들 그런 것들. 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4)

동물원이나 산이나 그 아이들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엄마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동물원 놀이기구 타는데 아니면은 휴양림 같은 데. 그런 데 갔을 때 사실 체험을 너무 비싸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진짜 속상하거든요. 아이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해주니까.. 그런 거를 좀 문화누리 카드가 그런 게 조금 다 같이 지원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병설 유치원을 다니니까 이게 약간 영어라든지 다른 이런 특별활동 부분이 좀 아쉬워서 결국에 학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학원비를 지금 한 군데를 더 보내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스러워서..(어떤 분야 학원을 원하는지 질의하자)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해서.. 근데 사립유치원은 잠깐이라도 가볍게라도 영어 수업이 섞여 있는데 이게 병설 유치원은 영어 교육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영어랑 아이가 수영도 다니고 싶어 하는데.(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1)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남자 아이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놀이 카드나 이런 게 조금 더 고령층보다 아이들 위주가 (중략) 나이를 낮춰서 아이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고 (중략) 지금 가장 여행이나 체험 인성 쪽으로 아이들 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한편, 스포츠 바우처, 문화바우처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낮추거나 없애주어야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또, 지원 대상에 영유아는 포함되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 아이가 온전히 이제 다닐 수 있도록 학원이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없는 중에 그거를 절반이라도 돈을 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 3)

저희는 지방이다 보니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략)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타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 혜택이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학원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방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

렴한 편이긴 한데 스포츠 바우처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고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 1)

스포츠 바우처를 하면 8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 학원비가 8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중략) 자부담으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독서 논술 그런 프로그램도 책값은 자기 부담이라고 해서 조금씩은 다 내더라고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 2)

스포츠 바우처는 사실 그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태권도밖에 안 되가지고 태권도 보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만 쓰고 나면 또 제가 해야 돼서. 조금 기간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네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 2)

(문화바우처 활용 관련 질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돼서. 책 사는 거나 그런 걸로만 다 되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3)

금액이 여섯 살은 또 안 돼요. 문화누리카드가. (중략) 5살 6살부터는 활동이 많으니까 문화누리 카드가 연령대가 좀 더 다섯 살로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스포츠 바우처가 수영이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되게 멀더라고요 위치가. (중략)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수영장은 스포츠 바우처 되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또 하나 되는 곳은 또 너무 멀고.(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1)

5) 비대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의견

비대면 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의 의견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어린 영유아 자녀라는 점에서 미디어 활용 및 비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00(제품명) 같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커리큘럼은 마음에 들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유튜브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굳이 그것까지 교육까지 그거를 써가면서 비대면을 해야 한다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상황에 따라서는 따르긴 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긴 부정적이에요. (중략) 비대면 바우처를 직접 그렇게 이용한 적은 없는데 기존 앱에 그런 이게 있거든요. 기존 앱에서, 기존 앱에 뭐 한글 깨치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더라구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미디어 활용) 그래도 좀 해야지 저희도 집안 일을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안 하면 집안 일도 아예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뭐 볼 일은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솔직히 배우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희 애가. 양치질 같은 것도

흉내도 내고, 알파벳도 공부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니까. 아예 안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3)

△△△(제품명) 해보라고 해가지고 무료 체험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 태블릿하고 전자파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금액적으로 너무 금액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어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TV 통신사마다 TV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중략) ○○○(제품명)라는 게 있는데 (중략) 저도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거를 아이한테 좀 보여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비용도 부담이 되고 (중략) 굳이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걸 시켜야 될까 해서 저는 생각하거나 해주고 싶은 거는 없어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학습 위주의 온라인 교육의 활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반해, 놀이 혹은 신체활동을 접목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 참여 의사와 지원 확대 요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품꾸러미 형태의 만들기 교구 활동, 독서 활동 등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관에서 해주는 물품 꾸러미를 받은 적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의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요리 키트를 한 적도 있고. (중략) 요리하는 것도 괜찮고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정말 못 하잖아요, 밖에. 집 안에서 퇴근하고도 계속 거의 있는 편이고. 놀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중략)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도 일을 퇴직을 하고 그냥 애를 봐야 되나, 어린이집 보내는 거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중략)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재료를 재료비를 어느 정도 내긴 하지만. 그런 걸 하면 애들이 좀 성취감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하니까 그런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좀 집안에서 예전에 문화센터 갔을 때 이제 했던 것들은 체육,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기 봉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세워놓고 애들 거기 다리 건너기 이런 큰 건 아닌데 그냥 사소한 장난감류. 그런거 한 번씩 지원되면 좋을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2)

한편,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진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가정 내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보육/교육 과정에 에듀테크를 접목한 프

로그램이 확대되어 자녀가 보다 전문적이고 자연스럽게 미디어 교육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비대면 수업이 공교육에서 하는 거 빼고는 (중략) 영어는 사실 되게 미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접근하기 힘든 거를 미디어로 보면 애들이 자극을 받아서 관심이 있어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싫고요. 사실 영어는 오히려 미디어를 보여줘서 아이한테 관심을 끌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 바깥에 체험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품명) 같은 거를 그런 거를 할 때 약간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교육을 받을 때.(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1)

6) 기타 생활편의 관련 지원 요구

앞서 언급한 내용 이 외에 교통편의 등과 같은 생활 지원에 대한 강화 요구도 있었다. 자녀를 동반한 상태로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읍면지역과 같이 지리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많아 교통 편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들이 주로 주거비가 적게 드는 지역 혹은 임대 주택단지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저도 그 도서관에서 책을 진짜 많이 빌리는데 (중략) 도서관까지 택배서비스를 해주시긴 정말 힘드시겠죠? 그런데 30권의 책을 들고 진짜 막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진이 다 빠지거든요. (중략) 도서관이 바로 코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서 왕창 빌려서 또 반납도 왕창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택시를 또 타야 되는데 약간 택시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되니까 다자녀들은 이제 교통할인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운전 못 하는 이런 한부모들도 교통할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바우처 이런 거.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저는 제가 차량도 없어서 이혼한 아빠(남편)가 자기가 끌던 전에 차를 제가 지금 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그렇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많아서 한 달에 주유비가 한 3~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 저도 그 차량 때문에 너무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도 차가 없으면 아이들 병원을 못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차 때문에 경차를 사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2)

나. 전달체계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요구

한편, 심층면담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 부모들은 저소득 가구 지원이 워낙에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상이하여, 수혜하고 있는 정책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저소득 가구 내에서도 정책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 영양 플러스가 있는 것도 몰랐었고 저는 임신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라서 철분제도 한 번도 안 먹어봤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2)

>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드림 스타트 같은 것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해당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신청해서 이번부터 받고 있어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정보 같은 것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중략)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고, 사실상 내가 받을 혜택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는 있을 테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미리 알려주거나 하는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앞서 다른 면담자가 드림스타트에 대해 언급하자)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만 봤어요. (중략)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저소득심층면담_3 , 면담자2)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 혹은 유관 기관 복지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공공 기관 담당자의 태도로 인해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주민센터 가서 한부모 신청을 할 때 그냥 거기 주민센터 직원분이 그냥 다 해주셨어요. 조건이 된다고.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주민센터 가서. 주민센터 복지과 가서 상담하면 연계해 주고 그렇게.(저소득심층면담_3 , 면담자4)

> 먼저 알려주거나 이런 게 진짜 전혀 없어서 항상 이런 거를 정말 검색을 엄청나게 해보고. 나한테 조건이 맞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사실 주민센터 저는 가더라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나중에 알게 돼서 뒤늦게 신청하고 그 앞에 혜택을 많이 놓친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3 , 면담자2)

주민센터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러는 게 사실 예전보다 훨씬 보편화될 수 있는데. (중략) 주민센터 왔다 갔다 하면 얼굴 보면 다 동네에서 알 정도로. 그러니까 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중략) 복지 관련된 직원들은 조금 어떤 분은 진짜 말을 하기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칼 자르듯이 잘라서 되게 무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저소득심층면담_3 , 면담자4)

이 동네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나마 이사를 오기 전에 동네에서는 이제 아이 출산 출생 신고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좀 그분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기저귀 바우처라던가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해서 신청을 잘할 수 있었어요.(저소득심층면담_3 , 면담자2)

저는 이혼하고 한부모면 그 임대 아파트도 되고 다 될 거라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고 솔직히 주민센터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봐도 제대로 답변해 주신 분이 없었고(저소득심층면담_4 , 면담자3)

(드림스타트 미이용 사유) 드림스타트 신청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방문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중략) 약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때 많이 상처를 좀 받았어요.(저소득심층면담_4 , 면담자1)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현재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서비스였다. 다만, 복지로 등을 통해 정책을 인지하더라도 각 개별 사업별로 실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복잡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 전달 방식은 주민센터 등을 통한 선제적인 안내서비스였다.

며칠 전에는 이제 국민 비서라고 이제 000톡에 국민비서 무슨. (중략) 거기서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이제 거기 조건이라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려준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중략) 거기를 통해서 이제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SNS나 아니면 우편도 괜찮고.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3)

이미 저소득층 가구로 자격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미 개인 정보 동의도 다 된 상황인데 추가적인 혜택에 대한 안내를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저소득층이 됐을 때 추가 혜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내를 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2)

다. 한부모 가구의 고충과 지원 요구

저소득 영유아 가구는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과 같이 취약 여부가 2개 이상 중첩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반대로 취업활동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교육/보육비 지출이 커지는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라 볼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앞서 저소득 가구들이 봉착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한부모 가구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 요구가 높았는데,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97]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자녀 돌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관 이용은 필수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다. 일을 막 아이가 와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좀 봐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못하니까 엄청 일은 또 계속 밀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단 (아이)학교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봐줄 사람이 없고,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면 더 빨리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근로를) 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단시간 근로) 하고 있습니다.(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이 과정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피력되었다. 또한, 지원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 구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서 대기를 다 걸어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애가 한 명이라서 그런가, 순위에서도 계속 밀려나고.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2)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떤 사유가 됐든 양육 공백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중략) 프리랜서들이 서류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중략)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는 있지만

97) 면담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모에 해당하기는 함.

그래도 프리랜서도 엄연히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돌보미 필요하면은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 증빙이 좀 어렵고, 그거를 양육 공백으로 안 봐주니까, (중략)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설로.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이제 알아봐서 시터를 구하고 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3)

저는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아이돌봄이 신청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아빠가 없고 저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이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병원을 잘 못 가요. 돌봄도 저소득이나 저처럼 미혼 한부모이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진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아는지 질의하자) 처음 들어봐요. (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1)

아이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보름 한 달 정도를 힘들게 알아봤었거든요. (중략)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략) 1년 넘게 신청만 돼 있고 지금 당장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비용이. 자기 부담금이 (중략) 최저임금 받았던 그 월급 받은 그것 때문에 시간당 이용 부담금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아이를 하루에 두세 시간 맡기고 하려면은 하루에 돈 만 원 이상은 나가면 열흘 맡기면 양육 수당이 그대로 아이한테 나가는 거죠. 그 아이 돌봄을 맡기게 되면.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아무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도 조금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아동센터는 진짜 막 엄청 낙후된 곳에... 그냥 뭔가 한번 가봤는데 애들 거의 던져놓고 안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교육받으신 선생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질적인 면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한편, 한부모 가구의 부모가 일자리를 획득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정책 수혜 중복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 사업들이 다수 있어, 오히려 한부모 가구 부모들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 필요가 높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구 부모들의 유보임금은 자녀 돌봄 비용 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 중단까지를 포함하여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한부모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앞으로 (기초생활보호) 수급을 탈수급을 할 건데 탈수급을 하면서 돈을 모으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랑 자립을. 완벽한 자립을 하기까지 그런 좀 유예기간이. 한부모 수당을 좀 너무 소득을 낮은 상태에서 주지 말고, 거의 150만 원 이상 넘어가면 한 부모 수당이 안 나올걸요. 그래서 조금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높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요새 최저시급만 받아도 180이 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30만 원 차이

때문에 막 탈수급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더 쪼들리니까 탈수급을 하면 180만 원을 받고도 쪼들어지니까 (중략) 소득 금액의 범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저소득심층면담_2차, 면담자1)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기는 한데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금도 보낼 수는 있는데 그걸 보내면 수급자가 끊겨 가지고 지금 그래서 계속 보육 중이긴 하거든요.(저소득심층면담_3차, 면담자1)

저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홑벌이로 아이 한부모 가정을 신청을 하고 시급이 최저 시급 임금을 받는데도 지원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중략) 이제 직장도 없고 해서 주거 비용 신청을 한 번 해봤는데 (중략) 실업급여를 받아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저소득심층면담_4차, 면담자3)

한편, 한부모 여성이 수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희망하더라도 적당한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한부모 가구 모의 채용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취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 혹은 한부모 여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지원 등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일자리가 일단 또 시급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도 아이지만 뭐 일자리가 (중략) 써주는 직업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1)

일자리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짧은 시간이어도 좋으니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경력 단절인 여성이어도 일을 써주거나 하는 데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2)

저희 지역은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노는 동안 이제 자격증이라도 하나 두 개라도 더 따자는 심사에 이제 학원을 그냥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저소득심층면담_1차, 면담자1)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0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02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03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04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V장은 육아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와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로 아동 설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부모 지원 서비스 및 가정 내 돌봄, 개별돌봄 서비스 등 가구 단위로 질문한 설문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영유아의 육아서비스 행태에 대해 살펴본 후, 초등 1학년의 육아서비스를 살펴보았으며, 4차년도에 설문이 크게 증가한 가정 내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4절에는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아동설문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아동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을 밝혀둔다.[98]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반일제이상 기관

1) 이용기관

먼저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의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를 1~3차년도 원자료를 통해 나타난 결과[99]와 함께 〈표 V-1-1〉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4차년도 만0세~6세까지의 영유아 2,371명 중 50.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28.8%, 반일제이상 학원 등 1.3%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80.5%를 차지하고 19.5%가 이러한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21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1차(82.0%), 2차년도 조

98) 자료 정제과정에서 일부 자료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후 공개되는 원자료와 보고서의 수치가 일부 불일치할 수 있음.

99) 3차년도의 경우 영아와 유아의 결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표로 제시하였으나(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의 V장 1절, 2절 참조), 4차년도에는 영유아를 총합한 결과로 제시함.

사 결과(81.0%)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크게 하락하였던 2020년(72.4%)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나, 오랜 재난 상황에 가정양육 전환으로의 대응이 한계를 맞고 있고, 영유아 대상 반일제이상 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기에 다시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Ⅴ-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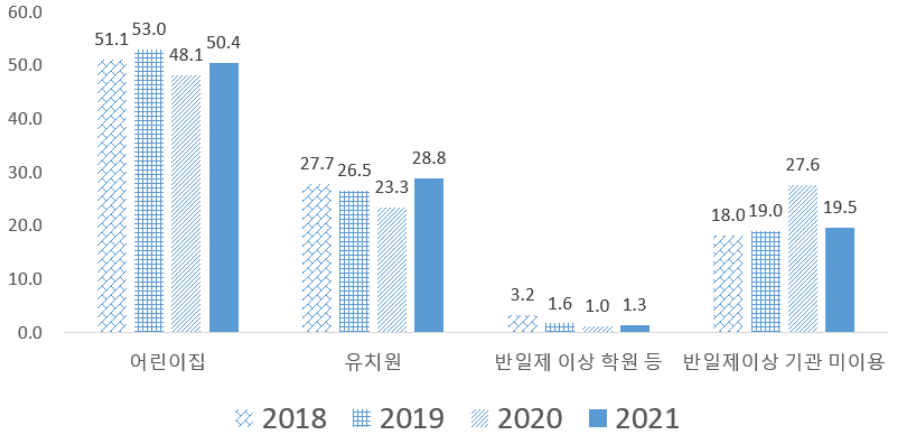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100.0 (2,277)	100.0 (2,333)	100.0 (2,368)	100.0 (2,371)
어린이집	51.1 (1,163)	53.0 (1,235)	48.1 (1,139)	50.4 (1,196)
유치원	27.7 (630)	26.5 (617)	23.3 (551)	28.8 (682)
반일제이상 학원 등	3.2 (74)	1.6 (37)	1.0 (24)	1.3 (31)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8.0 (410)	19.0 (443)	27.6 (653)	19.5 (462)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그림 Ⅴ-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1년)

단위: %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4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를 가구특성

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V-1-2〉에 따르면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응답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먼저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57.7%로 가장 높아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 45.3%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이용률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외벌이 가구는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5.3%로 맞벌이 가구의 11.3%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낮아졌는 바,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입소가 유리한 가점의 적용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V-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1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0.4	28.8	1.3	19.5	100.0 (2,37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7.7	29.7	1.4	11.3	100.0 (985)
	외벌이	45.3	28.1	1.2	25.3	100.0 (1,386)
	χ^2	76.42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7.8	30.3	0.0	22.0	100.0 (266)
	300~399만원	48.0	25.5	0.5	26.0	100.0 (651)
	400~499만원	49.0	30.6	1.2	19.2	100.0 (625)
	500~599만원	53.7	31.4	0.8	14.1	100.0 (420)
	600만원 이상	54.9	27.5	4.1	13.5	100.0 (409)
	χ^2	71.443***				
총 자녀수	1명	43.4	20.9	0.6	35.0	100.0 (527)
	2명	50.8	32.5	1.6	15.1	100.0 (1,379)
	3명이상	57.4	26.4	1.1	15.0	100.0 (465)
	χ^2	115.03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51.1	28.1	1.4	19.4	100.0 (913)
	중소도시	50.0	29.6	1.1	19.3	100.0 (1,055)
	읍면지역	50.2	28.0	1.7	20.2	100.0 (403)
	χ^2	1.572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다음으로는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이상 기관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는 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민간'으로 53.6%에 해당하였다. 이밖에 '국공립' 25.8%, '가정' 11.1%, '법인·단체' 3.6%, '사회복지법인' 3.0%, '직장'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립유형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체적 비중은 작지만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4.7%로 외벌이 가구의 1.3%에 비해 약 3.6배 높은 결과를 보였고,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도(12.2%) 외벌이 가구의 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31.4%)와 600만원 이상 가구(30.2%)에서 그 외 소득 구간(300만원~599만원)의 23.1%~24.8% 수준의 국공립 이용률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특별히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배려가 입소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에서 모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1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수)
전체		25.8	3.0	3.6	53.6	11.1	2.9	100.0 (1,19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3.1	2.7	52.9	12.2	4.7	100.0 (568)
	외벌이	27.1	2.9	4.4	54.3	10.2	1.3	100.0 (628)
	χ^2	76.42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4	6.0	5.9	41.9	10.3	4.5	100.0 (127)
	300~399만원	24.8	2.1	3.7	57.5	10.4	1.6	100.0 (313)
	400~499만원	23.1	3.4	1.8	59.8	10.6	1.3	100.0 (307)
	500~599만원	23.3	2.7	3.1	54.2	12.7	3.9	100.0 (225)
	600만원 이상	30.2	2.2	5.0	45.9	11.8	4.9	100.0 (225)
	χ^2	71.443***						
총 자녀수	1명	25.9	2.6	1.2	54.6	13.6	2.2	100.0 (229)
	2명	25.7	3.0	3.1	53.4	11.2	3.7	100.0 (700)
	3명이상	26.0	3.4	6.8	53.5	8.8	1.5	100.0 (267)
	χ^2	115.030***						
지역 규모	대도시	34.3	2.0	5.3	47.8	7.2	3.3	100.0 (467)
	중소도시	20.2	3.6	2.5	57.7	13.8	2.3	100.0 (527)
	읍면지역	20.9	3.8	2.3	56.5	13.0	3.6	100.0 (202)
	χ^2	1.572						

주: 부모협동 이용자는 한명도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본 조사 대상 유아 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하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67.0%가 사립유치원, 33.0%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총 자녀수가 1명일 경우 25.7%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중인 반면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국·공립 이용률이 20%p이상 높은 46.9%에 달하였고, 대도시지역 거주 유아인 경우 23.3%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나 읍면지역 거주 유아중에서는 45.5%가 이용하여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유치원의 이용 기회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V-1-4 참조).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표 V-1-5〉에 따르면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은 영어학원으로 78.8%를 차지하였고, 기타 학원 10.9%, 그 외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이 각 3.3%에 해당하였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사례가 31사례로 많지 않아 이용 학원 유형 비율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Ⅴ-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1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전체		33.0	67.0	100.0	(68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1	67.9	100.0	(292)
	외벌이	33.7	66.3	100.0	(390)
	χ^2	0.148		-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7.3	62.7	100.0	(80)
	300~399만원	32.4	67.6	100.0	(166)
	400~499만원	32.8	67.2	100.0	(191)
	500~599만원	31.1	68.9	100.0	(132)
	600만원 이상	33.3	66.7	100.0	(112)
	χ^2	0.973		-	
총 자녀수	1명	25.7	74.3	100.0	(110)
	2명	31.0	69.0	100.0	(449)
	3명이상	46.9	53.1	100.0	(123)
	χ^2	14.827***		-	
지역규모	대도시	23.3	76.7	100.0	(257)
	중소도시	36.4	63.6	100.0	(313)
	읍면지역	45.5	54.5	100.0	(113)
	χ^2	20.453***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연구.
*** $p < .001$.

〈표 Ⅴ-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1년)

단위 : %(명)

영어학원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계(수)
78.8(24)	3.6(1)	3.3(1)	3.3(1)	10.9(3)	100.0(3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연구.

2)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여기서는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률을 살펴보면 4차년도 조사인 2021년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66.3%,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73.5%,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화프로그램은 51.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인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V-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비중 (2018-2021년)

단위 : 개,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1차년도(2018년)	65.1	(726)	66.4	(401)	59.1	(44)
2차년도(2019년)	65.9	(734)	52.1	(288)	47.2	(18)
3차년도(2020년)	42.4	(459)	42.3	(211)	42.7	(10)
4차년도(2021년)	66.3	(792)	73.5	(501)	51.0	(16)

주: 해당 기관 이용자 중 특별활동 이용자 비중 및 수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이용기관 유형별 이용하는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의 평균 과목수를 살펴보았다. 4차년도(2021년)의 경우 2.7개, 유치원의 경우 3.2개, 반일제이상 학원 3.4개로,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가 약간 감소한 반면, 유치원과 반일제 학원의 특성화프로그램 과목수는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표 V-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 (2018-2021년)

단위 : 개,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수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과목수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수	
1차년도(2018년)	3.0	(726)	3.1	(401)	2.9	(44)
2차년도(2019년)	3.0	(734)	3.1	(288)	2.9	(18)
3차년도(2020년)	2.9	(459)	2.9	(211)	2.9	(10)
4차년도(2021년)	2.7	(792)	3.2	(501)	3.4	(16)

주: 특별활동 이용자 기준 평균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코로나19 전후로 특별활동 이용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용 계획 개수를 살펴보았다. 〈표 V-1-8〉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전후해 특별활동 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12.8%, 차이가 없는 경우는 67.2%, 잘 모르겠다가 20.0%로 응답되었다. 즉, 코로나19를 전후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용하고자 계획한 특별활동 개수는 평균 2.9개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전후한 특별활동 이용 변화는 가구 특성 중 총 자녀수, 지역규모, 아동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0.0%로 자녀가 2명, 3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고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중소도시가 15.2%로 가장 많고, 대도시 12.1%, 읍면지역 8.3% 순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3세 이상에서 코로나19를 전후한 특별활동 이용에 차이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0세의 경우 0%, 1세 3.8%가 차이를 경험하였으나 만3세 이상에서는 12.0%이상으로 특별활동 이용에 변화를 겪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만6세인 경우는 16.1%가 코로나19를 전후한 특별활동 이용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만 4세에서 평균 3.2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응답하여 만6세이하 영유아 중 가장 많은 개수를 계획한 연령으로 나타났다.

〈표 Ⅴ-1-8〉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 변화 및 이용 계획 개수 (2021년)

단위 : %, 개, (명)

구분		코로나19 전후 이용 변화			이용 계획 개수	계(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8	67.2	20.0	2.9	100.0 (24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6	68.4	19.0	2.9	100.0 (110)
	외벌이	13.0	66.1	20.8	2.9	100.0 (135)
	x^2 / t	1.264			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8	66.0	23.2	2.7	100.0 (22)
	300~399만원 이하	12.3	68.1	19.6	3.0	100.0 (59)
	400~499만원 이하	13.5	66.7	19.8	3.0	100.0 (68)
	500~599만원 이하	11.2	70.7	18.1	2.7	100.0 (40)
	600만원 이상	15.5	63.8	20.7	2.9	100.0 (55)
	x^2 / F	7.166			0.6	
총 자녀수	1명	13.2	60.0	26.8	2.9	100.0 (45)
	2명	13.1	69.2	17.7	2.9	100.0 (154)
	3명이상	11.6	67.5	20.9	2.9	100.0 (46)
	x^2 / F	15.419**			0.0	
지역 규모	대도시	12.1	69.9	18.0	2.9	100.0 (89)
	중소도시	15.2	62.1	22.8	2.9	100.0 (129)
	읍면지역	8.3	74.7	17.0	3.1	100.0 (27)
	x^2 / F	21.640***			0.3	

구분		코로나19 전후 이용 변화			이용 계획 개수	계(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아동 연령	만0세	0.0	34.5	65.5	0.0	100.0 (0)
	만1세	3.8	68.6	27.6	2.2	100.0 (3)
	만2세	9.5	60.3	30.3	2.4	100.0 (22)
	만3세	14.1	67.1	18.8	2.7	100.0 (45)
	만4세	12.4	69.9	17.7	3.2	100.0 (47)
	만5세	12.2	67.0	20.8	2.8	100.0 (53)
	만6세	16.1	68.7	15.2	3.1	100.0 (75)
	x^2 / F	39.724***			2.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3) 이용시간

각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2021년 4차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은 35.0시간, 유치원은 34.5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29.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1~3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경향은 4차년도에도 동일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1~4차년도 조사 결과가 거의 동일하나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3차 조사에서 이용 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1~2차, 4차의 결과는 유사하여, 3차년도에 코로나19 등의 영향과 조사 방식 변화(시간표 형태 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4차년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 적응된 형태로 기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관 이용 행태로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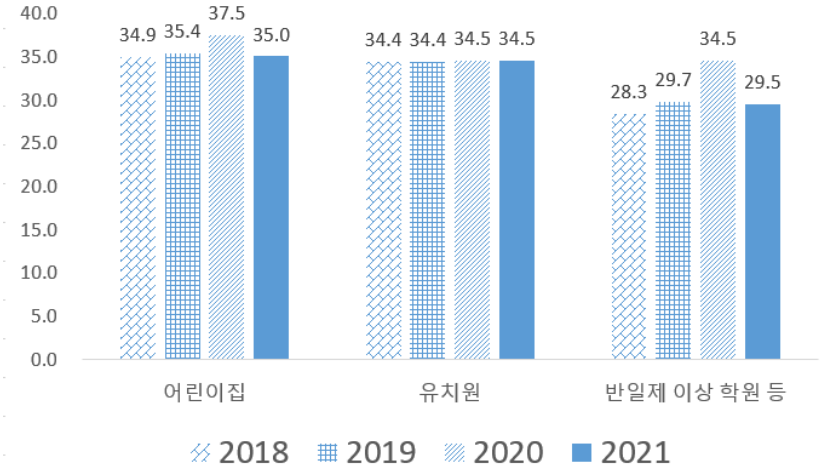
단위 : 시간(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어린이집	34.9 (1,163)	35.4 (1,235)	37.5 (1,139)	35.0 (1,196)
유치원	34.4 (630)	34.4 (617)	34.5 (551)	34.5 (682)
반일제 이상 학원 등	28.3 (74)	29.7 (37)	34.5 (24)	29.5 (31)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1차, 2차, 4차년도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그림 Ⅴ-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1년)

단위: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2021년도 4차년도 조사에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맞벌이 가구는 하루 평균 7.4시간을 이용하여 외벌이 가구의 6.7시간에 비해 하루 평균 0.7시간(약 42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7.2~7.3시간을 이용하여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 6.8~6.9시간 보다 평균 0.3~0.5시간 가량(약 18분~30분) 더 이용 시간이 길었다. 또한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하루 평균 6.8시간을 이용하였으나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 7.0시간, 3명 이상인 경우 7.2시간으로 점점 긴 시간을 이용하는 경향이었다. 지역규모는 작을수록 이용 시간이 증가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하는 하루평균 6.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는 평균 7.3시간을 이용하였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6.9시간이며,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평균 7.3시간을 이용하는 반면 외벌이 가구 유아는 6.6시간을 이용해 평균 0.7시간(42분)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500~599만원 이하의 가구 유아가 유치원 이용 시간이 가장 길어 평균 7.2시간을 이용하며 가구소득 300~399만원 이하의 가구 유아가 평균 6.6시간을 이용해 가장 이용시간이 짧은 소득 구간이었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 영유아의 이용 시간은 가구의 제 특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7.0	(1,196)	6.9	(682)	5.9	(3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	(568)	7.3	(292)	6.0	(14)
	외벌이	6.7	(628)	6.6	(390)	5.8	(17)
	t	10.8***		8.1***		0.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9	(127)	6.9	(80)	0.0	(0)
	300~399만원 이하	6.8	(312)	6.6	(166)	5.7	(3)
	400~499만원 이하	6.9	(306)	6.9	(191)	5.3	(7)
	500~599만원 이하	7.3	(226)	7.2	(132)	6.0	(3)
	600만원 이상	7.2	(225)	7.0	(112)	6.2	(17)
	F	6.8***		6.4***		0.9	
총 자녀수	1명	6.8	(229)	6.9	(110)	6.4	(3)
	2명	7.0	(701)	6.9	(449)	5.8	(22)
	3명이상	7.2	(266)	6.9	(123)	5.9	(5)
	F	5.9**		0.1		0.3	
지역 규모	대도시	6.8	(467)	6.9	(257)	6.0	(12)
	중소도시	7.1	(527)	6.9	(313)	6.3	(12)
	읍면지역	7.3	(202)	7.0	(112)	5.0	(7)
	F	10.9***		0.8		2.6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4) 이용비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의 월평균 이용 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2021년 4차년도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시 월평균 이용 비용은 6만6천원, 유치원은 13만2천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시 85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1~4차년도에 걸쳐 어린이집은 2차년도에 7만8천원으로 다소 상승한 바 있으나 1, 3~4차년도 비용은 6만원대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역시 2차년도에 15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응답되었으나 이후 3차년도 13만7천원, 4차년도 13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서는 이용 비용이 매우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3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4차년도 조사된 이용 비용은 다소 낮게 응답되었다.

〈표 Ⅴ-1-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2018~2021년)

단위 : 만원(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어린이집	6.6 (1,163)	7.8 (1,235)	6.1 (1,139)	6.6 (1,196)
유치원	14.2 (630)	15.2 (617)	13.7 (551)	13.2 (682)
반일제 이상 학원 등	57.2 (74)	71.2 (37)	88.4 (24)	85.6 (31)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구특성 중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이용 비용이 평균 7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6만4천원, 대도시 5만9천원으로 대도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지역규모별 설립유형 분포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이용비용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유치원 이용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총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치원 이용 유아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이용비용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유아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의 지역규모별 설립유형 분포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1-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2021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6.6	(1,196)	13.2	(682)	85.6	(3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7	(568)	13.7	(292)	94.8	(14)
	외벌이	6.5	(628)	12.7	(390)	78.2	(17)
	t	0.6		1.0		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	(127)	10.2	(80)	0.0	(0)
	300~399만원 이하	6.2	(312)	11.7	(166)	45.8	(3)
	400~499만원 이하	6.9	(306)	14.4	(191)	50.6	(7)
	500~599만원 이하	7.3	(226)	13.7	(132)	100.5	(3)
	600만원 이상	6.5	(225)	14.5	(112)	106.5	(17)
	F	2.0		2.5*		8.4***	
총 자녀수	1명	6.4	(229)	16.5	(110)	108.4	(3)
	2명	6.8	(701)	13.2	(449)	85.3	(22)
	3명이상	6.4	(266)	9.9	(123)	72.8	(5)
	F	0.7		8.2***		0.8	
지역 규모	대도시	5.9	(467)	17.2	(257)	96.6	(12)
	중소도시	7.4	(527)	11.5	(313)	92.0	(12)
	읍면지역	6.4	(202)	8.4	(112)	54.1	(7)
	F	7.7***		25.7***		3.2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의 세부비용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경우 4차년도에는 특별활동 비용이 3만8천원으로 총액 6만6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료는 2만5천원에 해당하였다. 4차년도의 경우 기타 비용과 시간연장형 보육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4차년도에 조사된 어린이집 이용비용 중 보육료는 비용의 절대액이 1차년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응답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별활동 비용도 3차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표 V-1-13〉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월평균 세부비용 (2018~2021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보육료/교육료/수업료	그 밖의 비용	시간연장형 보육/방과후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특별활동	총계	(수)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0.8	1.9	0.1	3.3	6.6	(1,163)
	2차년도(2019년)	1.0	1.8	0.0	4.4	7.8	(1,235)
	3차년도(2020년)	1.2	1.8	0.1	2.7	6.1	(1,139)
	4차년도(2021년)	2.5	0.0	0.0	3.8	6.6	(1,196)

구분		보육료/교육료/수업료	그 밖의 비용	시간연장형 보육/방과후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특별활동	총계	(수)
유치원	1차년도(2018년)	5.6	2.8	0.3	4.3	14.2	(630)
	2차년도(2019년)	6.7	2.7	0.6	4.4	15.2	(617)
	3차년도(2020년)	7.2	2.2	0.4	3.5	13.7	(551)
	4차년도(2021년)	5.2	2.0	0.5	4.6	13.2	(682)
반일제 이상 학원 등	1차년도(2018년)	37.3	6.5	0.0	5.8	57.2	(74)
	2차년도(2019년)	54.3	10.1	0.0	6.8	71.2	(37)
	3차년도(2020년)	71.5	7.7	0.0	9.6	88.4	(24)
	4차년도(2021년)	70.2	9.0	0.0	6.3	85.6	(29)

주: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서비스이며, 교육료, 방과후 과정,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 해당하며,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수업료와 특별활동이 해당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유치원 이용비용의 경우 총액 13만2천원 중 교육비가 5만2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1차년도에 응답된 교육비 보다도 절대액은 감소하였으며,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은 4차년도에 4만6천원으로 3차년도 대비 1만1천원 증가해 증가폭이 컸다. 1~4차년도에 걸쳐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유사한 수준이나 3차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특성화프로그램 이용이 감소하면서 이용비용이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에 다시 이용 수준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수준으로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경우 4차년도 응답 결과 수업료는 70만2천원으로 총액 85만6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수업료는 3차년도의 71만5천원 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특별활동 비용도 3차년도 9만6천원에서 4차년도에 6만3천원으로 감소하여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서비스 만족도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만족도는 다음 〈표 V-1-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한 비율로 살펴 본 만족 비중은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86.8%, 유치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85.1%,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에 대한 만족 비율은 82.6%로 나타났으며, 이는 3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모두 상승한 결과이다.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5점)로 측정한 기준에서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 대해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중과 평균 점수가 1차 조사 이후 지속 상승하였으나,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중은 3차년도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평균 점수도 2차 조사에서 4.2점으로 응답된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표 V-1-14〉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1년)

단위 : %, 점,(명)

구분	어린이집 서비스		유치원 서비스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만족 비중	평균점수	만족 비중	평균점수	만족 비중	평균점수
1차년도(2018년)	75.7	3.9	77.2	3.9	87.4	4.0
2차년도(2019년)	79.6	3.9	82.2	4.0	87.2	4.2
3차년도(2020년)	84.3	4.0	83.0	4.0	82.1	4.0
4차년도(2021년)	86.8	4.0	85.1	4.0	82.6	4.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6) 온라인 수업

한편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조사시점 이전 3개월 간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월평균 온라인 수업 횟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표 V-1-1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2.6%가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유치원에서는 5.8%,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6.9%가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경우 월 평균 2.6회,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평균 6.5회,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아동의 경우 월평균 2.0회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5〉 반일제 이상 기관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및 월 평균 수업 횟수, 만족도 (2021년)

단위 : %, 회, 점 (명)

구분	이용 경험		월평균 수업 횟수	계(수)
	있음	없음		
어린이집	2.6	97.4	2.6	100.0 (31)
유치원	5.8	94.2	6.5	100.0 (39)
반일제 이상 학원	6.9	93.1	2.0	100.0 (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3.6점, 유치원 이용의 경우가 3.1점, 기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3.5점으로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반일제이상 기관별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1-16〉과 같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우 만족'의 응답 비율이 25.7%, '대체로 만족' 32.5%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8.2%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매우 만족' 5.3%, '대체로 만족' 34.5%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39.8%,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매우 만족'은 0%, '대체로 만족' 50.0%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0.0%로, 어린이집 이용 사례의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1-16〉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어린이집	25.7	32.5	25.8	10.0	6.1	3.6	100.0 (31)
유치원	5.3	34.5	27.8	26.9	5.5	3.1	100.0 (39)
반일제 이상 학원	-	50.0	50.0	-	-	3.5	100.0 (2)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시간제 사교육[100)]

1) 이용기관

영유아가 지난 3개월 이내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에 대해 질문한 결과, 4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방문형 학습지는 15.0%, 문화센터 5.7%,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4%,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1%, 개인 및 그룹지도 1.4% 순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학원 중단과 대면형 집체교육이 기피되었던 2020년 3차 조사 결과에서 12.9%로 크게 감소하였었으나, 4차 조사에서는 1,2차 조사에서의 이용률 이상으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방문형학습지도 3차 조사에서 12.1%로 2차 조사시보다 2.5%포인트 감소하였었으

100) 반일제 이상 학원 제외

나 4차 조사에서 15.0%로 1차 조사의 응답 결과(15.3%)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고,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도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만 문화센터(5.7%)와 개인 및 그룹지도(1.4%) 이용률은 3차 조사시 크게 하락한 이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4차년도에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과 설문이 통합되었으며, 3차년도에 4.9%였는데, 4차년도에는 3.4%에 그쳤다. 단, 4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를 포함하면,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V-1-17〉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1년)

단위 : %,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26)	1.1 (25)	1.0 (23)	
개인 및 그룹지도	3.2 (73)	2.5 (58)	1.5 (35)	1.4 (32)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 (76)

주: 1)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교육용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단시간 학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센터 이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여타의 시간제 사교육 중 단시간 학원의 이용비용이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센터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은 문화센터의 주된 이용층인 영아 가구의 가구소득이 유아 가구 등 자녀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Ⅴ-1-18〉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1년)

단위 : %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21.3	15.0	2.1	3.4	1.4	5.7	3.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3.1	17.2	2.8	3.1	1.0	4.5	4.2
	외벌이	20.0	13.5	1.6	3.6	1.6	6.5	2.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7	9.3	1.9	3.1	1.2	7.4	2.8
	300~399만원	19.1	17.1	2.3	2.4	1.1	7.2	3.7
	400~499만원	19.0	13.4	1.1	5.0	1.6	6.1	2.5
	500~599만원	24.7	14.4	2.1	2.6	0.7	3.8	3.3
	600만원 이상	30.5	18.6	3.4	3.5	2.1	3.2	3.6
총 자녀수	1명	13.0	11.6	2.3	3.7	1.2	8.2	2.6
	2명	25.7	16.8	2.4	3.5	1.6	5.6	4.1
	3명이상	17.8	13.5	0.9	2.7	0.9	2.9	1.4
지역규모	대도시	23.6	14.2	3.0	2.9	1.5	6.1	3.0
	중소도시	20.5	15.7	1.5	4.0	1.6	5.4	3.4
	읍면지역	18.3	15.1	1.7	3.0	0.6	5.5	3.1

주: 이용 비중은 해당 가구특성별 영유아 중 각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로 이용하는 과목을 살펴보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단시간 학원의 경우 체육 과목을 이용하는 경우가 53.8%에 달하여 가장 높고 미술 과목 37.0%, 음악 17.5%, 영어 11.8%, 수학 및 과학 11.1%, 영어 외 언어 8.6%, 기타 3.0% 순이었다. 영유아는 단시간 학원의 경우 체육·미술·음악 등 예체능 과목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 관련 과목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나 영어(11.8%), 수학 및 과학(11.1%)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으로 단시간 학원 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목은 한글로 방문형 학습지 이용 사례 중 무려 72.5%에 해당하였고, 이외 '수학 및 과학' 54.6%, '영어' 17.4%, '종합교과' 9.3% 순으로 단시간 학원과는 반대로 주로 학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9〉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1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53.8	17.5	37.0	11.8	0.0	8.6	11.1	-	3.0	(506)
방문형 학습지	3.6	1.6	2.8	17.4	72.5	6.6	54.6	9.3	2.0	(356)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8	0.0	26.7	8.1	8.2	4.3	18.8	18.8	25.4	(49)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0.0	0.0	8.7	36.3	43.8	6.5	36.4	26.5	0.0	(80)
개인 및 그룹지도	27.0	3.3	15.0	26.3	9.8	5.5	12.9	16.0	6.3	(32)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4.5	2.7	0.0	50.4	31.0	4.2	26.5	30.1	2.7	(76)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율은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미술'과목 이용률이 26.7%로 가장 높고, '기타' 25.4%, '수학 및 과학' 18.8%, '종합교과' 18.8%, '한글' 8.2%, '영어' 8.1%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4차 조사에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형태인데, '한글'이 43.8%로 가장 높고 '수학 및 과학' 이용률이 36.4%, '영어'가 36.3%로 유사하게 높았으며, 이외 '종합교과' 16.0%, '미술' 8.7%, '영어 외 언어' 6.5% 순으로 나타나,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도 주로 학습 관련 교과 위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체육 27.0%, 영어 26.3% 등 예체능과 학습 관련 과목에 모두 이용되고 있었다. 온라인교육콘텐츠는 '영어' 이용률이 가장 높아 50.4%에 달하였고, 이외 한글 31.0%, 종합교과 31.0%, 수학 및 과학 26.5% 순으로 주로 학습 위주 교과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사교육은 그 유형에 따라 예체능 위주로, 혹은 학습위주로 사용되거나, 예체능·학습 관련 과목을 불문하고 이용되는 경우 등 사교육 유형의 특성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과목이 특정되는 현상이 엿보였다. 이는 즉, 에듀테크의 발달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과목의 사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용시간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의 1~4차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4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주당 평균 4.2시간을 이용해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용시간도 가장 긴 보편적인 사교육

형태로 나타났다. 이외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0.8시간,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7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8시간, 문화센터 1.2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1.9시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0〉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1~4차년도에 걸쳐 이용시간에 변화가 별로 없이 이용되는 사교육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와 4차조사에 걸쳐 이용시간이 더 증가한 사교육 유형이었다.

〈표 Ⅴ-1-20〉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단위 :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방문형학습지	0.6	0.5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0.7	0.8	0.8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3	1.0	1.3	
개인 및 그룹지도	1.9	1.7	2.1	2.8
문화센터	1.2	1.1	2.3	1.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9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형별 사교육에서 영유아가 이용하는 과목의 '학습관련', '예체능'의 구분별로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같은 유형의 사교육에서도 이용 과목의 목적이 '학습관련'인지, '예체능'특기 교육인지에 따라 이용시간의 장단에 차이가 있었다. 단시간 학원의 경우 학습관련 과목은 주당 2.9시간, 예체능 과목은 3.9시간으로 예체능 과목의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방문형 학습지는 학습관련 혹은 예체능 관련 과목의 이용시간이 거의 유사하였다. 학습관련 과목의 이용시간이 가장 긴 사교육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주당 3.6시간을 이용하였고, 학습관련 과목의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유형은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으로 0.6시간(약 36분)이었다.

〈표 V-1-21〉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학습관련		예체능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2.9	(124)	3.9	(453)
방문형 학습지	0.6	(331)	0.5	(35)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6	(25)	1.0	(25)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7	(73)	1.2	(7)
개인 및 그룹지도	3.6	(20)	1.2	(16)
문화센터	0.9	(10)	1.2	(12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8	(72)	2.3	(6)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2018년 1차조사에서 2021년 4차조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별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4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이용비용이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월평균 19만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단시간 학원'은 월평균 이용비용이 16만4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과 '교육용온라인콘텐츠' 9만5천원,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만5천원, '방문형학습지' 8만원, '문화센터' 5만1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2020년 3차조사에서의 14만8천원에서 2021년 4차조사의 19만8천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반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3차조사에서는 17만8천원에서 4차년도 16만4천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각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22〉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1년)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단시간 학원	13.4	14.2	17.8	16.4
방문형학습지	7.4	7.2	8.2	8.0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0.2	9.1	11.4	9.5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6	8.3	8.5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8	8.1	8.6	
개인 및 그룹지도	12.7	14.8	14.8	19.8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문화센터	5.2	4.8	5.7	5.1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9.5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학원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개인 및 그룹지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문화센터는 총 자녀수에 따라 월평균 이용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시간 학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서,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는 단시간 학원 이용에 14만5천원을 지출하였지만,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는 19만7천원을 이용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10만1천원) 외벌이 가구에(7만6천원) 비해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이용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히 500~599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74만4천원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문화센터 월평균 이용비용은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7만4천원으로 자녀수 2명(4만원), 3명 이상인(4만5천원)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Ⅴ-1-2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21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6.4	8.0	9.5	8.5	19.8	5.1	9.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5	8.4	8.6	10.1	17.2	5.5	9.6
	외벌이	16.2	7.6	10.6	7.6	20.8	4.9	9.2
	t	0.3	1.9	-1.3	2.2*	-0.3	0.6	0.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5	8.1	11.5	7.8	7.9	4.9	11.5
	300~399만원 이하	14.1	7.3	9.8	6.6	10.8	4.5	9.5
	400~499만원 이하	15.3	8.6	9.7	9.7	11.4	5.0	8.5
	500~599만원 이하	16.8	8.3	8.1	9.1	74.4	6.4	9.3
	600만원 이상	19.7	8.2	9.3	8.1	22.8	6.5	9.6
	F	6.4***	1.6	0.3	1	4.3**	0.7	0.3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총 자녀수	1명	17.9	8.0	8.6	8.4	13.5	7.4	10.1
	2명	15.8	8.1	10.1	8.8	21.5	4.0	9.3
	3명이상	17.5	7.8	7.1	7.7	20.5	4.5	9.1
	F	2.1	0.2	0.8	0.2	0.2	6.8**	0.1
지역 규모	대도시	16.8	8.2	9.1	7.4	25.4	5.4	8.8
	중소도시	16.5	8.1	10.2	8.9	16.6	5.0	8.9
	읍면지역	14.7	7.4	9.3	9.8	10.7	4.5	12.4
	F	1.3	0.9	0.2	1.1	0.4	0.3	1.6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4) 만족도 및 개선요구

4차년도 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방문형 교구활동'과 '개인 및 그룹지도'로 5점 만점에 평균 4.1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단시간 학원'과 '방문형 학습지'가 3.8점, '비방문형 교구활동'과 '교육용온라인콘텐츠'가 3.7점 순이어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 영유아 가구들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 교구활동'과 '개인 및 그룹지도'는 1~3차년도의 만족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표 V-1-24〉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1년)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단시간학원	3.9	3.9	3.9	3.8
방문형학습지	3.6	3.6	3.8	3.8
방문형 교구활동	3.9	3.9	3.8	4.1
비방문형 학습지, 통신교육	3.5	3.5	3.8	3.7
비방문형 교구활동	3.7	3.9	3.9	
개인 및 그룹지도	3.9	4.0	3.9	4.1
문화센터	4.0	3.8		
교육용온라인콘텐츠				3.7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

로 사교육의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 바,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로 36.2%가 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27.4%,'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1.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1%,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2020년의 3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이다.

〈표 Ⅴ-1-25〉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1.1	36.2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27.4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11.1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아이가 원해서	9.5	7.7
기타	1.0	1.6
모름	2.4	0.0
계(수)	100.0 (220)	100.0 (291)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16.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5)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한편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중 이용하는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아 본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약 3.0%를 차지하며 과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비대면 수업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어 외 언어(한글, 한자)'학원으로 12.1%가 비대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반면 '체육'학원의 경우 1.2%, '미술'학원 1.6%로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매우 미미하였다. 대체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이 예체능 학원의 온라인 수업 경험이 적고 언어, 수학 등 학습 관련 학원의 온라인 수업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V-1-26〉 단시간 학원 유형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0	97.0	100.0(722)
체육	1.2	98.8	100.0(272)
음악	2.2	97.8	100.0(88)
미술	1.6	98.4	100.0(187)
영어	3.5	96.5	100.0(60)
영어 외 언어	12.1	87.9	100.0(43)
수학 및 과학	9.3	90.7	100.0(56)
기타	7.0	93.0	100.0(1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대체로 만족'이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대체로 불만족'도 25.3%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보통'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단시간 학원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수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소비자가 비대면서비스에 기대하는 교육 효과 대비 비용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V-1-27〉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명)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0.0	43.2	31.6	25.3	0.0	3.2	100.0 (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본 연구.

6)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대체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이 감소하였던 시간제 사교육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 이용에 제약이 있어, 서비스를 대체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는 6명에 불과했는데, 대체한 서비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32.9%)로 가장 많고,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과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가 각 32.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해당 문항은 중복

응답 문항으로 관측치가 매우 적어서 별도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였던 학원의 분야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 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던 학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체육'관련 학원으로 55.7%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이용을 하고 싶은 분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미술'학원 22.8%, '음악'학원 17.5%, '영어'학원 11.8%, '수학 및 과학' 학원 8.4%, '영어 외 언어' 6.8%, '기타' 2.7%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영유아의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자녀를 위해 이용하고 싶었던 예체능 학원의 이용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Ⅴ-1-28〉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1년)

단위 : %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55.7	17.5	22.8	11.8	6.8	8.4	2.7

주: 1)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경우는 단시간 학원 이용자 506명 중 31.1%(157명)임.
2)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 이용을 줄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8.5%에 달하였고, 체육 관련 문화센터 이용을 줄인 경험이 67.7%로 가장 많고, 통합놀이 41.5%, 미술 29.5%, 음악 13.4%, 언어 10.2%, 과학 6.6%, 수학 3.7%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은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가 69.1%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4.6%,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15.1% 순이었다.

〈표 Ⅴ-1-29〉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및 이용하지 못한 기관 유형

단위 : %

구분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전체	58.5	69.1	15.1	24.6	1.4
체육	67.7	74.6	13.9	21.6	0.0
음악	13.4	80.5	0.0	19.5	0.0
미술	29.5	72.5	22.5	28.1	0.0
통합놀이	41.5	69.1	15.4	19.4	5.7
언어	10.2	49.3	25.1	25.6	0.0
수학	3.7	65.0	0.0	35.0	0.0

구분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과학	6.6	19.9	19.9	60.2	0.0
기타	1.3	0.0	0.0	100.0	0.0

주: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총 79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은 중복 응답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처럼 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 영유아 부모들은 대체서비스로 '키즈카페, 민간놀이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72.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21.4%, '단시간 학원' 15.2%, '기타'12.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7.4%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1-30〉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1년)

단위 : %(명)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키즈카페, 민간 놀이시설	기타
15.2	7.4	21.4	72.5	12.3

주: 1) 다른 서비스로 문화센터 이용을 대체한 경우는 총 79명의 17.3%(14명)임.
2) 제시된 서비스 이 외 서비스는 응답 값이 없어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 기타서비스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육아서비스 중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3개월동안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응답대상 영유아 중 4차년도에는 0.7%가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11.3회 이용하였고, 1회당 3.8시간(3시간 48분) 이용하여 월평균 3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 경험률은 매년 2% 이내로 낮은 수준이나, 특히 4차년도에는 3차년도 조사시 1.8%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의 경우 월평균 이용 횟수와 1회당 이용 시간은 1~3차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다. 즉, 이용률은 매우 희소하지만 이용을 한 사례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다만 이용 비용은 3만원으로 1차, 3차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키즈카페의 경우 4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24.9%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47.2%)~2차년도에(57.7%) 비해는 낮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3차년도에(14.7%)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양상을 보였다. 키즈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1.5회, 1회당 2.2시간(2시간 12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즈카페 이용시 1시간당 비용은 8천원으로 응답되었다. 키즈카페의 이용 경험률은 1,2차 조사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이용 경험 사례에서 월평균 이용 횟수도 1차 2회에서 3,4차 1.5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회 이용시의 이용 시간은 1차 2.0시간에서 3,4차 2.2시간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이용시 1시간당 이용비용은 1차 조사의 7천원에서 3,4차에 8천원으로 약 114% 상승하였다.

〈표 Ⅴ-1-31〉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1년)

단위 : %, 회, 시간, 만원

구분		이용 비중	횟수(월평균)	이용 시간(회당)	비용
시간제 일시보육	1차년도(2018년)	1.9	8.7	2.7	6.9
	2차년도(2019년)	0.8	7.4	2.2	2.0
	3차년도(2020년)	1.8	10.5	3.0	5.4
	4차년도(2021년)	0.7	11.3	3.8	3.0
키즈카페	1차년도(2018년)	47.2	2.0	2.0	0.7
	2차년도(2019년)	57.7	1.7	2.0	0.6
	3차년도(2020년)	14.7	1.5	2.2	0.8
	4차년도(2021년)	24.9	1.5	2.2	0.8

주: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와 키즈카페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용경험, 월평균 이용횟수이며, 1회 이용시 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월평균 비용인데 반해, 키즈카페는 1시간당 이용비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4차년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27.0%, '대체로 만족' 56.8%로 83.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점 만점으로 측정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만족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1,2차 조사의 3.6점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키즈카페의 경우 '매우 만족' 11.5%, '대체로 만족' 65.2%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6.7%에 달하여 1~4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만족도 평균 점수도 3.9점으로 3차 조사 시 3.8점에서 0.1점 상승하였다.

이처럼,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육아서비스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위축된 2020년과 2021년의 3,4차 조사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양육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효용과 만족도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즉, 이러한 서비스가 코로나19 등 감염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육자의 부담 및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V-1-32〉 시간제 일시보육 및 키즈카페 만족도 (2018-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 보육	1차년도(2018년)	18.7	37.8	31.9	6.9	4.7	3.6	100.0 (43)
	2차년도(2019년)	17.2	44.9	22.1	15.8	0.0	3.6	100.0 (19)
	3차년도(2020년)	20.9	64.2	14.9	0.0	0.0	4.1	100.0 (42)
	4차년도(2021년)	27.0	56.8	16.3	0.0	0.0	4.1	100.0 (17)
키즈 카페	1차년도(2018년)	11.2	61.7	24.7	2.1	0.3	3.7	100.0 (1,076)
	2차년도(2019년)	8.0	55.0	32.6	4.1	0.3	3.7	100.0 (1,347)
	3차년도(2020년)	11.2	61.7	24.8	2.1	0.3	3.8	100.0 (349)
	4차년도(2021년)	11.5	65.2	22.2	1.0	0.2	3.9	100.0 (59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기타 서비스 중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 56.5%,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14.1%,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12.8%, '자녀를 동반해서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10.2%,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4.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가 좋아하는 안전한 놀이장소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나 양육자의 입장에서 잠시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고, 눈치보지 않고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도 있는 장소라는 점 등 양육자에게도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키즈카페'는 영유아들 뿐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들을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총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의 응답률이 높아 자녀가 1명일 경우 17.3%가 응답한 반면, 3명 이상인 경우 8.6%만이 이에 응답하였다. 자녀가 3명인 경우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가 21.6%로 '아이가 좋아해서'(53.7%)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의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1-33〉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전체		14.1	12.8	10.2	56.5	4.3	2.1	100.0 (59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1	13.8	10.0	55.1	5.8	2.1	100.0 (283)
	외벌이	15.0	11.9	10.3	57.8	2.8	2.2	100.0 (308)
	χ^2	4.14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5.8	9.0	8.4	61.2	4.3	1.3	100.0 (62)
	300~399만원 이하	12.4	12.4	7.2	59.8	1.7	6.5	100.0 (168)
	400~499만원 이하	14.6	12.8	10.8	55.8	6.1	0.0	100.0 (154)
	500~599만원 이하	16.9	12.2	13.9	47.9	9.0	0.0	100.0 (104)
	600만원 이상	12.4	16.4	11.4	58.2	0.9	0.9	100.0 (103)
	χ^2	40.509**						
총 자녀수	1명	17.3	15.8	13.8	49.5	3.6	0.0	100.0 (147)
	2명	14.1	9.5	8.9	60.1	4.5	3.0	100.0 (360)
	3명이상	8.6	21.6	9.3	53.7	4.5	2.2	100.0 (85)
	χ^2	21.020*						
지역 규모	대도시	11.0	16.0	12.5	54.1	4.4	1.9	100.0 (249)
	중소도시	15.5	12.1	9.3	55.3	5.6	2.3	100.0 (252)
	읍면지역	18.8	5.9	6.2	66.6	0.0	2.4	100.0 (90)
	χ^2	19.148*						

주: 비용이 저렴해서는 응답 값이 없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았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91.8%가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를 응답하여 2020, 2021년의 키즈카페 이용률 급감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3.3%,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2.0%, '비용이 부담되어서' 1.2%,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1.1%,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0.6%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의 응답이 1.9%로 중소도시(2.1%), 대도시(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1.7%)는 중소도시(0.9%), 읍면지역(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34〉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전체		2.0	91.8	1.1	0.6	1.2	3.3	100.0 (1,78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	92.9	0.8	0.8	0.5	3.8	100.0 (701)
	외벌이	2.6	91.0	1.3	0.5	1.6	2.9	100.0 (1,078)
	χ^2	10.76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	92.3	1.8	0.0	0.4	2.5	100.0 (204)
	300~399만원 이하	3.1	90.5	0.6	1.1	1.3	3.4	100.0 (483)
	400~499만원 이하	1.7	92.6	1.4	0.2	1.3	2.8	100.0 (471)
	500~599만원 이하	1.6	92.8	1.2	0.3	1.3	2.9	100.0 (315)
	600만원 이상	0.6	91.1	1.0	1.0	1.3	4.9	100.0 (306)
	χ^2	19.803						
총 자녀수	1명	2.5	89.6	1.1	0.3	0.2	6.2	100.0 (380)
	2명	1.6	93.8	1.2	0.8	0.4	2.2	100.0 (1,019)
	3명이상	2.6	88.6	1.1	0.3	4.2	3.2	100.0 (380)
	χ^2	56.563***						
지역 규모	대도시	1.9	92.3	1.7	1.1	1.5	1.6	100.0 (664)
	중소도시	2.1	90.9	0.9	0.3	1.0	4.9	100.0 (803)
	읍면지역	2.1	92.8	0.7	0.4	1.0	3.0	100.0 (313)
	χ^2	21.2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2.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공공 기관 지원 서비스

1) 이용서비스 개관

초등 이하 자녀[101]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3년간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2차 조사에서는 이용률이 16.6%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23.1%로 증가하였다. 방과후 학교 이용률은 2차 조사에서는 62.7%, 4차 조사에서는 38.5%로 감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관련 센터 등의 이용률은 2차 조사에서는 2.1%, 4차 조사에서는 1.7%로 감소하였다.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이용률은 2차 조사 28.6%에서 4차 조사에서 39.6% 크게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4차 조사 기준 33.3%로 대도시 17.6%에 비해 높았으나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관련 센터 이용률은 2차 조사에서 대도시가 1.0%, 4차 조사에서 3.0%로 대폭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차 조사에서는 1.4%, 4차 조사에서는 1.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중소도시에서는 2차 조사에서는 3.3%, 4차 조사 0.5%로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표 Ⅴ-2-1〉 가구특성별 육아서비스 이용 (2019-2021년)

단위 : %,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전체		16.6	11.9	23.1	62.7	4.5	38.5	2.1	2.6	1.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6	21.6	39.6	59.5	4.5	39.6	1.6	3.5	2.6
	외벌이	6.1	3.9	8.8	65.5	4.5	37.6	2.5	1.8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8	10.3	33.6	61.9	6.0	32.5	5.8	6.2	4.7
	300~399만원	10.6	6.0	12.0	62.1	3.4	40.3	1.7	2.3	2.9
	400~499만원	16.8	10.6	18.0	62.5	4.1	42.8	2.6	2.7	1.1
	500~599만원	13.7	14.7	22.3	61.8	5.9	34.5	2.9	2.0	1.2
	600만원 이상	23.1	16.2	37.9	64.6	4.2	37.4	0.0	2.1	0.0

101) 2차년도와 4차년도는 초등1학년 자녀 기준이며, 3차년도는 초등2학년이 포함됨.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12년)
총 자녀수	1명	9.8	12.1	18.8	62.3	4.6	31.8	0.0	2.2	0.0
	2명	18.1	12.0	22.9	62.0	4.4	40.4	2.8	2.6	1.3
	3명이상	19.7	11.3	26.7	65.5	4.6	38.7	2.3	2.8	3.7
지역규모	대도시	14.4	13.5	17.6	69.2	5.5	40.0	1.0	3.0	3.0
	중소도시	17.1	8.5	24.2	59.1	3.6	41.1	3.3	2.3	0.5
	읍면지역	20.0	17.4	33.3	57.1	4.6	28.1	1.4	2.3	1.8

주: 2차와 4차년도는 초등1학년만 조사대상이며, 3차년도에는 초등 1학년과 2학년임.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80.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p.176-177.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2021년 하교 시간대 별 비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6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시 33.1%, 14시 15.6% 순이었다. 표에는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분석 결과 2021년 초등돌봄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2.6시간이고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오후 4시 정도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2-2〉 초등돌봄교실 하교시간대별 비중 (2021년)

단위 : %, (명)

14:00	15:00	16:00	17:00	18:00	(수)
15.6	33.1	41.1	8.2	2.0	(10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3차 조사에서는 오후돌봄 이용률이 92.5% 아침돌봄이 16.5%였고 4차 조사에서는 오후 돌봄 이용률이 100.0%, 아침돌봄 이용률이 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2-3〉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유형 (2020-2021년)

단위 : %,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아침돌봄	오후돌봄	(수)	아침돌봄	오후돌봄	(수)
전체	16.5	92.5	(108)	1.0	100.0	(107)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아침돌봄	오후돌봄	(수)	아침돌봄	오후돌봄	(수)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6	90.8	(88)	1.3	100.0	(85)
	외벌이	16.2	100.0	(19)	0.0	100.0	(2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7	100.0	(7)	0.0	100.0	(15)
	300~399만원	8.6	100.0	(11)	0.0	100.0	(13)
	400~499만원	17.9	93.3	(28)	0.0	100.0	(22)
	500~599만원	21.0	96.2	(28)	0.0	100.0	(19)
	600만원 이상	14.8	85.2	(35)	2.9	100.0	(37)
총 자녀수	1명	31.1	82.4	(22)	0.0	100.0	(15)
	2명	13.8	96.7	(64)	0.0	100.0	(61)
	3명이상	9.7	90.3	(22)	3.6	100.0	(30)
지역 규모	대도시	15.4	92.3	(49)	3.4	100.0	(31)
	중소도시	27.2	87.5	(34)	0.0	100.0	(50)
	읍면지역	3.3	100.0	(24)	0.0	100.0	(25)

주: 저녁 돌봄 이용자 없으며, 4차년도는 초1만 조사 대상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선처리.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p.178-179.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는 84.2%(매우 만족 22.6% + 대체로 만족 61.6%), 3차 조사에서는 74.6%(매우 만족 18.6% + 대체로 만족 56.0%), 4차 조사에서는 72.7%(매우 만족 18.9%+대체로 만족 53.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와 4차 조사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4.0, 3.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차 조사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Ⅴ-2-4〉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 (2019-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2차년도(2019년)	22.6	61.6	11.7	2.7	1.4	4.0	100.0 (73)
3차년도(2020년)	18.6	56.0	20.6	4.8	0.0	3.9	100.0 (108)
4차년도(2021년)	18.9	53.8	24.4	2.9	0.0	3.9	100.0 (107)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83.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08.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3년간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오후 및 저녁 돌봄을 늘리고 싶다(많이 늘리고 싶음 + 조금 늘리고 싶음)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2차 조사에서는 10.8%, 3차 조사에서는 11.7%, 4차 조사에서는 18.5%로 초등돌

봄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매년 높아졌다. 가구특성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표 V-2-5〉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오후 및 저녁돌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 (2019-2021년)

단위 : %(명)

구분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지금이 적당함	조금 줄이고 싶음	많이 줄이고 싶음	계(수)
2차년도(2019년)	2.9	7.9	84.2	3.8	1.2	100.0 (73)
3차년도(2020년)	1.1	10.6	86.1	2.2	0.0	100.0 (100)
4차년도(2021년)	2.0	16.5	79.3	2.2	0.0	100.0 (107)

주: 사선은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18.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부록. pp.481-482.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 아침, 오후 및 저녁돌봄 시간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3년간 조사한 결과 자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만 운영하여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 조사에서는 75.9%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37.8% 4차 조사에서는 51.0%로 2차 조사에 비해 응답한 가구 비율이 낮아졌다. 3차 조사에서는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26.0%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10.6%로 낮아졌으며 4차 조사에서는 다른 차수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 보여서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16.0%로 새롭게 나타났다.

〈표 V-2-6〉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19-2021년)

단위 : %(명)

구분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자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상 일정시간만 운영하여서	계(수)
2차년도(2019년)	-	10.8	-	13.3	75.9	100.0 (8)
3차년도(2020년)	0.0	17.5	26.0	18.6	37.8	100.0 (11)
4차년도(2021년)	16.0	10.6	10.6	11.8	51.0	100.0 (20)

주: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기타는 응답 값이 없어 제외.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3차(2020년)와 4차(2021년) 조사 모두 돌봄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각각

33.8%, 52.3%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3차(2020년) 조사에서는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25.3%)가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4차(2021년) 조사에서는 방학 중 돌봄교실 추가 개설 모집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 19.1%로 가장 높았다.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한 개선사항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3차(2020년) 조사와 4차(2021년) 조사 모두 돌봄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각각 74.9%, 77.0%로 가장 높았다. 3차 조사에서는 돌봄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가 47.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4차 조사에서는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가 44.9%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Ⅴ-2-7〉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 교실 개선사항										계
		돌봄 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	물리적 환경 개선	돌봄 시간의 연장	돌봄 시간 내 자유로운 입출입 허용	방학 중 돌봄교실 추가 개설 및 모집	간식 혹은 급식 제공	기타	무응답	
3차년도 (2020년)	1+2+3순위	47.1	47.7	74.9	24.4	12.6	12.1	28.2	35.7	4.6	0.0	(108)
	1순위	22.4	13.9	33.8	6.6	5.5	0.9	6.4	7.6	2.9	0.0	(108)
	2순위	13.2	21.6	25.3	8.6	3.6	3.6	8.3	12.2	0.0	3.6	(108)
	3순위	11.5	12.2	15.8	9.2	3.5	7.6	13.5	15.9	1.7	9.0	(108)
4차년도 (2021년)	1+2+3순위	35.0	44.9	77.0	22.2	19.2	12.0	36.0	36.5	1.2	0.0	(107)
	1순위	8.9	10.8	52.3	4.9	9.4	0.9	6.0	5.5	1.2	0.0	(107)
	2순위	15.2	15.6	11.2	5.1	6.0	6.3	19.1	18.0	0.0	0.0	(107)
	3순위	10.9	18.5	13.5	12.2	3.8	4.8	10.8	13.0	0.0	0.0	(107)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09.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3)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 및 과학 관련으로 46.2%의 가구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술 31.9%, 기타 28.5%, 음악 22.0%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가 수학 및 과학관련 과목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맞벌이 부부 39.7%로 높았다.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미술, 체육, 음악 과목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구 소득 구간에 비해 높았으며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이용은 중간 소득 수준이 300~599만원 구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2-8〉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 (2021년,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수학 및 과학 관련	기타	계(수)
전체		19.9	22.0	31.9	21.7	8.9	46.2	28.5	100.0 (17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4	20.4	32.7	14.6	10.0	39.7	30.5	100.0 (85)
	외벌이	17.6	23.5	31.2	28.2	7.9	52.1	26.6	100.0 (9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4	33.1	59.9	7.0	14.5	29.1	30.8	100.0 (14)
	300~399만원	16.5	18.5	26.9	23.4	2.3	47.8	26.2	100.0 (44)
	400~499만원	19.7	17.9	24.5	24.0	6.6	55.5	29.0	100.0 (52)
	500~599만원	15.0	32.0	32.0	27.9	13.9	49.3	38.2	100.0 (30)
	600만원 이상	22.3	19.3	37.4	16.9	14.0	35.1	21.9	100.0 (37)
총 자녀수	1명	16.8	16.2	21.1	11.9	9.2	41.9	41.0	100.0 (25)
	2명	19.4	20.4	31.6	24.8	4.8	48.2	28.2	100.0 (108)
	3명이상	23.1	29.1	38.9	19.4	18.9	43.5	22.1	100.0 (44)
지역규모	대도시	19.7	19.7	37.9	27.3	9.1	43.9	18.2	100.0 (71)
	중소도시	18.8	20.0	27.1	22.4	9.4	47.1	36.5	100.0 (85)
	읍면지역	25.0	37.5	31.3	0.0	6.3	50.0	31.3	100.0 (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방과후학교 주당 이용 시간은 3차(2020년) 조사에서는 5.7시간이었으나, 4차(2021년) 조사에서는 2.8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용 개수는 3차 조사에서는 1.8개, 4차 조사에서는 2.0개였다. 3차 조사에 비해 4차 조사에서 이용 개수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용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4차(2021년)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의 이용 시간이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 가구가 이용 시간이 길고 이용 개수가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였다.

〈표 V-2-9〉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개수 (2020-2021년)

단위 : 시간, 개,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이용시간	이용 개수	이용시간	이용 개수
전체		5.7	1.8	2.8	2.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	1.8	2.4	1.9
	외벌이	4.3	1.7	3.1	2.1
	t	2.0	0.5	-2.7**	-1.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	2.0	3.2	2.7
	300~399만원 이하	6.3	2.2	2.9	1.7
	400~499만원 이하	6.8	1.7	2.5	2.1
	500~599만원 이하	5.3	1.7	3.2	2.3
	600만원 이상	4.3	1.5	2.5	1.7
	F	0.3	0.5	0.9	3.8**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83.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3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 모두 영어가 각각 7.3만원 4.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차 조사에서 다음으로 수학 및 과학이 3.9만원 체육이 3.8만원, 기타가 3.4만원 순이었다. 4차 조사에서는 영어과목 다음으로 기타 4.1만원 수학 및 과학과 미술이 3.9만원 순이었다.

〈표 Ⅴ-2-10〉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비용 (2019-2021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수)
3차년도(2020년)	3.8	3.2	3.3	7.3	2.9	3.9	3.4	(41)
4차년도(2021년)	3.1(35)	3.4(39)	3.9(57)	4.5(38)	2.7(16)	3.9(82)	4.1(51)	-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84.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 방과후 학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매우만족 + 대체로 만족)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높았던 과목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93.6%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술 88.8%, 수학 및 과학 82.0%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과목은 음악으로 73.4%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2-11〉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서비스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체육	18.6	61.2	20.3	0.0	0.0	4.0	100.0 (35)
음악	6.2	67.2	21.3	5.3	0.0	3.7	100.0 (39)
미술	17.0	71.8	11.2	0.0	0.0	4.1	100.0 (57)
영어	5.6	70.3	21.4	2.6	0.0	3.8	100.0 (3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14.7	78.9	6.3	0.0	0.0	4.1	100.0 (16)
수학 및 과학	18.0	64.0	16.8	1.2	0.0	4.0	100.0 (82)
기타	10.7	66.5	22.9	0.0	0.0	3.9	100.0 (5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방과후 학교 개선 사항에 대해 1, 2, 3순위를 통합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3차(2020년) 조사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 질제고 49.3%, 수강인원 확대 38.9%,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32.9% 순이었다. 4차 조사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강인원확대 40.3%, 프로그램의 질제고 37.7%,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33.6% 순이었다.

3차(2020년) 조사와 4차(2021년) 조사에서 모두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1순위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였는데, 3차(2020년)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29.4%, 4차(2021년) 조사에서는 46.2%로 큰 차이를 보였다. 3차(2020년) 조사와 4차(2021년) 조사에서 2순위 응답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로 각각 24.2%, 19.8% 가구가 응답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2-12〉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계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수강 인원 확대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	하루에 2개 강좌 이상 이용가능하도록 증설	이용비용의 인하	프로그램의 질 제고	물리적 환경 개선	기타	모름/무응답	
3차년도 (2020년)	1+2+3순위	32.9	61.2	38.9	30.5	17.5	22.7	49.3	24.1	2.4	2.7	(41)
	1순위	9.7	29.4	14.6	2.2	5.1	14.0	19.8	0.0	2.4	2.7	(41)
	2순위	16.7	24.2	11.8	14.6	2.7	1.9	20.4	2.6	0.0	5.1	(41)
	3순위	6.4	7.6	12.5	13.6	9.7	6.8	9.1	21.6	0.0	12.7	(41)
4차년도 (2021년)	1+2+3순위	33.6	76.7	40.3	31.0	21.5	30.2	37.7	11.5	1.3	0.0	(177)
	1순위	11.5	46.2	19.5	6.3	3.4	4.6	7.1	0.0	1.3	0.0	(177)
	2순위	9.7	19.8	12.5	13.3	7.7	11.3	17.1	3.8	0.0	0.0	(177)
	3순위	12.5	10.7	8.3	11.4	10.4	14.3	13.5	7.7	0.0	0.0	(177)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11.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 19 이후 방과후 학교 이용자 177명 중 25.5%인 45명이 방과후 학교 줄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시킨 프로그램 과목은 체육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학 및 과학 21.5%, 음악 20.6%, 미술 18.2% 순이었다.

〈표 V-2-13〉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줄인 경험 및 프로그램 (2021년)

단위 : %(명)

감소시킨 프로그램 과목							계(수)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24.1	20.6	18.2	6.8	4.4	21.5	4.4	100.0 (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시간제 사교육

1) 이용기관

초등 1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차(2019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지 학습지 32.3% 순이었다. 3차(2020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 방문형 학습지 27.2% 순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4차(2021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더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반면,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우는 26.3%로, 3차년도 보다도 낮은 이용율을 보였다.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을 이용한 비율도 2차(2019년)이나 3차(2020년) 조사에 비해 낮았으나, 4차(2021년) 조사에서는 문화센터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로 3차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차(2021년) 조사에 추가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비중은 9.2%로,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합산하면 14.0%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2-14〉 초등1학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9~2021년)

단위 : %,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수)
2차년도(2019년)	81.0	32.3		7.4		5.2	4.3		(443)
3차년도(2020년)	60.9	27.2	1.5	10.1	1.4	6.8	1.2		(431)
4차년도(2021년)	84.6	26.3	1.9	4.8		5.0	3.0	9.2	(461)

주: 1) 사선 처리된 경우는 조사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임.
2) 만7세(초등1학년)의 이용 현황임.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85.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한 과목은 체육 65.7%, 음악 38.0%, 미술 32.1%, 영어 23.8% 순이었다.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학 및 과학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54.9%, 영어 23.8% 순이었다. 방문형 교구 활동은 수

학 및 과학(77.5%), 비방문 학습지/교구 활동 교육은 영어(36.7%), 개인 및 그룹지도는 체육(28.7%),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영어(51.9%)가 이용률이 높은 과목이었다.

〈표 V-2-15〉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과목별 이용 비중 (2021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65.7	38.0	32.1	23.8		9.9	19.1		3.6	(390)
방문형 학습지	8.5	0.0	1.6	23.8	54.9	11.9	61.6	14.0	2.5	(121)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0	0.0	0.0	11.2	11.2	0.0	77.5	22.5	0.0	(9)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0.0	0.0	6.0	36.7	24.4	6.0	35.2	29.2	0.0	(22)
개인 및 그룹지도	28.7	13.5	8.7	24.0	13.1	0.0	14.6	4.7	10.5	(23)
교육용온라인 콘텐츠	0.0	2.4	0.0	51.9	10.6	2.4	18.6	32.0	0.0	(42)

주: 사선 처리된 경우는 관련 문항이 없는 경우(조사하지 않음)이며, 과목별 이용률은 모수를 해당 유형의 사교육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문화센터 과목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체육 관련(신체 놀이)가 37.7%,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24.0%, 언어관련(동화, 외국어 등) 23.3%, 음악관련 2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6〉 문화센터 과목별 이용 비중 (2021년, 문화센터)

단위 : %, (명)

체육 관련 (신체놀이)	음악 관련	미술놀이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언어 관련 (동화, 외국어 등)	수학 관련 (가베 등)	과학 관련	(수)
37.7	22.8	7.2	24.0	23.3	7.8	7.8	(1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 유형인 단시간 학원의 경우 2차(2019년)에는 주당 평균 6.2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2020년)에는 8.4시간, 4차(2021년) 조사에서는 7.3시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2020년)에는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시간이 3.6시간으로 다른 차수보다 이용 시간이 길었으며, 4차(2021년) 조사에서는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 시간이 주당 평균 2.1시간으로 예년보다 길었으며, 4차(2021년0에 설문이 추가된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Ⅴ-2-17〉 초등1학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9~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2차년도 (2019년)	6.2 (359)	0.7 (143)		1.6 (33)		1.6 (23)	1.6 (19)	
3차년도 (2020년)	8.4 (262)	0.8 (117)	1.1 (7)	1.9 (44)	1.7 (6)	3.6 (30)	1.4 (5)	
4차년도 (2021년)	7.3 (390)	0.7 (121)	0.8 (9)	2.1 (22)		1.7 (23)	1.3 (14)	2.0 (42)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87.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은 2차(2019년), 3차(2020년), 4차(2021년) 각각 월평균 22만원, 23만2천원, 24만4천원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차(2020년)에는 개인 및 그룹지도가 21만8천원이었으나, 4차(2021년)에는 12만5천원으로 이용 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유사하게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도 3차(2019년)에 월평균 15만8천원이었으나, 4차(2020년)에는 9만5천원으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Ⅴ-2-18〉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9~2021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2차년도 (2019년)	22.0 (359)	8.2 (143)		8.0 (33)		11.9 (23)	4.9 (19)	
3차년도 (2020년)	23.2 (262)	9.9 (117)	15.8 (7)	14.1 (44)	8.1 (6)	21.8 (30)	3.4 (5)	
4차년도 (2021년)	24.4 (390)	9.7 (121)	9.5 (9)	9.8 (22)		12.5 (23)	3.9 (14)	8.3 (42)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89.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4) 만족도 및 개선 사항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4년 동안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개인 및 그룹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2차(2019년)~4차(2021년) 조사까지 평균 4점으로 안정적으로 높았으며, 단시간 학원 역시 4차(2021년)을 제외하고는 1차~3차 조사에서는 평균 3.9점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방문형 교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차년도(2021년)에 평균 3.6점으로 1차~3차 조사 평균인 3.8~4.0점 보다 낮아졌다.

〈표 V-2-1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평균점수)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단시간학원	3.9	3.9	3.9	3.8
방문형학습지	3.6	3.6	3.8	3.7
방문형 교구활동	3.9	4.0	3.8	3.6
비방문형 학습지, 통신교육	3.5	3.5	3.8	3.7
비방문형 교구활동	3.8	3.6	3.5	
개인 및 그룹지도	3.9	4.0	4.0	4.0
문화센터	4.0	3.8		0.0
교육용온라인콘텐츠				3.8

주: 사선 처리된 경우는 조사되지 않음.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부록. p.484.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1차와 4차에서 조사한 시간제 사교육 비용 만족도는 단시간 학원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평균 3.8점이었지만 4차 조사에서는 평균 3.5점으로 낮아졌다. 또한 4차 조사에서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매우 부담됨 15.2% + 부담되는 편 41.6%)였다(부표 4-40 참조).

비용이 부담됨에도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차(2020년)와 4차(2021년)에서 모두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7%, 3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3차 조사에서는 27.8%, 4차 조사에서는 32.7%로 예년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Ⅴ-2-20〉 연도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1년)

단위 :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6.7	7.6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6.7	38.1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7	2.5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7.8	32.7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5.8	4.5
선행	9.7	9.4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3	0.0
아이가 원해서	7.2	4.6
기타	0.0	0.5
모름	-	0.5
계(수)	100.0 (333)	100.0 (239)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17.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사교육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1순위와 2순위를 응답 합산 결과, 영어가 5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학 41.8%, 체육 38.3%, 음악 27.6% 순이었다(부표 4-51 참조).

5)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과목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는 영어가 14.5%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 외 언어 8.0%, 수학 및 과학 5.8% 순으로, 주로 학습 관련 교과목에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높았다.

〈표 Ⅴ-2-21〉 단시간 학원 과목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수)	
체육	3.6	96.4	100.0	(256)
음악	0.7	99.3	100.0	(148)
미술	0.8	99.2	100.0	(125)
영어	14.5	85.5	100.0	(93)
영어 외 언어	8.0	92.0	100.0	(38)
수학 및 과학	5.8	94.2	100.0	(74)
기타	14.9	85.1	100.0	(1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관측치가 작아 본문에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단시간 학

원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2.1%로, 상당수가 코로나 19로 단시간 학원에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부표 4-52 참조). 코로나19로 이용이 감소한 과목은 체육(56.3%), 음악(28.2%), 미술(21.4%), 수학 및 과학(11.9%) 순이었다.

〈표 V-2-22〉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유형 (2021년, 중복응답)

단위 : %(명)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수)
56.3	28.2	21.4	12.7	3.5	11.9	2.5	(12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한편,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서비스로 대체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대체했다는 응답은 2.7%(3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초등1학년 자녀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달리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센터 이용이 감소한 경우도 거의 없어서, 6명에 불과했다. 이는 문화센터 이용 자체가 초등학령기 자녀보다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3.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표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은 2차년도(2019년) 11.8%, 3차년도(2020년) 9.0%, 4차년도(2021년) 12.3%로, 다른 육아서비스 이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2차(2019년)에 68.9%, 3차(2020년) 조사 77.3%, 4차(2021년) 조사 75.9%였다. 2차와 4차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1%, 16.0%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3차 조사에서는 6.7%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보다 낮았다. 3차 조사에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1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차 조사에서는 8.9%로 2차와 3차 조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았다.

〈표 Ⅴ-3-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0년, 중복응답)

단위 :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7.1	7.8	68.9	11.9	(225)
3차년도(2020년)	6.7	5.3	77.3	13.8	(193)
4차년도(2021년)	16.0	5.9	75.9	8.9	(237)

주: 1)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비율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3)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91.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는 조사 시점, 돌봄 유형의 영향 없이 1.2~1.5명 수준이었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2차(2019년) 조사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28.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돌봄 26.4시간 순이었다. 3차 조사에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22.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돌봄이 22.3시간이었다. 4차 조사에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24.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돌봄 22.5시간 이었다.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은 2차 조사에서는 16.9시간, 3차 조사에서는 20.7시간, 4차 조사에서는 17.6시간이었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월평균 이용 비용은 2차(2019년)에는 81만7천원, 3차(2020년)에는 70만원, 4차(2021년)에는 70만9천원이었다. 조부모 돌봄의 경우 2차(2019년)에는 41만5천원이었으나, 3차(2020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30만7천원으로 줄었으나, 4차(2021년) 조사에는 소폭 증가하여 33만7천원이었다. 한편, 아이돌봄이 이용 비용은 2차(2019년)에는 27만8천원이었으며, 3차(2020년)에는 24만5천원, 4차(2021년)에는 20만4천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비용이 가장 높고, 조부모 돌봄의 경우 이용시간이 긴 편이지만 비용은 민간육아도우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여성족부의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은 조부모 돌봄에 비해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낮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표 V-3-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2019~2020년)

단위 : 명, 시간, 만원 (명)

구분		동시 돌봄 자녀수	주당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이용비용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차년도(2019년)	1.5	16.9	27.8	(33)
	3차년도(2020년)	1.3	20.7	24.5	(15)
	4차년도(2021년)	1.3	17.6	20.1	(38)
민간 육아도우미	2차년도(2019년)	1.4	28.8	81.7	(15)
	3차년도(2020년)	1.3	20.4	70.0	(12)
	4차년도(2021년)	1.3	21.0	70.9	(14)
조부모 돌봄	2차년도(2019년)	1.5	26.4	41.5	(133)
	3차년도(2020년)	1.5	22.3	30.7	(170)
	4차년도(2021년)	1.4	22.5	33.7	(179)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2	18.8	17.8	(23)
	3차년도(2020년)	1.5	22.7	40.8	(31)
	4차년도(2021년)	1.4	24.2	29.7	(21)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93.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1) 돌봄 시간 및 미디어 활용, 양육부담

조사시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영유아 및 초등 1학년 자녀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가정 내 양육 시간)과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함께 있었던 시간(부모직접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V-3-3〉에 따르면 자녀의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 하루 중 8시간, 주말에는 13.1시간(13시간 6분)이었으며, 부모중 한명이라도 함께하였던 '부모직접돌봄시간은 평일 평균 7.7시간(7시간 42분), 주말 평균 12.9시간(12시간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내 양육 시간과 부모직접돌봄시간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 지역규모, 아동연령 등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가정 내 양육 시간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평일 7.4시간이나 외벌이 가구는 8.5시간으로 외벌이 가구가 평균 1.1시간(1시간 6분)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말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 13.1시간(13시간6분), 외벌이 가구(13시간12분)으로 외벌이 가구가 약 6분 길었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정 내 양육 가구는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가정 내 양육 시간은 또한 평일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말에는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고 다만 600만원 이상에서 12.8시간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에는 자녀가 적을수록 짧은 경향을 보여서 자녀가 1명인 경우 가정 내 양육 시간은 8.8시간이나 2명인 경우 7.7시간으로 1.1시간이 감소하였고, 3명 이상인 경우는 7.6시간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주말의 경우 자녀수 1,2명 사이에는 가정 내 양육 시간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3명이상인 경우 12.7시간으로 자녀수 1,2명인 경우에 비해 0.5~0.6시간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평일 기준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수가 늘어나거나 자녀마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말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의 바깥 활동이 증가하거나 자녀들이 외부에서 놀이를 하는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평일 기준 가정 내 양육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는 가정 내 양육 시간이 대도시에서 가장 높고(13.3시간) 중소도시에서(13.0시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평일에는 2세 이하 영아들의 가정 내 양육시간이 평균 8시간 이상으로 3세 이상 유아와 초등 1학년 자녀들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며 이는 유아 이상에서 기관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관 이용 시간도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말의 가정 내 양육 시간은 아동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직접돌봄의 경우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일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은 평일 6.8시간이나 외벌이 가구는 8.4시간으로 약 1.6시간(1시간36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12.7시간(12시간42분), 외벌이 가구는 13시간으로 약 18분 가량 외벌이 가구의 부모 직접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일의 부모직접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주말의 부모 직접 돌봄시간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평일과 주말의 부모직접돌봄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일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부모직접돌봄시간이 감소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 8.4시간이나 2명일 경우 7.3시간, 3명 이상일 경우 7.2시간으로 응답되었다. 주말의 경우는 자녀가 1,2명인 경우는 부모직접돌봄시간이 13시간으로 동일하나 3명 이상인 경우는 12.4시간으로 약 36분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표 V-3-3〉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시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8.0	13.1	7.7	12.9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	13.1	6.8	12.7	(837)
	외벌이	8.5	13.2	8.4	13.0	(1,096)
	t	-8.2***	-0.8	-11.6***	-2.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3	13.2	8.1	12.9	(221)
	300~399만원 이하	8.6	13.4	8.3	13.1	(525)
	400~499만원 이하	7.8	13.0	7.6	12.9	(501)
	500~599만원 이하	7.8	13.2	7.3	12.9	(343)
	600만원 이상	7.5	12.8	7.0	12.5	(343)
	F	8.6***	2.9*	13.1***	2.2	
총 자녀수	1명	8.8	13.2	8.4	13.0	(625)
	2명	7.7	13.3	7.3	13.0	(1,022)
	3명이상	7.6	12.7	7.2	12.4	(286)
	F	28.6***	4.5*	28.6***	4.4*	
지역 규모	대도시	8.2	13.3	7.8	13.1	(764)
	중소도시	8.0	13.0	7.6	12.8	(886)
	읍면지역	7.7	13.1	7.4	12.8	(283)
	F	2.3	3.3*	1.3	2.7	
아동 연령	0세	10.6	13.3	10.4	13.0	(157)
	1세	9.8	13.2	9.5	13.0	(310)
	2세	8.2	13.3	7.8	13.1	(303)
	3세	7.5	13.1	7.0	12.9	(268)
	4세	7.0	13.2	6.7	13.0	(223)
	5세	7.0	13.2	6.6	13.0	(215)
	6세	7.1	13.0	6.8	12.7	(233)
	7세	7.2	12.7	6.7	12.5	(224)
	F	59.4***	1.6	56.8***	1.0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지난 3개월 동안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의 가정 내 양육 시간 중 전자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평일 및 주말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3-4〉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들은 평일 평균 1.4시간(1시간 24분), 주말 평균 2.1시간(2시간 6분)을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주말에 평일보다 길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평일의 경우 자녀수와 아동연령, 주말의 경우 가구소득, 자녀수, 지역규모, 아동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일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자녀수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수가 1명일 경우 하루 평균 1.2시간을 이용하나 자녀가 3명인 경우는 1.7시간을 이용하였고, 0세는 하루 평균 0.6시간(약 36분) 이용하나 2세 1.4시간, 3세 1.6시간, 6세 1.7시간, 7세 1.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주말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길어서 평균 2.3시간을 이용하며 다음으로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경우 2.2시간, 가구소득 300~599만원 이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이 2.0시간으로 동일하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6시간을 이용하나 2명일 경우 2.2시간, 3명 이상일 경우 2.7시간으로 증가해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3명 이상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을 더 미디어 이용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각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부모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자녀들 사이에 다른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하면 같이 보게 되면서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추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자녀들의 주말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대도시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는 주말 평균 2.0시간을 이용하였으나 중소도시 거주의 경우 2.1시간, 읍면지역 거주시 2.3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표 V-3-4〉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시간 (명)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4	2.1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	2.1	(837)
	외벌이	1.4	2.1	(1,096)
	t	0.4	1.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	2.2	(221)
	300~399만원 이하	1.3	2.0	(525)
	400~499만원 이하	1.4	2.0	(501)
	500~599만원 이하	1.4	2.0	(343)
	600만원 이상	1.5	2.3	(343)
	F	1.5	2.4*	
총 자녀수	1명	1.2	1.6	(625)
	2명	1.4	2.2	(1,022)
	3명이상	1.7	2.7	(286)
	F	30.0***	48.2***	
지역규모	대도시	1.4	2.0	(764)
	중소도시	1.4	2.1	(886)
	읍면지역	1.5	2.3	(283)
	F	1.6	3.5*	
아동 연령	0세	0.6	0.8	(157)
	1세	0.7	1.0	(310)
	2세	1.4	1.9	(303)
	3세	1.6	2.3	(268)
	4세	1.6	2.6	(223)
	5세	1.6	2.7	(215)
	6세	1.7	2.6	(233)
	7세	1.9	2.9	(224)
	F	49.3***	54.7***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 내 양육 부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다소 부담됨'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고, '적당함' 30.7%, '별로 부담 안됨' 21.0%, '매우 부담됨' 9.8%, '전혀 부담안됨' 3.5%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이 '부담된다'라는 응답(다소 부담+매우 부담) 비율은 44.8%로 '적당'하다는 응답(30.7%)과 '부담안된다'는 응답(별로 부담 안됨+전혀 부담 안됨) 비율 24.5%보다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정 내 양육 부담의 평균은 5점 만점(전혀 부담 안됨 1~ 매우 부담됨 5) 중 3.3점으로 부담감이 적당한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정 내 자녀 양육의 부담 정도는 맞벌이 여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고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의 가정 내 양육 부담 정도가 '매우 부담됨'의 수준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4.0%), 반대로 가구소득 500~599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매우 부담됨' 비율이 7.9%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도 '매우 부담됨'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전혀 부담 안됨'의 비율은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5.2%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전혀 부담 안됨'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들이 느끼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담 됨(다소 부담+매우 부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가정 내 양육이 부담된다는 비율은 39.1%(다소 부담됨 30.9%+매우 부담됨 8.2%)이나 2명인 경우 45.4%(다소 부담됨 37.3%+매우 부담됨 8.1%), 3명 이상인 경우 55.2%(다소 부담됨 36.0%+매우 부담됨 19.2%)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에 있어서도 자녀가 1명인 경우 3.1점, 2명인 경우 3.3점에서 3명 이상인 경우 3.6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대도시 지역 거주시 평균 3.3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3.2점으로 대도시 거주 가구가 가정 내 자녀 양육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5〉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정도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점, (명)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3.5	21.0	30.7	35.0	9.8	3.3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	20.1	30.2	35.5	9.8	3.3	(837)
	외벌이	2.8	21.7	31.0	34.7	9.8	3.3	(1,096)
	x^2/t	4.218					-0.1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	24.0	34.4	25.8	14.0	3.3	(221)
	300~399만원 이하	2.3	19.2	34.7	34.5	9.3	3.3	(525)
	400~499만원 이하	4.0	20.8	28.1	36.3	10.8	3.3	(501)
	500~599만원 이하	4.1	20.7	29.2	38.2	7.9	3.3	(343)
	600만원 이상	5.2	22.4	27.4	36.7	8.2	3.2	(343)
	x^2/F	29.776*					0.5	
총 자녀수	1명	4.6	26.4	29.9	30.9	8.2	3.1	(625)
	2명	3.1	20.0	31.5	37.3	8.1	3.3	(1,022)
	3명이상	2.4	12.9	29.4	36.0	19.2	3.6	(286)
	x^2/F	57.472***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0	19.1	29.6	37.2	11.1	3.3	(764)
	중소도시	4.0	21.7	31.8	33.3	9.3	3.2	(886)
	읍면지역	3.5	24.0	30.0	34.6	7.8	3.2	(283)
	x^2/F	9.080					3.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가정 내 양육에 대해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 내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가정 내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로 62.6%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48.0%, '양육과정에서(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37.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33.7%,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할지 몰라서' 9.5%,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3.8% 순이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의 비율이 55.2%로 가구소득 599만원 이하의 계층에서 동일 항목의 응답률이 60%이상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가사 또는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양육에 있어 육체적 부담이 클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나만의 시간이 없어'부담된다는 응답도 2명 이하 사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자녀수에 따라 양육시간이 비례하는 정도는 아

니지만 자녀를 보살피는데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부족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대도시에서는 동일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61.7%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66.8%로 이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가 읍면지역 보다는 도시 중심, 특히 대도시에 발달해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Ⅴ-3-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1년, 중복응답)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부담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37.6	48.0	62.6	3.8	9.5	33.7	1.0	(1,45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9	47.2	65.0	3.3	8.2	34.7	1.3	(632)
	외벌이	38.8	48.7	60.8	4.1	10.5	33.0	0.8	(8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6.0	49.4	68.9	4.3	13.4	23.8	0.6	(164)
	300~399만원 이하	38.1	48.3	60.4	3.4	10.4	35.0	0.7	(412)
	400~499만원 이하	34.5	47.5	66.6	3.4	7.4	34.7	1.3	(377)
	500~599만원 이하	38.0	45.3	63.6	4.3	8.1	37.6	0.8	(258)
	600만원 이상	41.9	50.4	55.2	4.0	10.1	32.7	1.6	(248)
총 자녀수	1명	33.6	46.6	62.4	5.1	12.5	35.3	0.7	(431)
	2명	39.8	48.1	62.8	3.4	9.2	32.1	1.1	(786)
	3명이상	37.2	50.4	62.4	2.5	5.4	36.4	1.2	(242)
지역 규모	대도시	38.3	50.6	61.7	3.0	7.4	34.5	1.2	(595)
	중소도시	35.2	46.0	62.2	4.6	12.0	35.1	0.9	(659)
	읍면지역	42.9	47.3	66.8	3.4	7.8	27.3	1.0	(205)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활용

여기서는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장난감이나 도서 등 육아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장난감 대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1933가구 중 5.6%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특성별로는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경험 비율이 높고(7.7%)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에서는 장난감 대여 경험이 가장 낮았는 바(3.2%),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구매보다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V-3-7〉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여부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전체		5.6	94.4	100.0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2	93.8	100.0	(837)
	외벌이	5.1	94.9	100.0	(1,096)
	χ^2	1.09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7	92.3	100.0	(221)
	300~399만원 이하	5.5	94.5	100.0	(525)
	400~499만원 이하	6.2	93.8	100.0	(501)
	500~599만원 이하	5.8	94.2	100.0	(343)
	600만원 이상	3.2	96.8	100.0	(343)
	χ^2	5.925			
총 자녀수	1명	7.5	92.5	100.0	(625)
	2명	4.9	95.1	100.0	(1,022)
	3명이상	3.8	96.2	100.0	(286)
	χ^2	7.005*			
지역규모	대도시	5.9	94.1	100.0	(764)
	중소도시	4.9	95.1	100.0	(886)
	읍면지역	7.1	92.9	100.0	(283)
	χ^2	2.21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장난감 대여 경험이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월 1회 정도 이용하였다는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격주로 1회 이용하였다는 경우가 26.9%, 분기별 1회 14.8%, 주 1~2회 이용하였다는 경우가 11.1%에 해당하였다. 가구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이용 주기가 긴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3-8〉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 빈도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이용 횟수				계(수)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전체		11.1	26.9	47.2	14.8	100.0 (10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7	25.0	48.1	19.2	100.0 (52)
	외벌이	14.3	28.6	46.4	10.7	100.0 (56)
	χ^2	2.51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7.6	5.9	58.8	17.6	100.0 (17)
	300~399만원 이하	10.3	34.5	48.3	6.9	100.0 (29)
	400~499만원 이하	9.7	41.9	32.3	16.1	100.0 (31)
	500~599만원 이하	5.0	25.0	55.0	15.0	100.0 (20)
	600만원 이상	18.2	0.0	54.5	27.3	100.0 (11)
	χ^2	15.763				
총 자녀수	1명	12.8	14.9	59.6	12.8	100.0 (47)
	2명	10.0	38.0	38.0	14.0	100.0 (50)
	3명이상	9.1	27.3	36.4	27.3	100.0 (11)
	χ^2	9.031				
지역 규모	대도시	6.7	24.4	53.3	15.6	100.0 (45)
	중소도시	18.6	18.6	46.5	16.3	100.0 (43)
	읍면지역	5.0	50.0	35.0	10.0	100.0 (20)
	χ^2	10.208				

주: 1)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주 3~4회 이상 이용자는 없어 제시하지 않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44.4%가 이용하였고, '주민센터 등 지자체, 지자체 위탁기관'과 '민간사설업체'에서 이용한 경우가 각각 20.4%로 동일하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13.0%, '지역아동센터' 3.7%,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기관' 2.8% 순이었다.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비용은 월평균 8천원 수준이며, 장난감 대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 만원, 점, (명)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8	44.4	13.0	20.4	3.7	20.4	0.8	4.1	(10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8	46.2	11.5	23.1	1.9	19.2	0.8	4.1	(52)
	외벌이	0.0	42.9	14.3	17.9	5.4	21.4	0.8	4.1	(56)
	t	-						0.1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9	52.9	11.8	17.6	0.0	11.8	0.9	3.9	(17)
	300~399만원 이하	0.0	41.4	6.9	31.0	3.4	20.7	0.8	3.9	(29)
	400~499만원 이하	3.2	41.9	25.8	12.9	3.2	19.4	0.7	4.2	(31)
	500~599만원 이하	0.0	50.0	10.0	10.0	10.0	25.0	0.8	4.4	(20)
	600만원 이상	9.1	36.4	0.0	36.4	0.0	27.3	1.4	4.3	(11)
	F	-						0.5	2.0	
총 자녀수	1명	0.0	48.9	14.9	14.9	6.4	19.1	0.8	4.1	(47)
	2명	2.0	36.0	14.0	28.0	2.0	22.0	0.8	4.1	(50)
	3명이상	18.2	63.6	0.0	9.1	0.0	18.2	1.1	4.3	(11)
	F	-						0.2	0.3	
지역 규모	대도시	2.2	44.4	4.4	28.9	2.2	20.0	0.9	4.0	(45)
	중소도시	2.3	41.9	18.6	14.0	4.7	23.3	0.9	4.2	(43)
	읍면지역	5.0	50.0	20.0	15.0	5.0	15.0	0.6	4.1	(20)
	F	-						0.3	1.2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도서 대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1,933가구 중 15.5%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난감에 비해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아 20.7%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16.7%가,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 15.0%, 300~399만원 이하에서 14.5%, 500~599만원 이하에서 12.0%가 도서 대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또 자녀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도서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많을수록 다양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읍면지역에서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인프라가 도시지역보다 미흡하거나 홍보가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Ⅴ-3-10〉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전체		15.5	84.5	100.0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5	84.5	100.0	(837)
	외벌이	15.5	84.5	100.0	(1,096)
	χ^2	0.00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7	83.3	100.0	(221)
	300~399만원 이하	14.5	85.5	100.0	(525)
	400~499만원 이하	15.0	85.0	100.0	(501)
	500~599만원 이하	12.0	88.0	100.0	(343)
	600만원 이상	20.7	79.3	100.0	(343)
	χ^2	11.150*			
총 자녀수	1명	11.0	89.0	100.0	(625)
	2명	17.7	82.3	100.0	(1,022)
	3명이상	17.5	82.5	100.0	(286)
	χ^2	14.147***			
지역규모	대도시	16.9	83.1	100.0	(764)
	중소도시	15.2	84.8	100.0	(886)
	읍면지역	12.7	87.3	100.0	(283)
	χ^2	2.83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도서 대여 경험이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도서의 경우 주 1~2회 대여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격주로 1회 이용하였다는 경우 및 월 1회 이용이 각 28.0%, 분기별 1회 4.7%, 주 3~4회 4.0%, 매일 1.3% 순으로 대부분 주 1~2회 이상의 주기로 도서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난감에 비해 대여 주기가 짧고 빈도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가구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 주 1~2회 이용이 37.1%로 이용 주기가 짧은 경우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많다는 특징을 보였으며,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 3명인 경우 주 1~2회의 주기로 도서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34.3%, 42.0%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도서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3-11〉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이용 횟수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전체		1.3	4.0	34.0	28.0	28.0	4.7	100.0 (3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3	3.1	30.0	24.6	34.6	5.4	100.0 (130)
	외벌이	0.6	4.7	37.1	30.6	22.9	4.1	100.0 (170)
	χ^2	7.9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8.1	32.4	21.6	35.1	2.7	100.0 (37)
	300~399만원 이하	2.6	2.6	28.9	30.3	30.3	5.3	100.0 (76)
	400~499만원 이하	1.3	5.3	34.7	30.7	20.0	8.0	100.0 (75)
	500~599만원 이하	2.4	2.4	36.6	22.0	31.7	4.9	100.0 (41)
	600만원 이상	0.0	2.8	38.0	29.6	28.2	1.4	100.0 (71)
	χ^2	14.514						
총 자녀수	1명	1.4	2.9	27.5	31.9	31.9	4.3	100.0 (69)
	2명	1.7	4.4	34.3	27.1	28.2	4.4	100.0 (181)
	3명이상	0.0	4.0	42.0	26.0	22.0	6.0	100.0 (50)
	χ^2	4.642						
지역 규모	대도시	2.3	1.6	33.3	30.2	27.9	4.7	100.0 (129)
	중소도시	0.7	6.7	35.6	25.9	28.1	3.0	100.0 (135)
	읍면지역	0.0	2.8	30.6	27.8	27.8	11.1	100.0 (36)
	χ^2	10.980						

주: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도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기관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로 85.3%에 해당하여 도서대여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도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 6.0%,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 5.0%, '육아종합지원센터' 2.7%, '민간사설업체' 2.3%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비용은 월평균 0.2만원(2천원) 수준이며, 도서 대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장난감 대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3-12〉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 만원, 점, (명)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5.0	2.7	85.3	6.0	0.7	2.3	1.0	0.2	4.3	(3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7	2.3	85.4	3.1	0.0	4.6	0.0	0.2	4.2	(130)
	외벌이	2.9	2.9	85.3	8.2	1.2	0.6	1.8	0.1	4.3	(170)
	t	-							0.8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4	5.4	83.8	8.1	0.0	0.0	0.0	0.3	4.1	(37)
	300~399만원 이하	1.3	3.9	84.2	6.6	0.0	2.6	3.9	0.1	4.2	(76)
	400~499만원 이하	9.3	2.7	80.0	6.7	2.7	2.7	0.0	0.2	4.3	(75)
	500~599만원 이하	4.9	2.4	90.2	2.4	0.0	2.4	0.0	0.1	4.4	(41)
	600만원 이상	4.2	0.0	90.1	5.6	0.0	2.8	0.0	0.2	4.3	(71)
	F	-							0.4	1.6	
총 자녀수	1명	5.8	7.2	82.6	8.7	0.0	0.0	0.0	0.1	4.2	(69)
	2명	3.9	1.7	88.4	4.4	1.1	3.3	0.6	0.2	4.3	(181)
	3명이상	8.0	0.0	78.0	8.0	0.0	2.0	4.0	0.2	4.2	(50)
	F	-							0.4	0.2	
지역 규모	대도시	4.7	3.1	87.6	4.7	0.8	1.6	0.0	0.1	4.3	(129)
	중소도시	6.7	0.7	85.9	6.7	0.0	3.0	0.0	0.2	4.3	(135)
	읍면지역	0.0	8.3	75.0	8.3	2.8	2.8	8.3	0.2	4.1	(36)
	F	-							0.6	0.8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3)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활용

다음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본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사례 중 9.4%에 해당하였고 서비스를 받아본 경우,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는 평균 3.3회로 나타났다.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용 경험이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 7.0%,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0.8%가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경험이 있었다. 지역규모는 클수록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11.6%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중소도시 8.1%, 읍면지역 7.4% 순이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나서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2.7%, 가구소득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7.0%가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3-13〉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1년) : 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평균	(수)
전체		9.4	90.6	100.0	(1,933)	3.3	(18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0	92.0	100.0	(837)	3.1	(67)
	외벌이	10.5	89.5	100.0	(1,096)	3.4	(115)
	χ^2	3.444				-0.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7	87.3	100.0	(221)	2.4	(28)
	300~399만원 이하	9.7	90.3	100.0	(525)	3.1	(51)
	400~499만원 이하	9.6	90.4	100.0	(501)	3.4	(48)
	500~599만원 이하	7.0	93.0	100.0	(343)	4.2	(24)
	600만원 이상	9.0	91.0	100.0	(343)	3.5	(31)
	χ^2	5.224				1.1	
총 자녀수	1명	7.0	93.0	100.0	(625)	2.9	(44)
	2명	10.5	89.5	100.0	(1,022)	3.5	(107)
	3명이상	10.8	89.2	100.0	(286)	3.1	(31)
	χ^2	6.146*				0.6	
지역 규모	대도시	11.6	88.4	100.0	(764)	3.3	(89)
	중소도시	8.1	91.9	100.0	(886)	3.2	(72)
	읍면지역	7.4	92.6	100.0	(283)	3.4	(21)
	χ^2	7.516*				0.1	

주: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이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이러한 육아 물품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으로 53.8%의 응답자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통해 이러한 육아 물품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아본 경우는 22.0%,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12.1%,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 9.3%, ' 민간사설업체' 9.3%, '지역아동센터' 2.7% 순으로 육아 물품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영유아가 다니는 반일제이상 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지원기관'이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의 주된 제공기관이며,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과 지자체 관련 기관이 육아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비용은 월 1.1만원(1만1천원) 정도이며, 육아 물품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 500~599만원 이하에서는 월평균 3천원을 지출하였으나, 600만원 이상에서는 월평균 2만1천원을 지출해 이용 비용의 차이가 컸다. 앞서 가구소득별 이용 횟수는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의 이용 횟수가 4.2회로 600만원 이상 가구의 3.5회에 비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비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육아 물품의 경우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Ⅴ-3-14〉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만원, 점, (명)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53.8	22.0	12.1	9.3	2.7	9.3	3.8	1.1	4.0	(18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5.2	17.9	13.4	13.4	1.5	9.0	4.5	1.4	4.0	(67)
	외벌이	53.0	24.3	11.3	7.0	3.5	9.6	3.5	1.0	4.0	(115)
	t	-							1.1	-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3.6	17.9	14.3	7.1	3.6	7.1	7.1	1.1	3.9	(28)
	300~399만원 이하	52.9	19.6	13.7	7.8	5.9	9.8	0.0	1.1	4.0	(51)
	400~499만원 이하	58.3	22.9	6.3	10.4	0.0	10.4	2.1	0.9	3.9	(48)
	500~599만원 이하	58.3	33.3	12.5	8.3	0.0	4.2	8.3	0.3	4.2	(24)
	600만원 이상	45.2	19.4	16.1	12.9	3.2	12.9	6.5	2.1	3.9	(31)
	F	-							2.7*	0.8	
총 자녀수	1명	40.9	25.0	18.2	15.9	2.3	6.8	4.5	1.2	4.1	(44)
	2명	57.9	21.5	8.4	6.5	2.8	12.1	3.7	1.2	3.9	(107)
	3명이상	58.1	19.4	16.1	9.7	3.2	3.2	3.2	0.6	3.8	(31)
	F	-							1.3	1.6	
지역규모	대도시	52.8	27.0	10.1	12.4	4.5	5.6	4.5	1.0	4.0	(89)
	중소도시	54.2	16.7	13.9	8.3	0.0	11.1	4.2	1.1	4.0	(72)
	읍면지역	57.1	19.0	14.3	0.0	4.8	19.0	0.0	1.8	3.6	(21)
	F	-							1.3	2.5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4)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개선 요구

이러한 장난감, 도서 대여, 육아꾸러미(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등의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의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V-3-15〉에 제시된 부모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50.2%),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 35.4%, '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33.6%,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제공' 26.7%, '물품의 소독 및 위생 관리 철저' 26.6%,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 가능한 형태로 제공' 18.4%,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 5,7%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부모들은 이러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도서 대여 서비스'의 경우도 15.5% 정도만 이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 품목이나 제공되는 물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층의 이용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V-3-15〉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명)

구분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50.2	26.7	18.4	33.6	35.4	26.6	5.7	1.6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3	25.9	17.4	33.1	34.5	27.4	5.5	1.7	(837)
	외벌이	48.5	27.3	19.2	33.9	36.1	26.1	5.8	1.5	(1,0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9.8	19.5	14.9	29.9	45.2	26.7	10.4	2.3	(221)
	300~399만원 이하	49.5	30.5	14.7	33.1	32.8	28.4	6.1	1.7	(525)
	400~499만원 이하	47.5	25.0	20.6	35.5	36.9	27.3	4.4	1.6	(501)
	500~599만원 이하	47.8	28.0	19.5	34.7	31.5	30.3	5.0	2.0	(343)
	600만원 이상	57.7	26.8	22.2	32.7	35.0	19.2	4.7	0.3	(343)
자녀수	1명	47.7	30.7	19.7	32.6	34.1	28.2	4.0	1.4	(625)
	2명	50.6	24.7	17.5	34.4	36.0	27.1	5.8	1.7	(1,022)
	3명이상	54.2	25.2	18.9	32.5	36.4	21.7	9.1	1.4	(286)
지역규모	대도시	45.3	27.1	17.3	34.9	36.3	30.9	5.0	1.6	(764)
	중소도시	54.0	27.7	21.0	32.4	33.0	22.1	6.0	1.7	(886)
	읍면지역	51.6	22.6	13.4	33.6	41.0	29.3	6.7	1.1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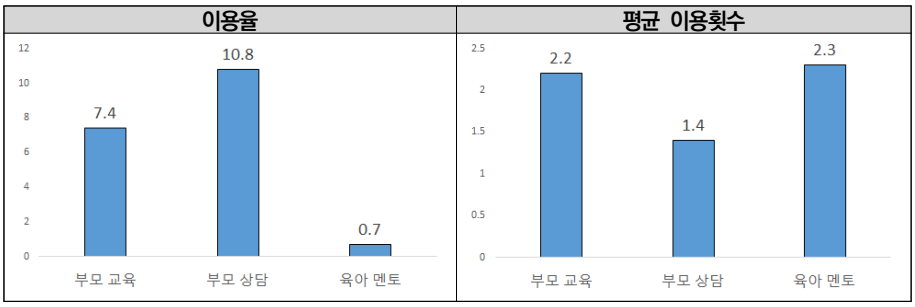
주: ①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②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③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④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⑤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⑥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⑦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 부모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의 '부모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횟수, 서비스를 제공 받은 기관, 비대면 서비스 여부, 서비스 내용 등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Ⅴ-3-1]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여부, 이용횟수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회.



주: 1) 최근 3개월간 이용 경험 기준이며, 이용자 수는 부모교육 143명, 부모상담 208명, 육아멘토 13명임.
2) 평균 이용횟수는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모 지원 서비스별로 이용률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은 7.4%, 부모 상담은 10.8%, 육아멘토는 0.7%의 부모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부모교육은 평균 2.2회, 부모상담은 1.4회, 육아멘토는 2.3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이 가장 높아서, 부모교육은 59.4%, 부모 상담 85.6%, 육아멘토 38.5%가 이해 해당하였다. 부모교육의 경우 이러한 기관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경우가 13.3%, '기타' 9.1%, '민간사설업체' 7.0%,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 5.6%,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9%, '지역아동센터' 0.7%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은 부모교육에 비해서도 더욱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기타' 5.8%, '민간사설업체' 3.4%, '육아종합지원센터' 2.9%,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1.4% 수준이었다.

육아멘토는 이용해 본 사례가 13사례로 희소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과 더불어 '기타'기관이 38.5%를 차지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3.1%로 나타났다.

〈표 V-3-16〉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명)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59.4	85.6	38.5
육아종합지원센터	13.3	2.9	23.1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9	0.5	0.0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6	1.4	0.0
지역아동센터	0.7	0.5	0.0
민간사설업체	7.0	3.4	0.0
기타	9.1	5.8	38.5
계 (수)	100.0(143)	100.0(208)	100.0(13)

주: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별로 주로 어떤 내용에 관한 내용이었는지를 질문하여 교육 시간이 많았던 순으로 2순위까지 답하게 하였는데, 응답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육'은 '양육방법' (69.9%),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37.8%), '보호자의 역할'(30.8%),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17.5%)에 대한 교육이 주된 교육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 상담'의 경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가 80.3%로 가장 많고, '양육방법'(59.1%), '보호자의 역할'(26.9%)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부모들이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 주로 이 3가지 내용인 것으로 추측된다.

'육아 멘토'가 도움을 주는 내용도 부모상담의 내용과 유사하여 76.9%가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69.2%가 '양육 방법'이었다.

〈표 V-3-17〉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 (명)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37.8	80.3	76.9
양육 방법	69.9	59.1	69.2
보호자의 역할,	30.8	26.9	15.4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7.5	3.4	0.0
가족윤리 및 예절	2.1	2.4	0.0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9.1	2.9	15.4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7.7	1.4	15.4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1.2	9.1	7.7
기타	3.5	1.9	0.0
(수)	(143)	(208)	(13)

주: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였는지의 여부와 유료서비스였는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2021년 각 유형의 부모 지원 서비스들은 비대면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 교육 중 73.4%, 부모 상담 중 67.8%, 육아 멘토 중 84.6%가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받았던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어서, 유료로 제공된 경우가 부모 교육은 7.0%, 부모 상담 4.3%에 불과하였고 육아 멘토는 유료로 제공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교육 4.1점, 부모 상담 4.0점, 육아 멘토 4.0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8〉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만원, 점, (명)

구분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만족도	(수)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부모 교육	22.4	73.4	4.2	7.0	4.1	(143)
부모 상담	28.4	67.8	3.8	4.3	4.0	(208)
육아 멘토	7.7	84.6	7.7	0.0	4.0	(1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의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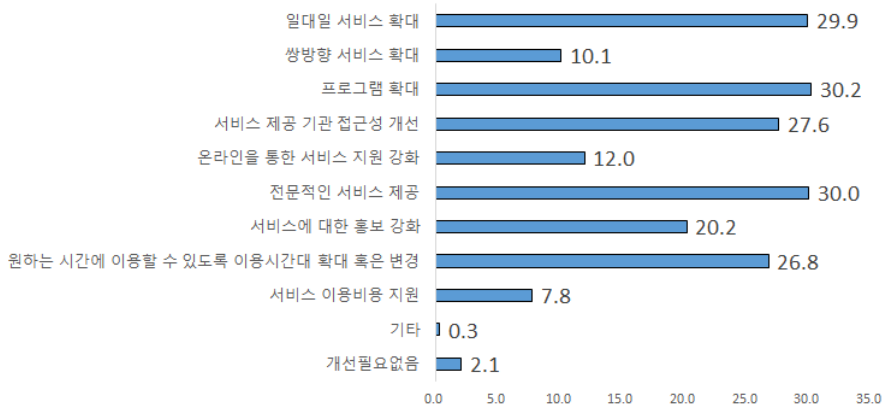
〈그림 Ⅴ-3-2〉에 제시된 부모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들은 '프로그램 확대' 30.2%,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30.0%, ' 일대일 (맞춤)서비스의 확대' 29.9%에 유사하게 응답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등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비

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 27.6%,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26.8%, '서비스 홍보 강화' 20.2%,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12.0%, '쌍방향 서비스 확대' 10.1%,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7.8%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 결과를 통해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나, 그에 앞서 전문적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다양성(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게 나왔는 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상담, 멘토의 역할은 모두가 알고 있을만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쁜 부모를 위해 쉽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기관의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의 적극적 활용도 요구되고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방향성을 극복한 쌍방향의 서비스로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3-2]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



주: 총 응답자 1,933명 기준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4.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가.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1)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는 1차 조사, 2차 조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8%, 36.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차 조사 4차 조사에서는 유치원 이용이라고 응답한 각각 32.5%, 37.1%로 가장 높아 학부모가 원하는 양육형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은 1차 조사에서는 26.4% 높았고 2차~4차 조사에서는 18.6%~20.6% 정도였다.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1차~4차 조사에서 약 10% 내외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Ⅴ-4-1〉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4.8	11.3	34.8	26.4	1.7	1.0	100.0 (199)
2차년도(2019년)	31.6	10.0	36.9	19.6	1.3	0.6	100.0 (166)
3차년도(2020년)	32.5	11.3	31.6	20.8	1.9	1.8	100.0 (109)
4차년도(2021년)	37.1	9.9	33.7	18.6	0.8	-	100.0 (112)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p.172-173.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44.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20.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에 대하여 유치원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외벌이는 54.7%로 맞벌이는 25.2%에 비해 높았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외벌이 24.6%에 비해 높았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26.0%로 외벌이 7.7%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아동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세~만3세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4%~50.9% 수준으로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4세, 만5세, 만6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유치원을 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9%, 64.3%, 78.3%로 나타났다.

〈표 V-4-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1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37.1	9.9	33.7	18.6	0.8	-	100.0 (11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2	7.8	39.7	26.0	1.3	-	100.0 (67)
	외벌이	54.7	13.0	24.6	7.7	0.0	-	100.0 (45)
	χ^2	15.425**						
지역 규모	대도시	33.7	14.6	33.0	17.3	1.4	-	100.0 (62)
	중소도시	36.1	5.1	34.6	24.2	0.0	-	100.0 (37)
	읍면지역	57.3	0.0	34.5	8.2	0.0	-	100.0 (12)
	χ^2	7.127						
아동 연령	2021년생(만0세)	-	-	-	-	-	-	- (0)
	2020년생(만1세)	0.0	0.0	50.9	49.1	0.0	-	100.0 (15)
	2019년생(만2세)	3.4	6.8	65.6	20.9	3.4	-	100.0 (26)
	2018년생(만3세)	11.9	11.3	47.4	29.4	0.0	-	100.0 (16)
	2017년생(만4세)	69.9	6.1	18.1	6.0	0.0	-	100.0 (17)
	2016년생(만5세)	64.3	18.0	11.7	6.0	0.0	-	100.0 (19)
	2015년생(만6세)	78.3	16.3	0.0	5.4	0.0	-	100.0 (19)
	χ^2	76.18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4차 조사까지 38.6%~43.5%로 가장 높게 타났다.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1차 조사 17.0%, 2차 조사 19.1%, 3차 조사 13.6%, 4차 조사 11.8%로 매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12.6%, 3차 13.0%였으나 4차 조사에서 5.3%로 낮아졌다. 다만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2.7%였으나 매년 비율이 상승하여 4차 조사에서는 11.9%로 높아졌다.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맞벌이 여부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2%인 반면 외벌이는 응답률이 0.0%였다(부표 4-53 참조).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외벌이는 28.3%인 반면 맞벌이는 0.0%였다(부표 4-53 참조). 지역규모별로도 응답 비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는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와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가 각각 33.5%인 반면 읍면지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8%였다(부표 4-53 참조).

〈표 Ⅴ-4-3〉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비용 부담 때문에	17.0	19.1	13.6	11.8
일을 하고 있어서	43.5	38.6	41.1	41.6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2.7	7.2	9.4	11.9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2.6	7.4	13.0	5.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3	5.7	6.5	7.8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3.1	8.9	5.3	4.6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1	4.3	2.9	4.4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0.5	0.6	1.8	0.8
기타	8.2	8.3	6.4	11.8
계(수)	100.0(199)	100.0(166)	100.0(109)	100.0(112)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174.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47.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22.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차, 2차 조사에서는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각각 40.2%, 28.9%로 가장 높았으며 3차 조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38.5%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4차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에서는 25.1%로 높은 비율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4차 조사에서는 5.9%로 매우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

〈표 V-4-4〉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6.8	40.2	7.9	25.1	-	-	100.0 (37)
2차년도(2019년)	27.6	28.9	23.5	12.1	3.9	4.0	100.0 (24)
3차년도(2020년)	29.2	21.3	38.5	11.0	0.0	0.0	100.0 (19)
4차년도(2021년)	53.0	23.4	11.9	5.9	5.8	0.0	100.0 (18)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177.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49.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23.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를 살펴보면 외벌이의 경우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맞벌이는 10.1%로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는 가정에서 직접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2% 나타났지만 외벌이는 응답자가 없었다.

대도시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66.5%로 매우 높았던 반면 읍면 지역 거주자는 36.5%만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하였다. 읍면 지역에서는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였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는 원하는 양육형태라고 응답하지 않았다(표 V-4-5 참조).

만4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가장 높았다. 만5세 자녀의 가구에는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돌봄,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유사하게 25.0% 수준이었다. 만6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어린이집이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3%,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였다.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6%, 27.5%, 38.1%로 가장 높았으며 4차 조사에서는 기타가 29.8%로 가장 높았다.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25.5%였지만 매년

감소하여 4차 조사에서는 11.7%로 감소하였다. 집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차 조사에서는 23.3%였지만 4차 조사에서는 11.5%로 낮아졌다(표 Ⅴ-4-6 참조).

〈표 Ⅴ-4-5〉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1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53.0	23.4	11.9	5.9	5.8	0.0	100.0 (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9.6	10.1	20.2	10.1	9.8	0.0	100.0 (10)
	외벌이	57.8	42.2	0.0	0.0	0.0	0.0	100.0 (7)
	χ^2	4.729						
지역 규모	대도시	66.5	33.5	0.0	0.0	0.0	0.0	100.0 (3)
	중소도시	54.1	18.4	18.3	9.2	0.0	0.0	100.0 (12)
	읍면지역	36.5	31.8	0.0	0.0	31.8	0.0	100.0 (3)
	χ^2	7.012						
아동 연령	2017년생(만4세)	100.0	0.0	0.0	0.0	0.0	0.0	100.0 (5)
	2016년생(만5세)	25.3	24.7	25.3	0.0	24.7	0.0	100.0 (4)
	2015년생(만6세)	38.3	36.9	12.4	12.4	0.0	0.0	100.0 (9)
	χ^2	10.448						

주: 2014년생(만6세)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이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표 Ⅴ-4-6〉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9-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비용 부담 때문에	25.5	23.6	22.0	11.7
일을 하고 있어서	30.6	27.5	38.1	23.6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5.2	4.2	11.0	11.9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23.3	24.3	6.1	11.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3.1	-	6.1	0.0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4.9	8.1	5.3	0.0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4.8	4.2	0.0	11.5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2.6	4.0	0.0	0.0
기타	-	4.0	11.5	29.8
계(수)	100.0(37)	100.0(24)	100.0(19)	100.0(18)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178.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49.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23.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초등학령기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1순위~3순위를 통합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3차 조사와 4차 조사 모두 방과후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64.4%,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차 조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33.0%, 학원 32.9% 순이었다. 4차 조사에서는 학원 42.1%, 초등돌봄교실 36.6% 순이었다.

1순위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원 23.2%, 초등돌봄교실 22.5% 순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방과후학교 24.3%, 학원 13.0% 순이었다(부표 4-54 참조).

〈표 V-4-7〉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19-2021년) : 1+2+3순위

단위 : %, (명)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부모 직접 돌봄	7.6	12.9
조부모 및 친인척	6.2	2.0
비혈연 육아도우미	4.4	4.9
학원	32.9	42.1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0.3	10.7
초등돌봄교실	33.9	36.6
방과후 학교	64.4	66.1
이웃, 친구	4.2	2.0
기타	4.8	30.2
무응답	0.0	0.0
(수)	(366)	(220)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27.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희망서비스 종류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2순위 통합한 결과가 (표 V-4-8)에 제시되어 있다. 학원과 비혈연 육아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8%,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36.5% 순이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추첨에 떨어져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2%였다. 방과후학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였다.

〈표 Ⅴ-4-8〉 희망서비스 종류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2021년, 1+2순위응답)

단위 : %, (명)

구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계
	추첨에서 떨어져서	원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적당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	기타	
부모 직접 돌봄	7.8	16.9	0.0	7.2	15.6	22.3	22.3	0.0	9.6	37.4	(14)
조부모 및 친인척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2)
비혈연육아도우미	0.0	19.1	0.0	0.0	39.7	58.8	41.2	0.0	0.0	20.6	(5)
학원	0.0	29.6	12.2	13.5	2.2	53.9	0.0	9.3	43.9	7.2	(45)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18.9	44.6	8.8	8.8	0.0	0.0	8.8	36.5	27.7	9.5	(11)
초등돌봄교실	40.2	17.6	12.3	11.1	0.0	0.0	47.3	0.0	16.0	7.9	(39)
방과후 학교	25.4	30.9	17.0	10.5	1.4	5.8	7.2	9.0	47.0	10.8	(70)
(부모의) 이웃, 친구	0.0	0.0	0.0	0.0	50.0	0.0	50.0	50.0	50.0	0.0	(2)
기타	0.0	26.1	25.1	27.2	0.0	160.3	0.0	16.5	28.0	100.0	(3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나.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 전체 자녀(영유아~초등학생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정부지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차, 3차, 4차 조사에서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9%, 35.1%,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 조사마다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기관 보육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에서 27.9%, 3차 조사에서 19.1%, 4차 조사에서 1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Ⅴ-4-1 참조).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외벌이(42.3%)가 맞벌이(35.2%)에 비해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는 개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외벌이 10.2%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으며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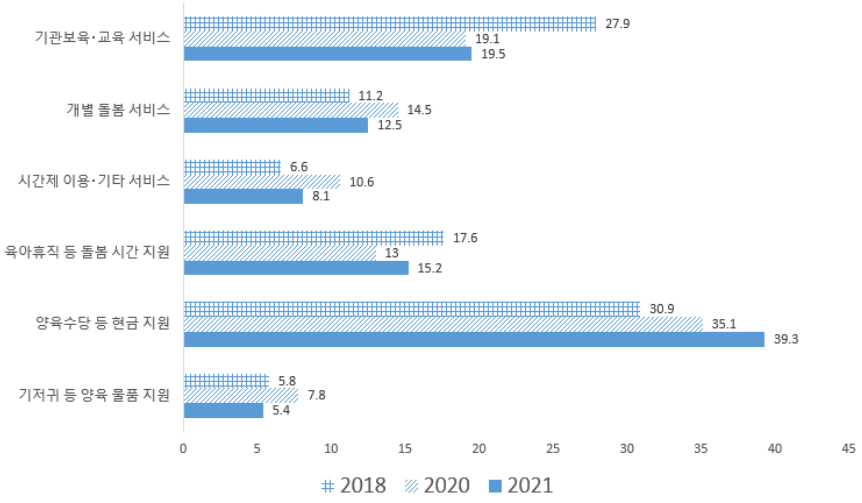
벌이는 19.6%, 외벌이는 11.9%로 맞벌이가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99만원 이하에서는 응답률이 49.8%였지만 600만원 이상에서는 31.2%였다. 반면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승하였다. 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7.2%,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21.6%였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수당 현금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응답률은 43.9% 1명인 가구 33.4%였다. 대도시(34.2%)보다 중소도시(42.2%), 읍면지역(43.8%)이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대 대도시는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4%, 10.1%로 중소도시, 읍면지역보다 높았다.

[그림 Ⅴ-4-1] 연도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18-2021년)

단위 : %



주: 1)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2차년도는 해당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214.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0.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표 Ⅴ-4-9〉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1년)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전체		19.5	12.5	8.1	15.2	39.3	5.4	100.0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8.0	15.5	8.2	19.6	35.2	5.3	100.0 (837)
	외벌이	20.5	10.2	8.0	11.9	42.3	7.0	100.0 (1,096)
	χ^2	48.8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7	10.0	12.2	7.2	49.8	8.1	100.0 (221)
	300~399만원	20.2	11.0	6.3	12.0	43.2	7.2	100.0 (525)
	400~499만원	21.2	11.2	8.8	14.6	39.9	4.4	100.0 (501)
	500~599만원	19.5	14.0	8.7	19.8	33.5	4.4	100.0 (343)
	600만원 이상	20.1	16.9	6.7	21.6	31.2	3.5	100.0 (343)
	χ^2	76.911***						
총 자녀수	1명	20.0	14.6	8.0	17.9	33.4	6.1	100.0 (625)
	2명	19.6	11.2	9.3	14.7	40.0	5.3	100.0 (1,022)
	3명이상	17.8	12.9	4.2	11.2	49.3	4.5	100.0 (286)
	χ^2	31.374***						
지역 규모	대도시	22.9	13.4	10.1	14.5	34.2	5.0	100.0 (764)
	중소도시	16.0	12.9	7.7	15.8	42.2	5.4	100.0 (886)
	읍면지역	20.8	9.2	4.2	15.2	43.8	6.7	100.0 (283)
	χ^2	32.505***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기관보육·교육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4차 조사에서 49.6%~52.9%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18.3%, 3차 조사에서 23.4%까지 상승하였다가 4차 조사에 12.0%로 감소하였다.

〈표 Ⅴ-4-10〉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18.3	20.7	23.4	12.0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50.2	52.9	49.6	51.9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9.3	9.0	8.8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6	4.1	2.4	6.1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4.6	2.8	4.1	4.0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8.3	4.5	6.6	8.8
아동학대 등 근절	5.2	2.8	3.2	6.4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0.2	1.0	0.2	0.3
기타	1.1	1.0	0.7	0.8
개선할 부분 없음	0.2	1.0	0.7	1.1
계(수)	100.0(460)	100.0(507)	100.0(411)	100.0(376)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228.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63.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1.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개별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에서 33.2%, 2차 조사 30.8%, 3차 조사 35.9%, 4차 조사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공공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였다. 다만 1차 조사에서 29.3%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19.8%로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항목은 1차 조사에서는 9.8%였으나 4차 조사에서 18.2%로 크게 높아졌다.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에 대응 제고 항목은 읍면지역에서 15.4%로 대도시 5.9%, 중소도시 3.5%에 비해 높았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공공개별 인력의 전문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14.0%로 높았다(부표 4-57 참조).

〈표 V-4-11〉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29.3	27.7	22.8	19.8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3.2	30.8	35.9	33.1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8.7	6.7	11.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9.8	10.8	17.3	18.2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7.1	13.3	9.3	10.3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9.8	6.7	7.1	5.8
기타	-	1.0	0.3	0.8
개선할 부분 없음	0.5	1.0	0.6	0.8
계(수)	100.0(184)	100.0(195)	100.0(312)	100.0(242)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p.229-230.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64.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2.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을 조사한 결과 1차~4차 조사에서 서비스 다양성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차 조사에서는 29.4%였으나 매년 상승하여 4차 조사에서는 40.8%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로 1차 조사에서는 29.4%, 2차 조사 27.4%, 3차 조사 36.8%, 4차 조사에서는 28.0%의 가구가 응답하였다. 서비스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는 21.1%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11.5%로 감소하였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서비스 다양성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54.0%였으나 2명 34.7%, 3명 이상 33.3%로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부표 4-58 참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가 2명일 때 31.6%, 3명 이상일 때 33.3%로 1명 일 때 20.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부표 4-58 참조).

〈표 Ⅴ-4-12〉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9.4	34.5	40.4	40.8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9.4	27.4	36.8	28.0
서비스 수준 제고	21.1	13.7	8.8	11.5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21.4	12.7	15.9
기타	0.9	3.0	1.3	3.2
개선할 부분 없음	-	0.0	0.0	0.6
계(수)	100.0(109)	100.0(168)	100.0(228)	100.0(157)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231.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p.164-165.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2.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에서 32.8%, 2차 조사 26.5%, 3차 조사 27.9%, 4차 조사 28.9%로 2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차 조사에서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다. 1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는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0%, 21.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3차 조사에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이 있도

록 직장 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응답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에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가 32.4%로 가장 높았으나 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와 서비스 다양성 강화란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부표 4-59 참조). 중간 소득인 400~499만원 가구에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다(부표 4-59 참조).

〈표 V-4-13〉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12.4	18.5	17.9	10.9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14.5	7.7	8.2	8.2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32.8	26.5	27.9	28.9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19.0	12.1	13.9	21.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16.2	26.8	22.5	19.0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	2.0	4.6	4.8
서비스 다양성 강화	4.5	4.7	4.3	6.1
기타	0.7	1.7	0.7	0.3
개선할 부분 없음	0.0	0.0	0.0	0.3
계(수)	100.0(290)	100.0(298)	100.0(280)	100.0(294)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233.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66.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3.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금 지원 수준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4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1차 조사, 2차 조사에서는 응답 비율이 30.5%였고, 3차 조사에서는 39.9%, 4차 조사에서는 44.7%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던 항목은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로 1차 조사에서는 25.5% 2차 조사에서는 29.0%, 3차 조사에서는 28.0%, 4차 조사에서는 24.4%였다. 자격 충족 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에 대한 응답 비율은 1차에서 17.9%였으나 매년 응답률이 감소하여 4차 조사에서는 8.6%만 응답하였다.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는 현금지원 수준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였고 자녀 2명인 가구는 42.8%, 3명인 가구는 36.2%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금 지원 수준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부표 4-60 참조). 반면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항목에서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는 15.3%, 2명인 가구에서는 27.1%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29.8%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상승하였다(부표 4-60 참조).

〈표 Ⅴ-4-14〉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30.5	30.5	39.9	44.7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17.9	13.8	10.4	8.6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25.5	29.0	28.0	24.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25.1	24.9	20.1	21.9
기타	0.8	1.5	0.8	0.4
개선할 부분 없음	0.2	0.3	0.7	0.1
계(수)	100.0(509)	100.0(594)	100.0(756)	100.0(759)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p.234-235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67.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6.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지원 자격 기준 확대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4차 조사에서는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0%, 28.4%,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는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라고 응답 비율이 22.5%로, 4차 조사에서는 지원 자격 기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Ⅴ-4-15〉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30.0	28.4	29.5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12.5	15.0	22.5	20.0
서비스 홍보 강화	13.5	9.3	10.1	6.7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9.4	4.3	5.3	8.6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지원 자격기준 확대	30.2	25.7	19.5	21.0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16.7	14.3	13.0	13.3
기타	-	0.7	0.0	1.0
개선할 부분 없음	-	0.7	1.2	0.0
계(수)	100.0(96)	100.0(140)	100.0(169)	100.0(105)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p.236
2)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167.
3)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6
4)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정부지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차 조사에서는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3%, 3차에서는 46.9%, 4차에서는 52.4%였다.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2차 조사에서는 8.8%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27.9%, 4차 조사에서는 22.4%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4-16〉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2차년도(2019년)	21.3	2.6	3.0	4.9	8.8	100.0 (773)
3차년도(2020년)	46.9	8.1	5.6	11.6	27.9	100.0 (1,043)
4차년도(2021년)	52.4	9.4	5.9	9.9	22.4	100.0 (818)

주: 1)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2차년도와 4차년도는 초1까지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는 초2까지 조사대상임.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37.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 조사에서는 39.5%, 3차 조사에서는 42.1%, 4차 조사에서는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돌봄프로그램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차 조사에서 22.2%, 3차 조사에서 20.0%, 4차 조사에선 20.5%였다.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는 2차 조사에서는 21.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15.2%로 감소하였다.

〈표 Ⅴ-4-17〉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초등돌봄교실 확충	39.5	42.1	41.7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	21.0	16.6	15.2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9.1	8.6	6.8
돌봄프로그램 개선	22.2	20.0	20.5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5.9	8.2	8.2
기타	2.0	3.5	6.5
개선할 부분 없음	0.2	1.0	1.2
계(수)	100.0(405)	100.0(489)	100.0(429)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23.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40.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개별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확대가 2차 조사에서 42.0%, 3차 조사에서 38.1%, 4차 조사 32.5%로 가장 높았다. 2차와 3차 조사에서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로 2차 조사에서 22.0%, 3차 조사에서 23.8%가 응답하였다. 4차 조사에서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공공 개별돌봄인력 확대로 20.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4-1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18.0	11.9	20.8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확대	42.0	38.1	32.5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2.0	6.0	13.0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22.0	23.8	10.4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8.0	7.1	14.3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8.0	13.1	9.1
기타	0.0	0.0	0.0
개선할 부분 없음	0.0	0.0	0.0
계(수)	100.0(50)	100.0(84)	100.0(77)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24.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40.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자녀가 초등학령기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차와 4차 조사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로 2차 조사에서 40.4%, 4차 조사에서 41.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다. 2차와 3차 조사에서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시간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각각 19.3%, 24.1%가 응답하였다. 4차 조사에서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함고은 서비스 다양성 확대로 22.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4-19〉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17.5	25.9	22.9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40.4	22.4	41.7
서비스 수준 제고	10.5	3.4	6.3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0.5	22.4	14.6
시간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19.3	24.1	14.6
기타	0.0	1.7	0.0
개선할 부분 없음	1.8	0.0	0.0
계(수)	100.0(57)	100.0(58)	100.0(48)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24.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41.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초등학령기에 부모 돌봄 시간 지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차와 4차 조사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을 강화였다. 2차 조사에서는 24.5%, 4차 조사에서는 29.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다.

〈표 V-4-2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1.3	20.7	13.6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2.1	9.9	4.9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21.3	24.8	21.0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14.9	5.0	17.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24.5	24.0	29.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4.3	6.6	3.7
서비스 다양성 강화	8.5	6.6	9.9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기타	3.2	1.7	0.0
개선할 부분 없음	0.0	0.8	0.0
계(수)	100.0(94)	100.0(121)	100.0(81)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25.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42.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초등학령기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차~4차 조사 모두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차 조사에서는 38.9%, 3차 조사 40.5%, 4차 조사에서 41.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신설 및 확대로 2차 조사에서 32.9%, 3차 조사 27.8%, 4차 조사에서 25.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4-21〉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9-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신설 및 확대	32.9	27.8	25.7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13.2	17.9	14.2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	13.8	13.1	18.0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	38.9	40.5	41.0
기타	1.2	0.3	1.1
개선할 부분 없음	0.0	0.3	0.0
계(수)	100.0(167)	100.0(291)	100.0(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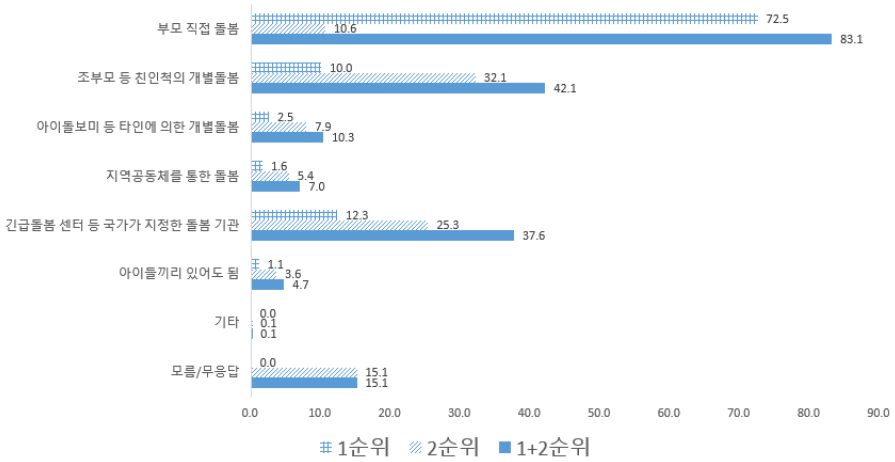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Ⅱ). p.226.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242.
3)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다. 긴급 돌봄 대응

가구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통합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 돌봄 42.1%, 긴급 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37.6% 순이었다. 1순위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부모 직접 돌봄으로 72.5%가 응답하였다. 2순위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 돌봄으로 32.1%였으며 긴급 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은 25.3%가 응답하였다.

[그림 V-4-2] 가구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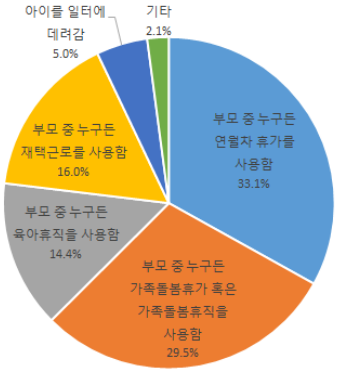


주: 응답자 수는 가구 전체로 1,933가구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맞벌이 가구가 가장 희망하는 직접 돌봄 방식은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33.1%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29.5%,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0%였다.

[그림 V-4-3] 맞벌이가구의 희망하는 직접돌봄 방식 (2021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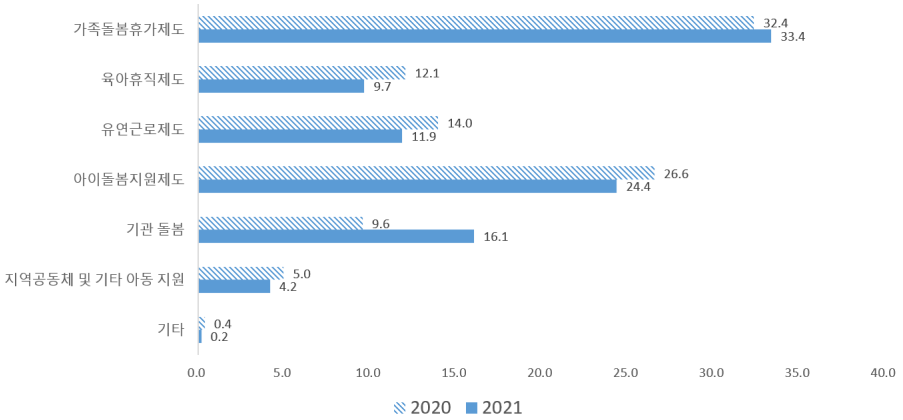


주: 맞벌이 가구 583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성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3차와 4차 조사에서 모두 가족돌봄 휴가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 3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차 조사에서 26.6%, 4차 조사에서 24.4%였다. 기관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차 조사에서 9.6%였지만 4차 조사에서 16.1%로 증가하였다.

[그림 Ⅴ-4-4]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0-2021년)

단위 : %(명)



주: 3차년도는 2,156가구 기준, 4차년도는 1,933가구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p.252-253.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정책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는 육아휴직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3.3%, 유연근로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8%였으나 외벌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유연근로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차이가 있었다. 아이돌봄지원제도는 외벌이의 27.4%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여 맞벌이의 응답 비율 27.4%에 비해 높았다.

자녀수가 1명일 때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였으나 2명일 때 9.0%, 3명 이상일 때 4.9%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아이돌봄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1명인 가구 20.5%, 2명인 가구 26.1%, 3명 이상인 가구 26.9%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이돌

봄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기관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대도시 16.1%, 중소도시 14.9%에 비해 높았다.

〈표 V-4-22〉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1년)

단위 : %(명)

구분		필요한 정책							계(수)
		가족돌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로제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기관 돌봄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기타	
전체		33.4	9.7	11.9	24.4	16.1	4.2	0.2	100.0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6	13.3	14.8	20.5	14.9	2.6	0.2	100.0 (837)
	외벌이	33.2	7.0	9.7	27.4	17.1	5.5	0.2	100.0 (1,096)
	χ^2	49.05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8	7.2	9.5	27.6	14.5	5.9	0.5	100.0 (221)
	300~399만원	35.8	9.5	8.8	22.9	19.2	3.6	0.2	100.0 (525)
	400~499만원	33.1	9.0	12.2	25.3	15.4	5.0	0.0	100.0 (501)
	500~599만원	30.9	11.1	14.6	22.7	16.6	3.5	0.6	100.0 (343)
	600만원 이상	31.5	11.4	15.2	25.1	13.1	3.8	0.0	100.0 (343)
	χ^2	31.607							
총 자녀수	1명	37.3	13.1	10.6	20.5	15.4	3.0	0.2	100.0 (625)
	2명	31.1	9.0	12.6	26.1	15.9	5.0	0.2	100.0 (1,022)
	3명이상	32.9	4.9	12.2	26.9	18.5	4.2	0.3	100.0 (286)
	χ^2	31.706**							
지역 규모	대도시	30.8	10.9	14.9	23.0	16.1	4.2	0.1	100.0 (764)
	중소도시	35.2	9.5	10.4	25.8	14.9	4.0	0.2	100.0 (886)
	읍면지역	34.6	7.4	8.5	23.7	20.1	5.3	0.4	100.0 (283)
	χ^2	22.07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1순위+2순위)에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35.0%, 신청 절차의 간소화 29.5%, 어떤 제도이든 신속대응 체계의 마련 28.8% 순이었다.

맞벌이(40.0%)가 외벌이(31.1%)에 비해 휴가사용 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용 지원의 확대는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52.5%, 600만원 이상 38.2%로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Ⅴ-4-23〉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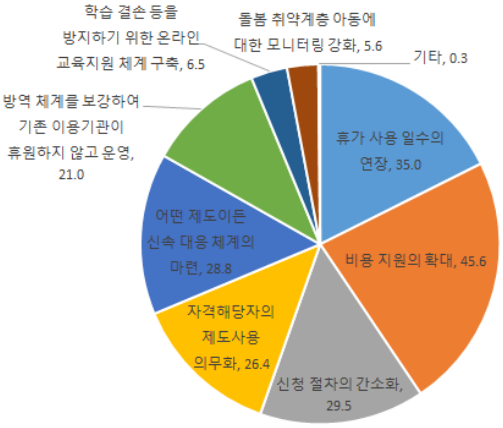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정책 개선 방향									(수)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타	
전체		35.0	45.6	29.5	26.4	28.8	21.0	6.5	5.6	0.3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0.0	42.2	28.0	30.6	27.7	19.5	5.4	4.4	0.2	(837)
	외벌이	31.1	48.2	30.7	23.3	29.7	22.2	7.3	6.5	0.3	(1,0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7	52.5	26.7	22.6	24.0	20.4	10.4	9.5	0.0	(221)
	300~399만원	34.1	50.1	30.1	23.8	28.8	19.6	6.5	5.1	0.6	(525)
	400~499만원	34.3	44.3	29.9	27.5	28.5	23.8	6.8	4.0	0.0	(501)
	500~599만원	33.8	43.4	27.4	31.8	32.1	20.4	3.8	5.8	0.3	(343)
	600만원 이상	40.5	38.2	31.8	25.9	29.2	20.1	6.1	5.8	0.3	(343)
총 자녀수	1명	43.4	45.6	31.2	27.0	27.8	14.6	3.5	5.3	0.2	(625)
	2명	31.0	44.9	27.4	27.6	29.8	24.6	7.6	5.4	0.2	(1,022)
	3명이상	30.8	47.9	33.2	21.0	27.3	22.4	8.7	7.0	0.7	(286)
지역 규모	대도시	32.7	43.1	33.4	28.3	27.2	20.7	7.3	6.2	0.3	(764)
	중소도시	37.5	45.4	28.4	26.1	29.7	20.0	6.5	4.4	0.2	(886)
	읍면지역	33.2	53.0	22.3	22.6	30.4	25.1	3.9	7.8	0.4	(28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그림 Ⅴ-4-5]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단위 : %



주: 1,933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중복응답).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통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지원의 확대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35.0%, 신청 절차의 간소화 29.5%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28.8%, 제도 사용의 의무화 26.4%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휴가 사용일수의 연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7%, 61.7%로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한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아이돌봄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다. 기관 돌봄관련해서는 신속 대응체계의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3%, 비용 지원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였다. 지역공동체 및 기타아동 지원관련해서는 비용 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속대응체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였다.

〈표 V-4-24〉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1년, 1+2순위)

단위 : %, (명)

구분		정책 개선 방향									(수)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제도 사용 의무화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이용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타	
전체		35.0	45.6	29.5	26.4	28.8	21.0	6.5	5.6	0.3	(1,933)
필요한 정책	가족돌봄휴가제도	56.7	49.6	23.7	29.6	17.8	11.9	5.1	3.9	0.5	(645)
	육아휴직제도	61.7	44.7	28.7	30.9	21.3	9.6	3.2	0.0	0.0	(188)
	유연근무제도	33.0	35.7	33.5	41.3	30.4	13.9	5.7	6.1	0.0	(230)
	아이돌봄지원제도	15.3	49.6	32.2	19.7	36.0	29.7	6.4	8.9	0.2	(472)
	기관돌봄	12.8	40.7	34.9	18.9	42.3	35.9	7.7	4.5	0.0	(312)
	지역공동체 및 기타아동 지원	7.3	36.6	30.5	18.3	34.1	31.7	23.2	15.9	1.2	(82)
	기타	0.0	100.0	0.0	0.0	50.0	25.0	0.0	0.0	0.0	(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Part II

심층분석: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격차

VI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지원금 효과

01 심층 분석 개요

0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양육비용

03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Ⅵ.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지원금 효과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상황 변화와 양육비용 변동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 분석은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당해연도에는 수행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분석을 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2019년)과 3차년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전후한 시기에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원된 공적 지원금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올해 수행된 심층 분석은 코로나19를 전후한 시기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102], 생애 초기 투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때, 앞서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초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Ⅵ장의 심층 분석의 결과는 코로나19 초기 확산 단계(2020년 이전)에서의 변화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 심층 분석 개요

가. 심층 분석 자료

이 장의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와 3차년도(2020년) 자료의 영유아 가구(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6세 이하인 가구)를 분석

102) 3차년도 연구에서 기초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대응과 양육비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음.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의 정의에 따른 구분으로,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심층 분석의 주요 종속변수는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므로, 영유아 가구 내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은 분석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심층 분석은 코로나19 전후의 양육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패널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차년도와 3차년도 2개 연도만 활용하였으며, 불균형 패널[103]로 구성하여 진행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심층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소득 및 비용은 모두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기준으로 환산된 실질 값이며, 가구소득은 공적 이전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가구소득1은 본인 및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가구소득2는 가구소득1에 공적 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을 추가적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이때, 가구소득2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공적 이전소득은 제외하고 합산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구소득은 가구소득1의 기준에 의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심층 분석의 주요 종속 변수인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을 위해 투입된 전체 비용으로,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포함하며, 종속변수가 총 양육비용인 경우 로그 값을 취하여 변환된 값을 활용하였다. 총 양육비용에 포함된 비목은 식비, 교육/보육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자녀별 양육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나. 분석 대상 특성

심층 분석에 활용된 분석 대상자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총 관측치는 3,344가구로, 2차년도 1,665가구, 3차년도 1,679가구이다. 이 중 맞벌이 가구가 1,473가구(44.1%)이며, 외벌이 가구가 1,871가구(56.0%)였다.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외벌이 가구 비중이 약간 더 높아지긴 했

103)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해 신생아 표본을 추가하여 구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전 연령을 분석 대상으로 포괄할 경우 불균형 패널 형태의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관측치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표본을 포함하는 불균형 패널 형태가 보다 적합함. 한편, 연구진이 내부적으로 균형 패널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균형 패널로 분석한 결과와 중대한 수준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99만원이하인 가구가 574가구(17.2%), 300~399만원이하 945가구(28.3%), 400~499만원이하 821가구(24.6%), 500~599만원이하 512가구(15.3%)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51만7천원으로, 2차년도 438만3천원에 비해 3차년도에 30만원가량 증가한 465만원이었다. 심층 분석에 활용된 소득과 비용은 모두 소비자물자를 감안하여 실질 비용으로 환산된 값[104]이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Ⅵ-1-1〉 분석 대상 가구 특성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3,344 (100.0)	1,665 (100.0)	1,679 (10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73 (44.1)	738 (44.3)	735 (43.8)
	외벌이	1,871 (56.0)	927 (55.7)	944 (56.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4 (17.2)	384 (23.1)	190 (11.3)
	300~399만원 이하	945 (28.3)	479 (28.8)	466 (27.8)
	400~499만원 이하	821 (24.6)	380 (22.8)	441 (26.3)
	500~599만원 이하	491 (14.7)	225 (13.5)	266 (15.8)
	600만원 이상	512 (15.3)	197 (11.8)	315 (18.8)
	가구소득평균	451.7	438.3	465.0
지역규모	대도시	1,334 (39.9)	664 (39.9)	670 (39.9)
	중소도시	1,474 (44.1)	728 (43.7)	746 (44.4)
	읍면지역	536 (16.0)	273 (16.4)	263 (15.7)
입주형태	자가	1,911 (57.2)	961 (57.7)	950 (56.6)
	자가아님	1,433 (42.9)	704 (42.3)	729 (43.4)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62 (1.9)	34 (2.0)	28 (1.7)
	중층	2,593 (77.5)	1,290 (77.5)	1,303 (77.6)
	하층	689 (20.6)	341 (20.5)	348 (20.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지역 규모는 대도시 거주자가 1,335가구(39.9%), 중소도시 1,474가구(44.1%), 읍면지역 536가구(16.0%)이다. 입주형태로는 자가인 경우가 1,911(57.2%)로, 절반 이상이며, 2차년도에 자가 비중이 약간 높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층(상상, 상중, 상하 3개 구간)이라는 응답은 62가구(1.9%)에 불과하며, 중층(중상, 중중, 중하) 2,593(77.5%)로 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 2015=100기준으로 환산된 실질 값임.

하층(하상, 하중, 하하)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가구는 689가구(20.6%)였다.

분석 대상 가구의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총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1,102가구(33.0%), 2명인 가구 1,767가구(52.8%), 3명 이상인 가구 475가구(14.2%)였다. 이 중 가구 내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35.0%(1,170가구)였으며, 영유아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가 2,174(65.0%)였다. 총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비중과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가구의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한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0세인 경우가 314가구(9.4%)였으며, 만1세 605(18.1%), 만2세 539가구(16.1%), 만3세 463가구(13.9%), 만4세 468가구(14.0%), 만5세 474가구(14.2%), 만6세 481가구(14.4%)였다. 만0세의 경우 당해 연도 출생아 신규 표본으로, 상반기 출생아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측치가 다른 연령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표 Ⅵ-1-2〉 분석 대상 자녀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3,344 (100.0)	1,665 (100.0)	1,679 (100.0)
총 자녀수	1명	1,102 (33.0)	559 (33.6)	543 (32.3)
	2명	1,767 (52.8)	878 (52.7)	889 (53.0)
	3명이상	475 (14.2)	228 (13.7)	247 (14.7)
초등이상 자녀 유무	초등이상자녀있음	1,170 (35.0)	573 (34.4)	597 (35.6)
	초등이상자녀없음	2,174 (65.0)	1,092 (65.6)	1,082 (64.4)
막내자녀 연령	만0세	314 (9.4)	160 (9.6)	154 (9.2)
	만1세	605 (18.1)	292 (17.5)	313 (18.6)
	만2세	539 (16.1)	250 (15.0)	289 (17.2)
	만3세	463 (13.9)	229 (13.8)	234 (13.9)
	만4세	468 (14.0)	246 (14.8)	222 (13.2)
	만5세	474 (14.2)	237 (14.2)	237 (14.1)
	만6세	481 (14.4)	251 (15.1)	230 (1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분석 대상 가구의 부모 특성은 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아서 2,445명(73.1%)가 30대였으며, 40대이상 695명(20.8%), 20대 196명(5.9%)였다. 모 평균 연령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동일한 이유는 자료가 불균형 패널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2차년도 표본 중 막내 자녀 연령이 만7세이상인 경우 자료에서 제외되었으며, 3차년도 만0세 신생아 표본 가구가 분석 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모의 학력은 4년제대졸 이상이 1,839명(55.0%)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817명(24.4%) 고졸이하 680명(20.3%)였다.

부 연령은 평균 38.5세로, 40대이상이 1,273명(38.1%)로 가장 많았으며, 부의 학력은 모에 비해 4년제 대졸 이상 비중이 더 증가하여 2,054가구(61.4%)가 4년제 대졸이상이었으며, 전문대졸 646가구(19.3%), 고졸이하 617가구(18.5%)였다.

〈표 Ⅵ-1-3〉 분석 대상 부모 특성

단위 : 가구, 세, (%)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3,344 (100.0)	1,665 (100.0)	1,679 (100.0)
모연령	20대	196 (5.9)	97 (5.8)	99 (5.9)
	30대	2,445 (73.1)	1,228 (73.8)	1,217 (72.5)
	40대 이상	695 (20.8)	335 (20.1)	360 (21.4)
	평균연령	36.3	36.3	36.3
모학력	고졸이하	680 (20.3)	337 (20.2)	343 (20.4)
	전문대졸	817 (24.4)	425 (25.5)	392 (23.4)
	4년제대졸이상	1,839 (55.0)	898 (53.9)	941 (56.1)
부연령	20대	63 (1.9)	31 (1.9)	32 (1.9)
	30대	1,981 (61.9)	1,008 (60.5)	973 (57.8)
	40대 이상	1,273 (38.1)	614 (36.9)	659 (39.3)
	평균연령	38.5	38.4	38.5
부학력	고졸이하	617 (18.5)	318 (19.1)	299 (17.8)
	전문대졸	646 (19.3)	331 (19.9)	315 (18.8)
	4년제대졸이상	2,054 (61.4)	1,004 (60.3)	1,050 (62.5)

주: 모가 없는 가구가 전체 표본 기준 8가구, 부가 없는 가구가 27가구이며, 부모 특성별 비중은 전체 표본 기준 비중이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다. 분석 방법

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과 관련된 분석은 패널 분석 방법 중 이원 고정 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05].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은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차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 본

105) 패널 분석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민인식·최필선(2010)의 8장과 9장(pp.123-16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Hausman Test 결과, 임의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일괄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함.

연구에서 활용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은 패널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 시차효과(1차 차분모형)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형태의 모형으로, 기본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변하지 않은 가구 특성(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차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분석 자료에 미관측 이질성과 같은 내생성이 전혀 없다면,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의 추정치와 OLS 추정치는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데, 본 연구 분석 결과 두 모형의 추정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이 통제되어 보다 신뢰도가 높은 추정치인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1)과 같은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다.

(식 1)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i = 1, 2, \cdots, n$, $t = 1, 2, \cdots, T$

(식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모형은 오차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u_{it}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특성을 의미하며,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e_{it}로 구분된다. 고정 효과 모형 추정을 위해 먼저 within 변환을 하는데, 이를 위해 패널 그룹별 평균으로 이루어진 between모형 (식 2) $\overline{y_i} = \alpha + \beta \overline{x_i} + u_i + \overline{e_i}$를 설정한다.

(식 2) 에서 (식 1)을 빼주면 (식 3)과 같이 되며, 이 모형이 within 변환이 적용된 고정 효과 모형 추정모형이다.

(식 3) $(y_{it} - \overline{y_i}) = \beta (x_{it} - \overline{x_i}) + (e_{it} - \overline{e_i})$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 특성 u_i가 소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6]. 여기에 두 개 시점 사이의 변화, 즉 시간 특성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3차년도 응답 가구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시차효과를 추정하면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의 추정식이 된다.

(식 4) $(y_{it} - \overline{y_i}) = \beta (x_{it} - \overline{x_i}) + \delta D_{wave3} + (e_{it} - \overline{e_i})$

한편,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 효과는 패널 1차 차분 모형을 적용한 이중차분 모형(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으로 분석하였다. 즉, 코로나19 전후

106) STATA 특성 상 고정 효과 모형의 상수 α가 추정되나, 모든 패널 개체와 시점에 대해 이미 동일한 값이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함.

시점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수혜한 가구와 수혜하지 못한 가구 사이의 정책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식 5) $y_{it} = \alpha + \beta x_{it} + \delta D_{2it} + u_i + e_{it}$, $t = 1, 2$와 같은 2개 시점을 가진 패널 모형이 있다고 할 때, x_{it}는 정책 지원 여부이며, D_{2it}는 시간 더미 변수이다. 이 모형을 1차 차분을 적용하면,

(식 6) $\triangle y_i = \beta \triangle x_i + \delta + \triangle e_i$ 와 같은 횡단면 모형으로 변환된다. 정책 지원의 효과는 β추정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두 시점간의 차이를 각각 계산한 후에 다시 정책 지원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양육비용

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구소득의 변화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 변화를 알아보기 이전에 가구소득의 변화에 대해 먼저 고찰해보았다. 가구소득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점으로 코로나19 전후 소득의 변동이 가구 소비 및 양육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표 Ⅵ-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차년도(2019년)에 비해 3차년도(2020년)에 평균 26만7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별로 나누어 소득을 살펴보면, 3차년도(2020년) 1분위 소득 구간의 평균 가구소득이 206만8천원으로 2차년도(2019년) 212만2천원에 비해 약간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분위별 가구소득은 각 조사 차수별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총 10개 분위로 구분하였는데, 각 분위의 분기점(커트라인, 최고값)은 3차년도가 2차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107]. 즉, 전반적으로 3차년도에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분위별 평균 가구소득의 수준을 살펴보면, 2분위~9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 또한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높지만, 최하위 분위인 1분위와 최상위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2차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107) 단, 최상위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2차년도 고액 소득자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가구소득을 보이고 있음.

〈표 Ⅵ-2-1〉 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 만원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분기점(최고값)	평균가구소득	분기점(최고값)	평균가구소득
분위수	1분위	276.6	212.2	286.2	206.8
	2분위	286.2	284.6	338.7	319.2
	3분위	333.8	311.8	372.1	354.4
	4분위	372.0	344.2	401.7	384.4
	5분위	381.6	381.1	432.2	418.1
	6분위	429.3	415.4	470.4	450.4
	7분위	477.0	466.7	524.8	497.7
	8분위	543.7	505.4	587.7	550.7
	9분위	620.1	580.1	677.4	627.6
	10분위	4,273.6	895.6	1,927.3	842.9
지니계수		0.2224		0.2025	

주: 1)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한편,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니계수[108]를 산출하여 비교해 본 결과, 2차년도 0.2224이던 것이 3차년도 0.2025로 오히려 영유아 가구 내 불평등도는 코로나19 전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 3차년도 뿐 아니라 2차년도의 경우에도 지니계수는 0.2 수준에 그쳐, 우리나라 지니계수 0.339 (KOSIS 홈페이지[109])와 비교할 때,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도는 처음부터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 출산 결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미래 소득 등을 감안한 의사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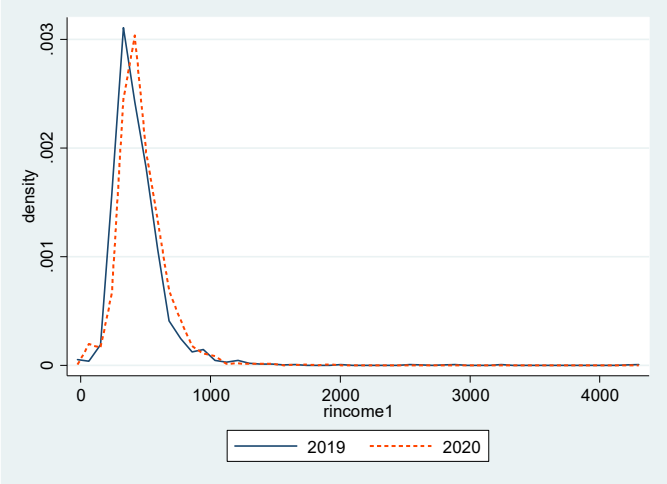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110]를 살펴보아도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단, 최하위 분위(왼쪽 하단부)에서 3차년도(2020년)의 밀도가 2차년도(2019년)에 비해 살짝 높아, 하위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다소 악화되었음을 짐작케 하였다.

108)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완전균등선(대각선)과 로렌츠곡선이 이루는 불평등 면적과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삼각형)의 비율로 산출됨.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형평한 상태를 의미함.

109) KOSIS 홈페이지,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 checkFlag=N (인출일 : 2021. 6. 12.).

110) 커널 밀도 추정치(Kernel density Estimation)는 임의 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hat{f_h}(x) = \frac{1}{n}\sum_{i=1}^{n} K_h(x_i - x) = \frac{1}{nh}\sum_{i=1}^{n} K(\frac{x_i - x}{h})$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커널 밀도 추정치는 관측된 자료의 분포를 보고자 할 때 히스토그램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히스토그램이 비연속적 함수 형태를 갖는데 반해 커널 밀도 추정치는 연속함수라는 장점이 있음(이정원·최효미·김진미 외, 2014: 105).

[그림 Ⅵ-2-1] 조사차수별 가구소득 분포



주: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하였으며, 커널 밀도 추정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가구소득 분위별로 하위30%(1분위~3분위), 중위40%(4~7분위), 상위30%(8~10분위)를 구분하여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하위30% 집단은 상위30% 집단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비중(78.9% 〉 26.9%)이 현격히 높고, 중소도시 거주자 비중(41.5% 〈 48.0%)이 낮고, 자가 비중(44.9% 〈 66.5%)이 낮으며,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35.8% 〉 7.2%)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영유아 가구 중 가구소득이 상위 30%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89.7%)가 대다수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하위 30%에 속하지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도 1.3% 있어,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 Ⅵ-2-2〉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전체		1,005	(100.0)	1,340	(100.0)	999	(10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2	(21.1)	531	(39.6)	730	(73.1)
	외벌이	793	(78.9)	809	(60.4)	269	(26.9)

구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지역규모	대도시	419	(41.7)	528	(39.4)	387	(38.7)
	중소도시	417	(41.5)	578	(43.1)	479	(48.0)
	읍면지역	169	(16.8)	234	(17.5)	133	(13.3)
입주형태	자가	451	(44.9)	796	(59.4)	664	(66.5)
	자가아님	554	(55.1)	544	(40.6)	335	(33.5)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13	(1.3)	18	(1.3)	31	(3.1)
	중층	632	(62.9)	1,065	(79.5)	896	(89.7)
	하층	360	(35.8)	257	(19.2)	72	(7.2)

주: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가구소득 하위 30%에 속한 가구들은 상위 30%에 속한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1명인 비중이 높아(40.4% 〉 30.2%) 총 자녀 수가 적으며,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27.1% 〈 39.5%)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도 상위30%에 속한 가구가 전반적으로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표 Ⅵ-2-3〉 가구소득 분위별 자녀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전체		1,005	(100.0)	1,340	(100.0)	999	(100.0)
총 자녀수	1명	406	(40.4)	394	(29.4)	302	(30.2)
	2명	467	(46.5)	745	(55.6)	555	(55.6)
	3명이상	132	(13.1)	201	(15.0)	142	(14.2)
초등이상 자녀 유무	초등이상자녀있음	272	(27.1)	503	(37.5)	395	(39.5)
	초등이상자녀없음	733	(72.9)	837	(62.5)	604	(60.5)
막내자녀 연령	만0세	133	(13.2)	128	(9.6)	53	(5.3)
	만1세	242	(24.1)	237	(17.7)	126	(12.6)
	만2세	170	(16.9)	207	(15.5)	162	(16.2)
	만3세	120	(11.9)	188	(14.0)	155	(15.5)
	만4세	119	(11.8)	197	(14.7)	152	(15.2)
	만5세	112	(11.1)	199	(14.9)	163	(16.3)
	만6세	109	(10.9)	184	(13.7)	188	(18.8)

주: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가구소득 분위별 부모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부모의 연령 모두 가구소득이 상위 30%이상인 가구가 하위30%이하인 가구에 비해 연령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부모의 학력 수준 또한 상위30%이상인 가구가 하위30%이하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Ⅵ-2-4〉 가구소득 분위별 부모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전체		1,005 (100.0)	1,340 (100.0)	999 (100.0)
모연령	20대	99 (9.9)	66 (4.9)	31 (3.1)
	30대	729 (72.5)	985 (73.5)	731 (73.2)
	40대 이상	171 (17.0)	287 (21.4)	237 (23.7)
모학력	고졸이하	262 (26.1)	291 (21.7)	127 (12.7)
	전문대졸	280 (27.9)	327 (24.4)	210 (21.0)
	4년제대졸이상	457 (45.5)	720 (53.7)	662 (66.3)
부연령	20대	37 (3.7)	20 (1.5)	6 (0.6)
	30대	646 (64.3)	794 (59.3)	541 (54.2)
	40대 이상	198 (29.7)	524 (39.1)	451 (45.2)
부학력	고졸이하	258 (25.7)	263 (19.6)	96 (9.6)
	전문대졸	217 (21.6)	260 (19.4)	169 (16.9)
	4년제대졸이상	506 (50.4)	815 (60.8)	733 (73.4)

주: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한편, 조사차수별로 가구소득의 변화를 가구소득 분위 이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Ⅵ-2-5〉와 같다. 표에서 회색 음영이 들어간 집단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변동이 없는 가구들로, 음영 구간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는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진 가구들이며, 왼쪽에 위치한 가구들은 가구소득 분위가 낮아진 가구들이다. 가구소득 분위의 변동은 상당수 발생하지만, 주로 이전년도 가구소득 분위에 인접한 분위로의 변동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변화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차년도보다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높은 가구는 1,025가구(48.3%)이며, 동일 분위인 경우 315(14.8%),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는 783가구(36.9%)였다.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분석 대상을 균형 패널로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분석 가구 수는 각 년도 1,221가구씩 2,442가구로,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진 경우가 567가구(46.4%), 동일한 경우 315가구(25.8%), 낮아진 경우 339가구(27.8%)였다. 즉,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균형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가구소득 분위가 동일하거나 낮아진 가구가 분석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2차년도 고소득 분위 가구에서 표본 이탈이 약간 더 크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표 Ⅵ-2-6 참조).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실질 가구소득이 증감한 가구의 비중은 증가한 가구

가 925가구(55.6%)이고, 감소한 가구가 740가구(44.4%)였다. 가구소득이 증가한 가구들은 2차년도 가구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에서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으며,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감소한 가구는 2차년도 가구소득 분위에서 상위 분위인 가구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즉, 코로나19 전후 소득 저하가 발생한 영유아 가구가 비교적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차년도 당시에서 가구소득 분위가 3분위 이하로 낮았던 영유아 가구 중에서도 3차년도에 실질 가구소득 자체가 더 낮아진 가구들도 146가구(8.7%)에 달하므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표 Ⅵ-2-6 참조).

〈표 Ⅵ-2-5〉 차수별 가구소득 분위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3차년도(2020년) 가구소득 분위										
		무응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차년도(2019년) 가구소득 분위	무응답	0 (0.0)	67 (3.2)	56 (2.6)	46 (2.2)	57 (2.7)	47 (2.2)	40 (1.9)	37 (1.7)	42 (2.0)	36 (1.7)	30 (1.4)
	1분위	36 (1.7)	40 (3.3)	36 (3.0)	14 (1.2)	14 (1.2)	10 (0.8)	10 (0.8)	4 (0.3)	0 (0.0)	0 (0.0)	3 (0.3)
	2분위	39 (1.8)	14 (1.1)	26 (2.1)	31 (2.5)	19 (1.6)	8 (0.7)	14 (1.2)	8 (0.7)	4 (0.3)	3 (0.3)	1 (0.1)
	3분위	38 (1.8)	6 (0.5)	18 (1.5)	30 (2.5)	31 (2.5)	15 (1.2)	13 (1.1)	7 (0.6)	7 (0.6)	2 (1.2)	0 (0.0)
	4분위	39 (1.8)	13 (1.1)	10 (0.8)	22 (1.8)	25 (2.1)	14 (1.2)	18 (1.5)	10 (0.8)	7 (0.6)	3 (0.3)	6 (0.5)
	5분위	39 (1.8)	8 (0.7)	9 (0.7)	5 (0.4)	7 (0.6)	19 (1.6)	22 (1.8)	23 (1.9)	11 (8.6)	13 (1.1)	11 (0.9)
	6분위	48 (2.3)	9 (0.7)	4 (0.3)	2 (0.2)	4 (0.3)	27 (2.2)	22 (1.8)	29 (2.4)	13 (1.1)	4 (0.3)	5 (0.4)
	7분위	52 (2.5)	3 (0.3)	2 (0.2)	7 (0.6)	2 (0.2)	10 (0.7)	9 (0.7)	16 (1.3)	33 (2.7)	17 (1.4)	16 (1.3)
	8분위	54 (2.5)	1 (0.1)	3 (0.3)	6 (0.5)	4 (0.3)	5 (0.4)	8 (0.7)	22 (1.8)	33 (2.7)	18 (1.5)	13 (1.1)
	9분위	47 (2.3)	6 (0.5)	1 (0.1)	2 (0.2)	4 (0.3)	6 (0.5)	6 (0.5)	6 (0.5)	13 (1.1)	49 (4.0)	27 (2.2)
	10분위	52 (2.5)	1 (0.1)	3 (0.3)	3 (0.3)	1 (0.1)	7 (0.6)	6 (0.5)	6 (0.5)	5 (0.4)	23 (1.9)	55 (4.5)

주: 1)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분위 값은 각 차수별 전체 응답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표 Ⅵ-2-6〉 가구소득 분위(2차년도 기준)별 실질 가구소득 변화 비중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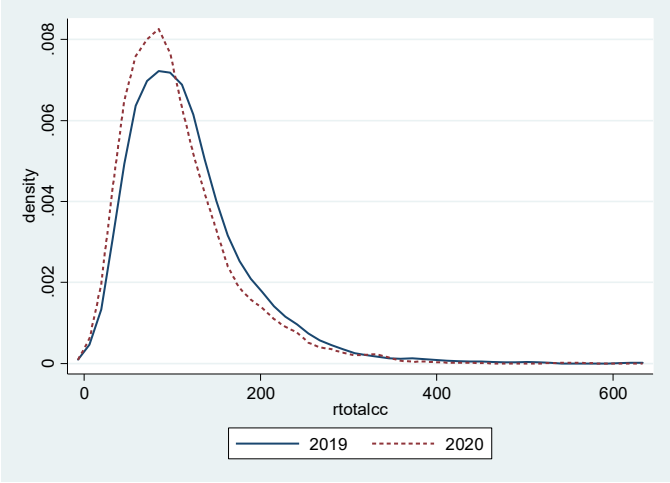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2019년) 가구소득 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증가	925 (55.6)	121 (7.3)	115 (6.9)	119 (7.2)	102 (6.1)	104 (6.3)	85 (5.1)	87 (5.2)	74 (4.4)	77 (4.6)	41 (2.5)
감소	740 (44.4)	46 (2.8)	52 (3.1)	48 (2.9)	65 (3.9)	63 (3.8)	82 (4.9)	80 (4.8)	93 (5.6)	90 (5.4)	121 (7.3)

주: 1)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는 전체 백분율이며, 3차년도만 응답한 경우 458가구는 결측처리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나. 총 양육비용 변화

총 양육비용의 분포를 통해 3차년도(2020년)에는 2차년도(2019년)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총 양육비용은 201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있으며, 최고점을 중심으로 보다 밀집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즉,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총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며, 형평성은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Ⅵ-2-2] 조사차수별 총 양육비용 분포



주: 총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하였으며, 커널 밀도 추정치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분석 대상의 총 양육비용 평균은 111만7천원으로 2차년도(2019년) 118만1천원에서 3차년도(2020년)에는 105만3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이 많았다. 단, 지역 규모에 따른 총 양육비용의 차이는 2차년도에 좀 더 크게 편차를 보였으며, 3차년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차년도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 감소에 기인하기 때문으로(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99),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역 규모에 따라 이 비목의 총 양육비용이 편차를 보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약 20만원가량 높은데, 두 집단 간 총 양육비용의 편차는 2차년도(15만원)에 비해 3차년도(24만원)에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총 양육비용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Ⅵ-2-7〉 가구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111.7 (3,344)	118.1 (1,665)	105.3 (1,67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0.9 (1,473)	126.2 (738)	115.5 (735)
	외벌이	104.4 (1,871)	111.6 (927)	97.3 (944)
지역규모	대도시	115.1 (1,334)	125.0 (664)	105.3 (670)
	중소도시	107.9 (1,474)	111.6 (728)	104.3 (746)
	읍면지역	113.5 (536)	118.8 (273)	108.0 (263)
입주형태	자가	120.1 (1,911)	124.5 (961)	115.7 (950)
	자가아님	100.4 (1,433)	109.5 (704)	91.7 (729)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157.5 (62)	161.6 (34)	152.4 (28)
	중층	114.5 (2,593)	119.6 (1,290)	109.4 (1,303)
	하층	96.9 (689)	108.0 (341)	86.1 (348)

주: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총 자녀 수에 따른 격차 또한 2차년도가 3차년도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초등이상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47만4천원 높았다.

〈표 Ⅵ-2-8〉 자녀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111.7 (3,344)	118.1 (1,665)	105.3 (1,679)
총 자녀수	1명	74.2 (1,102)	79.4 (559)	68.9 (543)
	2명	121.3 (1,767)	128.3 (878)	114.3 (889)
	3명이상	162.6 (475)	173.6 (228)	152.5 (247)
초등이상 자녀 유무	초등이상자녀있음	142.5 (1,170)	151.8 (573)	133.6 (597)
	초등이상자녀없음	95.1 (2,174)	100.5 (1,092)	89.6 (1,082)

주: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부모 특성별로는 부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도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앞서 분석대상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연령이 많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소득수준 또한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Ⅵ-2-9〉 부모 특성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 만원, (가구)

구분		전체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전체		111.7 (3,344)	118.1 (1,665)	105.3 (1,679)
모연령	20대	79.3 (196)	88.4 (97)	70.4 (99)
	30대	109.9 (2,445)	116.0 (1,228)	103.8 (1,217)
	40대 이상	127.3 (695)	135.4 (335)	119.9 (360)
모학력	고졸이하	102.6 (680)	109.9 (337)	95.5 (343)
	전문대졸	112.6 (817)	119.6 (425)	105.0 (392)
	4년제대졸이상	114.8 (1,839)	120.8 (898)	109.0 (941)
부연령	20대	76.5 (63)	85.6 (31)	67.6 (32)
	30대	104.7 (1,981)	110.3 (1,008)	99.0 (973)
	40대 이상	125.1 (1,273)	133.8 (614)	116.9 (659)
부학력	고졸이하	101.9 (617)	108.1 (318)	95.3 (299)
	전문대졸	110.3 (646)	115.5 (331)	104.9 (315)
	4년제대졸이상	115.6 (2,054)	122.9 (1,004)	108.5 (1,050)

주: 1) 모가 없는 가구가 전체 표본 기준 8가구, 부가 없는 가구가 27가구이며, 부모 특성별 비중은 전체 표본 기준 비중이므로 주의를 요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수준(분위)이 높을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가구소득이 1분위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 양육비용이 79만5천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이 10분위인 최상

위 분위는 166만3천원으로 1분위 가구의 총 양육비용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차년도(2019년)와 비교하여 3차년도(2020년) 총 양육비용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총 양육비용의 감소가 특정 소득 분위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전년대비 증감액과 증감율은 소득 분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년대비 증감폭이 큰 소득 분위는 4분위~6분위로 중위 소득 구간에서 총 양육비용의 감소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0〉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79.5	83.0	76.0	- 7.0	- 8.4
	2분위	87.6	94.3	80.9	-13.4	-14.2
	3분위	89.1	93.5	84.7	- 8.8	- 9.4
	4분위	94.0	100.8	87.2	-13.6	-13.5
	5분위	108.0	117.4	98.6	-18.8	-16.0
	6분위	111.9	122.9	101.0	-21.9	-17.8
	7분위	121.9	127.2	116.6	-10.6	- 8.3
	8분위	126.5	129.9	123.1	- 6.8	- 5.2
	9분위	132.8	141.0	124.7	-16.3	-11.6
	10분위	166.3	172.7	160.1	-12.6	- 7.3

주: 1) 총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3) 전년대비 증감율 = {(2020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가구소득 분위별로 총 양육비용 중 식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들 3개 비목은 총 양육비용에서 지출액 비중이 큰 3개 비목이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99). 본 연구의 분석 자료 기준으로 총 양육비용 중 식비는 평균 29만8천원, 교육/보육비 27만5천원, 여가/문화생활비 14만3천원이었다.

먼저, 총 양육비용 중 식비에 대한 지출은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양육비용은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감소하였지만, 식비에 대한 지출은 모든 가구소득 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양육비용 중 식비

는 가구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1분위와 10분위 가구 사이에 평균 약 11만4천원의 편차에 그쳤다. 1분위와 10분위 가구 사이에 양육비용 중 식비는 2차년도 기준 11만1천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3차년도에는 11만6천원으로 격차가 약간 커지긴 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차년도 대비 3차년도 양육비용 중 식비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소득 분위는 7분위로 9만7천원, 전년 대비 38.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가구소득 1분위 가구들의 경우 2차년도에는 다른 분위에 비해 식비 지출이 가장 낮았으나, 3차년도(2020년)에는 2분위 가구에 비해 평균 식비 지출이 높으며, 증가폭 또한 큰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즉, 1분위 가구의 총 양육비용 부담 증가가 주로 식비에 대한 부담 증가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Ⅵ-2-11〉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식비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22.9	20.0	25.8	5.8	29.0
	2분위	23.4	22.4	24.4	2.0	8.9
	3분위	24.2	22.4	25.9	3.5	15.6
	4분위	25.5	24.1	26.9	2.8	11.6
	5분위	28.0	27.1	28.9	1.8	6.6
	6분위	28.3	26.7	30.0	3.3	12.4
	7분위	30.2	25.3	35.0	9.7	38.3
	8분위	29.3	25.6	33.0	7.4	28.9
	9분위	28.7	26.4	31.0	4.6	17.4
	10분위	34.3	31.1	37.4	6.3	20.3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3) 전년대비 증감율 = {(2020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총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교육/보육비가 감소했으며 평균 감소액은 12만5천원으로, 2차년도 대비 3차년도 총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교육/보육비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커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1분위와 10분위 사이의 교육/보육비 편차는 2차년도 49만5천원, 3차년도 44

만1천원에 달할 정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식비와 달리 교육/보육비 편차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차년도(2020년)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차년도(2020년)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 감소액이 커지는 경향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가 가구소득의 감소 등에 따른 이용 제약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 최상위 소득 분위인 10분위 가구의 경우에만 감소폭이 1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분위 가구에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Ⅵ-2-12〉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교육/보육비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8.7	22.8	14.5	- 8.3	-36.4
	2분위	21.4	25.5	17.3	- 8.2	-32.2
	3분위	20.6	25.2	16.1	- 9.1	-36.1
	4분위	23.9	29.3	18.4	-10.9	-37.2
	5분위	29.0	35.6	22.5	-13.1	-36.8
	6분위	33.5	41.5	25.6	-15.9	-38.3
	7분위	38.4	45.2	31.7	-13.5	-29.9
	8분위	41.8	49.0	34.7	-14.3	-29.2
	9분위	45.6	55.0	36.3	-18.7	-34.0
	10분위	65.3	72.3	58.6	-13.7	-18.9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3) 전년대비 증감율 = {(2020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총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 또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주로 중위소득 구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2-13 참조).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6분위(-27.7%), 5분위(-26.3%), 7분위(-25.6%)에서 감소폭이 큰 편이었으며, 1분위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2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 자체가 식비나 교육/보육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증감액은 대체로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그쳤다.

한편,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20~30% 수준을 보이는

데, 가구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표 Ⅵ-2-14 참조). 그런데, 1분위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이 48.2%로 다른 소득 분위와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1분위에 속한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극심함을 시사한다. 1분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은 2차년도에는 43.0%였으나, 3차년도네는 52.2%로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총 양육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1분위를 제외한 다른 분위의 경우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양육비용 비중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Ⅵ-2-13〉 가구소득 분위별 총 양육비용 : 여가/문화생활비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0.3	11.5	9.1	-2.4	-20.9
	2분위	11.7	12.1	11.3	-0.8	- 6.6
	3분위	13.9	14.6	13.2	-1.4	- 9.6
	4분위	12.9	14.0	11.9	-2.1	-15.0
	5분위	15.6	17.9	13.2	-4.7	-26.3
	6분위	15.9	18.4	13.3	-5.1	-27.7
	7분위	17.3	19.9	14.8	-5.1	-25.6
	8분위	16.7	17.9	15.5	-2.4	-13.4
	9분위	20.1	21.1	19.0	-2.1	-10.0
	10분위	24.0	26.6	21.5	-5.1	-19.2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3) 전년대비 증감율 = {(2020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 2019년 총양육비용} *100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표 Ⅵ-2-14〉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단위 : %, %p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증감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48.2	43.9	52.2	8.3
	2분위	29.3	33.1	25.4	-7.7
	3분위	27.0	30.1	24.0	-6.1
	4분위	26.0	29.3	22.7	-6.6
	5분위	27.2	30.8	23.6	-7.2
	6분위	26.0	29.6	22.4	-7.2

구분		전체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증감
	7분위	25.3	27.2	23.5	-3.7
	8분위	24.1	25.8	22.4	-3.4
	9분위	22.1	24.3	19.8	-4.5
	10분위	20.3	21.1	19.5	-1.6

주: 1) 총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값을 활용함.
2) 2차년도는 각 분위별 167가구씩(10분위만 162가구)이며, 3차년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임.
3) 증감 = 2020년 가구소득대비 총양육비용 비율 - 2019년 가구소득대비 총양육비용 비율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다. 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이 항에서는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총 양육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소득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인 경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구소득1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총 양육비용[111]에는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부 학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시차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부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는 고졸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총 양육비용이 5% 유의수준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 시차 효과의 경우 유의미한 음수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차년도(2020년)의 총 양육비용은 2차년도(2019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11) 로그 변환한 값임.

〈표 Ⅵ-2-15〉 (로그)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맞벌이가구여부(맞벌이=1)		0.093**	0.067	0.094**
가구소득1		0.000**		
가구소득2				0.000**
가구소득 분위 수			0.023 ***	
총자녀수	2명	0.558***	0.565 ***	0.552***
	3명이상	0.715***	0.721 ***	0.706***
초등자녀유무(있음=1)		-0.027	-0.030	-0.026
모연령	30대	-0.082	-0.073	-0.081
	40대	-0.167	-0.160	-0.167
모학력	전문대졸	0.239	0.242	0.240
	4년제대졸이상	0.208	0.223	0.206
부연령	30대	-0.094	-0.140	-0.088
	40대	-0.096	-0.143	-0.090
부학력	전문대졸	-0.351**	-0.347 **	-0.350**
	4년제대졸이상	-0.169	-0.164	-0.166
지역규모	중소도시	-0.030	-0.037	-0.032
	읍면지역	-0.035	-0.033	-0.039
입주형태(자가=1)		0.019	0.015	-0.018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0.121	0.130	0.122
	중층	-0.051	-0.056	-0.050
시차효과		-0.069***	-0.068 ***	-0.067***
상수		4.310***	4.440 ***	4.442***
rho		0.629	0.622	0.630
N		3,344	3,344	3,344

주: 1) 각 변수별 BASE 값은 총자녀 수는 1명, 부모 연령 20대, 부모 학력 고졸이하, 지역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임.
2) 가구소득1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가구소득2는 기준1+공적이전소득임. 총양육비용은 로그 변환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5$, *** $p < .01$.

한편, 양육비용 부담에 보다 방점을 두어 종속변수를 총 양육비용이 아닌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로 바꾸어 분석해 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자녀가 2명인 경우, 모 학력과 부 연령 및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경우 시차효과는 오히려 다소 희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소득1을 사용한 모형1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유의미하게 높

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 자녀수는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총 양육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편, 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데 반해, 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부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이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인식에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다. 즉, 현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나타내는 시차효과는 가구소득 1을 활용한 모형1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구소득1이 아닌 가구 소득 분위, 가구소득2(가구소득1 + 공적이전소득),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2~모형4의 경우에는 시차효과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일부 감소, 즉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2-16〉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맞벌이가구여부(맞벌이=1)		-4.202 *	-1.223	-4.301 *
가구소득1		-0.042 ***		
가구소득2				-0.041 ***
가구소득 분위 수			-3.907 ***	
총자녀수	2명	12.203 ***	11.586 **	13.628 ***
	3명이상	12.561	12.137	14.795 *
초등자녀유무(있음=1)		-2.418	-1.930	-2.559
모연령	30대	-0.319	-1.955	-0.432
	40대	-7.687	-8.486	-7.838
모학력	전문대졸	-1.439	-2.185	-1.632
	4년제대졸이상	33.207 *	31.393 *	33.665 *
부연령	30대	-26.586 **	-21.021 **	-27.769 ***
	40대	-28.477 ***	-23.059 **	-29.833 ***
부학력	전문대졸	-18.861 *	-20.487 **	-18.998 *
	4년제대졸이상	-10.755	-13.340	-11.221
지역규모	중소도시	4.787	6.418	5.206
	읍면지역	11.377	11.815	12.227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주형태(자가=1)		-1.953	-1.569	-1.818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9.786 *	7.616	9.577 *
	중층	-1.713	-1.183	-1.840
시차효과		-1.331	-19.821 *	-1.716 *
상수		63.619 **	63.979 ***	65.019 ***
rho		0.614	0.613	0.614
N		3,336	3,336	3,336

주: 1) 각 변수별 BASE 값은 총자녀 수는 1명, 부모 연령 20대, 부모 학력 고졸이하, 지역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임.
2) 가구소득1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가구소득2는 기준1+공적이전소득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1$, ** $p < .05$, *** $p < .01$.

한편, 소득 분위에 따라 총 양육비용 지출 행태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소득 분위별로 총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하위10%(1분위)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과 부연령, 읍면지역 거주, 입주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등이 총 양육비용 결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 소득 가구들 안에서도 총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 부에 비해 30대 부는 총 양육비용 지출을 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읍면지역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총 양육비용 지출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1분위 소득 집단의 경우 시차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저소득 가구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딱히 총 양육비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30%(1분위~3분위)의 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시차효과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경우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총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총 양육비용에는 가구소득과 부의 연령이 40대인 경우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40%(4분위~7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 총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차효과는 유의미

한 음수로 코로나19 전후 총 양육비용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위 30%(8분위~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총 양육비용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는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30% 집단 안에서 총 양육비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특별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위30% 집단과 상위10%(10분위)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차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Ⅵ-2-17〉 소득분위별 (로그)총 양육비용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구분		하위10% (1분위)	하위30% (1~3분위)	중위40% (4~7분위)	상위30% (8~10분위)	상위10% (10분위)
맞벌이가구여부		-0.116	0.103	-0.019	0.204	0.422
가구소득1		0.002*	0.002***	0.001**	0.000	0.001
총 자녀수	2명	0.168	0.311	0.667***	0.561***	0.456
	3명이상		0.369	0.655**	1.260***	1.260
초등자녀유무(있음=1)		-0.194	-0.101	-0.025	0.046	-0.551
모연령	30대	0.340	-0.127	-0.119	0.327	0.415
	40대		-0.051	-0.251	0.168	
모학력	전문대졸				0.568*	0.968
	4년제대졸이상			-0.198		
부연령	30대	-0.593*	0.589	-0.118		-0.378
	40대		0.803*		-0.071	
부학력	전문대졸	0.288	0.371		-0.204	
	4년제대졸이상		0.074	-0.018	-0.456	-0.967
지역 규모	중소도시		0.396	0.253	0.128	0.329
	읍면지역	-1.249**	0.100	0.321	0.047	
입주형태(자가=1)		0.880***	-0.020	-0.033	-0.107	-0.061
사회 경제적 지위	상층	0.074	0.036	0.016	-0.228	-0.514
	중층	-0.500**	-0.051	-0.090	-0.110	-0.107
시차효과		-0.030	-0.158***	-0.157***	-0.003	0.031
상수		3.982***	3.245***	4.244***	4.236***	4.339***
rho		0.836	0.660	0.743	0.723	0.798
N		335	1,005	1,340	999	329

주: 1) 각 변수별 BASE 값은 외벌이 가구, 총자녀 수는 1명, 부모 연령 20대, 부모 학력 고졸이하, 지역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임. 가구소득1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임.
2) 계수 값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공선성 문제로 omitted된 경우임. 즉, 집단 내 해당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다른 특성과 완전히 일치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음.
3) 총 양육비용은 로그 변환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1$, ** $p < .05$, *** $p < .01$.

종속변수가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인 경우, 하위10%(1분위) 집단의 경

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하위소득 구간 내에서도 가구소득이 더 낮은 집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편, 읍면지역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이 비율(양육부담)이 유의미하게 낮은데 반해, 자가 주택 보유자는 이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양육비용 지출에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시차효과는 유의미한 양수로, 하위10% 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즉 양육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위40%(4분위~7분위) 가구와 상위 30%(8분위~10분위)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유의미한 음수로 코로나19이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40%(4분위~7분위) 가구와 상위 30%(8분위~10분위)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구소득, 총 자녀 수 정도[112]로, 가구 특성에 따른 비율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표 Ⅵ-2-18〉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결정 요인 : 이원 고정 효과 모형

구분		하위10% (1분위)	하위30% (1~3분위)	중위40% (4~7분위)	상위30% (8~10분위)	상위10% (10분위)
맞벌이가구여부		-13.576	4.837	-0.073	2.048	7.981
가구소득1		-0.239***	-0.135***	-0.031*	-0.013***	-0.009
총 자녀수	2명	1.095	10.141*	14.702***	11.474**	-0.393
	3명이상		7.625	14.810	27.856***	14.795
초등자녀유무(있음=1)		-5.492	-2.949	0.736	0.024	-24.655***
모연령	30대	11.264	-4.538	-4.813	4.585	12.677
	40대		-3.636	-7.844	2.431	
모학력	전문대졸				13.569	25.856*
	4년제대졸이상			-6.000		
부연령	30대	-10.030	18.925	-2.032		-9.676*
	40대		24.989*		-1.040	
부학력	전문대졸	-4.804	13.437		-8.804	
	4년제대졸이상		13.066	-1.465	-7.420	-12.523
지역 규모	중소도시		-0.653	10.561	3.066	0.766
	읍면지역	-30.702*	1.593	11.482*	3.173	
입주형태(자가=1)		18.387**	-2.339	-1.022	-3.517	3.890
사회 경제적 지위	상층	19.473	2.700	-0.936	-8.784	-12.496
	중층	-5.942	-1.063	-2.164	-1.145	-3.268

112) 중위40%가구는 읍면지역 거주 변수도 유의미한 양수를 보이기는 함.

구분	하위10% (1분위)	하위30% (1~3분위)	중위40% (4~7분위)	상위30% (8~10분위)	상위10% (10분위)
시차효과	8.436**	-0.069	-4.453***	-1.842*	-0.589
상수	82.689***	43.697***	46.166***	26.135*	34.289*
rho	0.966	0.911	0.730	0.666	0.848
N	327	997	1,340	999	329

주: 1) 각 변수별 BASE 값은 외벌이 가구, 총자녀 수는 1명, 부모 연령 20대, 부모 학력 고졸이하, 지역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임. 가구소득1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임.
2) 계수 값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는 공선성 문제로 omitted된 경우임. 즉, 집단 내 해당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다른 특성과 완전히 일치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1$, ** $p < .05$, *** $p < .01$.

이상의 결과에서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좀 더 쉽게 비교해보기 위해 시차효과만을 뽑아서 비교해 보았다. 표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 하위10%(1분위)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총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은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구소득 중위40%(4분위~7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이후 총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상위30%(8분위~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전후 총 양육비용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데 반해,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은 10% 유의수준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양육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단, 가구소득 상위10%(10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총 양육비용 뿐 아니라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Ⅵ-2-19〉 소득분위별 시차 효과 비교

종속변수	하위10% (1분위)	하위30% (1~3분위)	중위40% (4~7분위)	상위30% (8~10분위)	상위10% (10분위)
총 양육비용	-0.030	-0.158***	-0.157***	-0.003	0.031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8.436**	-0.069	-4.453***	-1.842*	-0.589

주: 총 양육비용은 로그 변환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1$, ** $p < .05$, *** $p < .01$.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하위 10%(1

분위) 저소득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99).[113] 즉,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맞지만, 이는 교육보육서비스 및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이를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의 경감으로 체감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와는 달리 코로나19 전후로 총 양육비용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애초에 부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 및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가정 내 양육이 증가하면서 식비 지출 등이 증가하고(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99) 소득 감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오히려 양육비용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현상이 분명하게 포착되었다.

3.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양육부담 경감 효과

가. 코로나19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코로나19 공적 지원금은 3차년도 가구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된 항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휴업지원금, 긴급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지원된 공적 지원금은 수혜 대상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코로나19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은 직접적으로 양육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급여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가구소득을 보전하여 가계 소비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차년도(2020년) 조사 당시(5월 중순~8월 중순) 기준 전체 영유아 가구 응답자 중 7.0%(118가구)만이 수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각 가구소득 분위별로 수혜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최상위 분위인 10분위(가구소득이 상

113) 단, 앞서 본 연구인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총 양육비용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제한적인 현상으로, 점차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됨. 다만, 4차년도의 총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 및 여가문화생활비는 2차년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위 10%에 속한 경우)에 3.6%만이 수혜했다고 응답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 받은 금액은 평균 75만2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또한 각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6분위와 4분위에서 평균 수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측치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분위에 고액을 수혜한 경우가 포함[114]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지원금이 가구소득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Ⅵ-3-1〉 가구소득 분위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3차년도)

단위 : % (가구), 만원

구분		수혜 여부		수혜금액
전체		7.0	(118)	75.2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5	(16)	59.1
	2분위	7.1	(12)	61.2
	3분위	10.1	(17)	52.9
	4분위	8.3	(14)	154.2
	5분위	4.8	(8)	47.7
	6분위	6.6	(11)	196.3
	7분위	7.7	(13)	27.4
	8분위	6.0	(10)	29.6
	9분위	6.6	(11)	36.5
	10분위	3.6	(6)	91.0

주: 1) 각 분위별 168가구(10분위만 167가구)이며, 수혜 여부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수혜한 가구 비중을 의미함.
2) 수혜금액은 수혜한 가구에 한해서 산출한 평균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년) 원자료.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수혜 받은 비중이 높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수혜 금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자가 주택자인 경우에 훨씬 높은 특징을 보였다.

114) 휴업지원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됨.

〈표 Ⅵ-3-2〉 가구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3차년도)

단위 : % (가구), 만원

구분		수혜 여부		수혜금액
전체		7.0	(118)	75.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	(38)	99.0
	외벌이	8.5	(80)	64.0
지역 규모	대도시	6.3	(42)	48.6
	중소도시	6.8	(51)	86.2
	읍면지역	9.5	(25)	97.6
입주 형태	자가	5.0	(47)	121.4
	자가아님	9.7	(71)	44.7
사회 경제적지위	상층	10.7	(3)	24.5
	중층	6.2	(81)	75.2
	하층	9.8	(34)	79.8

주: 총 응답자는 1,679명이며, 수혜금액은 수혜한 가구에 한해서 산출한 평균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년) 원자료.

자녀특성별로는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수혜율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수혜금액은 이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의 수혜가 가구 특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Ⅵ-3-3〉 자녀특성 및 부모특성별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3차년도)

단위 : % (가구), 만원

구분		수혜 여부		수혜금액
전체		7.0	(118)	75.2
총 자녀수	1명	9.8	(53)	43.4
	2명	5.0	(44)	117.8
	3명이상	8.5	(21)	66.3
초등이상 자녀 유무	초등이상자녀있음	6.0	(36)	93.8
	초등이상자녀없음	7.6	(82)	67.1
모 연령	20대	11.1	(11)	74.4
	30대	6.7	(82)	84.9
	40대 이상	6.9	(25)	43.8
모 학력	고졸이하	9.3	(32)	34.3
	전문대졸	8.7	(34)	45.1
	4년제대졸이상	5.5	(52)	120.1
부 연령	20대	12.5	(4)	41.3
	30대	6.3	(61)	79.4
	40대 이상	7.7	(51)	75.7
부 학력	고졸이하	6.7	(20)	38.6
	전문대졸	12.1	(38)	48.5
	4년제대졸이상	5.5	(58)	107.8

주: 총 응답자는 1,679명이며, 수혜금액은 수혜한 가구에 한해서 산출한 평균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년) 원자료.

나.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이 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DID 모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전후 즉 2차년도(2019년)과 3차년도(2020년) 2개의 시점 사이의 효과와 패널 특성(개인 및 가구특성[115])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적 지원금 수혜 여부에 따른 효과를 분리해 낸 모형이다. 단, 이때 1차 차분 모형의 특성으로 인해 2개 연도 모두에 응답된 표본만이 분석에 포함됨[116]에 따라 각 년도 1,221가구(총 2,442가구)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가구가 3차년도에 국한해서 7.0%(118가구)만이 수혜한 상황으로, 관측치가 많지 않아 가구소득 분위별 분석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원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 경감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앞서 2절의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자녀 수, 가구소득, 맞벌이 가구 여부, 부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코로나19 전후의 시차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다자녀 가구는 한자녀 가구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총 양육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쳐 총 양육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수 값이 음수이긴 하나,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분적으로 지원된 공적 지원금에 대한 분석 결과일 뿐 아니라, 해당 공적 지원금이 아동 관련 지원금만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가구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뒤섞여 있다는 상황,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아 총 양육비용이 감소한 시기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가 장기화된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115) 미관측 이질성을 의미함.
116) 균형패널 자료를 의미함.

〈표 Ⅵ-3-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총 양육비용(로그)에 미친 영향 : DID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맞벌이가구여부(맞벌이=1)		0.092**	0.067	0.093**
가구소득1		0.000**		
가구소득2				0.000**
가구소득 분위 수			0.023***	
총자녀수	2명	0.558***	0.564***	0.552***
	3명이상	0.715***	0.721***	0.705***
초등자녀유무(있음=1)		-0.027	-0.030	-0.026
모연령	30대	-0.082	-0.073	-0.082
	40대	-0.167	-0.160	-0.166
모학력	전문대졸	0.239	0.242	0.239
	4년제대졸이상	0.207	0.222	0.205
부연령	30대	-0.095	-0.140	-0.089
	40대	-0.096	-0.142	-0.090
부학력	전문대졸	-0.351**	-0.347**	-0.350**
	4년제대졸이상	-0.170	-0.166	-0.167
지역규모	중소도시	-0.030	-0.037	-0.032
	읍면지역	-0.036	-0.034	-0.039
입주형태(자가=1)		0.018	0.015	0.018
사회경제적지위	상층	0.121	0.130	0.122
	중층	-0.051	-0.056	-0.051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혜		**-0.018**	**-0.016**	**-0.017**
상수		-0.068***	-0.068***	-0.066***
N		1,221	1,221	1,221

주: 1) 각 변수별 BASE 값은 총자녀 수는 1명, 부모 연령 20대, 부모 학력 고졸이하, 지역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임.
2) 가구소득1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이며, 가구소득2는 기준1+공적이전소득임. 총양육비용은 로그 변환한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 $p < .05$, *** $p < .01$.

Part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01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02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03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Ⅶ장은 앞서 전체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정책 제언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그림 Ⅶ-1-1]과 같으며, 관련된 논의는 각 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차년도 연구의 정책 제언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심층면담 주제이면서 취약계층의 양육비용 부담과 큰 연관성을 갖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제언과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통해 도출한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 준비,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 중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Ⅶ-1-1] 정책 기본 방향 및 개요

정책 방향	정책 목표	추진 과제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비용(자녀에 대한 투입 비용)의 격차 축소	○ 아동수당 플러스 도입검토 ○ 의료 지원 강화 ○ 스포츠바우처 및 문화바우처 활용도 제고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 자립 지원 및 보육지원 강화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육아 지원 정책 ▢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공공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체계	○ 공공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가정내 돌봄 지원 강화 ○ 에듀테크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 온라인 부모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육아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 인력 배치 ○ 일-생활 균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단시간 돌봄 공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

1.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021년(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가 보다 명확하게 관측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3차년도)에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점차 일상을 회복하며 양육비용이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포착되었다. 이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에서의 변화 양상은 주로 교육/보육비의 증감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양육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재인 식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전반적으로 지출액 규모가 커진 양태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지점은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이 가해질 때 약간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시점 변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변동 폭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총 양육비용은 2차년도(2019년)에는 월평균 87만1천원이었으며, 코로나19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82만2천원으로 4만9천원이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평균 6만4천이 증가하여 88만6천원이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차년도(2019년) 161만3천원이던 양육비용이 3차년도(2020년)에는 전년 대비 15만1천원이 감소한 146만2천원이었다가, 4차년도(2021년)에는 다시 20만8천원이 증가하여 167만원에 달했다. 즉,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총 양육비용의 수준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변동폭(혹은 탄력성)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동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변화 양상이 다름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 양육비용 감소에 대한 코로나19의 시차효과는 주로 중위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1분위(하위10%)와 10분위(상위10%) 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시차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최하위 저소득 가구와 최상위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전년도의 양육비용 지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속변수가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구간(4~7분위, 중위 40%) 가구들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발견된데 반해, 1분위(하위10%) 저소득 가구들은 유의미한 양의 시차효과가 발견되어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코로나19를 전후하여 훨씬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 가구들이 필수재 위주의 소비를 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생활비 및 양육비용을 줄이고자 하여도 딱히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이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무엇보다 2021년(4차년도)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식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모든 가구소득 구간에서 오히려 높아진 상황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 및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식비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편차가 교육/보육비나 여가/문화생활비에 비해 크지 않은 일종의 고정 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목으로, 식비 지출이 높아진 상황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저소득 가구들은 종적으로는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의 격차 확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며, 횡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비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이후로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 볼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육아 가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적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생활 전반에 기초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들도 주거급여 및 생활급여를 비롯한 각종 저소득 가구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하고 있었다.

앞서 연구배경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복지 정책에 관한 통합 플랫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 64개, 지자체 656개, 민간 146개의 사업에 달하며,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영유아 대상의 지원 정책을 검색하면 중앙부처 사업이 25건, 지자체 207건, 민간 32건의 사업이 검색되었다(복지로 홈페이지[117]). 그런데, 저소득과 영유아를 조합하여 검색할 경우 지원 사업

117)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

은 중앙부처 6건, 지자체 28건, 민간 16건으로 크게 줄어든다(복지로 홈페이지[118]).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으로 검색되는 6개의 중앙부처 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이다. 이들 사업 중 드림스타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심층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제도를 알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이 외에도 보편 지원에 속하지만 저소득 가구에게 일종의 추가혜택을 지원하는 경우(예: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며, 반대로 저소득 가구 지원이지만 아동에게 좀 더 초점이 있는 지원(예 : 아동발달지원계좌_디딤씨앗통장) 등도 있다(복지로 홈페이지[119]).

한편,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은 중앙부처 사업이 24건, 지자체 사업이 329건 검색되었으며, 중앙부처 사업 24건 중 지원 대상이 노인으로 특정되어 있어 아동에 대한 영향이 극히 적은 사업은 2건에 불과했다(복지로 홈페이지[120]). 즉, 대부분의 한부모 가구 지원은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속한다 하겠다. 하지만, 한부모 가구과 영유아를 조합한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 중 3건으로, 한부모 가구 지원은 주로 학령기 자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저소득 가구들이 기초적인 생계 보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저소득 가구들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방대하며, 매우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은 저소득 가구 지원이 때로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육아 과정에 격차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저소득 육아 가구들이 자녀가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를 느끼지 않기를 희

T52005M.do (인출일: 2021. 10 . 26.).

118)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 26.).

119)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 26.).

120)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 26.).

망하는 강한 바람이 투영된 결과라 사료된다.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중과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한 우선 소비 심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들은 4차년도(2021년 기준) 가구소득의 44.5%를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들은 21.5%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저소득 가구들이 다른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양육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여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 편차를 줄이고자 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심리는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 부모들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자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Ⅶ-1-2]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취약 가구 지원

주요 연구 결과	-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 양육비용은 예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이 가해질 때,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의 편차가 훨씬 커지는 특징을 보임. ▸ 총 양육비용 지출액 뿐 아니라, 변동폭(탄력성)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이는 총 양육비용의 변동이 주로 교육/보육비 변동에 기인하며, 필수재에 대한 소비는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시차효과가 발견됨. 즉, 코로나19 전후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음. ▸ 단, 저소득 가구 일반에 대해 생계보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원으로, 육아 가구들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저소득 가구라 할지라도 자녀 양육과정에서 투입의 격차를 매우 꺼려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는 자녀에 대한 낙인효과를 두려워하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 생애 초기 아동 1인당 투입 비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육아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모색 필요.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 상황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구됨.

이때 부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모든 소득 구간에서 교육/보육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25% 전후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보육비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지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비목이라는 점에서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완비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편 지원의 성격이 점차 강하게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일한 보장을 형평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겠다. 대표적인 영유아 지원으로 아동수당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가구소득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이후 모든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확장 변경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121]).

이와 같이 복지 지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어디까지(얼마나 많이)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하겠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자칫 지원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대상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자립 의지를 감소시킬 위험이 높으며, 성실한 납세자의 심리적 납세 부담을 가중시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 혜택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희망하는 지원이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선 지원으로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 영유아 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으로서 무상 보육/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를 위해 추가적인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1. 10. 18.).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가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얼마나 높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등의 논란이라 하겠다.

[그림 Ⅶ-1-3]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취약 가구 지원

〈정책 방향〉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책 목표〉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비용(자녀에 대한 투입 비용)의 격차를 축소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아동수당 플러스 도입 검토	- 명칭 통합 및 지원 방식 일원화 - 한부모 가족 추가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조정 - 저소득 가구 아동수당 및 저소득 다자녀 가구 아동 수당 등의 추가 신설
의료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확대 ▸ 무료 예방접종 범위 확대 ▸ 의료바우처 등을 통한 접종비 지원 - 과다한 의료비 지출 방지 ▸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마련 ▸ 과잉 진료 기관은 차후 정책 사업 참여 제한 - 의료 보험 지원 확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린이 질환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좀 더 확대 ▸ 어린이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하여 납입해주어 보장성을 강화
스포츠 바우처 및 문화 바우처 활용도 제고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대상 연령 하향 조정 ▸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월 상한 이용액 조정 - 접근성 개선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의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업종 제한 등을 적용하되 특정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의 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의 자립 지원 및 보육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지원의 저소득 가구 기준을 상향 조정 - 한부모 가족 구직촉진수당 도입이나 고용촉진장려금 강화 -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비용(본인 부담금)의 추가적 지원 - 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권을 배정

본 연구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넘어선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기회 균등,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자녀에 대한 투입 비용)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제언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가구 아동의 기초적인 생계 보장을 넘어서 아이들이 상대적 소외를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의 제공에 좀 더 방점을 두었다.

취약 가구에 대한 정책 제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Ⅶ-1-3]과 같다.

1)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도입 검토

영유아 가구들은 서비스 지원보다는 비용 지원 형태의 정책에 보다 높은 선호를 보이는데,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124~125)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보육료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122], 아동수당[123], 양육수당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 또한 아동수당과 보육료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124]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영유아 가구 전체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소득 가구들 또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면서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 범위가 넓은 급여 성격의 지원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급여성 지원의 경우 지원 금액이 원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되었는지 모니터링 하기 어려워 정책의 효과성 측정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대로 영유아 가구의 필요는 각각의 저소득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 범위가 넓은 아동수당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여성 지원의 적합성 혹은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본 연구의 저소득 영유아 가구 기본 방향인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의 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볼 때, 현행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의 지원은 소득 수준 및 가구 취약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된다.

---

122) 1+2순위 기준 2차년도(2019년) 66.2%, 3차년도(2020년) 67.0%임.
123) 1+2순위 기준 2차년도(2019년) 51.2%, 3차년도(2020년) 60.0%임.
124) 1+2순위 기준 아동수당은 2차년도(2019년) 49.5%, 3차년도(2020년) 56.7%이며,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은 2차년도(2019년) 51.6%, 3차년도(2020년) 43.1%임.

현행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되는 급여성 지원은 양육수당[125]을 제외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이들 지원은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약간씩 상이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는 정책을 인지하기 어렵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정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이 고유의 목적을 살려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일원화된 지원 체계 하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기존의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갖는 아동수당 지원에 더하여 가구 취약여부에 따라 마치 블록을 쌓아올리는 것과 같은 형태의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지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봄 직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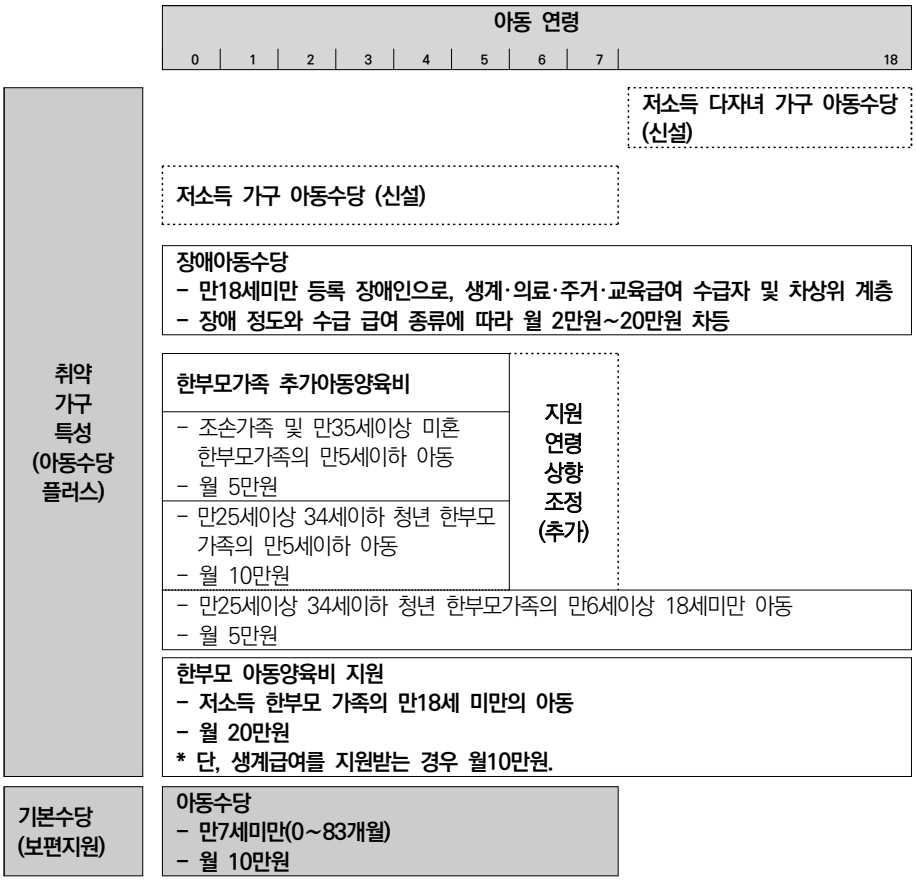
이같은 형태의 지원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원은 아니며, 현행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8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월 5만원 혹은 월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126]).

즉, 아동수당 플러스(가칭)는 기존의 취약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여성 지원을 **명칭을 통합하고 지원 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수혜자 입장에서 하나의 지원 체계 아래서 취약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급여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에 있어서의 중복성으로 인한 혼란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5)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지원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비용지원으로 볼 것인가, 서비스 지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이 맞긴 하지만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대체하는 성격의 지원으로 아동수당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임.

1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 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이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조손가족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1인당 월 5만원,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임.

[그림 Ⅶ-1-4]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지원 (예시)



주: 1) 실선으로 구분된 지점은 현행비용 지원 연령이며, 점선은 신설 및 추가 지원의 제안 내용임. 구분점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인 만7세를 기준으로 함.
2)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중 저소득 가구 지원을 제외한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포함)은 현행 중앙정부 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함.
3)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학용품비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으나, 이는 편의상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아동수당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 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3)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장애아동수당, https://www.bokjiro.go.kr/ssis-teu/ 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2.).

또한 기존에 이미 실시되고 있던 한부모 가족 아동 지원 중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과 같이 **지원 연령을 상향하여 만7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봄 직하다.

한편, **저소득 가구 아동수당이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 아동 수당 등의 신설**을 통한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축소를 유인하여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의 신설을 제안하는 이유는 가구소득과 총 자녀 수가 영유아 가구들 간의 양육비용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플러스 제도의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 지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은 누구로 할 것인지, 지원금의 수준과 제도 간 중복성 배제 및 형평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제도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후속 연구를 요한다. 다만, 본 연구는 취약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특성을 고려할 때, 양육비용 부담이 좀 더 가중된다고 생각되는 대상과 연령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안하였다.

2) 의료 지원 강화

저소득 영유아 가구 심층면담에서 의료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 매우 높았다. 그런데 앞서 정책 지원 사업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 지원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또한 상당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보편 지원의 형태로 이뤄지는 지원까지 더해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이 매우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건강상 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 지원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매우 심각한 질병 혹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다수라서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반대로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가진 의료 지원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정부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 만12세이하 어린이에 대해 총 17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질병관리청 홈페이

지[127]). 이때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접종 가운데 인플루엔자(IIV)의 경우에도 막상 접종을 하러 가면, 무료 접종 인플루엔자(IIV) 백신은 3가인데, 병원에서는 유료접종을 해야 하는 4가 백신에 대해 안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료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또한, BCG 경피용 백신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이 존재하며, 이러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질병관리청 홈페이지[128])이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진료비 등은 지원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등이 의료비에 대한 심리적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서 접종 비중이 높은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저소득 가구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하거나 혹은 **의료바우처 등을 통해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해 봄 직하다. 한편, 실질적으로 필수예방접종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지원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의료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과잉 진료 기관은 차후 정책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의료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 가구들은 가구 생활비에서의 여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녀의 건강 이상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험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차후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이지만 실제로는 의료 관련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위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린이 질환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저소득 가구에 대해

127)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길잡이, https://nip.kdca.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1 (인출일: 2021. 10. 22.). 구체적인 정책 현황은 〈부표 3-2〉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람.

128)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길잡이, https://nip.kdca.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1 (인출일: 2021. 10. 22.).

서 좀 더 확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봄 직하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저소득 가구들은 적은 납입금으로 동일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하여 납입해주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봄 직 할 것이다. 이때,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를 일종의 저축성 보험으로 하여, 가입 기간 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환급 등으로 납입금을 회수하게 되는 시점에 정부가 납입해 준 금액을 환급하게 함으로써 장기에 걸쳐 정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스포츠 바우처 및 문화 바우처 활용도 제고

가구소득에 따른 총 양육비용의 격차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축소되었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시 확대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격차의 변동은 주로 교육/보육비와 문화여가생활비의 변동에 기인하였다. 저소득 가구들은 고소득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와 문화여가생활비 지출액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변동 폭 자체도 적은 특징을 보였다. 이들 비목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만드는 비목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교육/보육에 대한 우선 투자 심리를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가 가장 부담을 느끼면서도 가장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지원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때, 영유아의 특성상 교육/보육서비스와 여가/문화서비스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129]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들도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저소득 가구의 여가/문화서비스(일부 교육적 목적을 포함)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130])에게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

129)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서비스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문화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130) 2021년 지원 기준 2003.1.1.~2016.12.31.생까지 지원 대상임.

는 사업이며(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2020.12: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6세이상[131] 아동에게 1인당 연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로 홈페이지[132]).

이와 같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지원 사업에 해당했는데, 이용 과정에서의 개선 요구 또한 많은 사업이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들의 이용 희망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지원 사업이므로,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원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취학 1년 전인 만6세 이상 아동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보다 어린 시기에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가구소득에 따른 생애 초기 문화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가맹점)에는 체험활동, 휴양림 등 영유아 자녀의 이용이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 연령이 하향 조정될 경우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만족도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8만원이 지원되며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소득 가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만 하더라도 수강료가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수강료 부담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연간 1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따라 체험활동 기회가 1~2회에 그쳐 많이 미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반적인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예산상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면, 아동당 연간 지원금 수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월 상한 이용액을 높여주어**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봄 직하다.

---

131) 2021년 지원 기준 2015. 12. 31 이전 출생자.

13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통합문화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2.).

마지막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의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복지로 홈페이지[133])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21,983개에 달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들은 실제 가맹점을 찾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접근성이 매우 낮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였다. 예컨대,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 가능한 수영장이 집에서 매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수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가까운 거리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찾을 수 없어 도서구매로만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이다.

따라서,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가 실질적인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여가/문화생활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현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우처 사용처를 가맹점에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금과 유사하게 **업종 제한 등을 적용하되 특정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 및 기금예산은 해마다 지원이 증가하며(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134]), 저소득 가구의 문화 격차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의 자립 지원 및 보육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들은 중복의 취약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한부모이면서 저소득 가구이거나 장애부모이면서 저소득 가구인 경우, 다자녀 가구[135]이면서 저소득 가구인 경우 등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자녀 돌봄 부담 자체가 가중되는 집단들이다. 특히 한부모 저소득 가구의 여성(모)의 경우 자녀 돌봄을 분담

133)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통합문화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에 등재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함(인출일: 2021. 10. 22.).
134)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25&topMenuNo=6 (인출일: 2021. 10. 22.).
135) 다자녀 가구가 취약 가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집단이며 자녀 돌봄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라 볼 수 있음.

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데다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심한 이중고에 노출된 집단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학령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부모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드물었으며, 주로 저소득 가구 지원의 우선 지원 기준 혹은 추가 지원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중 하나인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0~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준에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여부가 포함되는 형태이다.

본 연구의 저소득 영유아 가구 심층면담에 참여한 면담자의 상당수가 한부모 가족의 여성(모)였는데, 자녀 돌봄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여성은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해결해 줄 적당한 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비싼 비용으로 인해 가정 양육을 지속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 가구 자격 기준을 상회하여, 국민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현행 생계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4만8,349원, 2인 가구 92만6,242원, 3인 가구 119만185원, 4인 가구 146만887원, 5인 가구 172만71212원 등이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1b: 51).

이때,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지원은 국민생활보장 급여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지만(보건복지부, 2021b: 103),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지원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되기 때문(복지로 홈페이지[136])에 고용이 불안정한 한부모 가구의 여성에게 국민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저소득 가구 수급을 유지하면서 자녀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 등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이 역

13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저소득 가구로 남아 있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질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린 영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가 아니라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 의지는 강한 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이 한부모 가구의 자립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부모 가구만을 위해 별도의 국민생활보장 급여 소득 산정 기준 등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지원의 저소득 가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한부모 가구 부모의 급격한 수급액 저하에 따른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봄 직하다. 또한, 미취업 한부모 가구의 부모의 취업을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구직촉진수당 도입이나 고용촉진장려금 강화** 등 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만 하다. 현행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청년층을 타켓 집단으로 하는 정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이 통합된 형태의 지원이며(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137]),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138]).

한편, 한부모 가족 여성이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 무상보육/교육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은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보육/교육 기관 하원 이후 상대적으로 돌봄 대체가 어려운 한부모 가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육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된다.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한부모 가구에 대해 5%추가 지급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139]). 즉,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일반 가구와 동일하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137)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꿈을 위한 디딤돌, 구직촉진수당으로 똑똑한 취업준비!,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21906053 (인출일: 2021. 10. 22.).

13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인출일: 2021. 10. 2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는 함.

1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행정규칙,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803 (인출일: 2021. 10. 22.).

한부모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적게 부담해도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녀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비용(본인 부담금)의 추가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은 낮아졌으나, 서비스 공급량이 많지 않거나 원하시는 시간에 적당한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없어 실제 한부모 가구들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 이용자들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권을 배정하는 등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권은 비단 아이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절에서는 주로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크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율이 다시 증가하며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육아서비스를 크게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번째 육아서비스 범주는 영유아 자녀의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이용과 초등자녀의 경우 초등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등 온종일 돌봄과 관련된 육아서비스(이하 온종일 돌봄) 이용 부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은 사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나, 서비스 이용행태가 어린이집, 유치원의 대체서비스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온종일돌봄에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두 번째는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으로 단시간

학원 등을 비롯한 각종 시간제 사교육서비스의 이용 행태 변화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과 관련된 육아서비스 활용 부분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먼저, 코로나19를 전후한 시기의 온종일 돌봄 이용 행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4차년도(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율이 높아진데 반해, 초등 1학년의 경우는 공공 돌봄 서비스 이용율이 예년 수준보다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영유아가 반일제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을 미이용하는 경우는 2차년도(2019년) 19.0%였으나, 3차년도(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여 27.6%까지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 19.5%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로는 4차년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율이 50.4%, 유치원 이용이 28.8%로, 코로나19 이전인 2차년도(2019년)와 비교할 때 어린이집 이용보다 유치원 이용 비중이 약간 높아졌다. 반일제이상 기관 내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 또한 3차년도(2020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 더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특히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은 73.5%로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4차년도(2021년) 기준 어린이집 35.0시간, 유치원 34.5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29.5시간으로 2차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행태로, 3차년도(2020년)에는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으나, 일단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길어진 특징이 있었다.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은 매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유치원 이용비용의 경우 3차년도(2020년)와 4차년도(2021년)에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는 소비자물가가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4차년도(2021년)는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상승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4차년도(2021년)의 유치원의 수업료는 오히려 예년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2차년도(2019년)에 16.6%였으나,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9%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4차년도(2021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23.1%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방과후 학교 이용 비중은 초등돌봄교실에 비해서도 더 큰 변동을 보이는데, 2차년도(2019년) 62.7%이던 이용율은 3차년도(2020년)에는 4.5%로 거의 이용자가 없었으나, 4차년도(2021년)에는 38.5%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공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동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영유아와는 달리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 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때,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 또한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현행보다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는 응답은 2차년도(2019년) 10.8%였으나, 3차년도(2020년) 11.7%, 4차년도(2021년) 18.5%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희망하는 이용시간만큼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4차년도(2021년) 기준 운영시간 제한(51.0%)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16.0%에 달했다.[140] 그런데, 운영시간의 제한 때문에 이용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는 응답은 2차년도(2019년) 비해서는 낮아진 반면,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4차년도에만 응답자가 있는 상황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 과정에서의 부모들의 심리적 압박이 좀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2021)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시간 학원과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은 초등 전환기(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최효미·이정원·김태우, 2021), 4차년도(2021년)에는 동일 연령인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만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 뿐 아니라 코로나19

140) 단, 응답자 수는 2차년도 8명, 3차년도 11명, 4차년도 20명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함.

의 영향이 없었던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3차년도(2020년)에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 비중만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4차년도(2021년)에는 단시간 학원 이용율이 21.3%까지 증가하는 등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2차년도(2019년)에 단시간 학원 이용 비중이 16.0%인 것과 비교할 때, 4차년도 단시간 학원 비중의 증가는 특기할만한 변화라 하겠다. 반면, 문화센터 서비스 이용은 3차년도에 0.9%로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용이 급감하였으나, 4차년도에 5.7%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수치조차 1차년도(2018년) 10.0%, 2차년도(2019) 8.2%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2차년도(2019년)에 비해 3차년도(2020년)에는 이용 비중은 낮았지만 이용시간은 길어졌고 이용비용도 상승한 반면, 4차년도(2021년)에는 3차년도(2020년)에 비해서는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비용도 적긴 하지만, 2차년도(2019년)보다는 이용시간이 길고 이용비용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선호하는 교과목은 단시간 학원은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 과목이고, 방문형 학습지는 한글과 수학 및 과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의 경우에도 방문형 학습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비방문형 학습지의 경우 방문형 학습지와 달리 영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36.3%로 높은 편이었으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과목이 영어 교과(50.4%)로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또한 단시간 학원 이용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초등1학년의 경우에는 비방문형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와 같은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초등1학년의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율은 2차년도에 7.4%였으나, 3차년도(2020년) 10.1%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4차년도에는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조사해서, 비방문형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 비중을 합쳐서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중이 17.9%에 달했다.

초등1학년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단시간 학원 이용 과목은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예체능 위주이나, 초등1학년의 경우 영유아와 달리 수학 및 과학 학원 이용 비중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형 학습지는 수학 및 과학, 한글에 집중되어 있고, 비방문학습지 및 교구활동은 영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용온라인 콘텐츠는 영어 비중이 51.9%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요약하자면, 4차년도(2021년) 영유아 및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은 특히 단시간 학원 이용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예체능 과목은 학원을 통해서, 영어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영유아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영유아가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온라인을 받은 경험 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2.6%, 유치원 5.8%, 반일제이상 학원이 6.9%에 불과하여, 반일제 이상 기관을 통한 온라인 수업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차년도에 설문이 추가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 비중은 3.2%로,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 이용 비중 3.4%와 합치면, 6.6%로 전년에 비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유아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은 서비스로는 문화센터를 꼽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8.5%에 달하였다. 또, 키즈카페의 경우에도 1차년도(2018년)에는 이용 비중이 47.2%, 2차년도(2019년) 57.7%였으나, 3차년도(2020년)에는 14.7%로 크게 감소하였고, 4차년도(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4.9%에 그쳐, 여전히 키즈카페 이용 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제한적임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초등1학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문화센터가 아닌 단시간 학원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32.1%가 단시간 학원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제한을 받은 단시간 학원 과목은 체육(56.3%), 음악(28.2%), 미술(21.4%) 등이 많았으며, 이를 다른 서비스로 대체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은 2.7%(3명)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4차년도(2021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3차년도(2020년)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인해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에 큰 제한이 발생하여 영유아 가구들의 교육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자녀의 교육서비스 이용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아동의 부모가 일종의 보복소비로 사교육 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예체능 위주의 교과는 단시간 학원을 통해 보복 소비가 이뤄진데 반해, 학습 관련 교과목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면형 서비스에 대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 위주로 소비가 증가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가정내 돌봄의 양상 또한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내 돌봄 상황과 부모지원 서비스 활용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닌 타인이 자녀를 돌보는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다른 육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때,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인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3차년도(2020년) 이후 조부모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조부모인 비중은 2차년도(2019년)에 68.9%였으나, 3차년도(2020년)에는 77.3%, 4차년도에는 75.9%로, 가정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주로 혈연관계의 조부모에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하겠다. 한편,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비중인데, 이는 2차년도(2019년) 17.1%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6.7%로 급감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에 16.0%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본 시간은 평일 평균 7.7시간(7시간 42분), 주말 평균 12.9시간(12시간 54분)으로, 평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7.4시간)와 외벌이 가구(8.5시간) 사이에 약간의 차이만이 발견되었다. 이때,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가 가정 내 양육 시간 중 전자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평일 평균 1.4시간(1시간24분), 주말 평균 2.1시간(2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가정내 양육 부담을 질의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적당한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이에 따르는 양육부담을 아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 내 돌봄과 관련된 사항은 3차년도 조사까지는 실시하지 않다가 4차년도에 추가된 설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돌봄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차년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내 돌봄으로 인한 양육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를 둔 육아 가구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은 5.6%,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은 15.5%로 나타났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가구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도서 대여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높고 총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이용 경험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최근 3개월 이내에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로 대여서비스 이용에 비해 높았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으로, 장난감 대여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 대여서비스는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육아물품 지원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을 통해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된 월평균 이용비용은 장난감 평균 8천원, 도서 평균 2천원, 육아물품 지원서비스는 1만1천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 4.1점, 도서 대여 서비스 4.3점, 육아물품 지원서비스는 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대여서비스 및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이 50.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 35.4%, '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33.6%,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제공' 26.7%, '물품의 소독 및 위생관리 철저' 26.6% 순으로 응답되어,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Ⅶ-2-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위드코로나 대응

주요 연구 결과	- 육아서비스 이용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시간제 사교육서비스의 증가가 두드러짐. -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년도(2019년) 수준으로 복귀되는 양상을 보임. - 초등1학년의 공공 기관 돌봄 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동이 발견됨.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도 3차년도에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23.1%에 달함. 이러한 수치는 2차년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보다도 높은 비중임. ▸ 그러나, 방과후 학교의 경우 3차년도(2020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4차년도(2021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2차년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영유아와 초등1학년 모두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함. ▸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중 특히 단시간 학원 이용과 비대면 서비스(비방문형 학습지,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등) 이용이 크게 증가함. ▸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긴 했으나, 초등1학년에서의 급격한 증가가 포착됨. - 장난감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5.6%, 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은 15.5%, 육아물품 제공 서비스 이용 경험은 9.4%였으며, 주로 공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대여서비스 및 육아물품 지원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큼. - 부모교육 7.4%, 부모상담 10.8%, 육아멘토 0.7%였로, 참여율이 높지 않음. ▸ 주로 양육방법, 영유아 성장 발달 등과 관련된 내용의 부모지원 서비스를 이용. ▸ 제도 개선 요구는 주로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맞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
시사점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일수록 육아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 - 비대면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공공 분야의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시급히 요구됨. -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심리 지원을 위한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요구됨. ▸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영유아 및 초등1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중은 부모교육 7.4%, 부모상담 10.8%, 육아멘토 0.7%였로, 참여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제공받은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같은 반일제이상 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 교육을 받은 분야는 양육방법(69.9%),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37.8%), 보호자의 역할(30.8%) 순이었으며, 부모 상담의 경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80.3%), 양육방법(59.1%), 보호자의 역할(26.9%) 순으로, 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비대면으로 이뤄진 비중이 매우 높았다.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프로그램 확대(30.2%),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30.0%), 일대일 (맞춤)서비스의 확대(29.9%)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여,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맞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27.6%),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26.8%)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요구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나.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2020년)과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4차년도(2021년) 사이에도 눈에 띠는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할 때,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집중적인 방역체계의 구축과 예방 조치로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팬데믹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을 통해 장기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는 분위기이다. 또,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수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문제[141] 등을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생활양식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Ⅶ-2-2]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위드 코로나 대응

〈정책 방향〉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정책 목표〉
▢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육아 지원 정책
▢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공공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체계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공공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 교사 대 아동 비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 ▸ 아동 1인당 수업 공간의 충분히 확보 ▸ 쾌적한 교실환경 - 공공 육아 인프라 ▸ 공공도서관, 체험시설(박물관 등), 공공 놀이 공간의 정상적 운영 ▸ 온라인 사전 예약 제도 운영 검토 - 온종일 돌봄 및 육아 인프라 확충 ▸ 기존의 공급 계획에 근거한 꾸준한 공급 확대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확대 ▸ 물품 꾸러미 지원의 확대 ▸ 활동 방법에 대한 지도서 제공 ▸ 물품 다양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및 물품 품질의 질적 개선 - 육아 물품 대여 관련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배송 서비스 지원 ▸ 공공 부분의 육아 지원 인프라 확대 ▸ 이동식 도서관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물품 다양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및 물품 품질의 질적 개선
에듀테크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 공공형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어린이 에듀테크 체험관 설치 ▸ 기존 과학관 및 체험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설치 확장
온라인 부모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온라인 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 양육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 ▸ 보다 전문적인 부모 교육 실시 ▸ 부모 상담을 결합한 형태의 맞춤형 부모 교육 서비스의 제공 - 부모 교육 참여에 따르는 인센티브 강화 - 부모 양육 상담 지원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141) 육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바깥 활동의 어려움, 수질 오염에 따르는 활동 제약 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육아 정책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생긴 변화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향후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잘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의 정책 제언은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육아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육아 지원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충격과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절에서 제안된 정책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 내용의 개요는 [그림 Ⅶ-2-2]와 같다.

1) 공공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 가구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에 큰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초등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원활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긴급돌봄 체계 운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점차 초기의 혼란과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안정화되고 있으나,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등 아동 대상 온종일 돌봄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이용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돌봄의 목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한 인재 육성,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등의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초등 대상의 육아 지원 정책이다(각 시도교육청, 2020: 3).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초기라 볼 수 있는 2020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는 49,994개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16만9,302개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수 또한 현저히 감소하여, 33만2,909명에 그쳤다[142].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2021년도에는 이보다는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이 늘었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나, 여전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시간 학원 등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142) 방과후 학교 통계는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본 연구 수행 기간 중 2021년 자료는 비공개 상태임.

의 급격한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의 긴급 돌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표 Ⅶ-2-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2019-2020)

단위 : 개,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 수	참여 학생수	운영 교실 수	참여 학생 수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수
2019	11,869	256,825	2,517	36,902	169,302	1,592,266
2020	11,591	220,001	2,027	29,975	49,994	332,909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037480/fileData.do에서 교육부_정보공시 초중등학교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현황_20201231와 초중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_20190920 (인출일: 2021. 10. 23.) 원자료를 내려 받아 연구진이 재분석함.

문제는 초등 방과후 학교를 비롯한 공공 육아지원 기관들의 운영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육아 가구들이 부족한 서비스 수요를 사설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나, 사교육 기관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공 기관 또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공공 돌봄서비스가 최소한의 긴급 돌봄에 국한하여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은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가 높고, 밀집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같은 지적은 비단 코로나19가 아닌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차제에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초등 공공 돌봄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 대 아동 비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아동 1인당 수업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제한은 있더라도, **공공 도서관, 체험시설(박물관 등), 공공 놀이 공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기관 이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 등의 운영**을 검토해 봄 직 할 것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체계뿐 아니라 육아 인프라의 확충은 기존에 공급 확대가 계획되어 있었던 정책 사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143])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확충 속도가 늦춰지긴 했으나, 정책 필요성 자체가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기존의 계획대로 꾸준하고 충실하게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육아 인프라의 확장이 시급히 요구**된다.

2)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가)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가정 내 학습 및 놀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이하 물품 꾸러미) 지원이 확대되었다.[144]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가구가 물품 꾸러미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53.8%), 육아종합지원센터(22.0%)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영유아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 육아지원 서비스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꾸러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9.4%에 그쳐,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아동 비중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물품 꾸러미 지원은 본 연구의 비대면 서비스 관련 심층면담 및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지원 사업으로, 특히 영아 자녀가 있

1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온종일 돌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2021. 10. 25). 온종일 돌봄 체계의 공급 목표는 2017년 33만명 → 2022년 53만명으로, 초등돌봄교실 7만명, 교실이용(지자체협업) 3만명, 마을돌봄 10만명 확대가 계획되어 있었음.

144)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지원 내용은 〈부표 3-7〉을 참조하기 바람.

는 경우 더욱 선호되는 서비스였다.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의 가정 내 양육과정에서 온라인 활동보다 오프라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연령이 적은 아이일수록 신체 활동을 동반한 놀이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가 종속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체험 활동 등 바깥놀이 활동이 더욱 많아지긴 하겠지만, 가정 내에서의 신체 혹은 놀이 활동을 접목한 물품꾸러미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품꾸러미의 경우 부모가 적극적인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활동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바, **물품꾸러미 지원의 확대**와 함께 **활동 방법에 대한 지도서 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물품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물품 품질의 질적 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꼽혔다.

나) 육아 물품 대여 관련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배송 서비스 지원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총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하였으나, 도서구매 및 완구 구매 비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활동 제약이 발생하면서 가정내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장난감 및 도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에서도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이용 경험을 질문하였는데, 완구는 8.6%, 도서는 4.9%가 대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98). 올해 조사인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완구 대여 5.6%, 도서 대여 15.5%로, 장난감을 대여했다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도서 대여 이용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1차년도(2018년) 조사 당시 육아용품 대여 시 불만족 사유로 '돌려줘야한다는 부담감에 편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던데 반해(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99), 4차년도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50.2%)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기관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공공 도서관으로 공공 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이와 같은 공공 기관의 대면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유아 가구들은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 기관 접근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경험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장난감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확충과 공급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난감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 부문의 육아 지원 인프라의 확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리적 접근성 문제에 더하여, 도서와 완구의 경우 부피와 무게가 커서 어린이를 동반한 영유아 부모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찾아가는 육아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식 도서관의 운영 및 배송 서비스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와 함께 늘상 지적되는 문제인 **물품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및 양질의 물품 제공** 등의 개선 요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육아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대여 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에듀테크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앞서 4차년도(2021년) 육아서비스 이용에 있어 특기할만한 변화로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증가를 언급한 바 있다.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는 특히 초등1학년 자녀들의 이용 증가가 눈에 띄는 상황이며, 주로 영어, 수학과 같은 학습 관련 교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비대면 서비스 및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에 참여한 면담자들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 대해 약간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초등 진학 전후 시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며, 활용 의지가 높았다. 이는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디어 및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반면, 유아 및 초등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상품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교육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할 분야로 꼽히며 주목받았으며(DACO intelligence, 2021: 73),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560억달러에서 2025년 3,420억달러까지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혜연, 2020: 2)될 정도로 유망한 분야라 하겠다. 한국의 경우에도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하나, 한국의 에듀테크 시장 성장률은 2015~2018년 기간 중 3.3%로, 세계시장 연평균 성장률 4.6%에 비해서는 매우 더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이혜연, 2020: 9).한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공공 교육 분야에서 이뤄지는 선진 국가들과 달리(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1 발간예정), 한국의 경우 주로 사교육 서비스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여, 영유아들에게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은 보다 입체적인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쉬우며, 아동의 적극적 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이 대면형 교육서비스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적어 아동들 간의 교육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의 확장을 지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1 발간예정).

또, 앞서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형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서비스 이용의 격차로 인해 양육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동들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비대면형 에듀테크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교육 과정과 연계된 **공공형 어플리케이션 및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 각 지역의 유아교육진흥원 등 많은 공공 기관에서 물품꾸러미 지원 사업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놀이 활동 콘텐츠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i-누리 포털사이트[145]). 그러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에듀테크 체험관 등의 설치**를 통해, 체험학습(놀이)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 및 교육, 문화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어린이 에듀테크 체험관은 반드시 신축 건물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과학관 및 체험시설, 어린이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의 한 분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 부모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활용도 제고

2018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육 경험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37.2%에 해당됐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620). 본 연구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4차년도 연구에서 새롭게 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의 활용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모 교육 이용율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보육실태조사와는 큰 간극을 보였다. 단, 보육실태조사는 교육받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한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반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부모 교육을 질문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어려워지면, 전업 주부들의 정신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은기수, 2020: 44-46; 정익중, 2020a: 48),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 감소(정익중, 2020b: 27)와 청소년의 우울감 증가(Jentsch, B. & Schnock, B., 2020: 3[146]), 아동 학대 노출 위험 증가(정익중, 2020a: 48)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145) i-누리 포털사이트, 도움누리, 코로나19 대응 가정연계놀이,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2021. 10. 25.). 자세한 내용은 〈부표 3-7〉을 참조하기 바람.

146)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육아 가구들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으로 인한 부담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부담된다(다소부담_ 매우 부담)는 응답이 44.8%로 절반가량의 육아 가구가 가정 내 양육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양육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긴 했으나, '양육과정에서(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37.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33.7%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 육아 가구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자녀의 돌봄을 누군가 대체하여 돌봐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장 최우선적 선결 과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녀 양육 방법 및 양육 스트레스 조절 등에 관한 부모 교육 및 상담 등 부모 지원 서비스의 제공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부모 교육 등 부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쟁점으로,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대응 조치로 부모 교육 의무화 등의 논의가 추진된 바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부모의 양육 과정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모색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제언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 먼저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부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부모 교육 분야는 양육 방법(69.9%),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37.8%), 보호자 역할(30.8%) 순이었으며, 부모 상담 또한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80.3%), 양육방법(59.1%), 보호자 역할(26.9%) 순이었다.

한편, 부모들은 현행 부모 지원 서비스의 우선 개선 사항으로 프로그램 확대(30.2%)와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30.0%), 일대일 (맞춤)서비스의 확대(29.9%)을 꼽았다. 이는 현재 부모 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자녀의 교육/보육기관[147]으로, 일방적인 집체 교육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요구와 희망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

147) 부모 교육은 59.4%, 부모 상담은 85.6%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 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음.

적인 부모 교육 실시와 **부모 상담을 결합한 형태의 맞춤형 부모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부모 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부모 교육 참여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부모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부모 교육의 이수 횟수에 따라 앞서 제안한 (교재, 교구) 물품 꾸러미를 제공한다거나 전문가 부모 상담을 연계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봄 직 할 것이다.

유선 혹은 온라인 **부모 양육 상담 지원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각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부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148]), 이는 부모들이 원하는 형태인 전문가들의 일대일 상담 형태인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 중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운영 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3.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육아 가구들에게 정부 지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매해 현금 지원의 확대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4차년도(2021년)에는 이에 대한 선호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금 지원 다음으로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지원 강화,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요구는 가구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맞벌이 가구들은 육아휴직 등 돌봄시간 지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시간제 이용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9만원이하 저소득

14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부모상담, 온라인 양육상담,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68.jsp (인출일: 2021. 10. 26.);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 [아이사랑플래너] 부모 양육상담 지원 안내, https://blog.naver.com/seoul-center/222547779372 (인출일: 2021. 10. 26.).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 이용 및 기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 부분으로 4차 조사 기준[149] 서비스 다양성 확대(40.8%)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28.0%),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15.9%)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부모 돌봄 시간 지원과 관련된 개선 필요 부분으로는 4차 조사 기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가 28.9%,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21.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19.0% 순으로, 주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기 희망하는 방식은 부모 직접 돌봄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맞벌이 가구들이 희망하는 직접 돌봄 방식은 연월차 휴가 사용(33%),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로를 사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16.0%였으며, 아이를 일터에 데려가겠다는 응답도 5% 가량 응답되었다.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3차(2020년) 조사에 이어 4차(2021년)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제도의 개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육아가구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들은 육아휴직 제도, 유연근로제도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외벌이 가구들은 아이돌봄 지원 제도,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의 연장이 56.7%[1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45.6%) 순이었다. 반면, 유연근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도 사용 의무화가 41.3%로 가장 높고, 비용 지원의 확대(35.7%), 신청 절차 간소화(33.5%) 순이었다. 아이돌봄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 확대(49.6%), 신속 대응 체계 마련(36.0%) 순으로 앞서 두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아이돌봄 지원 제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49) 차수별로 비중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동일함.
150) 중복 응답.

한편, 실제로 2021년도에[151]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부의 경우 출산휴가 6.7%, 육아휴직 2.8%,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6%였으며, 모의 경우[152] 출산휴가 13.6%, 육아휴직 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7%였다. 반면, 이용 희망이 높았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부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1.0%, 가족돌봄휴가 1.9%였으며, 모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2.1%, 가족돌봄휴가 3.1%에 불과하였다. 2021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의 경우 재택 근무 사용율이 높은데, 부 11.3%, 모 14.5%가 재택근무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시차출퇴근 부 4.0%, 모 6.5%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의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조사(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 2019)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은 1.9%로,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낮은 제도 활용율을 보였다. 문제는 2019년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가 개정되기 전으로 제도 활용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센터 홈페이지[15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 5)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져, 사업주의 79.3%와 근로자의 61.6%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총 37,047명에 달해,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수혜 대상 9만명 중 41%가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4. 2: 5).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는

151) 2021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의 이용 경험을 기준으로 조사함.
152) 취업모 기준 응답 비중이므로, 주의를 요함.
1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법 비교,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200002# (인출일: 2021. 11. 1.).

근로자들이 사용하기를 희망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중 상위를 차지하는 지원 제도로, 제도 활용율이 낮은 것은 인지도가 낮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 단계에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가족돌봄휴가가 통상 무급휴가인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유급휴가인 연월차를 우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이뤄진 시기에는 제도 활용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추가 지원 요구가 높았던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율은 1차년도(2018년) 1.9%였으며, 4차년도(2021년)에는 더욱 낮아져 0.7%에 그쳤다. 단, 이용하는 경우 이용횟수는 1차년도는 월평균 8.7회였으나, 4차년도에는 11.3회까지 증가하였으며, 회당 이용 시간도 1차 2.7시간에서 4차년도 3.8시간으로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이용자가 매우 적지만, 일단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 과정에서 한부모 저소득 가구 부모들은 주로 수급자격 유지 등의 이유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활동 및 구직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시간 자녀를 돌봐줄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시간제 일시보육 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영아 자녀이면서 첫 번째 자녀인 경우에는 제도 인지는 더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유추해볼 때,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의 활용이 낮은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때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18.6%가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응답은 앞서 심층면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영아 자녀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만1세(2020년생)의 경우 49.1%, 만2세(2019년생) 20.9%, 만3세(2018년생) 29.4%[154]가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닌 가정에

154)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었다고 응답한 경우로 각 연령별 관측치가 30명 미만으로 많지 않으므로, 해석의 주의를 요함.

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뿐 아니라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었다는 응답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Ⅶ-3-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요 연구 결과	- 맞벌이 가구들은 육아 휴직 등 육아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고, 외벌이 가구들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 직접 돌봄을 가장 선호. ▸ 맞벌이 가구들은 부모 직접 돌봄의 방법으로 연월차휴가 사용, 가족돌봄 휴가/휴직 사용을 선호. - 육아 시간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는 법령 등을 통해 제도 완비 수준이 높으나, 이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가족돌봄휴가,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사항으로 휴가사용일수 연장이 56.7%로 가장 높게 응답됨. ▸ 유연근무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사용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비용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음.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외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지는 높지 않음.
시사점	-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도의 완비 수준이 높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 추진이 필요함. -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될 경우, 어린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하고 질 좋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그러므로, 2022년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될 경우[155]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영아수당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

155) 단, 저소득 가구 심층면담 과정에서 영아수당 도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았으며, 지원 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음.

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156]).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은 0~1세로, 영아 자녀 부모들이 직접 돌봄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액과 차이를 보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157]) 정책 만족도가 낮았던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하여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 수준이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지원금보다 높기 때문에, 1세 이하의 영아 자녀의 가정 양육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의 직접 돌봄이 늘어난다면 가정 내 양육을 하면서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 즉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그림 Ⅶ-3-1]에 제시하였다.

나.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이 절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육아 가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책을 중심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제도에 대한 탐색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육아 시간 지원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숙고해보았다.

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제언은 기존에 이미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율이 낮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코자 노력하였다. 이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방안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활용도와 만족도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모색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제와 세부 추진 내용은 [그림 Ⅶ-3-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817 (인출일: 2021. 11. 1.).
1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817 (인출일: 2021. 11. 1.).

[그림 Ⅶ-3-2]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 개요 : 육아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정책 방향〉
육아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정책 목표〉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
▢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육아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 관련 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정책 통합 플랫폼 - 구축 (혹은 관련 사이트 간 연계 및 링크 강화) - SNS 혹은 어플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알림 서비스 제공 - 통합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 ▸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정책 혹은 통합 플랫폼을 안내 - 정책 신구비교표 등 과거이력 사항을 함께 탑재하여 제공 - 정책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의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상향 조정 -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경우 제도 활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강화
단시간 돌봄 공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	-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안내 브로셔 제작, 배포 ▸아동수당 및 2022년 도입되는 영아수당 신청 시 제도 홍보 강화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하교 시간대 공급 확대 필요

1) 육아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 인력 배치

제도 활용도가 낮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처음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 자체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하겠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제도들 중에서는 시간제 일시보육, 세제 지원, 그리고 대상이 한정적인 지원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현금 지원의 형태인 사업들,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와 이해는 매우 높으며, 제도에 대한 선호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재원의 출처와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각기 정보 제공이 되는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 한 일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산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 지원 정책은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를

통한 지원이 상당수 될 뿐 아니라, 지원 대상과 지원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제도 전체를 인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구보다 이제 막 출산하여 처음 육아 지원 정책을 탐색하는 육아 가구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어디를 통해서 이뤄지는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어렵기 마련이다.

예년에 비하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비교적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현재 영유아 자녀 지원을 포함하여 주로 사회복지 분야 지원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를 통해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 지원까지를 망라하여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육아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사랑 포털,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 검색과 신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출산한 가구의 경우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정부24 홈페이지[158])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관리가 되는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공공요금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있다(정부24 홈페이지[159]).

본 연구는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 여성 2명을 섭외하여, 어떠한 육아 지원 정책이 탐색 과정이 복잡하고, 인지하기 어려운지, 나아가 신청 절차 등의 번거로움은 무엇인지를 등을 탐색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160] 이후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정책 인지 경로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유추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 검색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의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기 구축된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정책 탐색과 관련된 심층면담 결과에서 면담자들은 처음 정보 검색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일단 관련 플랫폼을 찾은 후에는 링크 등을 타고, 다른

158) 정부24 홈페이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 (인출일: 2021. 11. 2.).
159) 정부24 홈페이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 (인출일: 2021. 11. 2.).
160) 2명 중 1명은 특히 저소득 한부모 육아 가구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탐색토록 하였으며, 다른 1명은 맞벌이 가구를 가정한 상태로 정책 탐색을 해나가도록 지시하였음.

정책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3일에 걸친 검색 결과, 두 면담자 모두 각 10~20개의 정책을 찾는데 그쳤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 정책을 검색한 경우 검색어가 지원 분야 및 지원 내용 등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정책 접근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검색되는 플랫폼들은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이미 잘 알려진 정책들로, 지원 대상이 특정되거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정책의 경우 검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정책을 검색한 면담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정책을 검색한 면담자는 아이사랑 포털을 시작으로 정보 검색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정책을 검색한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링크를 통해 들어가기는 했지만[161], 정책을 검색하기에는 좀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맞벌이 가구 정책을 검색한 면담자는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방문하였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정책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편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면담자 모두 정책을 안내하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홍보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두 명의 면담자 모두 정책을 찾기는 했지만, 해당 정책이 현재 지원되는 정책인지 아닌지가 헷갈렸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경우에 지원 대상이 해마다 확장되면서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사업인데, 검색된 정책이 몇 년도 기준의 아동수당 지원 제도인지 확실하지 않고,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안내되기 때문에 최신 아동수당 제도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검색을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61) 맞벌이 가구 정책을 검색한 면담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함.

〈표 Ⅶ-3-1〉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 관련 심층 면담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정책 인지 경로	- 통상 유명 포털서비스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정책 검색을 시작 - 첫 번째 관련 사이트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 지자체 혹은 정책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후 다른 정책은 링크를 통해 쉽게 검색 가능
정책 검색 결과	- 실제 지원되는 정책의 일부만 검색 - 주로 보편 지원 형태의 정책이 쉽게 검색됨 (검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개선 필요 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 정책 검색 경로가 헷갈리고, 불편함. (너무 많은 정책이 수록되어 있어, 특정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가능한 점은 좋으나, 정책 세부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함. - 동일 지원 정책이 시점별로 다른 내용이 안내되고,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안내되면서 혼동스러움. 정책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좀 더 선제적으로 정책을 알려줬으면 좋겠으며, 어플 등을 통해 검색되면 좋겠음. - MZ세대를 고려하여 유튜브 등을 통한 정책 안내가 효과적일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지원정책 인지 및 탐색 경로 관련 심층 면담' 결과임.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검토(어플 개발 및 문자 알림 등)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첫 번째 플랫폼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 가구 심층 면담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로 통합 플랫폼과 별개로 업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절차 등에서의 어려움이 달라진다는 점 또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지를 민원인이 직접 알아봐야한다거나, 신청하기 위해 문의를 했을 때 적합한 답변을 받지 못해 애를 먹은 경험 등이 다수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SNS를 통한 알림 서비스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알림 문자를 받아본 경험 때문인지, **SNS 혹은 어플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알림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보건소의 영유아 예방접종 알림 등과 같이 선제적인 알림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해 출산 신고 당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동의한 영유아 가구에 대해 예방접종 시기별 알림이나 영유아의 생애

주기별로 지원되는 정책에 대한 신청 안내, 정책 변화 시 주요 내용 등을 알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적극적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모색해 봄 직 할 것이다.

한편, **통합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제안된 안으로 **유튜브를 통한 정책 홍보가 제안**되었으며, 육아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나 통합 플랫폼 자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통합 플랫폼의 경우 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일종의 과거 이력을 알 수 있는 **정책별 신구비교표를 함께 탑재하여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찾아보면, 현행 법령 뿐 아니라, 신구법비교, 법령제정 및 개정사유, 연혁 등이 함께 검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 시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정책 지원 신청 과정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배치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담당자 역량에 따라 정책 수혜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앞서 연구 배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은 고평법에 의거하여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이 보장되고 있으며, 지원 범위 및 지원 내용 등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매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육·교육 기관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을 메우고자,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에 대한 법령이 크게 수정, 확대되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거의 완료되어, 이의 활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활용율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무급휴가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연월차에 이어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로 보여진다. 실제 고평법 제39조제2항제8호에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평법 제37조제2항제6호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에 따른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가 명시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162]). 즉, 가족돌봄휴직/휴가의 활용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원 제도라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평법 제18조는 출산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9조부터 제19조의5까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163]). 한편, 고평법 제19조의6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164]). 즉, 전반적으로 육아시간 지원과 연관된 일가정양립지원은 이의 활용과 지원 내용, 위반시 제재까지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태로, 제도의 완비 정도가 매우 높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의 활용에 대한 직장 내 분위기 및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수의 육아 가구들은 이의 사용을 의무화 혹은 강제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위반시 제재가 법적으로 명시된 상황에서도 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이를 강제화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지나친 제도의 강제화는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때, 전년도 연구인 3차년도[165]에서 실시된 맞벌이 부모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166]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모의 직장 상황-직종, 산업,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직이거나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고용형태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이들 제

1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9&lsiSeq=232225#J18:0 (인출일: 2021. 11. 2.).
1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9&lsiSeq=232225#J18:0 (인출일: 2021. 11. 2.).
16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9&lsiSeq=232225#J18:0 (인출일: 2021. 11. 2.).
165)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을 의미함.
166)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

도를 활용하는데 편차가 존재함을 암시하며, 육아 시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영유아 부모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함을 내포한다.

한편, 육아휴직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167]). 이같은 사업주 지원금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168]),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종에 좀 더 많은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 안정 장려금 또한 지원되는데, 우선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각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은 120만원과 30만원, 1개월 지급액은 60만원과 30만원이 지원된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169]).

〈표 Ⅶ-3-2〉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액 (2021년 기준)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기업	360만원	30만원
	대규모 기업	120만원	10만원

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이하 제조업, 300명이하 광업 등 7개 산업, 2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산업, 100명이하 그 밖의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사업주 지원금 또한 점차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지원금의 우선 대상 기업으로 우대 지원을 받는 기준은 산업별로 근로자 규모가 100명~500명까지 상이한데, 육아휴직 활용이 낮은 산업 혹은

16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16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16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직종을 중심으로 좀 더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 기업 지원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사료된다.

또, 금전적 보상이 아닌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유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러한 수단 중 하나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운영 중이기는 하며, 인증 기업 수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0년 12월 기준 인증기업(관) 수는 총 4,340개(공공기관이 1,045개)로 앞으로 좀 더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170]). 즉,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주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171]

한편,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경우 제도 활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가로의 전환 혹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육아휴직 급여 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듯이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한 지원금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단시간 돌봄 공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노력

마지막으로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을 위해 단시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연구 결과의 요약에서도 살펴본 바와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며,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무엇보다 2022년 새롭게 영아수당이 도입될 경우 부모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어, 만1세 이하의 영아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들의 가정 양육이 보다 증가할

170)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인증제도안내, 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 (인출일: 2021 .11. 2.).
171)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증마크 부여,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표창, 인증 전후 무료 컨설팅,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무료교육 등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참여 등 110개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인증제도안내, 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 인출일: 2021. 11. 2.).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가 직접 가정 내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다 하더라도 자녀를 동반하기 어려운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에 어려운 상황에서 간헐적이며 단시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재 상태에서도 부모가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 예컨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예술인, 호출근로(플랫폼 노동 포함) 등 일종의 비임금근로 형태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 정책보다는 단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더 높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심층 면담 및 실태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들은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가정 돌봄의 대표적 유형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개선 요구가 높았다.

먼저,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의 경우 우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주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제도 자체를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자체를 홍보하고,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심층 면담 과정에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보육서비스 부문에 시간제 일시보육이 잘 안내되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제도 자체를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간제 일시보육 등에 대한 안내 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신청 과정에서 배포**하거나 앞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제언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튜브 혹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도 홍보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 한편,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혹은 접근성 개선 등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로,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별도의 후속 연구를 요한다.

한편,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심층 면담 등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간대, 즉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하교시간대의 공급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앞서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

비스 이용비용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금 확대(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제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각 시도교육청(2020).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강민정·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초등학교 긴급돌봄 프로그램 안내.

김동훈·김은영(2020).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박은영(2020).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강은진·권미경·박원순·김혜진·정유나·이미화·김하진·양소헌(2020a).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자료. 교육부.

김은영·강은진·권미경·박원순·김혜진·정유나·이미화·김하진·양소헌(2020b). 유아 원격교육을 위한 부모 지원자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2020. 12.).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보건복지부(2021a). 2021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민인식·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35~49.

이미화·김은설·김길숙·이진화·윤지연(2016).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Ⅱ).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재용·김정숙(2020). Post 코로나 시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혜연(2020). 에듀테크(Edutech) 시장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재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KISDI Perspectives, 2021년 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익중(2020a).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정익중(2020b) 코로나19와 아동기 정신건강. 제10차 한국생애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1~34.

조숙인·김나영·장미나·박은영(2020).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 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2021).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김태우(2021).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b).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부록-.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1 발간예정). 언택트 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Pagel, M., & Yannelis, C.(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The Review of Asset Pricing Studies, 10(4), 834-862.

Beirne, K., Doorley, K., Regan, M., Roantree, B., & Tuda, D.(2020). The Potential Costs and Distributional Effect of Covid-19 Related Unemployment in Ireland. Budget Rerspectives 2021, Paper 1.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ESRI).

Daco intelligence(2021). 2021 에듀테크(EduTech) 기술 및 시장 동향과 주요 국가별·기업별 사업 전략. 데이코산업연구소.

Malik, R., Hamm, K., Lee, W. F., Davis, E. E., & Sojourner, A.(2020). The Coronavirus Will Make Child Care Deserts Worse and Exacerbate Inequali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2.

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Dreyer, B., Leckman, J. F., Lye, S. J., Ponguta, L. A., Richter, L. M., & Stein, A.(2020). Effects of the Global Coronavirus Disease-2019 Pandemic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hort- and Long-Term Risks and Mitigating Program and Policy Actions. The Journal of Pediatrics, 223, 188-193.

Piyapromdee, S., & Spittal, P.(2020).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Covid-19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Fiscal studies, 41(4), 805-827.

〈홈페이지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인증제도안내, 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 (인출일: 2021. 11. 2.).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BD_CODE=bbs_gongji&cmd=2&B_NUM=74330001&B_STEP=74330000&V_NUM=) (인출일: 2021. 6. 13.).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꿈을 위한 디딤돌, 구직촉진수당으로 똑똑한 취업준비!,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21906053 (인출일: 2021. 10. 22.).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지원, http://worklife.kr/website/index/m2/support2.asp (인출일: 2021. 5. 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2021. 3. 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인출일: 2021. 10. 22.).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25&topMenuNo=6 (인출일: 2021. 10.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국민 궁금증 4문 4답,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817 (인출일: 2021. 11.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472 (인출일: 2021. 6.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인출일: 2021. 10.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온종일 돌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2021. 10. 25.).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홈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https://mplib.mapo.go.kr/sglib/MENU1207/CONT4067/contents.do (인출일: 2021. 7.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Yd=202

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2021.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9&lsiSeq=232225#J18:0 (인출일: 2021. 1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법 비교,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200002# (인출일: 2021. 1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0504&lsiSeq=180691#0000 (인출일: 2021. 7.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행정규칙,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803 (인출일: 2021. 10. 2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아동수당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 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장애아동수당, https://www.bokjiro.go.kr/ssis-teu/ twataa/ 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통합문화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1.).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인출일: 2021. 10. 26.).

부산 사상도서관 홈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도서배달,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504007002000 (인출일: 2021. 7.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0 (인출일: 2021. 10. 26.).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 [아이사랑플래너] 부모 양육상담 지원 안내, https://blog.naver.com/seoul-center/222547779372 (인출일: 2021. 10. 2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https://www.suwonlib.go.kr/intro/guide02.asp (인출일: 2021. 7.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sup (인출일: 2021. 6. 30.).

안산시 안산상록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내 생애 첫 도서관, https://lib.ansan.go.kr/firstlibrary.do?sitekey=5&gwan= (인출일: 2021. 7.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o?mid=mda777&cd=kps (인출일: 2021. 6. 3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9048 (인출일: 2021. 6. 30.).

정부24 홈페이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 (인출일: 2021. 11.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공통 부모교육, 비대면 부모교육,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1229/1230.jsp (인출일: 2021. 4. 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정양육지원, 부모상담, 온라인 양육상담,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68.jsp (인출일: 2021. 10. 2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운영지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인출일: 2021. 7. 1.).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길잡이, https://nip.kdca.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1 (인출일: 2021. 10. 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인출일: 2021. 11.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전달체계도,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40/contents.do, (인출일: 2021. 6. 3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목록, 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안내, https://yeongju.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o?seq=125560 (인출일: 2021. 6. 30.).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i-누리 포털사이트, https://i-nuri.go.kr/ (인출일: 2021. 7. 2.).

i-누리 포털사이트, 나눔누리,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2021. 7. 2.).

i-누리 포털사이트, 도움누리, 코로나19 대응 가정연계놀이,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2021. 10. 25.).

i-누리 포털사이트, 배움누리, https://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60&manage_idx=66 (인출일: 2021. 7. 2.).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716 (인출일: 2021. 3. 9.).

KOSIS 홈페이지,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7001&checkFlag=N (인출일: 2021. 10. 13.).

KOSIS 홈페이지,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heckFlag=N (인출일: 2021. 6. 12.).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족돌봄휴가」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3. 6.).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278 (인출일: 2021. 6. 23.).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1. 7. 11.).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8 (인출일: 2021. 10. 2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0. 9. 25.).「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교육부 설명자료(2020. 2. 14.).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97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 (인출일: 2021. 7. 2.).

동아일보(2020. 3. 31.). "책 배달됩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https://29street.donga.com/article/all/67/2025713/1 (인출일: 2021. 7.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2021. 3. 11.).

베이비뉴스(2020. 9. 3.). 키즈노트, 코로나19 속 어린이집·유치원 원격수업 대안으로 주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1 (인출일: 2021. 7. 2.).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21. 1. 17.). 2021 유치원 원격교육은 이렇게,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516&step1=3&step2=1#none (인출일: 2021. 7. 2.).

에듀인뉴스(2020. 7. 17.). 다양한 유아 콘텐츠 로그인 없이 이용,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광주시청과 원격수업 협치 실현,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 (인출일: 2021. 7.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 1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1 (인출일: 2021. 6. 30.).

〈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6호, 2021. 9. 15.)

〈통계 원자료 및 기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037480/fileData.do에서 교육부_정보공시 초중등학교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현황_20201231와 초중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_20190920 (인출일: 2021. 10. 23.).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각 년도 설문지 개발 관련 회의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에서 실시한 맞벌이 가구 심층 면담 녹취파일.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 원자료.

Abstract

KICCE Spending Survey: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Ⅳ)

Hyo Mi Choi · Jeong Won Lee · Ja Yeun Kim · Jae Hee Lee · Tae Woo Kim

This study represents the 4th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which is being conducted over a period of 5 consecutive years. Here, we have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childrearing costs and usag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with a view to informing policies that can help alleviate the cost burden associated with such spending. To this end, the 'KICCE Spending Survey' is conducted annually to inform support policies directed at childrearing households. In particular, for the 2021 (4th wave)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with regards to childrearing costs an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childrearing households may have been presented with the double challenge of maintaining their jobs and income in the face of socioeconomic risk, while at the same time shielding their children against the new health risk. Low income households are particularly exposed to risks associated with job loss, income loss, and blindspots in terms of access to childcare. This has raised concerns that the pandemic might lead to an exacerbation of socioeconomic polarization.

Due to the broad range and amplitude of the topics covered by this study, for the sake of convenience we have organized the key findings into the following sections: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4th Wave, 2. Childcare Cost Expenditure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3. Use of Childcare Services and Policy Demands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and 4. An In-Depth Analysis regarding Changes in Childcare Cos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and the Effects of Public Assistance.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4th Wave

- The total sample of the 4th wave included 1,933 households, equivalent to a retention rate of 87.1%
  - Out of the 1,679 sample households, 1,463 were successfully contacted. 216 Households were replaced by new households
  - As with the previous wave, a total of 254 households were newly included as part of the newborn sample
  - A total of 2,832 children (including 2,401 infants) responded to the Children's Survey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for the 4th wave (2021) was 4,856,000 KRW, down from the 3rd wave (2020) at 5,023,000 KRW but up from the 2nd wave (2019)

2. Childcare Cost Expenditure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living expenses for the 4th wave (2021) was 2,874,000 KRW, up 112,000 KRW from the previous year and also higher than the figure for the 2nd wave (2019)
  - Food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living expenses. The 3rd wave (2020), which corresponds to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saw large increases in food expenditure. The figure for the 4th wave (2021), while slightly lower than the previous wave, remained at largely similar levels
  - Engel coefficient: 28.5 as of the 4th wave (2021), which is down from the 3rd wave (2020) but up from the 2nd wave
  - Schwabe index: 8.1 as of the 4th wave, exhibiting little variation
  - Angel coefficient: 26.8 as of the 4th wave (2021), at largely similar levels compared to the 3rd wave

- Total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for the 4th wave (2021) stood at 1,196,000 KRW, the highest figure recorded since the study's inception in 2018.
- The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per young child for the 4th wave (2021) was 612,000 KRW, up 29,000 KRW from the 3rd wave (2020) but down 18,000 KRW from the 2nd wave (2019)
  - The childcare costs per young child as a share of living expenditures stood at 19.1% in the 4th wave (2021), up from the 3rd wave but down from the 2nd wave
- The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per elementary schooler as of the 4th wave (2021) was 799,000 KRW
  - This is 187,000 KRW higher compared to childcare costs per young child (612,000 KRW) and 63,000 KRW higher compared to costs per each 6-year old (736,000 KRW)

3.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Childrearing Households & Policy Demands

-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Share by type: As of the 4th wave (2021), 50.4% of the 2,371 young children had made use of childcare centers, followed by 28.8% in kindergartens and 1.3% in study center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In all, 80.5% of the young children made 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Use time: As of the 4th wave, the time spent per type of facility was 35.0 hours for childcare centers, 34.5 hours for kindergartens, and 29.5 hours for study center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Cost of use: As of the 4th wave, the average monthly fees paid to each type of facility was 66,000 KRW for childcare centers, 132,000 KRW for kindergartens, and 856,000 KRW for study center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Satisfaction with service: As of the 4th wave, all types of childcare facility had a satisfaction score of 4.0 (5.0 being the highest)

- Online classes: 2.6% of the users of childcare centers reported having used online classes, with the figures being 5.8% for kindergartens and 6.9% for study center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Part-time Private Education

- Share by type: As of the 4th wav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 of facility used was short-term study centers (21.3%), followed by in-person workbooks (15.0%), culture centers (5.7%), non-visit workbooks and activities (2.1%), and individual / group tutoring (1.4%)
- Use time: Children spent an average of 4.2 hours a week at short-term study centers. This was the most prevalent typ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service used among young children
- Cost of use: The typ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that incurred the highest average monthly costs was 'individual / group tutoring', which stood at 198,000 KRW
- Satisfaction : Servic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s were 'in-person workbooks' and 'individual / group tutoring', which scored, on average, 4.1 points out of a possible 5.0
- Online classes at short-term study centers: About 3.0% of the children had experienced contactless (i.e., online) classes, mostly for scholastic parts of the curriculum

• Other Services

- Part-time care: As of the 4th wave, 0.7% of the young children had been put in part-time care. Among this group, the average use frequency was 11.3 times per month. The average session lasted 3 hours and 48 minutes, at a monthly average cost of 30,000 KRW.
- Kids Cafes: As of the time of interview, about 24.9%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used kids cafes during the past 3 months. While this is lower than the figures for the 1st (47.2%) and 2nd (57.7%) waves, it still indicates a bounce back compared to the sharp pandemic-related decrease observed in the 3rd (14.7%) wave

-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Households with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 Public facility-based services

· Share by type: As of the 4th wave (2021), the most prevalent type of service used was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23.1%), up from 16.6% in the 2nd wave (2019)

· Usage of after-school care was 38.5% for the 4th wave, indicating a recovery following the sharp drop to 4.5% in the 3rd wave (2020) due to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That said, this still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e usage level from the 2nd wave (2019), 62.7%.

· As of the 4th wave, local / community / neighborhood childcare centers accounted for 1.7% of usage, down from 2.6% in the 3rd wave (2020).

· Demands regarding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As of the 4th wave (2021), the most frequently voiced demand was 'diversification of programs (74.9%), followed by 'better management of schoolwork and homework (47.7%), and 'additional teachers dedicated to care work (47.1%).

· Demands regarding after-school care: As of the 4th wave (2021), the most frequently voiced demand was 'diversification of after school programs (76.7%), followed by 'larger classes' (40.3%), 'improvements to program quality' (37.7%), and 'stronger links to schoolwork' (33.6%)

• Part-time Private Education

· Use by type: As of the 4th wave,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care facility was short-term study centers (84.6%), followed by in-person workbooks (26.3%), educational online contents (9.2%), individual / group tutoring (5.0%), non-visit workbooks / online classes (4.8%), culture centers (3.0%), in-person learning activities (1.9%)

· Use time: Average weekly use time for short-term study centers was 7.3 hours, while none of the other services exceeded 2 hours of

weekly use

· Cost of use: The fees for short-term study centers has risen steadily, from 220,000 KRW in the 2nd wave (2019), 232,000 KRW in the 3rd wave (2020), to 244,000 KRW in the 4th wave (2021)

· Satisfaction: The typ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service associated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was 'individual / group tutoring', which scored 4.0 out of 5.0

- Use of In-Home Childcare and Parental Support Services

• Use of Individual Care Services

· Uptake: As with other types of care services, usage dropped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from 11.8% in the 2nd wave (2019) to 9.0% in the 3rd wave (2020), thereafter recovering slightly to 12.3% in the 4th wave (2021)

· As of the 4th wave (2021) study, the average monthly cost and weekly hours of use for each type of individual caregiver were as follows:

· Caregivers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17.6 hours, 201,000 KRW

· Private caregivers : 21.0 hours, 709,000 KRW

· Grandparents : 22.5 hours, 337,000 KRW

· Relatives other than grandparents: 24.2 hours, 297,000 KRW

• In-home care by Parents

· Parents spent an average of 8 hours per day for childcare on weekdays, and 13 hours and 6 minutes on weekends

· Regarding the use of electronic devices (TV, PC, etc.) during in-home childcare, they were used for an average of 1 hours and 24 minutes on weekdays and 2 hours and 6 minutes on weekends

· 5.6%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used toy rental services, while 15.5% reported having used book rental services

· 9.4%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received assistance for childcare supplies, with the average frequency of use during the past 3 months being 3.3 times

· Demands regarding childcare support services: The most frequently voiced demand was that for 'better accessibility to rental / service

providers' (50.2%), followed by 'broader choice through diversification of supplies / programs' (35.4%), 'higher-quality supplies / programs' (33.6%), 'provision of training or training materials to help parents oversee children's activities' (26.7%), 'attention to disinfection / hygiene of supplies' (26.6%), 'enabling two-way communication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supplies / programs' (18.4%), 'providing services / programs at lower cost' (5.7%)

- Usage of parental support services: Parental training 7.4%, parental counseling 10.8%, childrearing mentorship 0.7%.
- Demands regarding parental support services: The most frequently voiced demand was that for 'expanding the program' (30.2%), followed by 'provision of professional services' (30.0%), 'expanding one-to-one (custom) services' (29.9%), 'better accessibility to service providers' (27.6%), 'availability at more hours of the day' (26.8%), 'more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services' (20.2%)

• Demands regarding childcare support services

- Parents of young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or kindergartens tend to provide in-home care themselves when they are not using half-day or longer care programs. Such parents voiced the need for part-ti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 According to survey respondents, the area of government support that was found to be most lacking in every wave was 'insufficient childcare allowance / other cash subsidies'
- In the event of unforeseen need for emergency care, as of the 4th wave the most opted-for means of care was 'direct care by a parent' (83.1%), followed by 'individual care by a grandparent or relative' (42.1%), and 'state-designated care facilities such as emergency care centers' (37.6%)
- Regarding the childcare support policy that needed improvement in the face of societal crisis situations, the most frequently-requested item for both the 3rd and 4th waves was 'better support for family care leave'

4. Changes in Childcare Cos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and the Effects of Public Assistance

- In-depth analysis conducted by linking the 2nd (2019) and 3rd (2020) wave findings into panel data
-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3rd wave data showed an overall drop in childcare costs
-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time lag effec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with regard to total childcare costs, and this lag effect is absent only among households in the lowest income decile.
  - This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households in the lowest income decile, childcare costs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pandemic situation. This implies that, even prior to the pandemic, these households had little room to cut back on childcare costs.
- As of the 3rd wave (2020), 7.0%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received COVID19-related public assistance. Only households in the highest income decile reported lower incidence of receiving assistance.
- Using a panel data DID model, we found that the public assistance provid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had little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total childcare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result only covers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as it is based on data from the 2nd (2019) and 3rd (2020) wav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have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to assure an equal lifetime starting line
  -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a 'child allowance plus' program
  - Strengthening medical support
  - Improving the usability of sports / culture vouchers
  -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and childrearing of low income / single parent women

- Preparing for 'Living with the Coronavirus' and future society
  - Securing a framework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public care services
  - Strengthening support for in-home care
  - Developing and providing public services featuring edu-tech
  - Diversifying online support services for parents and improving their usability
-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 Building an integrated platform for supporting childcare-related policies and hiring relevant experts
  -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full establishment of policies in support of work-life balance
  - Expanding the supply of short-term care and improving its usability

Keyword: childrearing costs, usage of childcare services, impact of COVID19 on childrearing costs, impact of COVID19 on the usage of childcare services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053
ISBN 979-11-6865-005-3

연구보고 2021-2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 부록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 부록 -

저 자 최효미, 이정원, 김자연, 이재희, 김태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자 연** (육아정책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재 희**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부록 363

부록 1. 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363
부록 2.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449
부록 3. 부표 450
부록 4. KICCE 소비실태조사 부표 497

부록 참고문헌 553

부표 목차

〈부표 2-1〉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 449
〈부표 3-1〉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 450
〈부표 3-2〉 영유아 예방접종 ····· 456
〈부표 3-3〉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지자체) ····· 459
〈부표 3-4〉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중앙) ····· 466
〈부표 3-5〉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중앙) ····· 472
〈부표 3-6〉 한부모 및 조손 가구 지원 정책(중앙) ····· 487
〈부표 3-7〉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지원 ····· 496
〈부표 4-1〉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1년, 실질비용) ····· 497
〈부표 4-2〉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497
〈부표 4-3〉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0년) ····· 498
〈부표 4-4〉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부, 2021년) ····· 499
〈부표 4-5〉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모, 2021년) ····· 500
〈부표 4-6〉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부, 2021년) ····· 501
〈부표 4-7〉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모, 2021년) ····· 502
〈부표 4-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부, 2021년) ····· 503
〈부표 4-9〉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모, 2021년) ····· 504
〈부표 4-10〉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표본) ····· 505

〈부표 4-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표본) ····· 506
〈부표 4-12〉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1년) ····· 506
〈부표 4-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전체 가구) 506
〈부표 4-14〉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전체 가구) ····· 507
〈부표 4-15〉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 507
〈부표 4-16〉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 508
〈부표 4-17〉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 508
〈부표 4-1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 509
〈부표 4-19〉 비목별 가구 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 510
〈부표 4-20〉 비목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 511
〈부표 4-21〉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1년) ····· 512
〈부표 4-2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1년) ····· 513
〈부표 4-23〉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1년) ····· 514
〈부표 4-2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1
(2018~2021년) ····· 515
〈부표 4-25〉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2
(2018~2021년) ····· 515
〈부표 4-26〉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용1
(2018~2021년) ····· 516
〈부표 4-27〉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용2
(2018~2021년) ····· 516
〈부표 4-28〉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1년) ····· 517

〈부표 4-29〉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 518
〈부표 4-3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2021년) ·· 519
〈부표 4-3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1년) ····· 520
〈부표 4-32〉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하루평균 시간 (2021년) : 영유아가구 ····· 521
〈부표 4-33〉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1년) : 영유아 가구 ····· 522
〈부표 4-34〉 가구특성별 부모교육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 523
〈부표 4-35〉 가구특성별 부모상담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 524
〈부표 4-36〉 가구특성별 육아멘토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 525
〈부표 4-37〉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 526
〈부표 4-38〉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줄인 경험 및 프로그램 (2021년) ····· 527
〈부표 4-3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1년) ····· 528
〈부표 4-40〉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 (2021년) ····· 528
〈부표 4-4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1년) ····· 529
〈부표 4-4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1년) ····· 530
〈부표 4-43〉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감소 유형 (2021년) ····· 531
〈부표 4-44〉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 대체 여부 (2021년) ····· 532
〈부표 4-45〉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 (2021년) ····· 533
〈부표 4-46〉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1년) ····· 533
〈부표 4-47〉 가구특성별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 불편한 점 (2021년) ····· 534
〈부표 4-48〉 과목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2021년, 중복응답) ····· 535
〈부표 4-49〉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 535
〈부표 4-50〉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1년) ····· 536
〈부표 4-5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해야 하는 분야 (2021년, 1+2순위) ····· 537
〈부표 4-52〉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2021년) 538
〈부표 4-53〉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 539
〈부표 4-54〉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1년) ····· 539
〈부표 4-55〉 가구특성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0
〈부표 4-56〉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1년) ····· 541
〈부표 4-57〉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2
〈부표 4-58〉 가구특성별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3
〈부표 4-59〉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4
〈부표 4-60〉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5
〈부표 4-61〉 가구특성별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 546
〈부표 4-62〉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47
〈부표 4-63〉 가구특성별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48
〈부표 4-64〉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49
〈부표 4-65〉 가구특성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50
〈부표 4-66〉 가구특성별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51
〈부표 4-67〉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 552

부록

부록 1. 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의 일환으로, 초등1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육아물품 구매 및 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초등1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초등1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내년에도 다시 연락드려 가구 소비실태와 함께 육아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시·도　(　　)구군　(　　)동·읍·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부 주소					
모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취업　⑥ 모 없음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조사표 작성일	2021년　월　일
조사 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유치　④방문+전화　⑤방문+유치　⑥기타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문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문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번호	구분	문3-1. 출생연월	문3-2. 성별	
			1.남	2.여
1	첫째 자녀	(　　)년 (　)월 생		
2	둘째 자녀	(　　)년 (　)월 생		
3	셋째 자녀	(　　)년 (　)월 생		
4	넷째 자녀	(　　)년 (　)월 생		
5	다섯째 자녀	(　　)년 (　)월 생		
6	여섯째 자녀	(　　)년 (　)월 생		

문4.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 등,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 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돌보미 등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

문4-1. 영유아 자녀와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

문5.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입니까?

1. 예 2. 아니오

문6. 결혼시기는 언제 입니까?

( )년도

문7~8.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문7. 본인	문8. 배우자
① 출생년도	(　　)년생	(　　)년생
②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8(배우자)로 4. 구직 중 → 문8(배우자)로 5. 미취업 → 문8(배우자)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9(5페이지)로 4. 구직 중 → 문9(5페이지)로 5. 미취업 → 문9(5페이지)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정규 출퇴근 시각 해당 여부	1. 정규 출퇴근 시각 있음 2. 정규 출퇴근 시각 없음	1. 정규 출퇴근 시각 있음 2. 정규 출퇴근 시각 없음
⑦ 노동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주당 평균 (　　) 시간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 문9~11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9-1~9-2.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문9-1. 본인		문9-2. 배우자	
1. 출산휴가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육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문10-1~10-2.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셨다면 며칠이나 사용하셨습니까?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2. 가족돌봄휴가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만 지원되며, 가족돌봄휴직 중 최대 10일까지는 가족돌봄휴가로 차감 가능.

구분	문10-1. 본인		문10-2. 배우자	
1. 가족돌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가족돌봄휴가	1. 있음→ (　　)일	2. 없음	1. 있음→ (　　)일	2. 없음

문11-1~11-2.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 댁의 본인과 배우자는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2. 시차출퇴근: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는 한에서 출퇴근 시간 조절
3. 선택근로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5. 전환형시간선택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 만료 후 전일제 복귀

구분	문11-1. 본인		문11-2. 배우자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차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근로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전환형시간선택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Ⅰ. 가구의 경제활동

문12. 귀 댁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지원받으셨습니까? 각 아동별로 아동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문12-1. 귀 댁에서 지난 1년간(2020.5.1.~2021.4.30.) 받으신 양육관련 공적 이전 소득지원 확인을 위해 이용하신 기관와 지원금액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용하신 기관 유형에 ✔ 표시해주세요.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17:00 이후 연장보육에 한해 시간당 단가에 맞춘 지원 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유치원 지원금액은 아동의 방과후수업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방과 후 과정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고, 저소득층 대상 기타 실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연령	일반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10만원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12만 9천원	10만원
48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연령 (한국나이)	연장보육 (17:00~)
만0세반 (1,2세)	1시간당 3천원
만1세반 (3세)	1시간당 2천원
만2세반 (4세)	1시간당 2천원
만3~5세반 (5,6,7세) 누리과정	1시간당 1천원

※ 연장보육료는 17:00이후 하원아를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시간당 단가로 책정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최대 5만원	최대 7만원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첫째 자녀	①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둘째 자녀	①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셋째 자녀	①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넷째 자녀	① 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 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다섯째 자녀	① 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 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여섯째 자녀	① 어린이집	만0~2세반												
		만3~5세반 (누리과정)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② 유치원	국공립												
		사립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문12-2. 귀 댁에서 지난 1년간(2020.5.1.~2021.4.3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급여 총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수급 가능 기간은 자녀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지급
(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총 수급기간	총 (　　) 개월	총 (　　) 개월	총 (　　) 개월	총 (　　) 개월	총 (　　) 개월	총 (　　) 개월

문12-3. 귀 댁에서 지난 1년간(2020.5.1.~2021.4.30.)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출산장려금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문13. 귀 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들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 만원	일을 하여 번 돈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 만원	
3.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　　) 만원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등도 제외)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　　) 만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연금(기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생계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 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긴급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등) ※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과 '6.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되지 않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7. 사적이전소득	(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8. 기타소득	(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돌잔치 등으로 생긴 돈

문14.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식비(외식비 포함)
2. 피복비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6.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8. 기기/집기
9. 기타 ( )

문14-1.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전혀 도움안됨				매우 도움됨

문15.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받은 가구만 응답]** 귀하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공적지원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공적지원금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긴급아동수당, 아동돌봄 쿠폰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식비(외식비 포함)
2. 피복비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6.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8. 기기/집기
9. 기타 ( )

문15-1.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받은 가구만 응답]** 귀하는 지원받은 공적지원금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전혀 도움안됨 ——— 매우 도움됨

문16. 2021년도에 받으신 연말정산(2020.1~2020.12에 대한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된 경우 자녀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구분		수혜 여부	지원 금액 인지 여부	지원 대상자 (모두 선택)
1. 자녀 세액 공제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2. 자녀장려금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3.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II.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문17~18. 귀 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 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림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해주십시오.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7.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18. 가구 소비액 중 자녀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 PC/노트북/태블릿PC		만원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7.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18. 가구 소비액 중 자녀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 (교재교구 포함) (※정부 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17.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18. 가구 소비액 중 자녀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육아도우미는 교육/보육비에 포함)	만원						

문19. 현재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2 — 3 — 4 — 5

매우 불충분 … 매우 충분

문20.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항목에 우선 지출 하시겠습니까?

1. 식비(외식비 포함)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4. 피복비
5.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6. 교육/보육비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8. 교통/통신비
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13. 기타 (   )

문21. 현재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1. 식비(외식비 포함)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4. 피복비
5.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6. 교육/보육비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8. 교통/통신비
9. 개인유지비(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13. 기타 ( )

※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22.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등 가계 경제에 부담이 증가되었습니까?

1. 예 → 문22-1로　　2. 아니오 → 문23로

문22-1.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에 부담이 증가되었다면, 부족한 생활비(또는 소득)를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2.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3.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4.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5.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헐어 씀(보험 해지 포함)
6.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7.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8. 기타 ( )

※ 다음은 귀댁의 주거 관련 문항입니다.

문23.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택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4. 상가주택
5. 기타

문24.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입주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금 유무 관계없음)
4. 기타

문2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도

문26.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개

문2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평수와 m2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평　혹은　(　　)m2

Ⅲ. 영유아 가구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개별 돌봄 서비스]

문28. 귀댁 자녀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다음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8-1로
2. 아니오 → 문29(17페이지)로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삼촌, 이모, 고모 등)

문28-1.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자녀의 외할머니가 오전에, 친할머니가 오후에 자녀를 돌보아주시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③ 조부모' 돌봄으로 적어 주십시오.

문28-2.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돌보고 있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28-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비용은 월 평균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만 응답해주십시오. 별도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0'을 적어주십시오.

문28-4. 해당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가사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응답해주십시오

[문28-1 보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문28-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문28-2. 동시 돌봄 자녀 (모두 선택)	문28-3. 이용 비용	문28-4. 돌봄서비스제공의 노동시간
(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 )원	주당 평균 ( ) 시간
(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 )원	주당 평균 ( ) 시간
(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 )원	주당 평균 ( ) 시간
(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 )원	주당 평균 ( ) 시간
( )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 ( )원	주당 평균 ( ) 시간

Ⅳ.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직접 돌봄]

문29. 최근 한 달 동안(만약 방학 기간이라면 방학 전 한 달)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을 기입해주십시오.

※ 자녀의 야간 수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29-1. 가정내 양육시간	문29-2. 가정내 양육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문30.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0-1. 부모직접돌봄시간	문30-2. 부모직접돌봄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문31.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 중에서 전자 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1-1. 미디어 이용시간	문31-2. 미디어 이용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　　)시간	주말 하루 평균 (　　)시간

문32. 귀하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양육 부담을 느끼십니까?

1　　2　　3　　4　　5

전혀 부담안됨　　매우 부담됨

문32-1. [문32에서 3이상에 응답한 경우] 가정 내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2.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3.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4.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5.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7. 기타

문33.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장난감 대여
2. 도서 대여

문33-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3-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3-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문33-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33. 이용여부	문33-1. 이용 빈도	문33-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3-3. 이용비용	문33-4. 이용 만족도
장난감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	월 (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도서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	월 (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34.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장난감, 도서, 놀이키트, 만들기 키트, 문구류 등)

문34-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4-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4-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문34-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 서비스 종류	문34. 이용여부	문34-1. 총 이용 횟수	문34-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4-3. 이용비용	문34-4. 이용 만족도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1. 이용함 ➔ 2.이용 안함	최근 3개월간 총 (　　)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	월 (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35. 귀하는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제공 등과 같은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배송 서비스 포함)
2.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3.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온라인 수업 포함)
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5.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6.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8. 기타 (　　)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문36.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멘토 등)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36-1.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하신 부모 지원 서비스는 총 몇 회입니까?

문36-2.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 여러 번인 경우에는 가장 자주 이용한 곳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6-3.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대면/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까?

문36-4.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2개 분야까지 응답해주십시오.

문36-5.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였습니까?

문36-6.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36-2 보기] 제공기관	[문36-4 보기] 서비스 내용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⑦ 기타 (　　)	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② 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③ 보호자의 역할 ④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⑤ 가족윤리 및 예절 ⑥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⑦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⑧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⑨ 기타 (　　)

항목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 (예 : 보육반장 등)
문36. 이용여부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문36-1. 이용횟수		총 (　　) 회	총 (　　) 회	총 (　　) 회
문36-2. 제공기관				
문36-3. 비대면 서비스 여부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문36-4. 서비스 내용	1순위			
	2순위			
문36-5. 유료서비스 여부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문36-6.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37. 귀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일대일 서비스 확대(맞춤서비스)
2. 쌍방향 서비스 확대
3. 프로그램 확대
4.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5.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6.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7.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8.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0. 기타 (　　)
11. 개선 필요 사항 없음

V-1.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영유아 ~ 초등학생 자녀)

※ 영유아 자녀~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38. 귀댁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 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 문38-1로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38-2로
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 문38-3으로
4.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38-4로
5.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 문38-5로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 문38-6으로

문38-1.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간 격차 해소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4.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5. 보육·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6.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7. 아동학대 등 근절
8.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9. 기타( )
10. 개선할 부분 없음

문38-2.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 개별돌봄인력(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4.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5.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시 즉각적 연계 강화)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문38-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서비스 수준 제고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문38-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7.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8. 기타( )
9. 개선할 부분 없음

문38-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금 지원 수준 제고
2.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3.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문38-6.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물품 지원(도서 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귀, 분유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2.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3.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4.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최대 필요 기간까지 확대)
5.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6.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문39.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은 크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지원/양육수당 지급 및 아동수당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귀 댁에서 받는 해당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주십시오.

비용 지원 정책	문39-1. 이용 여부		문39-2.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1. 유치원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십시오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4.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불만족
2. 어린이집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4.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불만족
3. 양육수당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4.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불만족

Ⅴ-2.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초등학생 자녀)

※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40. 귀댁에서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 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 문40-1로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40-2로
3.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 문40-3으로
4.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40-4로
5. 지역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 문40-5로

문40-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돌봄교실 확충
2.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
3.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4. 돌봄프로그램 개선
5.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6. 기타( )
7. 개선할 부분 없음

문40-2.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 개별돌봄인력(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4.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5.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시 즉각적 연계 강화)
7. 기타( )
8. 개선할 부분 없음

문40-3.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서비스 수준 제고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5. 시간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6. 기타( )
7. 개선할 부분 없음

문40-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6. 이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 상향
7.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8. 기타( )
9. 개선할 부분 없음

문40-5. **[지역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신설 및 확대
2.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3.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
4.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
5. 기타( )
6. 개선할 부분 없음

Ⅵ. 돌봄 공백

문41.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 기관 혹은 학교 등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긴급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귀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 돌보기를 가장 희망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부모 직접 돌봄 → 맞벌이 가구인 경우 문41-1로, 외벌이 가구는 문42로
2.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 문42로
3.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 문42로
4.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 문42로
5.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포함) → 문42로
6. 아이들끼리 있어도 됨 → 문42로
7. 기타 ( ) → 문42로

문41-1.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 돌보시기를 희망하십니까?

1.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2.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3.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4.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5.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6. 기타 ( )

문42. 향후 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혹은 학교 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육아지원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족돌봄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유연근로제도
4. 아이돌봄지원제도
5. 기관 돌봄
6.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7. 기타 ( )

문42-1. 문42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2. 비용 지원의 확대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4.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5.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6.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7.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8.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급식 지원 등)
9. 기타 ( )

Ⅶ. 육아 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

※ 문43~51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자녀(2015~2021년 출생)가 있는 가구만 응답해주십시오.

문43. 귀 댁의 가계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 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은 대체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물건을,
육아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2. 소득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3. 소득수준에 맞는 가격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4. 소득보다 다소 낮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5.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수준의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

문44. [소비재-구입여부] 귀하는 다음 각 물품을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최근 3개월 내 구입 경험	
	1. 있음	2. 없음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 문45~46은 문44에서 최근 3개월 내 구입 경험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45. [소비재-구입채널]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또는 자주 구입하는 곳 한 곳을 응답해주십시오. 가장 많이 또는 자주 구입하는 곳 한 곳을 응답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곳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7) 우유, 8) 물티슈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대형 마트	백화점	소형 마트	재래 시장	인터넷	직구/ 공구	박람회	전문 브랜드 매장	기타
	1	2	3	4	5	6	7	8	9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7) 우유									
8) 물티슈									

문46. [소비재-가격체감] 귀하께서 구입하신 품목들의 가격이 품질 및 성능을 고려할 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싼편	조금 싼편	적당	조금 비싼편	매우 비싼편
	1	2	3	4	5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문47. [소비재-가계부담] 다음 각 품목들이 귀 댁의 가계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분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2	3	4	5
1) 분유					
2) 이유식					
3) 기저귀					
4) 내의류					
5) 겉옷					
6) 완구류					

문48. [내구재/서비스재-구입여부] 자녀의 물품을 구입한 것 뿐 아니라 선물했던 경우까지 포함하여 다음 각 품목들을 **최근 5년간** 직접 구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중고 거래의 경우는 제외하고, 신규 구매의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1. 있음	2. 없음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문48-1. [내구재/서비스재-구입여부] 귀하는 다음 각 서비스의 비용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1. 있음	2. 없음
1) 학원		
2) 어린이 민간보험		
3) 어린이집 비용		
4) 유치원 비용		
5) 돌봄 비용		

※ 문49~51은 문48~48-1에서 최근 구입 경험이 있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49. [내구재/서비스재-가격체감] 귀하께서 구입하신 품목들의 그 당시 가격이 품질 및 성능, 사용기간, 보장성 등을 고려할 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싼편	조금 싼편	적당하다	조금 비싼편	매우 비싼편
	1	2	3	4	5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5) 학원					
6) 어린이 민간보험					
7) 어린이집 비용					
8) 유치원 비용					
9) 돌봄 비용					

문50. [내구재/서비스재-가계부담] 각 품목들이 구입했을 당시 귀 댁의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나요?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하다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2	3	4	5
1) 카시트					
2) 유모차					
3) 영유아자전거					
4) 산후조리원					
5) 학원					
6) 어린이 민간보험					
7) 어린이집 비용					
8) 유치원 비용					
9) 돌봄 비용					

문51.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양육 관련 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줄일 비목을 2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식비(외식비 포함)
2. 주거/관리비
3. 기기/집기
4. 피복비
5. 보건/의료비
6. 교육/보육비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8. 교통/ 통신비
9. 개인유지비
10. 금융상품
11. 이전지출(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9. 모름/무응답

Ⅷ. 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52. 귀 댁의 가구소득이 만일 10% 줄어든다면, 양육 관련 상품에 대한 지출은 몇 % 줄이시겠습니까?

※ 소득 감소율만큼 육아상품 구매를 줄이는 경우의 예: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인 가구가 육아상품을 50만원어치 지출하고 있었다면, 소득이 30만원이 감소(10%감소)할 때 육아상품도 5만원 감소시킴(10% 감소)

현재 육아상품에 대한 지출 대비 (　　)% 감축

【육아 상품 예시】

1. 유모차
2. 카시트
3. 장난감
4. 자전거
5. 기타 승용물(보행기, 쏘서, 바운서 등)
6. 의류
7. 신발
8. 영유아 전용 가구 (아기침대, 식탁의자, 책상, 책장 등)
9. 교재교구
10. 책
11. 침구류(겉싸개, 속싸개, 이불 등)
12. 놀이방 매트
13. 아기욕조
14. 수유관련용품(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15. 이유식제조기
16. 분유
17. 기저귀
18. 목욕 및 위생용품 (물티슈, 치약, 칫솔, 로션, 샴푸 등)
19.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등)
20. 상품 기타

문53. 귀 댁의 가구소득이 만일 10% 줄어든다면, 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몇 % 줄이시겠습니까?

현재 육아 서비스에 대한 지출 대비 (　　)% 감축

【육아 서비스 예시】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4. 시간제 학원　5. 방문학습지　6. 문화센터　7. 아이돌봄

문54. 본인 결혼 당시와 현재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10년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일거라 예상하십니까?

결혼 당시의 사회경제적 위치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치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상층	① 상상
	② 상중		② 상중		② 상중
	③ 상하		③ 상하		③ 상하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중층	④ 중상
	⑤ 중중		⑤ 중중		⑤ 중중
	⑥ 중하		⑥ 중하		⑥ 중하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하층	⑦ 하상
	⑧ 하중		⑧ 하중		⑧ 하중
	⑨ 하하		⑨ 하하		⑨ 하하

문55.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6개월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졌다　2. 약간 나빠졌다　3. 비슷하다
4. 약간 나아졌다　5. 많이 나아졌다

문56.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6개월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졌다　2. 약간 나빠졌다　3. 비슷하다
4. 약간 나아졌다　5. 많이 나아졌다

문57. **6개월 후 귀댁의 생활형편**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문58. **6개월 후 우리나라 경기**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문59. **6개월 후 귀 댁의 가계수입**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60. **6개월 후 귀 댁의 소비지출**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61. **6개월 후 귀댁의 영유아자녀 관련 육아비 지출규모**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비 지출에는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 구매에 드는 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62. **6개월 후 귀 댁의 육아품목별 지출규모**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크게 감소	약간 감소	비슷할 것임	약간 증가	크게 증가
	1	2	3	4	5
1) 내구재(가구, 유모차, 카시트 등)					
2) 의류비(신발포함)					
3) 가족 외식비					
4) 가족 여행비					
5) 의료·보건비					
6) 문화·오락비(완구류 포함)					
7) 영유아 민간보험					
8) 교육·보육비					
↳ 8-1) 영유아 교재교구/전집(책)					
↳ 8-2) 영유아학습지					
↳ 8-3) 영유아 학원					
↳ 8-4) 어린이집 비용					
↳ 8-5) 유치원 비용					
↳ 8-6) 돌봄 비용(베이비시터, 보모, 친인척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 등)					

문63. **1년 후 소비자물가 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비자물가 수준은 도시가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출 소비하는 식품, 의류, 교통/통신, 주거비 등의 지출 품목 전반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1. 크게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문64. **1년 후 육아물가 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크게 상승할 것이다

문65. **지난 1년간** 육아 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을, 육아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매우 낮았다
2.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3.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육아 용품 및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비슷했다
4.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5. 육아 용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매우 높았다

문66. 지난 1년간 육아 용품과 육아서비스 중 어느 것이 물가상승의 폭이 더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을, 육아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용품 2. 서비스 3. 비슷하다

문67. 현재 시장에서의 육아용품과 육아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다른 용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 유모차, 옷과 같은 영유아 자녀 고유의 상품을, 육아서비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교육(예: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공연관람/놀이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매우 낮다 2. 약간 낮은 편이다 3. 중간이다 4. 조금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 영유아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5~2021년 출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영유아 자녀용	자녀번호		해당자녀 생년월	

Ⅰ. 영유아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5~2021년 출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수 만큼 반복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한 달 내에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중 이용한 육아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한 달 이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 p.35의 Ⅰ-1. '어린이집' 설문으로
2. 유치원 ➔ p.38의 Ⅰ-2. '유치원' 설문으로
3.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 p.41의 Ⅰ-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4.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단, YMCA 등) ➔ p.41의 Ⅰ-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한 적 없음 ➔ p.43의 Ⅰ-4. '문화센터' 설문으로

문2.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육아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개인 및 그룹지도가 아닌 학원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②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③ 예체능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발레, 피아노, 미술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④ 학습관련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⑤ 기타 사교육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Ⅰ-1.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4. 민간 5. 가정 6. 직장
7. 부모협동 8. 모름(기관명:)

문4.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 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4-1.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4-2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4-2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5으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4-3으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4-3으로

문4-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4-2-1.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 자격 때문에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4.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5.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6.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7.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8.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9. 기타( )

문4-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5.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021년 기준으로 기입

문5-1~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 과목 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문5. 비용	특별활동	
		문5-1. 운영여부	문5-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 )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 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 )원		

문6-1~6-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6-1. 차이 여부	문6-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6-2로 2. 차이가 없다 → 문7로 3. 잘 모르겠다 → 문7로	월 (　　) 개

문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8.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9로　　2. 아니오 → 문8-1로

문8-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낮 시간 기준)

1. 유치원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ex. 시간제 보육,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

문8-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문9. 지난 3개월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9-1로
2. 없음 → 43페이지로(I-4.문화센터)

문9-1. 어린이집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 )회

문9-2. 어린이집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어린이집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3페이지(I-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Ⅰ-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0.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11.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 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11-1. 현재 이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11-2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11-2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2으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11-3으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11-3으로

문11-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리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11-2-1.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 자격 때문에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4.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5.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6.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7.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8.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9. 기타(　　)

문11-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12. 다음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1년 기준으로 기입

문12-1~12-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에서는 현재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문12. 비용	문12-1. 운영여부	문12-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월 (　)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원복비, 입학금 등)	월 (　)원		
3. 방과후 과정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 개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　)원		

문13-1~13-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13-1. 차이 여부	문13-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13-2로 2. 차이가 없다 → 문14로 3. 잘 모르겠다 → 문14로	월 (　　) 개

문14.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5.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16으로 2. 아니오 → 문15-1로

문15-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
   (ex. 시간제보육 이용,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

문15-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

문16. <u>지난 3개월간</u>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16-1로
2. 없음 → 43페이지로 (I-4.문화센터)

문16-1. 유치원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　　)회

문16-2. 유치원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유치원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3페이지(Ⅰ-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Ⅰ-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7.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영어학원(키즈칼리지, YBM, ECC, SLP 등)
2.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예능 학원
3. 놀이학원 (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4. 체육학원 (YMCA 아기스포츠단, 유아체육단 등)
5. 기타(어디:　　)

문18.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 도착시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18-1. 현재 이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18-2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18-2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9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18-3으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18-3으로

문18-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18-2-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2. 더 이용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3.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싶어서
4.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좋을 것 같아서
7.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8. 기타( )

문18-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 )시간

문19.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1년 기준으로 기입

문19-1~19-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는 현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19. 비용	문19-1. 운영여부	문19-2. 과목 수
1. 수업료	월 (　　)원		
2. 그 밖의 비용 (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비용 제외)	월 (　　)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 개

문20-1~20-2.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20-1. 차이 여부	문20-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20-2로 2. 차이가 없다 → 문21로 3. 잘 모르겠다 → 문21로	월 (　　) 개

문21.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2.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3. 지난 3개월간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23-1로
2. 없음 → 43페이지로(I-4.문화센터)

문23-1.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 )회

문23-2.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3페이지(I-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Ⅰ-4. 문화센터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4. 지난 3개월 동안 백화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센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4-1로 2. 아니오 → 문25로

영유아용 설문 문2의 '② 문화센터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4-1~24-2.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문화센터 기관과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이용 기관과 서비스 종류는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문24-3~24-5. 해당 문화센터의 주당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24-1 보기] 이용기관	[문24-2 보기] 서비스 종류
①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②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③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④ 기타 ( )	① 체육 관련(신체놀이) ② 음악 관련 ③ 미술놀이 ④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⑤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⑥ 수학 관련(가베 등) ⑦ 과학 관련 ⑧ 기타 (바둑, 체스 등)

문24-1. 이용 기관	문24-2. 서비스 종류	문24-3. 이용횟수	문24-4. 이용시간	문24-5. 이용비용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문25. 코로나19 때문에 귀댁의 자녀가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 문25-1로 2. 없음 → 46페이지(Ⅰ-5.학원)로

문25-1~25-2.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종류와 이용하고자 하셨던 이용 기관에 대해서 응답해주십시오. 이용하고 싶었던 이용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문25-1. 이용 횟수 줄은 경험	문25-2. 이용 기관 (중복 선택)
1. 체육 관련 (신체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2. 음악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3. 미술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4. 통합놀이 (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5. 언어 관련 (동화, 외국어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6. 수학 관련 (가베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7. 과학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8. 기타 (바둑, 체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문26.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셨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셨습니까?

1. 예 → 문26-1로
2. 아니오 → 46페이지(Ⅰ-5.학원)로

문26-1.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시간제 보육서비스
2. 단시간 학원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6. 개별 및 그룹지도
7. 키즈카페, 민간 놀이시설
8. 기타 ( )

Ⅰ-5. 학원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7.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8로
2. 아니오 → 48페이지(Ⅰ-6.기타 사교육)로

영유아용 설문 문2의 '③ 예체능학원(태권도·수영·축구교실·발레·피아노·미술 등)' 또는 '④ 학습관련 학원(영어·수학·국어·과학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8.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28-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28-2~28-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2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2021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28-5. 지금 이용하시는 학원 중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유형	문28. 이용여부	문28-1. 이용개수	문28-2. 이용횟수	문28-3. 이용시간	문28-4. 이용비용	문28-5. 비대면수업 이용경험여부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28-6. [한 가지라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9.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습니까?

1. 있음 → 문29-1로
2. 없음 → 문31로

문29-1.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다면, 어떤 분야의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횟수가 줄었습니까?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6.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7. 기타 (바둑, 웅변 등)

문30.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원하시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셨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셨습니까?

1. 예 → 문30-1로
2. 아니오 → 문31로

문30-1.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2. 백화점/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6. 개별 및 그룹지도
7. 장난감,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등 서비스
8. 도서관, 박물관 등 체험학습 시설
9. 키즈카페, 놀이시설
10. 다른 종류의 학원
11. 기타 ( )

문31.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2.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Ⅰ-6. 기타 사교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3.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사교육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기타 사교육:
1.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4. 개인 및 그룹지도 (과외 같은 경우)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1. 예 → 문34-1로
2. 아니오 → 문36 또는 50페이지(I-7.시간제일시보육)로

영유아용 설문 문2의 '⑤ 기타 사교육'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34-1~34-5.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사교육의 종류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이용한 경험 여부, 월 평균 총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주십시오 (예 : 방문형 학습지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지)

※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이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34-1 보기] 기타 사교육 종류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한글
6. 기타 다른 언어(한자, 일본어 등)
7.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8. 종합교과
9. 기타 (바둑, 웅변 등)

유형	문34-1. 종류	문34-2. 이용시간	34-3. 비대면수업 경험여부	문34-4. 이용비용	문34-5.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방문형 학습지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 )	주 ( )분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 )	주 ( )분			
4. 개인 및 그룹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주 ( )분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 )	주 ( )분			

문35. [현재 이용하는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2.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3.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4.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5.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부모용 지도서 등의 포함)
6.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7.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8.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9.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0. 기타 ( )

※ 문36은 학원 및 기타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

문36. 현재 자녀를 위해 이용하시는 사교육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2	3	4	5
전혀 부담안됨				매우 부담됨

문36-1. [문36에서 부담된다(4,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8. 아이가 원해서
9. 기타( )

Ⅰ-7.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7.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37-1로
2. 아니오 → 50페이지(Ⅰ-8.기타서비스)로

문37-1.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육아종합지원센터
4. 기타 ( )

문37-2.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월 평균 몇 회 이용하였습니까?

월 평균 ( )회

문37-3.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 시간

문37-4. 자녀를 위한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월 평균 ( )만원

문37-5.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Ⅰ-8. 기타서비스(키즈카페)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8. 이 자녀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키즈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놀이체험)도 포함해서 이용 경험을 응답해주십시오.

1. 예 → 문38-1로
2. 아니오 → 문39로

문38-1. 키즈카페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월 ( )회

문38-2. 키즈카페는 1회 이용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 )시간 이용

문38-3. 키즈카페의 시간당 이용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 키즈카페는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

1시간 당 ( )원

문38-4. 키즈카페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8-5.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7. 기타( )

문39. (지난 3개월간) 키즈 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 카페가 없어서
2.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기 위해)
3.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등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 1학년(201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초등 자녀용	자녀번호		해당자녀 생년월	

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초등 1학년 자녀(2014년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수 만큼 반복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해당 자녀의 요일별 하교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초등학교 정규 수업의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급식을 먹는 경우 식사 후 하교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 실제 등교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24시간 단위로 표기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규 수업) 종료 시각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　)시 (　)분

문2. 귀댁의 초등 1학년 자녀가 최근 3개월 동안 아래 보기 중에서 이용한 육아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육아서비스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개인 및 그룹지도가 아닌 학원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초등돌봄교실	1. 이용함　2. 이용 안함
② 방과후 학교	1. 이용함　2. 이용 안함
③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함
④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함
⑤ 학원 (태권도, 피아노, 영어 등 아이가 해당 장소로 가는 경우)	1. 이용함　2. 이용 안함
⑥ 기타 사교육 (방문형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함

문3. 초등 저학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육아서비스가 있습니까?

1. 예 → 문3-1로
2. 아니오 → 54페이지로(II-1.초등돌봄교실)

문3-1~3-2.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육아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이용하고 싶었던 서비스부터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각 서비스별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3-1 보기] 이용하지 못한 육아서비스	[문3-2 보기] 이용하지 못한 이유
1. 부모 직접 돌봄(예 : 육아휴직 등 이용 포함)	1. 추첨(선착순)에서 떨어져서
2. 조부모 및 친인척의 개별돌봄서비스	2. 원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서(종료시간이 맞지 않아서)
3. 비혈연 육아도우미(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포함)	3.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4. 학원	4. 다른 기관, 사교육(예: 학원) 등 다른 일정 때문에
5.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5. 적당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6. 초등돌봄교실	6. 비용이 부담되어서
7. 방과후 학교	7.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8. (부모의) 이웃, 친구의 개별돌봄서비스	8.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9. 기타 사교육(방문형학습지 및 교구활동, 비방문 학습지 및 교구활동, 개별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9.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
10. 기타( )	10. 기타 ( )

순위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 이유 ①	이용하지 못한 이유 ②
1순위			
2순위			
3순위			

Ⅱ-1. 초등돌봄교실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4. 지난 3개월 동안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4-1로
2. 아니오 → 56페이지로(Ⅱ-2.방과후학교)

초등 아동용 설문 문2의'① 초등돌봄교실'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문4-1~문4-3.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유형과 시작시각, 종료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24시간 단위로 표기해주십시오.

문4-4. 이 자녀는 초등돌봄교실은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 가장 일반적인 일주일 생각하며, 하루 평균시간을 기입해주십시오.

유형	문4-1. 이용여부	문4-2. 시작시간	문4-3. 종료시간	문4-4. 하루 평균 이용시간
아침돌봄	1.이용함 → 2.이용안함	( ) : ( )		하루 평균 ( )시간 ( )분
오후 돌봄 (방과후~17:00)	1.이용함 → 2.이용안함		( ) : ( )	
저녁 돌봄 (17:00~22:00)	1.이용함 → 2.이용안함			

문4-5. 귀하는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5. 현재 이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번호로 답하여 주세요.

	문5. 서비스 이용 시간
초등돌봄교실 유형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5-1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5-1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6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6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6로
아침돌봄	○
오후돌봄 (오후 방과후~17:00)/ 저녁돌봄 (저녁 17:00~22:00)	○

문5-1.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5-1.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
초등돌봄교실 유형	1. 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2.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3.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4.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5.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6. 자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만 운영하여서 7. 기타( )
아침돌봄	○
오후돌봄 (오후 방과후~17:00)/ 저녁돌봄 (저녁 17:00~22:00)	○

문6.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1. 돌봄 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
2.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
3. 돌봄 프로그램 개선(다양화, 수준 제고)
4. 물리적 환경 개선
5. 돌봄 시간의 연장
6. 돌봄 시간 내 자유로운 입출입 허용
7. 방학 중 돌봄교실 추가 개설 및 모집
8. 간식 혹은 급식 제공
9. 기타( )

Ⅱ-2. 방과후학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7. 지난 3개월 동안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8로
2. 아니오 → 58페이지로(Ⅱ-3.문화센터)

초등 아동용 설문 문2의 '② 방과후학교'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문8~문8-2. 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개수, 주당 이용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문8-3. 이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문8-4.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유형	문8. 이용여부	문8-1. 이용개수	문8-2. 이용시간	문8-3. 프로그램 비용	문8-4. 서비스 만족도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4. 영어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7.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당 (　)시간 (　　)분	월 (　　) 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8-5.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서 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1.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2.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3. 수강 인원 확대(인기 강좌 여러 개 개설)
4.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주 2회 이용 등)
5. 하루에 2개 강좌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증설
6. 이용비용의 인하
7. 프로그램의 질 제고
8. 물리적 환경 개선
9. 기타( )

문9. 코로나19 때문에 귀댁의 자녀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용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 → 문9-1로
2. 아니오 → 58페이지로(Ⅱ-3. 문화센터)

문9-1.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셨습니까?

1. 체육 관련 (줄넘기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독서논술, 한자 등)
6.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코딩 등)
7. 기타 (바둑, 웅변 등)

II-3. 문화센터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0. 지난 3개월 동안 문화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10-1로
2. 아니오 → 61페이지로(II-4.학원(특기교육) 등)

초등 아동용 설문 문2의 '④ 문화센터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10-1~10-2.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문화센터 기관과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이용 기관과 서비스 종류는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문10-3~10-5. 해당 문화센터의 주당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문10-1 보기] 이용 기관	[문10-2 보기] 서비스 종류
①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②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③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④ 기타 ( )	① 체육 관련(신체놀이) ② 음악 관련 ③ 미술놀이 ④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⑤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⑥ 수학 관련(가베 등) ⑦ 과학 관련 ⑧ 기타 (바둑, 체스 등)

문10-1. 이용 기관	문10-2. 서비스 종류	문10-3. 이용횟수	문10-4. 이용시간	문10-5. 이용비용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 )	( )	주당 ( ) 회	1회 평균 ( )분	월 ( )만원

문11. 코로나19 때문에 귀댁의 자녀가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 문11-1로
2. 없음 → 61페이지로(II-4.학원(특기교육) 등)

문11-1~11-2.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종류와 이용하고자 하셨던 이용 기관에 대해서 응답해주십시오. 이용하고 싶었던 이용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문11-1. 이용 횟수 줄은 경험	문11-2. 이용 기관(중복 선택)
1. 체육 관련 (신체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2. 음악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3. 미술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4. 통합놀이 (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5. 언어 관련 (동화, 외국어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6. 수학 관련 (가베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7. 과학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서비스 종류	문11-1. 이용 횟수 줄은 경험	문11-2. 이용 기관(중복 선택)
8. 기타 (바둑, 체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

문12.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셨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셨습니까?

1. 예 → 문12-1로
2. 아니오 → 61페이지로(II-4.학원(특기교육) 등)

문12-1.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시간제 보육서비스
2. 단시간 학원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6. 개별 및 그룹지도
7. 키즈카페, 민간 놀이시설
8. 기타 ( )

II-4. 학원(특기교육 등)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3.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14로
2. 아니오 → 63페이지로(II-5. 기타 사교육)

초등 아동용 설문 문2의 '⑤ 학원 (태권도, 피아노, 영어 등 아이가 해당 장소로 가는 경우)'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14.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14-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14-2~14-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2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2021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14-5. 지금 이용하시는 학원 중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유형	문14. 이용여부	문14-1. 이용개수	문14-2. 이용횟수	문14-3. 이용시간	문14-4. 이용비용	문14-5. 비대면수업 이용경험여부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　)개	주 (　)회	주당 (　)시간 (　)분	월 (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14-6. [1가지라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5.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습니까?

1. 있음　→ 문15-1로
2. 없음　→ 문16으로

문15-1.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다면, 어떤 분야의 학원을 이용하지 못 하거나 이용횟수가 줄었습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 체육 관련(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6.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7. 기타(바둑, 웅변 등)

문15-2.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원하시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셨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셨습니까?

1. 예 → 문15-2-1로
2. 아니오 → 문16으로

문15-2-1.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 학교의 방과후 특별활동
2. 백화점/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6. 개별 및 그룹지도
7.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육아지원기관 프로그램
8. 도서관, 박물관 등의 체험 시설
9. 키즈카페, 놀이시설
10. 다른 종류의 학원
11. 기타 ( )

문16.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7.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Ⅱ-5. 기타 사교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8.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사교육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기타 사교육:
1.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4. 개인 및 그룹지도 (과외 같은 경우)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1. 예 → 문18-1로
2. 아니오 → 문20 또는 설문 종료

초등 아동용 설문 문2의 '⑥ 기타 사교육'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18-1~18-5.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사교육의 종류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이용한 경험 여부, 월 평균 총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주십시오 (예 : 방문형 학습지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지)

※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이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18-1 보기] 기타 사교육 종류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한글
6. 기타 다른 언어(한자, 일본어 등)
7.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8. 종합교과
9. 기타 (바둑, 웅변 등)

유형	문18-1. 종류	문18-2. 이용시간	18-3. 비대면수업 경험여부	문18-4. 이용비용	문18-5.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방문형 학습지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 )	주 ( )분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 )	주 ( )분			
4. 개인 및 그룹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 )	주 ( )분	1. 있음 2. 없음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주 ( )분		월 총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 )	주 ( )분			
	( )	주 ( )분			

문19. [현재 이용하는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2.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3.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4.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5.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부모용 지도서 등의 포함)
6.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7.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8.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9.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0. 기타 ( )

※ Ⅱ-4와 5의 학원 및 기타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

문20. 현재 자녀를 위해 이용하시는 사교육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2	3	4	5
전혀 부담안됨				매우 부담됨

문20-1. [문20에서 부담된다(4,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8. 아이가 원해서 9. 기타( )

문20-2. [문20에서 부담된다(4,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비가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사교육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주된 분야 순으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독서논술, 한자, 일본어 등)
6. 수학 관련 (수, 주산 등)
7. 과학 관련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
8. 기타 (바둑, 웅변 등)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귀하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안내된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초등1학년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가구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 **대　　상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추출된 초등1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약 1,900여 가구로, 가계 지출과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입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의 가구는 임의 추출된 조사구에 속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를 완료하기까지는 평균 40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가구내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60분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지속적 조사 참여에 관한 안내 :**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계 지출 변화와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4년째 수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도까지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조사에 이어 내년도에도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조사 전 사전 연락 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십시오.
- **참 여 기 간 :** 조사는 5~7월 중에 실시되며, 2021년도에는 본조사 1회 참여가 요구됩니다.
- **장　　소 :** 귀하가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시면,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 본 조사의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 귀하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영유아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세한 가계 지출액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응답 도중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사례비 지급, 응답자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는 개인 식별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 통제 변수로써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되며 이후 파쇄기를 통해 폐기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시건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으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응답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 문의 :**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참여 동의서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개인정보 제외)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통계 처리 후 익명화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 명	동의합니다	날짜	확인
		2021. .	(서명/인)

조사원	성명		날짜		확인	(서명/인)

※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 ☎ 02-398-7783)

부록 2.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부표 2-1〉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일련번호	성별	연령대	계층	맞벌이여부	자녀현황	대상
면담 1-A	여	30대	차상위	외벌이	1명	영아자녀가 있는 차상위 미취업모
면담 1-B	여	20대	차상위	외벌이	1명	
면담 1-C	여	30대	차상위	외벌이	2명	
면담 2-A	여	30대	기초	맞벌이	1명	유아자녀가 있는 기초생보 취업모
면담 2-B	여	30대	기초	맞벌이	1명	
면담 3-A	여	30대	기초	맞벌이	1명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초생보 가구
면담 3-B	여	30대	기초	맞벌이	2명	
면담 3-C	여	40대	기초	외벌이	1명	
면담 3-D	여	30대	기초	외벌이	1명	
면담 4-A	여	30대	차상위	외벌이	1명	유아자녀가 있는 차상위 미취업모
면담 4-B	여	40대	차상위	외벌이	1명	
면담 4-C	여	40대	차상위	외벌이	1명	

부록 3. 부표

〈부표 3-1〉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노동자/가구 대상 비용 지원 (2021년 6월 기준)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서울	근로자(운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서울	일반(연령)	비대면 학습지원	청소년(만13~15세)	중학생 1인당 15만원
서울	일반(연령)	통신비 지원	청소년(만16~18세), 청년(만18~3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감면
서울	일반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최대 75만원)
서울	일반(연령)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
서울	일반(취약계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 및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1회 한시(가구규모별)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서울	근로자(취약)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 - 6~6.6만원/1일
서울	일반(청년)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미취업 구직희망자 (만18~34세)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서울	근로자(취약)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1차에서 지원받은 대상은 50만원 추가지원 - 1차에 미신청한 대상은 50만원 3개월 지원
부산	근로자(예술)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예술인	1인당 50만원
부산	근로자(취약)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1인당 최대 23만원 (진료비 3만원+보상비 20만원)
대구	일반(취약계층)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 긴급복지: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 자가격리자 - 코로나19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생필품지원: 일시적 생계위기가구	- 긴급복지: 35,000가구 351억원 - 자가격리자: 10,000가구, 100억원 - 코로나19 취약계층: 경로무료급식소 대체급식 지원, 쪽방생활인 생필품, 생계형 일자리지원 등 - 생필품지원: 생필품 3만원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인천	근로자(예술)	긴급재난지원금(예술인)	예술인	1인당 50만원
인천	근로자(운수)	긴급재난지원금(법인택시)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인천	근로자(운수)	긴급재난지원금(전세버스 회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광주	일반(취약계층)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1회)
광주	근로자(운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광주	근로자(운수)	어린이집 통학차량(개인지입) 운전자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광주	근로자(운수)	일반(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광주	근로자(예술)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예술인	1인당 50만원
광주	근로자(취약)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으로 급여 미지급 비정규직	1인당 150만원
울산	일반(재난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울산시민	세대별 10만원
울산	일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자가격리자	즉석밥,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등
울산	일반(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 저소득 장애인 생필품 전달 행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에 필요한 칫솔, 치약, 물티슈, 라면 등 12종의 생필품
세종	근로자(예술)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문화예술인	
세종	일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 기관 근로자가 아닌 격리자이며 가구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경기	일반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 생애최초충전자: 20만원 이상 충전하면 최대 7만원 지원(5만원 소비지원금, 2만원 인센티브) - 기존사용자: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최대 7만원 지원(5만원 소비지원금, 2만원 인센티브)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경기	일반(취약계층)	경기 극저신용대출	- 심사대출: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 - 생계형 위기자 대출: 만 19세 이상 저신용자&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자, 노역중인 경기도민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저신용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인 경기도민	5년 만기 일시 상황 연 1% 저금리 신용대출 - 심사대출: 300만원 한도 - 생계형 위기자 대출: 300만원 한도 - 신용위기 청년대출: 300만원 한도
경기	일반(재난지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경기	일반(취약계층)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 푸드마켓, 복지관 - 노숙인시설	- 푸드마켓, 복지관: 기부받은 물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지원 -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그냥드림 냉장고 설치 및 운영, 노숙인 대상 음식쿠폰 제공
경기	근로자(취약)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자가격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자 1인당 23만원(1회)
충남	근로자(운수)	충남 재난지원금(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지원)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전북	일반(재난지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전라북도민	1인당 10만원
전북	일반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1인당 1,000만원 장례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전남	근로자(운수)	전세버스기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전남	근로자(운수)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전남	근로자(예술)	예술인	예술인	1인당 50만원
경북	근로자(운수)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경상북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경북	일반(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등)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최장 6개월까지 지원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경북	일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자가격리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1개월분(1개월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경북	근로자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진·방역인력 특례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진 및 방역 인력	- 서비스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요금의 80~100% 할인 - 적용시간: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 납부 후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경북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서비스요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 적용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 납부 후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경남	일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자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마다 1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5천원 단위, 최대 3만원)
경남	근로자(취약)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경남	일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생수, 부식, 응급의약품 등 재해구호물품(가가격리 해제일까지)
경남	일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유족 장례비용: 사망자 1명당 1천만원(정액 지급) - 전파방지 조치비용: 사망자 1명당 3백만원 이내

시도	구분	사업	대상	내용
경남	일반(연령)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경남 청년 드림카드)	만18~34세 경상남도 거주,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상태의 구직희망청년	- 사회진입활동비용: 매월50만원씩 4개월 총 200만원 - 취업성공금: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중단할 경우)
경남	근로자(운수)	코로나19 대응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경남	근로자(예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예술인	1인당 50만원

주: 일반지원에는 해당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령),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일반(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시도민 전체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일반(재난지원금)으로 분류하였다. 근로자에는 대상에 따라 예술인 대상인 근로자(예술), 운수업 종사자 근로자(운수), 비정규직, 프리랜서, 실직자, 특수고용형태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취약),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기타)로 분류함.

자료: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인출일: 2021. 6. 11.).
3) 대구광역시(2021).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
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예술인),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900 (인출일: 2021. 6. 11.).
5)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법인택시),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898 (인출일: 2021. 6. 11.).
6)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전세버스 회사),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899 (인출일: 2021. 6. 11.).
7)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gwangju.go.kr/c19/contentsView.do?pageId=corona3 (인출일: 2021. 6. 11.).
8)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보건/건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ulsan.go.kr/u/health/contents.ulsan?mId=001002002001000000 (인출일: 2021. 6. 11.).
9) CNBNEWS(2021. 3. 10.). 울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2767 (인출일: 2021. 6. 11.).
10) 아시아뉴스통신(2021. 5. 20.). 울산시, 사회공헌 협약기업 20개사 공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필품'전달,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420230 (인출일: 2021. 6. 11.).
11) 세종특별광역시 홈페이지,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종합지원대책, https://www.sejong.go.kr/covid19/sub01_0901.do (인출일: 2021. 6. 11.).
12)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 소식, 코로나19,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받으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2763487&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인출일: 2021. 6. 12.).
13)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 공지사항,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안내, https://ggwf.gg.go.kr/archives/51521 (인출일: 2021. 6. 12.).
14)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공정경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모든 것,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28833&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6 (인출일: 2021. 6. 12.).
15)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공정경기, 생계 위기자 지원방안!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378870&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인출일: 2021. 6. 12.).
16)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희망경기, 취약노동자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6929640&menuId=1537 (인출일: 2021. 6. 12.).

17) 충청남도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지원, 충남 재난지원금, http://www.chungnam.go.kr/corona/post_corona23.html (인출일: 2021. 6. 12.).
18) 전라북도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현황, 보도자료, 全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06&menuCd=DOM_00000011000900 0000&paging=ok&startPage=2&dataSid=541864 (인출일: 2021. 6. 12.).
19) 전라북도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현황, 보도자료, 전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06&menuCd=DOM_000000110 009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547893 (인출일: 2021. 6. 12.).
20) 전라남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민복지,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504151000 (인출일: 2021. 6. 12.).
21)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경상북도), https://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10.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22)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등), https://www.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4_1.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23)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https://www.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2_1.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24)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진·방역인력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dept_code=&dept_name=&BD_CODE=wel_notice&bdName=&cmd=2&Start=0&B_NUM=74329801&B_STEP=74329800&B_LEVEL=0&key=0&word=&p1=0&p2=0&V_NUM=2590 (인출일: 2021. 6. 13.).
25)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BD_CODE=bbs_gongji&cmd=2&B_NUM=74330001&B_STEP=74330000&V_NUM=) (인출일: 2021. 6. 13.).
26)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일반도민,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 (인출일: 2021. 6. 13.).
27)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청년,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1 (인출일: 2021. 6. 13.).
28)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소상공인,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2 (인출일: 2021. 6. 13.).
29)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문화예술인,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3 (인출일: 2021. 6. 13.).

〈부표 3-2〉 영유아 예방접종

예방접종명	필수	국가	기타	접종시기 및 접종 횟수	어린이 대상 여부
디프테리아(Td)/파상풍/백일해	O	O	O	생후 2, 4, 6개월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이후 매 10년마다 Td백신 접종	모든 영유아
폴리오	O	O	O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권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모든 영유아
홍역	O	O		소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총 2회)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결핵	O	O	O	생후 4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1회 접종	생후 4주 이내 모든 신생아
B형간염	O	O	O	접종시기: 생후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모든 신생아 및 영아
수두	O	O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모든 영유아
일본뇌염	O	O	O	1) 불활성화 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추가접종: 만 6세, 만 12세에 각각 1회 접종) 2) 약독화 생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 1차 접종 12개월 뒤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생후 12~23개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O	O	O	정기접종: 생후 2, 4, 6개월에 기초접종 및 생후 12~15개월에 추가접종(총 4회 접종) 따라잡기 접종: 7개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한 경우 시작 연령에 따라 1~3회 접종 * 고위험군 접종방법 별도	생후 2~59개월 소아 소아기에 Hib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 5세 이상의 소아청소년 및 성인

예방접종명	필수	국가	기타	접종시기 및 접종 횟수	어린이 대상 여부
폐렴구균	O	O		(1)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59개월 소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 생후 7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할 경우 시작연령 및 백신 종류에 따라 1~3회 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2) 다당 백신(23가) - 비장적출술, 면역억제치료,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 예정된 소아는 수술이나 치료 시작 전 최소 2주까지는 접종 완료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면역기능 저하 상태의 소아청소년(2세 이상)	(1)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생후 2개월~59개월 모든 소아; 5세 미만에 접종을 받지 않은 5세 이상의 고위험군; 면역저하,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에 있는 6~18세 소아청소년) (2) 다당 백신(23가): 2세 이상 고위험군인 소아청소년과 성인
인플루엔자	O	O		•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소아: 1~2회* 근육주사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 1회 접종 근육주사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접종 횟수 다름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2)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A형간염	O	O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2차 접종	12~23개월의 모든 소아 ※ 과거 A형간염을 진단받은 이력이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권고됨

예방접종명	필수	국가	기타	접종시기 및 접종 횟수	어린이 대상 여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O	O	O	1) 가다실(4가) - 만 9~13세 연령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만 14~26세 이상 연령에서 첫 접종시 0, 2,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2) 서바릭스(2가) - 만 9~14세 연령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만 15~25세 연령에서 첫 접종시 0, 1,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3) 가다실(9가) - 만 9~14세 연령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만 15~26세 연령에서 첫 접종시 0, 2,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단, 2회 접종으로 종료되는 연령(백신별 상이)에 접종을 시작한 경우, 2차 접종이 지연되더라도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에는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	만 9~13세, 만 14~26세
장티푸스	O	O		1) 불활성화 백신: 만 5세 이상에서 1회 접종 *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2) 경구용 생백신: 만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 ※ 위험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3년마다 추가접종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 권장
신증후군출혈	O	O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즉, 0, 1, 13개월 일정으로 3회에 걸쳐 접종)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 권장
로타바이러스(RV)			O	로타텍: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 로타릭스: 생후 2, 4개월에 2회 접종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음 (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 여부 결정)
대상포진(HZV)			O	60세 이상 성인에서 1회 접종 ※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최소 6~12개월이 경과한 후 접종하는 것을 권장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음 (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 여부 결정)

자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길잡이,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인출일: 2021. 11. 1.).

〈부표 3-3〉 저소득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지자체)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가정용 상수도 10톤 사용료 감면 - 수급자(의료, 생계) : 10,840원 - 다자녀, 장애인(1~3급), 차상위 수급자(주거, 교육): 월 7,020원	월	감면	- 지원 근거 원주시수도급수조례 - 지원 목적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국립초의 다자녀가정 학생 제외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	수시	감면	-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4조의 2 - 지원 목적 교육격차 완화하고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월	현장지급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 지원 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복지 증진
아동급식확대지원 (방학중)[2]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방학중 중식지원 (1식 5,000원)	월	실물바우처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 지원 목적 방학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중식 제공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중증 및 경증 등록장애인		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범위 복지신문 보급	월	현물지급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지원 목적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3]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년	기타(현금, 현물지원)	- 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도비 장애수당[4]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1인당 매월 4만원 지급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중 - 결식우려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1식 4,500원(연95일) 지원	수시	현물지급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 지원 목적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대상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1회	현금대여(융자)	- 지원 근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조례 - 지원 목적 주거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6]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지원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	년	현금지급	- 지원목적 생활안정 도모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당 분기지원 다인가구 월 120리터, 1인가구 월60리터	분기	현물지급	- 지원 근거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 지원 목적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		1인 분기당 3만원 교통비 지원	분기	현금지급	- 지원 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목적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입주 보증금 중고등학교 학자금	무이자 1천만원 이하 융자	1회성	현금대여(융자)	- 지원 근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조례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창업 및 전세 학자금 융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 지원[8]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가정형태의 주거 환경 제공	분기	시설입소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 59조 및 시행령 제 54조 - 지원 목적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 아동 및 시설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2만원씩 연 4만원 지급	1회성	현금지급	- 지원 근거 강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목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로금 지급
장애인 재활수당[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의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본인대상 월 3만원 지급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 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지원 근거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 2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11]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워레 '주택' 및 '고시원'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1억 1천)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등은 제외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월	현금지급(주택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12]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명절 위문금품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년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지원 근거 당진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아동청소년 급식지원(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비)[13]	수급자 가족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초·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월	기타, 전자바우처	- 지원 목적 결식아동 급식지원 -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아동급식지원사업	-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도 지원	수급자 가족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초·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주	현물지급	- 지원 목적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 3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항
MH마포하우징사업[14]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사유로 인하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수시	기타,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년	현금지급	- 지원목적 기초수급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계획[15]	폐광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 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우 소요수급공사비의 100% -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급수공사비의 80%	개인수급공사비 지원			- 지원 목적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근거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국가유공자 지원[16]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월8만원 - 참전수당: 월10만원 - 설,추석 위문금품 각 2만원 -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 지원 근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1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대학격려금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에 입한한 경우 - 학원비: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자립정착금: 만 18세이상 중 보호중지 결정된 경우	자립정착금,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대학격려금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 59조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추가조건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아동 및 가정상황에 따라 하루 초·중·석식 중 1~3식 지원	월	기타	- 지원 목적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선장 도모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 35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결식자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주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 기본적인 생활 보장 - 지원 근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 2021. 10. 26.).
2) 청주시 홈페이지, 가족/복지, 아동/어린이 급식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335 (인출일: 2021. 10. 26.).
3)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민 복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5&bIdx=81688&page=1&menuId=1881&bcIdx=0 (인출일: 2021. 10. 26.).
4)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민 복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5&bIdx=81688&page=1&menuId=1881&bcIdx=0 (인출일: 2021. 10. 26.).
5)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시교통국 자료실, 201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6006010004&boardId=BBS_0000310&dataSid=131390 (인출일: 2021. 10. 26.).
6)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민 복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5&bIdx=81689&page=1&menuId=1881&bcIdx=0 (인출일: 2021. 10. 26.).
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900106236004 (인출일: 2021. 10. 26.).
8)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https://www.busan.go.kr/womanfamily/instcare02 (인출일: 2021. 10. 26.).
9)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연금(수당), https://www.busan.go.kr/welfare/ahdisperpension (인출일: 2021. 10. 26.).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6790122269002 (인출일: 2021. 10. 26.).
1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주거복지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인출일: 2021. 10. 26.).
1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70110240004 (인출일: 2021. 10. 26.).
1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70110240004

(인출일: 2021. 10. 26.).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14191 (인출일: 2021. 10. 26.).
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80110325004 (인출일: 2021. 10. 26.).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D%98%EC%99%95%EC%8B%9C%20%EA%B5%AD%EA%B0%80%EB%B3%B4%ED%9B%88%EB%8C%80%EC%83%81%EC%9E%90%20%EB%93%B1%20%EC%98%88%EC%9A%B0%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인출일: 2021. 10. 26.).
17)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포털사이트,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life/youth.jsp (인출일: 2021. 10. 26.).

〈부표 3-4〉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중앙)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초등학생 재학 아동 포함)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다문화가정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발달 도움 - 지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 가정당 연 60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년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가족 돌봄 문화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지원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제 1항
만0세-5세 보육료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관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재원중인 아동,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 (2021 보육사업 안내 아동 등 (2021보육사업 안내 P.348 참조)	연령별로 나누어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추가보육료 지원	월	전자바우처	- 지원 목적 보육료 지원하고 양육부담 덜고 가정경제에 도움 - 지원 근거 영유아보육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액 전액 무료 지원	수시	기타,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국가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3]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국내입양 활성화 - 지원 근거 입양특례법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4]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처음 접종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수시	기타	- 지원 목적 어르신, 임산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 - 지원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달재활 서비스[5]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지원
다문화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연령별로 나누어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추가보육료 지원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원 근거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아동수당지급[6]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 지원 근거 아동수당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0~2세 연장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등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 도움 - 지원 근거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7]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임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74,000원 중 매월 290,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	월		- 지원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때 입소이용료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을 만 18세까지 지원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건강한 양육 - 지원 근거 입양특례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을 모두 갖춘 사람 -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절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지원	수시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8]	- 정밀검진 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다문화가정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 등 취약 어린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아동 시각장애의 사전예방 - 지원 근거 모자보건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등 예외적 지원사유 존재 (2021년 보육사업안내 p360 참조)	- 장애아반 편성아동, 만 3~5세 누리반 아동은 502,000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월	전자바우처	- 지원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받고있는 유아,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가 되는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교육비, 보육비, 방과후과정비 지급	월	전자바우처	- 지원 목적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실현 - 지원 근거 유아교육법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9]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를 지원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등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영유아보육법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10]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에게 지원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 조성 - 지원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1~ 참조)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수시	기타	- 지원 목적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 2021. 10. 26.).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 서비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5&PAGE=5&topTitle=%EC%84%9C%EB%B9%84%EC%8A%A4 (인출일: 2021. 10. 26.).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정책, 입양,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5&PAGE=5&topTitle=%EC%9E%85%EC%96%91 (인출일: 2021. 10. 26.).
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인출일: 2021. 10. 26.).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1 (인출일: 2021. 10. 26.).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정책, 아동수당 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EC%95%84%EB%8F%99%EC%88%98%EB%8B%B9%20%EC%A7%80%EA%B8%89 (인출일: 2021. 10. 26.).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 서비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5&PAGE=5&topTitle=%EC%84%9C%EB%B9%84%EC%8A%A4 (인출일: 2021. 10. 26.).
8)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1&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9)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0&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10)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8&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부표 3-5〉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중앙)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반기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일반 전세임대주택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 -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청년 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임대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도심 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 - 지원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 신혼부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호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지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구당 80만원을 지급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경증장애수당지급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도움 - 지원 근거 장애인 복지법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가정이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서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도 지원			- 기본 매칭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 -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이동통신요금 감면[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지원 대상별로 통화료 감면지원	월	감면	- 지원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 - 지원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급식비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등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월	현물지급	- 지원 목적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 근거 학교급식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3]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자부터 적용)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암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	수시	현금지급	- 지원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 - 지원 근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평생교육 바우처[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에게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	년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지원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비지원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맞춤법 ㄱ너강진단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업인안전 보험[5]	만 15~87세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 지급	1회성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 - 지원 근거 농어업인의 안전 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6]	저소득계층 중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수급권자가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1종)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하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년	현물지급	- 지원 목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지원 근거 국가 정보화 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의료급여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1종 수급권자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	년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보조기기 34종 품목을 지원	년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7]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기초새오할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345,000 지급 등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 - 지원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 1종: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년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지급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년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 -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의료급여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함 - 지원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학교 재학중인 중2~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매월 25~45만원 장학금 지원(장학금 카드)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 - 지원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고나한 법률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어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의 중위소득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의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 제공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 지원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8]	만 12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등			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선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출산일이 21.5.22 이후부터)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1회성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근거 모자보건법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등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암환자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	- 소아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자 - 성인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이력을 확인하여 지원		암 진단 관련 의료비,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중리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 향상 - 지원 근거 암관리법
학교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등			대상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으로 우유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성장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만 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 인공관절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	1회성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 -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	1회성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치아건강 증진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등 저소득가정, 차상위 계층 등은 우선지원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	년	현물지급	-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지원 근거 발달짱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출산한 경우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	수시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맞춤형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30세 미만의 한무보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월	현금지급	-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9]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단열 공사, 창소 공사, 바닥 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소	년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 - 지원 근거 에너지법
노인 안검진 및 개인수술	-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 개안수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 안질환자 우선 지원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안과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 - 지원 근거 노인 복지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고교 학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등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	분기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 -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법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 독거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등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등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응급상왕 발생시 신속한 대처, 소방서 신고체계 구축 -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증발급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취약 가구(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발급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지원	년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새오할보장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을 ㅗ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0% 지원	1회성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 - 지원 근거 모자보건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 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숙브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	1회성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임 - 지원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고나한 법률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 기ㅗ간에서 '의료급여 신청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고나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는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 특례 적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지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틀르 지원	반기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의료급여 (의료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입양아동 등)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급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			본인 저축액 적립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생활 안정 도모, 자립자금 저축,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지원	복지용 쌀의 할인 지원	월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 지원 근거 양곡관리법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	여름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중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년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보조 - 지원 근거 에너지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비용 실비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년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 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지원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유형,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이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19~39세 1순위: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곡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 지원 등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청년희망키움통장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등	수시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근거 의료급여법
통합문화 이용권[11]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활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	년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활동을 지원 - 지원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풍수해보험료 지원[12]	주택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료 상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년	감면	- 지원 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d하게 보상 - 지원 근거 풍수해보험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에도 지원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 - 지원 근거 전기사업법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 지원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 - 지원 근거 영유아보건법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 2021. 10. 26.).
2)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6.).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인출일: 2021. 10. 26.).
4)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guide/bizVcUser.do (인출일: 2021. 10. 26.).
5)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https://www.nhlife.co.kr/ho/ig/HOIG0001M00.nhl?prodCd=N0000847 (인출일: 2021. 10. 26.).
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8&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7)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9&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8)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3&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9)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37840ebcd7004927bbb095d0a1dd58d6 (인출일: 2021. 10. 26.).
10)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2&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11) 문화누리 홈페이지, 20201 카드 발급안내, https://www.mnuri.kr/munhwa/cardIssueGuide.do (인출일: 2021. 10. 26.).
1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인출일: 2021. 10. 26.).

〈부표 3-6〉 한부모 및 조손 가구 지원 정책(중앙)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사업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일반 전세임대주택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 -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청년 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I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임대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도심 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 - 지원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호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급식비	아동(청소년)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등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	월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 근거 학교급식법
어촌생활돌봄 지원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임산부 및 술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설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만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사, 세탁, 청소 등 가가서비스 제공			- 지원 목적 어촌 지역의 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움 - 지원 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하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년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지원 근거 국가 정보화 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2]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 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사(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생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양육비를 ㅂ다지 못해 어려움을 겪꼬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학교 재학중인 중2~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매월 25~45만원 장학금 지원(장학금 카드)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 - 지원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고나한 법률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주기	제공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학교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등			대상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으로 우유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수시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성장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만 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 -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3]	정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고등학교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	월	기타	- 지원 목적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 -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인수술	-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지원 - 개안수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 안질환자 우선 지원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1회성	현물지급	- 지원 목적 안과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 - 지원 근거 노인 복지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용품비 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고교 학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등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	분기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 -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법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 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병원비 지원 분유, 기저귀, 내의 등 지원 상담,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학습·정서지원 등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 지원 목적 취약·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4]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적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족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 -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지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틀르 지원	반기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및 내일카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			본인 저축액 적립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	월	현금 지급	- 지원 목적 생활 안정 도모, 자립자금 저축,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 -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세~24개월)에게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등			구매비용을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대상 주거 지원	수시	시설 입소	-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거를 지원 -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지원 연령 만 5~18세 유,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월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 스포츠 활동 기회 보장
양곡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지원	복지용 쌀의 할인 지원	월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 지원 근거 양곡관리법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	여름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중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년	전자 바우처	- 지원 목적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보조 - 지원 근거 에너지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유형,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이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곡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	수시	현물 지급	- 지원 목적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주기	제공 유형	지원근거 및 지원목적
	연령 및 자격	가구소득기준	추가조건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19~39세 1순위: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료: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 2021. 10. 26.).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0C11/contents.do (인출일: 2021. 10. 26.).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인출일: 2021. 10. 26.).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0 (인출일: 2021. 10. 26.).
5)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2&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부표 3-7〉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의 코로나19 대응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지원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서울	집콕 놀이	256,825
부산	안전나라 여행	집콕놀이 보따리
세종	재미있는 놀이	유아생태놀이 프로그램
대구	진흥원 놀이터	놀이꾸러미 4종
인천	방콕놀이, 오늘은 뭐 먹을까, 책읽어주는 엄마	방콕 꾸러미
광주	빛고을, e-놀이터, 온라인 나눔밴드	북 드라이브 스루, 놀이감 드라이브 스루, 집콕 놀이 꾸러미, 희망씨앗 및 건강 3종세트
대전	집콕놀이	교육자료 대여서비스
울산	뭐하고 놀지	놀이보따리 책보따리
경기	해아뜰 놀이자료	놀이마켓 서비스, 해아뜰드림 놀잇감
강원	오늘뭐해? 집에서 놀이해 등	
충북	신나게 놀자	교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충남	집안도서관, 집안놀이터, 집안 공부방	
전북	애들아 마음껏 놀자, 아이 숲 좋아	유아놀이 교재교구 대여서비스
전남	재미팡, 놀이팡	재미주리 옛놀이
경북	놀이활동코너, 교재도서 대여 서비스 등	
경남	가정학습 자료 지원	도서 대여 및 놀이자료 택배 서비스 등
제주	가정에서 놀아요, 와글와글 놀아샘의 놀이자료	도서, 가족놀이 지원

자료: i-누리 포털사이트, 도움누리, 코로나19 대응 가정연계놀이,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 2021. 10. 25.).

부록 4. KICCE 소비실태조사 부표

〈부표 4-1〉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1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코로나 지원금	사적이전 소득	기타 소득	(수)
전체		431.7	11.1	21.6	13.6	5.0	5.5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1.5	5.0	21.6	14.1	4.6	4.6	(837)
	외벌이	370.8	15.7	21.6	13.2	5.3	6.2	(1,0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21.7	1.4	24.3	4.9	1.4	0.7	(221)
	300~399만원 이하	322.8	0.4	19.4	8.4	2.0	2.6	(525)
	400~499만원 이하	413.5	2.2	18.6	11.9	2.2	1.7	(501)
	500~599만원 이하	502.0	6.1	21.3	13.5	4.8	2.3	(343)
	600만원 이상	690.3	51.6	27.8	29.5	16.2	21.9	(343)
총 자녀수	1명	413.1	4.7	16.7	10.3	6.4	4.5	(625)
	2명	445.0	15.3	21.5	12.5	3.4	5.4	(1,022)
	3명이상	424.9	10.1	32.7	24.6	7.7	8.3	(286)
지역규모	대도시	439.7	22.0	20.7	6.8	7.7	6.2	(764)
	중소도시	434.7	3.7	21.7	21.4	3.1	6.3	(886)
	읍면지역	401.0	4.6	23.5	7.4	3.7	1.3	(28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전체		33.8	57.7	58.8	69.2	29.5	52.0	63.0	74.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5	58.9	60.0	77.2	31.0	53.2	64.2	85.0
	외벌이	32.3	56.7	57.8	63.0	28.2	51.1	62.1	67.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7	48.9	54.2	66.8	29.2	44.7	57.6	71.0
	300~399만원 이하	31.5	58.9	57.7	65.0	27.6	53.6	62.1	69.1
	400~499만원 이하	35.3	59.5	63.0	67.6	30.6	51.9	66.3	72.6
	500~599만원 이하	34.7	57.2	58.2	75.1	30.0	52.1	64.2	83.7
	600만원 이상	35.6	60.8	56.4	73.2	31.5	55.9	60.2	80.2
총 자녀수	1명	24.1	40.0	51.2	60.1	24.1	42.0	54.3	64.6
	2명	37.8	62.2	61.4	71.4	31.8	54.0	65.6	76.9
	3명이상	48.8	84.9	66.4	80.7	37.5	68.6	72.4	88.6

주: 1) 전체 자녀의 공적이전소득 합산. 모든 공적 이전 소득(7개)를 한꺼번에 합산
2) 1차년도는 1회 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는 월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고, 3차년도는 유형별로 월평균 금액을 자녀별로 나눈 금액을 조사하였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				영유아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3,237)	100.0 (2,277)	100.0 (2,333)	100.0 (2,369)	100.0 (2,4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8 (1,024)	43.4 (1,205)	43.1 (1,412)	42.0 (1,361)	44.8 (1,020)	43.0 (1,002)	42.6 (1,010)	41.2 (992)
	외벌이	55.2 (1,253)	56.6 (1,571)	56.9 (1,866)	58.0 (1,876)	55.2 (1,257)	57.0 (1,331)	57.4 (1,359)	58.8 (1,41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9 (499)	13.3 (369)	6.7 (218)	10.8 (348)	22.2 (505)	12.9 (301)	6.4 (152)	11.3 (271)
	300~399만원 이하	28.4 (646)	28.9 (803)	21.0 (687)	26.5 (857)	28.5 (648)	28.8 (672)	21.5 (509)	27.6 (663)
	400~499만원 이하	23.2 (528)	26.7 (741)	30.7 (1,007)	26.5 (858)	23.1 (527)	27.3 (638)	31.2 (740)	26.3 (632)
	500~599만원 이하	11.9 (270)	15.3 (424)	18.7 (613)	18.0 (582)	11.8 (269)	15.5 (363)	18.1 (429)	17.6 (424)
	600만원 이상	14.7 (334)	15.8 (439)	23.0 (753)	18.3 (592)	14.4 (327)	15.4 (360)	22.8 (539)	17.3 (415)
총 자녀수	1명	28.0 (638)	23.8 (660)	22.1 (725)	19.3 (625)	28.4 (647)	24.0 (560)	22.6 (534)	22.9 (551)
	2명	56.5 (1,286)	58.3 (1,618)	58.1 (1,905)	58.9 (1,908)	56.1 (1,278)	58.3 (1,361)	58.4 (1,384)	57.6 (1,386)
	3명이상	15.5 (353)	17.9 (498)	19.8 (648)	21.7 (704)	15.5 (352)	17.6 (412)	19.0 (450)	19.5 (468)
지역 규모	대도시	40.5 (923)	40.0 (1,110)	40.3 (1,320)	39.7 (1,285)	39.9 (908)	39.4 (920)	40.8 (967)	39.9 (959)
	중소도시	42.7 (973)	43.6 (1,210)	43.8 (1,437)	45.2 (1,464)	42.9 (976)	43.4 (1,013)	44.2 (1,047)	44.8 (1,078)
	읍면지역	16.7 (381)	16.4 (456)	15.9 (521)	15.1 (488)	17.3 (393)	17.1 (400)	15.0 (355)	15.3 (36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부, 2021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6.7	93.3	100.0(1,889)	2.8	97.2	100.0(1,889)	1.6	98.4	100.0(1,88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9	94.1	100.0(837)	3.8	96.2	100.0(837)	2.3	97.7	100.0(837)
	외벌이	7.3	92.7	100.0(1,052)	1.9	98.1	100.0(1,052)	1.1	98.9	100.0(1,052)
	χ^2	1.607			6.433*			3.68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2	93.8	100.0(193)	2.1	97.9	100.0(193)	2.1	97.9	100.0(193)
	300~399만원 이하	8.3	91.7	100.0(521)	2.9	97.1	100.0(521)	1.5	98.5	100.0(521)
	400~499만원 이하	5.3	94.7	100.0(495)	2.4	97.6	100.0(495)	1.4	98.6	100.0(495)
	500~599만원 이하	5.6	94.4	100.0(340)	2.4	97.6	100.0(340)	1.2	98.8	100.0(340)
	600만원 이상	7.6	92.4	100.0(340)	3.8	96.2	100.0(340)	2.4	97.6	100.0(340)
	χ^2	4.920			2.223			1.939		
총 자녀수	1명	6.1	93.9	100.0(605)	3.1	96.9	100.0(605)	1.7	98.3	100.0(605)
	2명	7.2	92.8	100.0(1,005)	2.0	98.0	100.0(1,005)	1.6	98.4	100.0(1,005)
	3명이상	6.1	93.9	100.0(279)	4.7	95.3	100.0(279)	1.8	98.2	100.0(279)
	χ^2	0.842			6.313*			0.055		
지역 규모	대도시	5.4	94.6	100.0(747)	2.5	97.5	100.0(747)	1.9	98.1	100.0(747)
	중소도시	6.6	93.4	100.0(867)	2.5	97.5	100.0(867)	1.2	98.8	100.0(867)
	읍면지역	10.5	89.5	100.0(275)	4.0	96.0	100.0(275)	2.5	97.5	100.0(275)
	χ^2	8.723*			1.870			2.9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4-5〉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모, 2021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3.6	86.4	100.0 (861)	18.6	81.4	100.0 (861)	6.7	93.3	100.0 (86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9	86.1	100.0 (837)	18.9	81.1	100.0 (837)	6.9	93.1	100.0 (837)
	외벌이	4.2	95.8	100.0 (24)	8.3	91.7	100.0 (24)	0.0	100.0	100.0 (24)
	χ^2	1.867			1.714			1.78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7.2	82.8	100.0 (58)	25.9	74.1	100.0 (58)	3.4	96.6	100.0 (58)
	300~399만원 이하	11.6	88.4	100.0 (112)	25.0	75.0	100.0 (112)	4.5	95.5	100.0 (112)
	400~499만원 이하	10.3	89.7	100.0 (203)	18.2	81.8	100.0 (203)	5.9	94.1	100.0 (203)
	500~599만원 이하	14.8	85.2	100.0 (230)	17.0	83.0	100.0 (230)	6.5	93.5	100.0 (230)
	600만원 이상	15.1	84.9	100.0 (258)	15.9	84.1	100.0 (258)	9.3	90.7	100.0 (258)
	χ^2	3.645			6.734			4.859		
총 자녀수	1명	15.4	84.6	100.0 (285)	21.8	78.2	100.0 (285)	8.4	91.6	100.0 (285)
	2명	12.8	87.2	100.0 (461)	16.3	83.7	100.0 (461)	6.1	93.9	100.0 (461)
	3명이상	12.2	87.8	100.0 (115)	20.0	80.0	100.0 (115)	5.2	94.8	100.0 (115)
	χ^2	1.272			3.679			2.032		
지역 규모	대도시	12.2	87.8	100.0 (345)	18.6	81.4	100.0 (345)	7.5	92.5	100.0 (345)
	중소도시	14.9	85.1	100.0 (396)	19.2	80.8	100.0 (396)	6.6	93.4	100.0 (396)
	읍면지역	13.3	86.7	100.0 (120)	16.7	83.3	100.0 (120)	5.0	95.0	100.0 (120)
	χ^2	1.174			0.389			0.94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6〉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부, 2021년)

단위 : %(명)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수)
전체		1.0	99.0	100.0(1,889)	1.9	98.1	5.6	100.0 (3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	98.9	100.0(837)	1.9	98.1	4.8	100.0 (16)
	외벌이	0.9	99.1	100.0(1,052)	1.8	98.2	6.3	100.0 (19)
	x^2/t	0.239			0.029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	97.9	100.0(193)	2.6	97.4	7.4	100.0 (5)
	300~399만원 이하	0.8	99.2	100.0(521)	1.5	98.5	3.0	100.0 (8)
	400~499만원 이하	0.8	99.2	100.0(495)	2.0	98.0	4.0	100.0 (10)
	500~599만원 이하	0.9	99.1	100.0(340)	1.8	98.2	8.2	100.0 (6)
	600만원 이상	0.9	99.1	100.0(340)	1.8	98.2	7.7	100.0 (6)
	x^2/F	2.899			0.972		1.6	
총 자녀수	1명	1.0	99.0	100.0(605)	2.0	98.0	4.3	100.0 (12)
	2명	0.8	99.2	100.0(1,005)	1.8	98.2	5.6	100.0 (18)
	3명이상	1.4	98.6	100.0(279)	1.8	98.2	8.6	100.0 (5)
	x^2/F	0.955			0.084		1.2	
지역 규모	대도시	0.9	99.1	100.0(747)	1.7	98.3	5.8	100.0 (13)
	중소도시	1.0	99.0	100.0(867)	2.1	97.9	5.3	100.0 (18)
	읍면지역	0.7	99.3	100.0(275)	1.5	98.5	6.0	100.0 (4)
	x^2/F	0.217			0.530		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7〉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모, 2021년)

단위 : %(명)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수)
전체		2.1	97.9	100.0 (861)	3.1	96.9	4.7	100.0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	97.8	100.0 (837)	3.2	96.8	4.7	100.0 (27)
	외벌이	0.0	100.0	100.0 (24)	-	-	-	- (0)
	x^2/t	0.527			0.799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7	98.3	100.0 (58)	1.7	98.3	5.0	100.0 (1)
	300~399만원 이하	0.9	99.1	100.0 (112)	0.9	99.1	10.0	100.0 (1)
	400~499만원 이하	3.4	96.6	100.0 (203)	3.4	96.6	3.6	100.0 (7)
	500~599만원 이하	0.9	99.1	100.0 (230)	1.7	98.3	4.8	100.0 (4)
	600만원 이상	2.7	97.3	100.0 (258)	5.4	94.6	4.8	100.0 (14)
	x^2/F	4.815			8.234		0.7	
총 자녀수	1명	2.8	97.2	100.0 (285)	2.1	97.9	4.8	100.0 (6)
	2명	2.2	97.8	100.0 (461)	3.5	96.5	5.0	100.0 (16)
	3명이상	0.0	100.0	100.0 (115)	4.3	95.7	3.4	100.0 (5)
	x^2/F	3.184			1.723		0.4	
지역 규모	대도시	1.7	98.3	100.0 (345)	3.2	96.8	5.2	100.0 (11)
	중소도시	2.8	97.2	100.0 (396)	3.3	96.7	4.4	100.0 (13)
	읍면지역	0.8	99.2	100.0 (120)	2.5	97.5	4.0	100.0 (3)
	x^2/F	2.048			0.191		0.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부, 2021년)

단위 : %(명)

구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전환형시간선택제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1.3	88.7	100.0 (1,889)	4.0	96.0	100.0 (1,889)	2.1	97.9	100.0 (1,889)	3.5	96.5	100.0 (1,889)	0.7	99.3	100.0 (1,88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0	87.0	100.0 (837)	4.4	95.6	100.0 (837)	2.2	97.8	100.0 (837)	3.6	96.4	100.0 (837)	0.7	99.3	100.0 (837)
	외벌이	10.0	90.0	100.0 (1,052)	3.6	96.4	100.0 (1,052)	2.0	98.0	100.0 (1,052)	3.4	96.6	100.0 (1,052)	0.8	99.2	100.0 (1,052)
	χ^2	4.293			0.799			0.055			0.036			0.0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2	94.8	100.0 (193)	2.1	97.9	100.0 (193)	1.0	99.0	100.0 (193)	1.6	98.4	100.0 (193)	1.6	98.4	100.0 (193)
	300~399만원 이하	8.8	91.2	100.0 (521)	2.3	97.7	100.0 (521)	1.2	98.8	100.0 (521)	1.9	98.1	100.0 (521)	0.2	99.8	100.0 (521)
	400~499만원 이하	10.1	89.9	100.0 (495)	4.4	95.6	100.0 (495)	1.6	98.4	100.0 (495)	3.8	96.2	100.0 (495)	0.8	99.2	100.0 (495)
	500~599만원 이하	13.5	86.5	100.0 (340)	4.4	95.6	100.0 (340)	2.6	97.4	100.0 (340)	4.1	95.9	100.0 (340)	0.3	99.7	100.0 (340)
	600만원 이상	18.2	81.8	100.0 (340)	6.5	93.5	100.0 (340)	4.1	95.9	100.0 (340)	5.9	94.1	100.0 (340)	1.5	98.5	100.0 (340)
	χ^2	29.028***			11.661*			11.308*			12.303*			7.284		
총 자녀수	1명	14.5	85.5	100.0 (605)	3.8	96.2	100.0 (605)	2.0	98.0	100.0 (605)	3.8	96.2	100.0 (605)	0.7	99.3	100.0 (605)
	2명	10.1	89.9	100.0 (1,005)	4.1	95.9	100.0 (1,005)	2.4	97.6	100.0 (1,005)	3.4	96.6	100.0 (1,005)	0.8	99.2	100.0 (1,005)
	3명이상	8.6	91.4	100.0 (279)	3.9	96.1	100.0 (279)	1.1	98.9	100.0 (279)	3.2	96.8	100.0 (279)	0.7	99.3	100.0 (279)
	χ^2	9.688**			0.077			1.890			0.266			0.096		
지역 규모	대도시	13.8	86.2	100.0 (747)	4.0	96.0	100.0 (747)	2.5	97.5	100.0 (747)	4.3	95.7	100.0 (747)	0.3	99.7	100.0 (747)
	중소도시	9.9	90.1	100.0 (867)	4.4	95.6	100.0 (867)	2.0	98.0	100.0 (867)	3.1	96.9	100.0 (867)	0.9	99.1	100.0 (867)
	읍면지역	9.1	90.9	100.0 (275)	2.5	97.5	100.0 (275)	1.1	98.9	100.0 (275)	2.5	97.5	100.0 (275)	1.5	98.5	100.0 (275)
	χ^2	7.585*			1.856			2.183			2.487			4.56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4-9〉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모, 2021년)

단위 : %(명)

구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전환형시간선택제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4.5	85.5	100.0 (861)	6.5	93.5	100.0 (861)	2.7	97.3	100.0 (861)	3.3	96.7	100.0 (861)	1.9	98.1	100.0 (86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6	85.4	100.0 (837)	6.6	93.4	100.0 (837)	2.6	97.4	100.0 (837)	3.1	96.9	100.0 (837)	1.9	98.1	100.0 (837)
	외벌이	12.5	87.5	100.0 (24)	4.2	95.8	100.0 (24)	4.2	95.8	100.0 (24)	8.3	91.7	100.0 (24)	0.0	100.0	100.0 (24)
	χ^2	0.081			0.222			0.212			2.026			0.46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9	93.1	100.0 (58)	1.7	98.3	100.0 (58)	3.4	96.6	100.0 (58)	3.4	96.6	100.0 (58)	1.7	98.3	100.0 (58)
	300~399만원 이하	8.0	92.0	100.0 (112)	2.7	97.3	100.0 (112)	3.6	96.4	100.0 (112)	3.6	96.4	100.0 (112)	0.9	99.1	100.0 (112)
	400~499만원 이하	10.8	89.2	100.0 (203)	3.9	96.1	100.0 (203)	2.0	98.0	100.0 (203)	3.0	97.0	100.0 (203)	2.0	98.0	100.0 (203)
	500~599만원 이하	12.6	87.4	100.0 (230)	9.6	90.4	100.0 (230)	1.7	98.3	100.0 (230)	1.7	98.3	100.0 (230)	1.7	98.3	100.0 (230)
	600만원 이상	23.6	76.4	100.0 (258)	8.5	91.5	100.0 (258)	3.5	96.5	100.0 (258)	4.7	95.3	100.0 (258)	2.3	97.7	100.0 (258)
	χ^2	26.710***			12.348*			2.298			3.379			0.919		
총 자녀수	1명	15.1	84.9	100.0 (285)	8.8	91.2	100.0 (285)	2.1	97.9	100.0 (285)	2.8	97.2	100.0 (285)	2.5	97.5	100.0 (285)
	2명	14.8	85.2	100.0 (461)	5.2	94.8	100.0 (461)	3.3	96.7	100.0 (461)	3.3	96.7	100.0 (461)	2.0	98.0	100.0 (461)
	3명이상	12.2	87.8	100.0 (115)	6.1	93.9	100.0 (115)	1.7	98.3	100.0 (115)	4.3	95.7	100.0 (115)	0.0	100.0	100.0 (115)
	χ^2	0.604			3.721			1.337			0.618			2.758		
지역 규모	대도시	17.1	82.9	100.0 (345)	8.1	91.9	100.0 (345)	3.5	96.5	100.0 (345)	3.8	96.2	100.0 (345)	2.3	97.7	100.0 (345)
	중소도시	12.4	87.6	100.0 (396)	6.1	93.9	100.0 (396)	2.3	97.7	100.0 (396)	2.5	97.5	100.0 (396)	1.8	98.2	100.0 (396)
	읍면지역	14.2	85.8	100.0 (120)	3.3	96.7	100.0 (120)	1.7	98.3	100.0 (120)	4.2	95.8	100.0 (120)	0.8	99.2	100.0 (120)
	χ^2	3.334			3.586			1.572			1.276			1.1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부표 4-10〉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표본)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67.6	(100.0)	284.9	(100.0)	282.5	(100.0)	291.6	(100.0)
1.식비(외식비포함)	77.9	(29.9)	80.1	(29.1)	91.0	(33.3)	89.1	(31.6)
1-1.외식비	24.0	(9.0)	25.1	(8.9)	26.6	(9.5)	26.6	(9.3)
3.기기/집기	6.0	(1.9)	7.8	(2.4)	10.5	(3.0)	12.5	(3.4)
4.피복비(의류및신발)	17.5	(6.6)	18.1	(6.4)	18.2	(6.4)	19.0	(6.5)
5.보건/의료비	6.8	(2.6)	8.5	(3.0)	10.8	(3.8)	11.7	(4.0)
6.교육/보육비	39.4	(13.4)	43.2	(14.1)	33.0	(10.6)	38.5	(12.0)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1.0	(11.0)	30.5	(9.9)	21.6	(7.3)	23.9	(7.8)
7-1.가족여행 등	19.0	(6.6)	18.5	(5.8)	10.5	(3.4)	13.3	(4.2)
7-2.관람 체험학습	3.9	(1.5)	4.0	(1.4)	1.2	(0.4)	1.6	(0.5)
7-3.완구	3.8	(1.4)	3.8	(1.3)	4.1	(1.5)	4.2	(1.5)
7-4.도서구매	4.3	(1.5)	4.3	(1.4)	4.9	(1.7)	4.2	(1.4)
8.교통비	25.3	(10.0)	26.6	(9.8)	25.1	(9.2)	24.9	(8.9)
9.통신비	16.4	(6.7)	16.9	(6.4)	17.4	(6.6)	17.0	(6.3)
9-1.휴대전화비	12.0	(4.9)	11.7	(4.4)	12.5	(4.7)	12.6	(4.7)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9)	12.7	(4.7)	13.5	(5.1)	13.7	(5.0)
11-2.보험	34.9	(11.6)	40.5	(14.2)	41.2	(14.7)	41.4	(14.5)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1〉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표본)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299.5	317.3	314.2	322.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0.7	341.3	339.2	349.6
	외벌이	281.4	297.6	294.1	301.7
	t	6.9***	8.1***	9.4***	9.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3.2	239.2	224.8	237.4
	300~399만원 이하	267.9	276.6	266.4	282.0
	400~499만원 이하	321.3	319.8	294.9	315.7
	500~599만원 이하	325.8	357.8	336.8	348.2
	600만원 이상	420.4	416.0	395.2	423.1
	F	168.7***	143.8***	154***	147.4***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4-12〉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1년)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엥겔지수	26.5	26.0	29.8	28.4
슈바베지수	8.7	8.3	8.4	8.0
엔젤지수	29.1	27.9	26.7	26.8

주: 1) 엥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전체 가구)

구분		엥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8.4	8.0	26.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7.2	7.6	27.1
	외벌이	29.3	8.3	26.6
총 자녀수	1명	29.4	8.4	25.6
	2명	27.8	7.9	28.2
	3명이상	28.3	7.3	24.5

주: 1) 엥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4〉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1년, 전체 가구)

구분		엥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2	10.1	27.8
	300~399만원 이하	29.7	8.3	26.5
	400~499만원 이하	29.0	7.8	26.3
	500~599만원 이하	27.6	7.4	27.7
	600만원 이상	25.8	7.1	26.6

주: 1) 엥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5〉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110.6	100.0	120.7	100.0	116.5	100.0	123.1	100.0
(수)	(1,648)	(1,648)	(1,902)	(1,902)	(2,156)	(2,156)	(1,933)	(1,933)
1.식비(외식비포함)	23.5	22.8	25.4	22.7	30.4	27.7	28.6	24.9
1-1.외식비	5.6	5.3	6.3	5.3	7.4	6.6	6.8	5.7
3.기기/집기	2.8	2.1	3.3	2.4	4.1	3.0	5.2	3.2
4.피복비(의류및신발)	8.9	8.7	9.5	8.3	10.1	9.2	10.7	9.3
5.보건/의료비	4.2	4.3	5.0	4.6	6.1	5.5	6.5	5.5
6.교육/보육비	37.7	29.8	42.1	31.0	31.8	23.3	37.2	26.0
7.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8.4	17.1	17.5	14.7	14.0	12.7	15.2	13.1
7-1.가족여행 등	8.5	7.9	8.4	6.9	5.0	4.4	6.1	5.1
7-2.관람 체험학습	2.2	2.0	2.2	1.7	0.7	0.5	1.0	0.7
7-3.완구	3.6	3.6	3.4	3.2	3.9	3.8	4.1	3.9
7-4.도서구매	4.1	3.6	3.6	2.9	4.5	4.0	3.9	3.3
8.교통비	0.6	0.5	0.7	0.5	1.0	0.8	0.8	0.6
9.통신비	0.5	0.3	0.7	0.5	1.2	0.9	0.9	0.6
9-1.휴대전화비	0.4	0.3	0.6	0.4	1.0	0.8	0.8	0.5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0	5.5	5.2	5.3	5.8	6.0	6.1	6.0
11-2.보험	9.1	8.8	11.1	9.9	11.9	11.0	12.0	10.8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6〉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110.6	120.7	116.5	123.1
(수)		(1,648)	(1,902)	(2,156)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9.7	130.2	127.1	134.4
	외벌이	102.7	113.0	107.9	114.5
	t	5.3***	5.3***	6.6***	6.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7.9	87.9	81.7	90.9
	300~399만원	95.6	100.6	93.2	101.9
	400~499만원	122.0	122.6	107.6	118.8
	500~599만원	120.0	136.3	128.2	135.8
	600만원 이상	163.4	167.6	151.8	170.0
	F	89.2***	75.2***	74.8***	69.5***
총 자녀수	1명	80.0	82.6	76.5	76.8
	2명	120.7	131.8	128.5	134.3
	3명이상	169.1	176.4	167.0	184.5
	F	198.6***	245.0***	304.0***	321.6***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4-17〉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단위 : %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전체		27.3	28.2	25.0	28.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5.4	23.3	25.4
	외벌이	29.9	30.6	26.3	30.1
	t	-4.6***	-3.5***	-4.1***	-3.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40.5	43.2	44.5
	300~399만원	27.0	28.5	26.1	28.7
	400~499만원	26.9	27.4	24.1	26.4
	500~599만원	21.6	24.9	23.5	24.7
	600만원 이상	20.7	21.3	20.4	22.2
	F	16.9***	15.0***	60.0***	14.5***
총 자녀수	1명	19.6	19.5	17.9	18.8
	2명	30.2	31.1	26.9	29.0
	3명이상	40.5	39.7	34.9	44.6
	F	62.7***	47.7***	133.1***	51.0***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부표 4-1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비용 비중(%)
총계	299.5	35.8	317.3	36.9	314.2	36.1	322.4	36.9
1.식비(외식비포함)	77.9	30.7	80.1	32.6	91.0	33.5	89.1	32.7
3.기기/집기	6.0	50.4	7.8	43.6	10.5	43.1	12.5	44.2
4.피복비(의류및신발)	17.5	54.1	18.1	56.0	18.2	57.6	19.0	59.2
5.보건/의료비	6.8	71.5	8.5	67.0	10.8	60.4	11.7	59.3
6.교육/보육비	39.4	96.6	43.2	96.8	33.0	96.3	38.5	96.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1.0	62.9	30.5	61.6	21.6	69.1	23.9	68.2
7-1.가족여행 등	19.0	45.7	18.5	46.3	10.5	47.0	13.3	45.6
7-2.관람 체험학습	3.9	61.8	4.0	56.7	1.2	59.7	1.6	61.1
7-3.완구	3.8	95.0	3.8	91.1	4.1	95.1	4.2	97.6
7-4.도서구매	4.3	92.4	4.3	86.1	4.9	91.0	4.2	94.6
8.교통비	25.3	3.0	26.6	3.3	25.1	4.4	24.9	3.3
9.통신비	16.4	2.5	16.9	4.1	17.4	6.2	17.0	4.9
9-1.휴대전화비	12.0	3.1	11.7	4.9	12.5	7.4	12.6	6.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2.5	12.7	42.6	13.5	42.8	13.7	45.3
11-2.보험	34.9	30.4	40.5	31.0	41.2	32.2	41.4	32.1

주: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총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19〉 비목별 가구 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 (명)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20.8	19.9	18.9	19.1	15.8	14.9	12.7	14.1
(수)	(2,298)	(2,334)	(2,368)	(2,405)	(2,298)	(2,334)	(2,367)	(2,405)
1.식비(외식비포함)	17.6	17.7	17.9	17.5	3.5	3.3	3.5	3.5
1-1.외식비	14.5	13.1	14.5	13.0	0.8	0.7	0.8	0.8
3.기기/집기	31.7	24.7	25.9	23.9	0.4	0.4	0.5	0.6
4.피복비(의류및신발)	31.6	31.3	32.3	32.7	1.3	1.2	1.2	1.4
5.보건/의료비	45.5	40.5	35.9	34.4	0.7	0.7	0.8	0.9
6.교육/보육비	55.7	52.0	46.9	47.3	5.0	4.6	2.5	3.2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7.9	35.0	39.5	39.2	2.7	2.2	1.8	2.0
7-1.가족여행 등	27.2	26.9	26.6	25.8	1.2	1.0	0.6	0.7
7-2.관람 체험학습	35.6	29.0	29.6	30.5	0.3	0.2	0.1	0.1
7-3.완구	62.4	55.9	56.9	59.8	0.6	0.5	0.6	0.6
7-4.도서구매	54.7	45.1	48.6	50.7	0.6	0.4	0.5	0.5
8.교통비	1.1	1.4	2.0	1.5	0.1	0.1	0.1	0.1
9.통신비	0.2	0.3	0.6	0.2	0.0	0.0	0.0	0.0
9-1.휴대전화비	0.2	0.3	0.6	0.1	0.0	0.0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5.6	25.7	26.3	27.0	0.8	0.8	0.9	0.9
11-2.보험	18.0	17.3	18.3	17.7	1.4	1.5	1.5	1.5

주: 1) 아동당 양육비용 비중은 각 가구별로 "(아동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비중 =(해당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0〉 비목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 % (명)

구분	가구생활비 비중			가구소득대비 비중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계	23.0	21.8	22.7	19.0	15.1	17.1
(수)	(470)	(441)	(429)	(470)	(441)	(429)
1.식비(외식비포함)	19.5	19.8	18.5	4.0	3.9	3.7
1-1.외식비	17.2	18.3	17.9	1.0	1.0	1.0
3.기기/집기	29.5	31.7	33.2	0.5	0.8	1.3
4.피복비(의류및신발)	32.0	32.4	32.5	1.4	1.3	1.4
5.보건/의료비	35.1	33.1	31.7	0.6	0.7	0.8
6.교육/보육비	61.3	57.3	59.0	7.9	4.5	5.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4.4	41.0	37.6	2.3	1.6	1.7
7-1.가족여행 등	26.4	26.4	25.4	1.1	0.5	0.7
7-2.관람 체험학습	34.6	36.5	35.3	0.3	0.1	0.1
7-3.완구	52.9	57.0	55.9	0.4	0.5	0.4
7-4.도서구매	53.5	55.8	58.0	0.4	0.6	0.5
8.교통비	1.9	2.7	1.8	0.1	0.1	0.1
9.통신비	4.5	4.4	4.4	0.2	0.2	0.2
9-1.휴대전화비	5.5	5.0	5.8	0.1	0.1	0.2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0.7	21.1	20.2	0.5	0.6	0.5
11-2.보험	17.4	18.0	18.5	1.5	1.4	1.4

주: 1) 아동당 양육비용 비중은 각 가구별로 "(아동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비중 =(해당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6세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1〉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1년)

단위 : %(명)

구분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비목													계(수)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상환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11.6	0.8	2.0	1.5	0.9	26.4	11.3	0.1	4.2	26.9	13.5	0.6	0.1	100.0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4	0.7	1.8	1.5	0.4	23.8	11.1	0.0	3.3	30.4	15.0	0.4	0.1	100.0 (720)
	외벌이	11.8	0.9	2.2	1.5	1.3	28.4	11.4	0.2	4.8	24.4	12.3	0.7	0.0	100.0 (989)
	χ^2	21.02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2.5	1.5	3.0	2.5	3.0	25.5	10.5	0.0	7.0	22.5	11.5	0.5	0.0	100.0 (200)
	300~399만원	12.6	1.1	1.5	1.3	1.3	26.9	10.5	0.0	3.8	27.7	13.2	0.2	0.0	100.0 (476)
	400~499만원	12.5	1.1	2.7	1.6	0.4	27.9	11.4	0.2	3.1	25.0	12.9	1.1	0.0	100.0 (448)
	500~599만원	9.2	0.0	2.0	1.7	0.3	24.2	13.3	0.3	3.4	27.6	16.7	0.7	0.3	100.0 (293)
	600만원 이상	10.6	0.3	1.4	1.0	0.3	26.4	11.0	0.0	5.1	30.8	12.7	0.3	0.0	100.0 (292)
	χ^2	52.935													
총 자녀수	1명	11.4	0.9	2.0	1.5	1.1	12.2	15.4	0.2	6.5	33.9	13.6	1.1	0.2	100.0 (551)
	2명	11.8	1.0	2.2	1.4	1.0	32.0	9.0	0.1	3.3	24.3	13.6	0.3	0.0	100.0 (910)
	3명이상	11.7	0.0	1.6	2.0	0.4	37.9	10.5	0.0	2.0	21.0	12.5	0.4	0.0	100.0 (248)
	χ^2	116.06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4-2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2.3	(3)	32.9	(94)	82.9	(283)	94.7	(348)
	2차년도(2019년)	2.0	(3)	24.3	(70)	81.1	(265)	95.2	(356)
	3차년도(2020년)	1.8	(3)	19.9	(57)	70.6	(227)	89.4	(315)
	4차년도(2021년)	1.3	(2)	26.7	(74)	74.5	(238)	90.2	(315)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0.4	(1)	0.7	(2)	1.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7	(2)	0.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3	(1)
	4차년도(2021년)	0.7	(1)	0.0	(0)	0.0	(0)	0.5	(2)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97.7	(140)	66.8	(192)	16.4	(56)	3.9	(15)
	2차년도(2019년)	98.0	(141)	75.7	(218)	18.2	(59)	3.9	(14)
	3차년도(2020년)	98.2	(140)	80.1	(231)	29.4	(95)	10.3	(36)
	4차년도(2021년)	98.0	(137)	73.3	(204)	25.5	(81)	9.3	(32)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임.
2)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3〉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1년)

단위 : %(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52.1	(190)	34.1	(125)	29.4	(120)
	2차년도(2019년)	63.3	(254)	40.1	(160)	31.8	(128)
	3차년도(2020년)	55.0	(221)	41.5	(180)	31.8	(136)
	4차년도(2021년)	58.6	(224)	44.0	(191)	32.6	(153)
유치원	1차년도(2018년)	41.0	(149)	60.2	(220)	63.8	(260)
	2차년도(2019년)	33.3	(134)	56.7	(226)	64.4	(258)
	3차년도(2020년)	34.5	(139)	43.0	(186)	53.1	(227)
	4차년도(2021년)	40.0	(153)	52.8	(229)	63.9	(300)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5.1	(19)	5.4	(20)	6.6	(27)
	2차년도(2019년)	2.2	(9)	2.2	(9)	3.6	(14)
	3차년도(2020년)	1.4	(6)	1.6	(7)	2.4	(10)
	4차년도(2021년)	0.5	(2)	2.7	(12)	3.0	(14)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1.8	(7)	0.3	(1)	0.2	(1)
	2차년도(2019년)	1.2	(5)	1.0	(4)	0.2	(1)
	3차년도(2020년)	9.2	(37)	13.9	(60)	12.7	(54)
	4차년도(2021년)	0.9	(3)	0.5	(2)	0.4	(2)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임.
2)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1 (2018~2021년)

단위 : 시간(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40.8	(3)	35.0	(94)	34.5	(283)	34.4	(348)
	2차년도(2019년)	42.2	(3)	33.8	(70)	35.1	(265)	35.1	(356)
	3차년도(2020년)	48.5	(3)	35.2	(57)	37.1	(227)	37.7	(315)
	4차년도(2021년)	14.0	(2)	34.5	(74)	34.0	(238)	35.0	(315)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45.0	(1)	27.3	(2)	25.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20.0	(2)	36.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30.0	(1)
	4차년도(2021년)	4.0	(1)	0.0	(0)	0.0	(0)	31.0	(2)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5〉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2 (2018~2021년)

단위 : 시간(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35.2	(190)	35.9	(125)	35.5	(120)
	2차년도(2019년)	35.8	(254)	36.8	(160)	36.0	(128)
	3차년도(2020년)	37.5	(221)	38.0	(180)	38.4	(136)
	4차년도(2021년)	35.0	(224)	36.0	(191)	36.5	(153)
유치원	1차년도(2018년)	34.3	(149)	34.8	(220)	34.3	(260)
	2차년도(2019년)	34.1	(134)	34.2	(226)	34.7	(258)
	3차년도(2020년)	35.1	(139)	35.0	(186)	33.8	(227)
	4차년도(2021년)	35.0	(153)	35.0	(229)	34.0	(300)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27.5	(19)	28.6	(20)	28.6	(27)
	2차년도(2019년)	29.0	(9)	30.5	(9)	29.4	(14)
	3차년도(2020년)	33.3	(6)	33.1	(7)	36.4	(10)
	4차년도(2021년)	31.5	(2)	31.5	(12)	29.0	(14)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6〉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용1 (2018~2021년)

단위 : 만원(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8.2	(3)	2.1	(94)	3.7	(283)	6.7	(348)
	2차년도(2019년)	1.5	(3)	2.4	(70)	5.2	(265)	8.0	(356)
	3차년도(2020년)	4.3	(3)	1.7	(57)	4.2	(227)	5.7	(315)
	4차년도(2021년)	0.0	(2)	2.2	(74)	4.2	(238)	6.5	(315)
유치원	1차년도(2018년)	0.0	(0)	0.0	(0)	0.0	(0)	0.0	(0)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0	(0)	0.0	(0)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0	(0)
	4차년도(2021년)	0.0	(0)	0.0	(0)	0.0	(0)	0.0	(0)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22.5	(1)	11.3	(2)	36.8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90.0	(2)	47.0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150.0	(1)
	4차년도(2021년)	25.1	(1)	0.0	(0)	0.0	(0)	107.0	(2)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7〉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용2 (2018~2021년)

단위 : 만원(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10.1	(190)	8.5	(125)	9.6	(120)
	2차년도(2019년)	9.5	(254)	10.6	(160)	9.5	(128)
	3차년도(2020년)	7.0	(221)	8.5	(180)	7.5	(136)
	4차년도(2021년)	7.7	(224)	8.4	(191)	8.9	(153)
유치원	1차년도(2018년)	15.7	(149)	14.5	(220)	13.0	(260)
	2차년도(2019년)	16.2	(137)	14.6	(226)	15.3	(258)
	3차년도(2020년)	15.3	(134)	14.9	(226)	11.6	(258)
	4차년도(2021년)	14.9	(153)	12.9	(229)	12.5	(300)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60.7	(19)	62.4	(20)	60.1	(27)
	2차년도(2019년)	74.5	(9)	85.3	(9)	63.2	(14)
	3차년도(2020년)	73.1	(6)	78.2	(7)	97.1	(10)
	4차년도(2021년)	119.1	(2)	77.7	(12)	88.8	(14)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8〉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1년)

단위 : %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15.5	15.3	2.2	3.2	1.1	3.2	10.0	
	2차	16.0	14.6	1.7	3.2	1.1	2.5	8.2	
	3차	12.9	12.1	1.5	3.9	1.0	1.5	0.9	
	4차	21.3	15.0	2.1		3.4	1.4	5.7	3.2
만0세	1차	0.0	0.7	0.0	0.0	0.0	0.0	1.6	
	2차	0.0	0.0	0.0	0.0	0.0	0.0	1.2	
	3차	0.0	0.0	0.0	0.0	0.7	0.0	0.0	
	4차	0.0	0.0	0.0		0.0	0.0	0.0	0.0
만1세	1차	1.1	0.8	1.1	0.0	0.0	0.4	13.8	
	2차	0.3	0.0	0.7	0.0	0.3	0.3	13.1	
	3차	0.3	0.3	0.9	0.6	0.3	0.0	1.9	
	4차	0.0	0.0	0.6		0.0	0.0	9.6	0.0
만2세	1차	3.1	4.1	0.3	3.0	1.7	0.7	10.5	
	2차	1.3	2.4	1.7	0.7	0.0	0.4	8.5	
	3차	0.6	0.9	0.9	1.2	0.9	0.3	0.9	
	4차	1.9	3.7	2.5		2.3	0.3	7.9	0.6
만3세	1차	4.8	6.7	2.0	3.7	0.6	1.7	5.1	
	2차	3.0	9.3	1.8	2.4	2.1	1.5	5.7	
	3차	2.4	5.8	1.2	1.8	1.2	1.8	0.6	
	4차	5.4	7.3	3.8		2.5	1.3	5.5	2.0
만4세	1차	12.2	17.3	1.9	3.9	1.9	2.6	12.0	
	2차	12.2	17.5	2.4	3.4	1.0	2.4	7.8	
	3차	12.0	12.5	1.0	5.1	0.7	1.8	0.2	
	4차	18.9	18.1	3.0		4.1	2.0	5.1	4.1
만5세	1차	29.4	25.3	5.2	4.5	1.5	6.0	11.4	
	2차	27.5	25.8	1.0	6.5	1.7	3.2	8.8	
	3차	19.2	20.5	2.1	5.4	0.5	2.1	1.0	
	4차	34.3	23.2	1.8		4.7	1.3	5.2	5.0
만6세	1차	41.7	37.2	2.9	4.4	1.5	7.8	11.4	
	2차	49.2	31.5	3.1	5.9	1.4	6.9	8.8	
	3차	37.9	29.0	2.8	8.3	2.1	2.6	1.2	
	4차	55.3	31.7	1.6		6.0	2.9	4.5	6.4

주: 각 연령별 대상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29〉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단위 : 시간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3.2	0.6	1.1	1.0	1.3	1.9	1.2	
	2차	3.5	0.5	0.7	1.1	1.0	1.7	1.1	
	3차	5.6	0.6	0.8	1.6	1.3	2.1	2.3	
	4차	4.2	0.6	0.8		1.7	2.8	1.2	1.9
만0세	1차	0.0	0.5	0.0	0.0	0.0	0.0	1.6	
	2차	0.0	0.0	0.0	0.0	0.0	0.0	0.6	
	3차	0.0	0.0	0.0	0.0	0.7	0.0	0.0	
	4차	0.0	0.0	0.0		0.0	0.0	1.1	0.0
만1세	1차	2.4	0.4	0.6	0.0	0.0	0.8	0.9	
	2차	0.8	0.0	0.3	0.0	0.7	0.2	1.0	
	3차	10.0	0.5	0.5	1.3	1.7	0.0	2.0	
	4차	3.2	0.4	0.7		1.2	1.7	1.2	4.1
만2세	1차	2.6	0.6	0.5	1.5	0.8	1.2	1.0	
	2차	1.9	0.3	0.5	0.7	0.0	0.5	1.0	
	3차	3.1	0.6	0.7	0.6	1.8	2.5	1.7	
	4차	0.0	0.0	0.4		0.0	0.0	0.0	0.0
만3세	1차	3.0	0.5	0.8	1.0	0.7	1.1	1.1	
	2차	2.5	0.4	0.6	0.8	1.2	0.9	1.0	
	3차	3.3	0.5	0.6	1.0	0.3	1.1	1.5	
	4차	4.3	0.6	1.3		0.8	7.0	0.9	1.8
만4세	1차	3.2	0.5	1.0	1.0	2.1	1.4	1.0	
	2차	2.5	0.6	0.6	1.0	1.4	1.5	1.1	
	3차	5.4	0.6	0.7	1.0	1.2	2.3	1.0	
	4차	3.3	0.8	0.7		1.4	1.7	0.9	2.0
만5세	1차	2.9	0.6	1.2	1.1	1.4	2.1	1.4	
	2차	3.6	0.5	0.7	1.2	0.8	1.6	1.2	
	3차	4.6	0.5	0.8	2.1	0.8	1.9	3.6	
	4차	4.0	0.6	0.5		2.3	1.2	1.3	1.6
만6세	1차	3.4	0.7	1.3	0.8	1.0	2.2	1.5	
	2차	3.8	0.6	0.8	1.2	1.0	2.0	1.4	
	3차	6.3	0.6	0.9	1.8	1.7	2.8	2.0	
	4차	4.6	0.6	0.6		1.8	2.6	1.5	1.8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4.2	0.6	0.8	1.7	2.8	1.2	1.9
(수)		(506)	(356)	(49)	(80)	(32)	(134)	(7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1	0.7	0.8	1.9	2.1	1.0	2.0
	외벌이	4.2	0.6	0.7	1.5	3.0	1.2	1.7
	t	-0.4	0.6	0.3	1.2	-0.4	-0.9	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4	0.8	0.7	1.3	1.8	1.0	1.9
	300~399만원 이하	3.9	0.6	0.7	1.5	2.2	1.2	1.7
	400~499만원 이하	4.1	0.7	0.5	1.6	1.4	1.0	1.8
	500~599만원 이하	4.0	0.6	0.6	1.7	10.7	1.0	2.4
	600만원 이상	4.6	0.6	1.2	2.3	2.5	1.8	1.7
	F	1.2	1.4	0.7	0.7	2.3	1.6	0.6
총 자녀수	1명	4.1	0.7	1.2	1.5	1.2	1.2	1.3
	2명	4.1	0.6	0.7	1.9	3.4	1.0	2.1
	3명이상	4.7	0.7	0.5	1.1	2.1	2.1	1.1
	F	2.1	0.4	1.1	1.7	0.5	5.7**	2.4
지역 규모	대도시	4.2	0.6	0.7	1.9	3.4	1.3	1.3
	중소도시	4.3	0.6	1.1	1.5	2.3	1.1	1.9
	읍면지역	3.7	0.7	0.5	1.8	2.7	1.1	2.9
	F	1.7	0.5	1.2	0.5	0.2	0.3	5.5**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부표 4-3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1년)

단위 :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13.4	7.4	10.2	5.6	8.8	12.7	5.2	
	2차	14.2	7.2	9.1	7.6	8.1	14.8	4.8	
	3차	17.8	8.2	11.4	8.3	8.6	14.8	5.7	
	4차	16.4	8.0	9.5		8.5	19.8	5.1	9.5
만0세	1차	0.0	11.0	0.0	0.0	0.0	0.0	8.6	
	2차	0.0	0.0	0.0	0.0	0.0	0.0	4.5	
	3차	0.0	0.0	0.0	0.0	10.0	0.0	0.0	
	4차	0.0	0.0	0.0		0.0	0.0	0.0	
만1세	1차	14.3	3.5	8.6	0.0	0.0	11.0	5.3	
	2차	6.0	0.0	7.0	0.0	2.0	5.0	4.9	
	3차	44.0	9.0	20.1	9.0	4.0	0.0	7.0	
	4차	0.0	0.0	9.2		0.0	0.0	7.0	0.0
만2세	1차	10.2	5.4	12.0	4.8	5.9	27.0	5.6	
	2차	27.2	5.0	8.5	2.0	0.0	6.0	5.3	
	3차	10.5	6.7	6.4	7.8	3.3	20.0	7.1	
	4차	14.6	7.1	10.5		10.2	14.9	5.5	19.1
만3세	1차	14.5	7.4	7.1	4.0	15.0	8.5	6.2	
	2차	13.1	6.2	9.6	5.8	6.9	10.3	4.6	
	3차	23.2	7.2	11.8	6.0	5.8	13.8	3.0	
	4차	16.7	6.3	8.5		6.4	43.7	5.8	6.5
만4세	1차	13.5	6.4	9.6	7.1	5.6	14.0	4.7	
	2차	12.4	7.0	10.8	9.4	10.5	13.0	4.4	
	3차	12.7	8.1	9.2	7.4	7.4	13.9	4.0	
	4차	13.3	7.8	9.3		7.4	14.3	3.4	9.0
만5세	1차	12.8	7.4	11.1	6.5	19.5	10.3	4.3	
	2차	13.1	6.5	7.2	6.5	10.5	12.1	4.3	
	3차	17.0	7.7	9.4	7.8	14.0	14.9	6.5	
	4차	16.2	8.4	8.0		8.7	19.1	3.7	9.5
만6세	1차	13.9	8.0	11.5	5.2	3.1	13.8	5.3	
	2차	15.1	8.2	8.7	9.1	8.3	18.3	5.3	
	3차	19.3	8.8	12.7	9.6	11.0	15.6	3.8	
	4차	17.3	8.2	12.1		9.3	15.1	4.6	9.7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3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2〉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하루평균 시간 (2021년) : 영유아가구

단위 : 시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8.1	13.2	7.8	12.9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5	13.2	6.9	12.8	(720)
	외벌이	8.6	13.2	8.5	13.0	(989)
	t	-7.6***	-0.1	-10.7***	-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3	13.2	8.2	13.0	(200)
	300~399만원 이하	8.7	13.5	8.4	13.2	(476)
	400~499만원 이하	7.9	13.1	7.7	12.9	(448)
	500~599만원 이하	7.9	13.1	7.3	12.8	(293)
	600만원 이상	7.7	12.9	7.1	12.6	(292)
	F	7.2***	2.4	11.1***	2.1	
총 자녀수	1명	9.0	13.3	8.7	13.1	(551)
	2명	7.8	13.2	7.4	13.0	(910)
	3명이상	7.8	12.9	7.4	12.7	(248)
	F	32.2***	2.6	32.2***	1.6	
지역 규모	대도시	8.3	13.4	7.9	13.1	(670)
	중소도시	8.1	13.1	7.8	12.8	(781)
	읍면지역	7.9	13.2	7.6	12.9	(258)
	F	1.9	2.5	1.0	2.0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4-33〉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1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 (명)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3	2.0	(1,70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	2.0	(720)
	외벌이	1.3	2.0	(989)
	t	-0.9	0.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	2.1	(200)
	300~399만원 이하	1.3	1.9	(476)
	400~499만원 이하	1.3	1.9	(448)
	500~599만원 이하	1.4	1.9	(293)
	600만원 이상	1.3	2.1	(292)
	F	0.4	1.1	
총 자녀수	1명	1.1	1.5	(551)
	2명	1.4	2.1	(910)
	3명이상	1.6	2.6	(248)
	F	28.7***	46.9***	
지역 규모	대도시	1.3	1.9	(670)
	중소도시	1.3	2.0	(781)
	읍면지역	1.5	2.3	(258)
	F	3.6*	5.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4-34〉 가구특성별 부모교육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회, (명)

구분		이용율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7.4	2.2	59.4	13.3	4.9	5.6	0.7	7.0	9.1	(14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2	2.3	55.0	13.3	5.0	5.0	1.7	8.3	11.7	(60)
	외벌이	7.6	2.1	62.7	13.3	4.8	6.0	0.0	6.0	7.2	(83)
	χ^2/t	0.113	0.4	2.8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6	1.7	84.2	15.8	0.0	0.0	0.0	0.0	0.0	(19)
	300~399만원 이하	8.4	1.9	70.5	13.6	6.8	4.5	0.0	0.0	4.5	(44)
	400~499만원 이하	5.0	2.1	56.0	8.0	4.0	4.0	0.0	12.0	16.0	(25)
	500~599만원 이하	6.4	3.8	40.9	18.2	9.1	4.5	0.0	22.7	4.5	(22)
	600만원 이상	9.6	1.8	45.5	12.1	3.0	12.1	3.0	6.1	18.2	(33)
	χ^2/F	8.404	3.3*	36.469*							
총 자녀수	1명	5.6	1.7	54.3	17.1	2.9	2.9	0.0	5.7	17.1	(35)
	2명	8.0	2.5	58.5	12.2	7.3	7.3	1.2	7.3	6.1	(82)
	3명이상	9.1	1.6	69.2	11.5	0.0	3.8	0.0	7.7	7.7	(26)
	χ^2/F	4.730	2.5	8.927							
지역 규모	대도시	8.4	2.1	64.1	15.6	6.3	1.6	0.0	7.8	4.7	(64)
	중소도시	6.4	2.3	50.9	7.0	5.3	10.5	1.8	8.8	15.8	(57)
	읍면지역	7.8	2.0	68.2	22.7	0.0	4.5	0.0	0.0	4.5	(22)
	χ^2/F	2.331	0.2	18.400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4-35〉 가구특성별 부모상담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회, (명)

구분		이용율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10.8	1.4	85.6	2.9	0.5	1.4	0.5	3.4	5.8	(20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0	1.3	85.7	2.4	1.2	1.2	1.2	1.2	7.1	(84)
	외벌이	11.3	1.4	85.5	3.2	0.0	1.6	0.0	4.8	4.8	(124)
	x^2/t	0.807	-0.7	5.58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9	1.3	87.5	0.0	0.0	4.2	4.2	0.0	4.2	(24)
	300~399만원 이하	10.7	1.3	83.9	3.6	0.0	1.8	0.0	3.6	7.1	(56)
	400~499만원 이하	12.4	1.7	87.1	1.6	0.0	1.6	0.0	4.8	4.8	(62)
	500~599만원 이하	10.5	1.3	91.7	2.8	2.8	0.0	0.0	2.8	0.0	(36)
	600만원 이상	8.7	1.3	76.7	6.7	0.0	0.0	0.0	3.3	13.3	(30)
	x^2/F	2.842	1.7	24.476							
총 자녀수	1명	9.6	1.2	86.7	3.3	1.7	1.7	0.0	1.7	5.0	(60)
	2명	12.2	1.4	85.6	3.2	0.0	0.8	0.0	4.0	6.4	(125)
	3명이상	8.0	1.7	82.6	0.0	0.0	4.3	4.3	4.3	4.3	(23)
	x^2/F	5.379	2.2	13.974							
지역 규모	대도시	12.2	1.5	88.2	3.2	1.1	0.0	1.1	2.2	4.3	(93)
	중소도시	8.8	1.4	82.1	2.6	0.0	3.8	0.0	3.8	7.7	(78)
	읍면지역	13.1	1.4	86.5	2.7	0.0	0.0	0.0	5.4	5.4	(37)
	x^2/F	6.698*	0.2	9.508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4-36〉 가구특성별 육아멘토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1년) : 전체가구

단위 : %, 회, (명)

구분		이용율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0.7	2.3	38.5	23.1	0.0	0.0	0.0	0.0	38.5	(1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5	2.3	25.0	50.0	0.0	0.0	0.0	0.0	25.0	(4)
	외벌이	0.8	2.3	44.4	11.1	0.0	0.0	0.0	0.0	44.4	(9)
	χ^2/t	0.837	-0.1	2.35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5	1.0	100.0	0.0	0.0	0.0	0.0	0.0	0.0	(1)
	300~399만원 이하	0.8	1.0	50.0	25.0	0.0	0.0	0.0	0.0	25.0	(4)
	400~499만원 이하	0.4	6.5	50.0	0.0	0.0	0.0	0.0	0.0	50.0	(2)
	500~599만원 이하	0.3	2.0	0.0	0.0	0.0	0.0	0.0	0.0	100.0	(1)
	600만원 이상	1.5	2.0	20.0	40.0	0.0	0.0	0.0	0.0	40.0	(5)
	χ^2/F	4.694	2.4	5.200							
총 자녀수	1명	0.2	1.0	100.0	0.0	0.0	0.0	0.0	0.0	0.0	(1)
	2명	0.8	2.3	37.5	37.5	0.0	0.0	0.0	0.0	25.0	(8)
	3명이상	1.4	2.8	25.0	0.0	0.0	0.0	0.0	0.0	75.0	(4)
	χ^2/F	4.901	0.2	5.200							
지역 규모	대도시	0.9	1.4	14.3	42.9	0.0	0.0	0.0	0.0	42.9	(7)
	중소도시	0.6	3.8	60.0	0.0	0.0	0.0	0.0	0.0	40.0	(5)
	읍면지역	0.4	1.0	100.0	0.0	0.0	0.0	0.0	0.0	0.0	(1)
	χ^2/F	1.266)	1.5	5.646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7〉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1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 (명)

구분		개선 요구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개선 필요 없음	
전체		29.9	10.1	30.2	27.6	12.0	30.0	20.2	26.8	7.8	0.3	2.1	100.0 (1,9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7	10.3	28.6	26.3	11.5	28.1	20.1	32.6	6.0	0.1	2.5	100.0 (837)
	외벌이	29.3	10.0	31.4	28.6	12.4	31.5	20.3	22.4	9.1	0.5	1.7	100.0 (1,09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6.2	5.0	33.0	26.7	10.0	28.5	22.2	31.7	12.2	0.0	1.8	100.0 (221)
	300~399만원 이하	30.3	7.4	28.0	29.3	13.7	28.8	20.4	23.8	11.0	0.6	2.5	100.0 (525)
	400~499만원 이하	28.1	14.2	28.9	25.9	12.4	33.3	20.6	25.7	6.4	0.4	1.8	100.0 (501)
	500~599만원 이하	30.0	9.9	30.6	27.4	11.1	31.2	21.6	28.9	4.1	0.0	2.3	100.0 (343)
	600만원 이상	34.1	12.0	32.9	28.3	11.1	26.8	16.6	28.0	5.5	0.3	1.7	100.0 (343)
총 자녀수	1명	31.0	10.9	30.4	28.5	14.6	28.3	22.1	22.2	6.7	0.3	2.2	100.0 (625)
	2명	28.6	10.0	30.7	28.2	11.0	29.7	19.5	28.8	7.9	0.1	2.2	100.0 (1,022)
	3명이상	32.2	9.1	27.6	23.8	10.1	34.6	18.5	30.1	9.4	1.0	1.4	100.0 (286)
지역 규모	대도시	27.9	9.3	29.6	26.3	10.2	31.9	23.4	26.2	7.9	0.4	2.7	100.0 (764)
	중소도시	32.3	10.8	31.5	28.7	12.4	28.4	18.5	25.7	7.3	0.3	1.7	100.0 (886)
	읍면지역	27.9	10.2	27.6	27.9	15.5	29.7	16.6	32.2	8.8	0.0	1.4	100.0 (283)

주: ① 일대일 서비스 확대, ② 쌍방향 서비스 확대, ③ 프로그램 확대, ④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⑥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⑦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⑨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8〉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줄인 경험 및 프로그램 (2021년)

단위 : %(명)

구분		줄인 경험			프로그램 종류							계(수)
		예	아니요	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전체		25.5	74.5	100.0 (177)	24.1	20.6	18.2	6.8	4.4	21.5	4.4	100.0 (4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8	75.2	100.0 (85)	26.9	24.5	14.6	0.0	9.5	15.0	9.5	100.0 (21)
	외벌이	26.2	73.8	100.0 (92)	21.6	17.2	21.3	12.7	0.0	27.1	0.0	100.0 (24)
	χ^2	0.044			9.14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7.8	62.2	100.0 (14)	24.6	37.0	18.5	0.0	0.0	20.0	0.0	100.0 (5)
	300~399만원 이하	23.2	76.8	100.0 (44)	29.8	30.6	19.4	0.0	0.0	20.2	0.0	100.0 (10)
	400~499만원 이하	24.8	75.2	100.0 (52)	16.1	16.1	16.8	16.1	0.0	27.1	7.8	100.0 (13)
	500~599만원 이하	21.7	78.3	100.0 (30)	37.1	16.6	0.0	15.4	15.4	15.4	0.0	100.0 (6)
	600만원 이상	27.5	72.5	100.0 (37)	19.7	9.8	30.3	0.0	9.8	20.5	9.8	100.0 (10)
	χ^2	1.347			14.592							
총 자녀수	1명	37.6	62.4	100.0 (25)	11.4	10.5	21.9	10.5	10.5	14.0	21.1	100.0 (9)
	2명	21.4	78.6	100.0 (108)	23.4	18.0	17.6	9.0	0.0	32.0	0.0	100.0 (23)
	3명이상	28.7	71.3	100.0 (44)	34.9	32.9	16.4	0.0	7.9	7.9	0.0	100.0 (13)
	χ^2	2.840			16.068							
지역 규모	대도시	24.2	75.8	100.0 (71)	18.8	25.0	18.8	6.3	0.0	31.3	0.0	100.0 (17)
	중소도시	28.2	71.8	100.0 (85)	20.8	20.8	20.8	8.3	8.3	12.5	8.3	100.0 (24)
	읍면지역	18.8	81.3	100.0 (21)	66.7	0.0	0.0	0.0	0.0	33.3	0.0	100.0 (4)
	χ^2	0.887			11.61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3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시간학원	9.6	66.8	22.5	1.1	0.0	3.8	100.0 (390)
방문형학습지	10.5	57.4	28.7	2.5	0.8	3.7	100.0 (121)
방문형 교구활동	27.1	38.3	12.1	11.2	11.2	3.6	100.0 (9)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활동	10.5	55.4	29.6	4.5	0.0	3.7	100.0 (22)
개인 및 그룹지도	33.4	44.4	8.7	13.5	0.0	4.0	100.0 (23)
문화센터	0.0	0.0	0.0	0.0	0.0	0.0	0.0 (0)
교육용온라인콘텐츠	12.0	61.9	20.6	5.5	0.0	3.8	100.0 (4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0〉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계(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시간제 사교육	1.8	5.8	35.6	41.6	15.2	3.6	100.0 (42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아이가 원해서	기타	모름	
전체		7.6	38.1	2.5	32.7	4.5	9.4	0.0	4.6	0.5	0.0	100.0 (2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1	36.5	2.6	25.8	9.2	12.1	0.0	6.8	0.9	0.0	100.0 (118)
	외벌이	9.0	39.7	2.5	39.5	0.0	6.8	0.0	2.5	0.0	0.0	100.0 (121)
	χ^2	21.16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3	42.0	0.0	28.6	0.0	0.0	0.0	7.1	0.0	0.0	100.0 (19)
	300~399만원 이하	6.6	36.4	1.5	41.4	0.0	9.5	0.0	4.6	0.0	0.0	100.0 (67)
	400~499만원 이하	5.9	40.8	3.7	36.7	2.3	8.9	0.0	1.8	0.0	0.0	100.0 (57)
	500~599만원 이하	9.0	35.4	4.3	28.2	6.5	14.4	0.0	2.2	0.0	0.0	100.0 (46)
	600만원 이상	4.0	38.5	2.0	22.6	12.8	8.7	0.0	9.2	2.1	0.0	100.0 (50)
	χ^2	37.493										
총 자녀수	1명	9.3	41.5	11.2	17.2	9.5	2.8	0.0	8.6	0.0	0.0	100.0 (36)
	2명	5.9	37.7	0.8	37.0	3.8	10.7	0.0	4.1	0.0	0.0	100.0 (139)
	3명이상	10.2	37.2	1.6	32.1	3.3	10.3	0.0	3.7	1.7	0.0	100.0 (64)
	χ^2	25.814*										
지역 규모	대도시	6.0	37.3	1.2	38.6	2.4	12.0	0.0	1.2	1.2	0.0	100.0 (90)
	중소도시	9.6	37.5	4.8	27.9	5.8	8.7	0.0	5.8	0.0	0.0	100.0 (104)
	읍면지역	5.9	41.2	0.0	32.4	5.9	5.9	0.0	8.8	0.0	0.0	100.0 (45)
	χ^2	16.15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4-4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7.4	47.8	40.8	4.0	0.0	3.6	100.0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	47.2	46.7	0.0	0.0	3.6	100.0 (17)
	외벌이	9.5	48.8	31.5	10.2	0.0	3.6	100.0 (11)
	χ^2/t	2.305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6.3	53.7	0.0	0.0	3.5	100.0 (7)
	300~399만원 이하	15.6	68.8	15.6	0.0	0.0	4.0	100.0 (6)
	400~499만원 이하	0.0	23.1	76.9	0.0	0.0	3.2	100.0 (4)
	500~599만원 이하	19.1	39.7	20.6	20.6	0.0	3.6	100.0 (5)
	600만원 이상	0.0	53.8	46.2	0.0	0.0	3.5	100.0 (4)
	χ^2/F	10.923					0.9	
총 자녀수	1명	0.0	73.3	26.7	0.0	0.0	3.7	100.0 (7)
	2명	7.1	45.3	47.6	0.0	0.0	3.6	100.0 (14)
	3명이상	18.2	19.7	42.4	19.7	0.0	3.4	100.0 (5)
	χ^2/F	7.986					0.4	
지역 규모	대도시	0.0	66.7	16.7	16.7	0.0	3.5	100.0 (6)
	중소도시	14.3	42.9	42.9	0.0	0.0	3.7	100.0 (14)
	읍면지역	0.0	40.0	60.0	0.0	0.0	3.4	100.0 (7)
	χ^2/F	7.238					0.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3〉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 이용 감소 유형 (2021년)

단위 : %(명)

구분		이용 감소 유형							(수)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전체		56.3	28.2	21.4	12.7	3.5	11.9	2.5	(12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1.4	26.2	24.6	14.2	0.0	12.1	1.5	(67)
	외벌이	50.4	30.5	17.8	11.0	7.5	11.7	3.6	(5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7.5	31.7	10.8	20.1	0.0	13.3	0.0	(10)
	300~399만원 이하	60.4	22.7	18.7	3.6	8.5	12.4	0.0	(28)
	400~499만원 이하	47.4	45.4	24.4	13.6	3.1	7.4	3.1	(32)
	500~599만원 이하	35.6	28.4	20.7	20.3	5.0	10.7	5.0	(22)
	600만원 이상	77.6	15.0	24.4	12.2	0.0	16.2	3.0	(33)
총 자녀수	1명	57.0	19.8	17.5	37.6	0.0	13.1	0.0	(26)
	2명	54.9	31.7	20.6	7.3	5.0	13.4	2.9	(68)
	3명이상	58.8	27.6	26.6	3.5	3.3	7.6	3.5	(31)
지역 규모	대도시	56.4	30.8	25.6	7.7	2.6	7.7	2.6	(42)
	중소도시	61.0	28.8	20.3	16.9	3.4	8.5	3.4	(59)
	읍면지역	44.4	22.2	16.7	11.1	5.6	27.8	0.0	(2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4〉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 대체 여부 (2021년)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7	97.3	100.0	(12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0	98.0	100.0	(67)
	외벌이	3.6	96.4	100.0	(58)
	χ^2	0.48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100.0	100.0	(10)
	300~399만원 이하	7.6	92.4	100.0	(28)
	400~499만원 이하	0.0	100.0	100.0	(32)
	500~599만원 이하	6.1	93.9	100.0	(22)
	600만원 이상	0.0	100.0	100.0	(33)
	χ^2	5.152			
총 자녀수	1명	0.0	100.0	100.0	(26)
	2명	5.0	95.0	100.0	(68)
	3명이상	0.0	100.0	100.0	(31)
	χ^2	2.577			
지역 규모	대도시	2.6	97.4	100.0	(42)
	중소도시	1.7	98.3	100.0	(59)
	읍면지역	5.6	94.4	100.0	(24)
	χ^2	0.4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5〉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 (2021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8.9	53.8	24.4	2.9	0.0	3.9	100.0 (10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6	53.7	27.0	3.6	0.0	3.8	100.0 (85)
	외벌이	31.6	54.1	14.3	0.0	0.0	4.2	100.0 (22)
	x^2/t	4.626					−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4-46〉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7.3	0.7	0.8	2.1	1.7	1.3	2.0
	(수)	(390)	(121)	(9)	(22)	(23)	(14)	(4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0	0.8	0.8	1.5	1.7	1.0	2.0
	외벌이	6.7	0.6	0.7	2.4	1.8	1.5	2.0
	t	3.3**	1.6	0.3	−0.7	−0.2	0.1	−1.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4	0.6	0.0	1.0	0.0	0.0	2.9
	300~399만원 이하	6.7	0.6	0.5	3.2	0.8	1.8	2.3
	400~499만원 이하	7.2	0.8	1.0	1.9	1.8	0.9	1.6
	500~599만원 이하	8.0	0.9	0.0	1.8	2.0	1.2	1.1
	600만원 이상	7.8	0.7	1.0	1.5	2.0	0.8	2.0
	F	2.1	0.9	0.7	0.4	0.9	0.6	1.1
총 자녀수	1명	8.6	0.7	1.0	2.2	1.9	0.7	1.9
	2명	7.1	0.7	0.7	2.7	1.2	1.5	2.3
	3명이상	6.8	0.7	0.8	1.1	2.4	1.0	0.9
	F	5.4**	0.2	0.1	0.8	2.3	1.8	0.5
지역 규모	대도시	7.4	0.7	0.7	1.1	1.4	1.5	1.4
	중소도시	7.0	0.6	1.0	2.5	2.1	1.0	2.5
	읍면지역	7.8	1.1	0.7	2.9	1.4	1.0	1.9
	F	1.0	7.0**	0.2	1.0	1.0	2.1	0.5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1.

〈부표 4-47〉 가구특성별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 불편한 점 (2021년)

단위 : %(명)

구분		대체 서비스 유형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전체		13.8	34.3	17.8	4.0	4.0	13.5	8.4	0.0	4.0	0.0	100.0 (2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4	32.5	17.1	5.1	5.1	12.0	10.7	0.0	5.1	0.0	100.0 (19)
	외벌이	19.1	41.2	20.6	0.0	0.0	19.1	0.0	0.0	0.0	0.0	100.0 (5)
	χ^2	1.93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0	0.0	0.0	0.0	43.0	0.0	0.0	0.0	0.0	0.0	100.0 (2)
	300~399만원 이하	24.1	51.9	0.0	0.0	0.0	24.1	0.0	0.0	0.0	0.0	100.0 (4)
	400~499만원 이하	0.0	0.0	39.9	30.1	0.0	30.1	0.0	0.0	0.0	0.0	100.0 (3)
	500~599만원 이하	0.0	49.2	0.0	0.0	0.0	28.0	22.8	0.0	0.0	0.0	100.0 (5)
	600만원 이상	10.6	39.4	30.3	0.0	0.0	0.0	9.8	0.0	9.8	0.0	100.0 (10)
	χ^2	32.839										
총 자녀수	1명	0.0	40.9	39.4	0.0	0.0	19.7	0.0	0.0	0.0	0.0	100.0 (5)
	2명	9.6	39.3	21.4	0.0	0.0	20.7	8.9	0.0	0.0	0.0	100.0 (11)
	3명이상	27.7	23.8	0.0	11.9	11.9	0.0	12.8	0.0	11.9	0.0	100.0 (8)
	χ^2	12.650										
지역 규모	대도시	20.0	40.0	20.0	0.0	0.0	0.0	20.0	0.0	0.0	0.0	100.0 (5)
	중소도시	7.1	35.7	14.3	7.1	7.1	14.3	7.1	0.0	7.1	0.0	100.0 (14)
	읍면지역	25.0	25.0	25.0	0.0	0.0	25.0	0.0	0.0	0.0	0.0	100.0 (5)
	χ^2	5.538										

주: ①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②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③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④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⑥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⑦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⑧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⑨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8〉 과목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2021년,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수)
체육	100.0	35.0	67.5	0.0	(3)
음악	100.0	50.0	50.0	0.0	(2)
미술	100.0	100.0	100.0	0.0	(2)
통합놀이	100.0	51.9	51.9	0.0	(2)
언어	100.0	100.0	100.0	0.0	(1)
수학	100.0	0.0	0.0	0.0	(1)
과학	100.0	0.0	0.0	0.0	(2)
기타	0.0	0.0	0.0	0.0	(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49〉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1.8	41.6	11.9	5.3	7.8	4.6	4.4	0.8	11.8	100.0 (11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9	66.5	4.9	1.3	3.0	3.8	3.2	1.3	4.0	100.0 (67)
	외벌이	11.6	4.5	22.3	11.2	15.0	5.7	6.2	0.0	23.5	100.0 (45)
	χ^2	51.91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9	25.8	10.1	10.2	0.0	8.8	8.7	0.0	17.5	100.0 (10)
	300~399만원 이하	12.5	4.7	24.8	7.8	13.0	10.0	4.5	3.6	19.1	100.0 (25)
	400~499만원 이하	10.4	46.1	3.8	6.9	16.2	3.2	6.4	0.0	7.2	100.0 (28)
	500~599만원 이하	4.2	75.4	8.4	4.3	0.0	3.6	0.0	0.0	4.2	100.0 (25)
	600만원 이상	17.1	46.4	12.4	0.0	4.2	0.0	4.8	0.0	15.0	100.0 (24)
	χ^2	44.45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4-50〉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1년)

단위 :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24.4	9.7	9.5	9.8	12.5	3.9	8.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6	10.6	10.8	8.5	15.1	5.0	7.4
	외벌이	22.5	8.6	7.1	10.4	10.1	3.2	8.9
	t	2.6**	1.6	1.0	-0.7	1.8	0.8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1	7.7	0.0	7.4	0.0	0.0	7.0
	300~399만원 이하	21.8	9.4	8.0	14.2	6.9	4.6	9.0
	400~499만원 이하	23.3	8.7	4.7	7.7	10.6	3.2	7.7
	500~599만원 이하	26.2	9.6	0.0	8.7	14.9	3.9	12.3
	600만원 이상	28.8	11.2	11.9	7.3	18.9	3.6	7.2
	F	4.2**	0.8	0.8	1.8	4.3*	0.1	0.8
총 자녀수	1명	33.0	8.4	7.4	8.1	16.2	2.8	9.0
	2명	23.2	10.0	8.4	10.9	9.9	4.2	8.2
	3명이상	20.7	9.6	10.0	8.8	14.0	3.6	7.7
	F	15.1***	0.5	0.1	0.4	1.8	0.1	0.1
지역 규모	대도시	25.0	10.3	7.1	7.4	10.4	3.7	6.8
	중소도시	24.3	8.3	13.0	8.2	16.4	2.3	9.5
	읍면지역	23.1	11.5	8.4	14.3	8.1	11.2	9.6
	F	0.3	2.5	0.9	3.8*	3.7*	7.7**	1.4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4-5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해야 하는 분야 (2021년, 1+2순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과학	기타	(수)
전체		38.3	27.6	14.7	58.4	12.8	41.8	4.2	0.5	(23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7	24.8	11.1	63.2	10.7	46.4	2.3	0.9	(118)
	외벌이	37.1	30.3	18.3	53.6	14.8	37.3	6.1	0.0	(1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9	28.1	16.5	54.9	16.5	29.9	7.1	0.0	(19)
	300~399만원 이하	37.2	33.2	15.0	49.6	18.0	37.3	5.2	1.6	(67)
	400~499만원 이하	34.6	28.9	8.9	59.4	9.2	49.7	7.4	0.0	(57)
	500~599만원 이하	47.3	25.5	24.9	54.1	13.2	32.9	2.2	0.0	(46)
	600만원 이상	32.8	20.2	11.0	74.0	8.2	51.6	0.0	0.0	(50)
총 자녀수	1명	33.0	18.1	17.9	78.9	9.5	36.0	3.7	0.0	(36)
	2명	36.0	25.8	16.0	58.4	10.9	46.2	4.6	0.0	(139)
	3명이상	46.6	36.8	10.2	46.8	18.8	35.5	3.7	1.7	(64)
지역 규모	대도시	34.9	27.7	13.3	53.0	13.3	49.4	6.0	1.2	(90)
	중소도시	37.5	27.9	17.3	61.5	11.5	39.4	1.9	0.0	(104)
	읍면지역	47.1	26.5	11.8	61.8	14.7	32.4	5.9	0.0	(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52〉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2021년)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2.1	67.9	100.0	(39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6.4	63.6	100.0	(183)
	외벌이	28.2	71.8	100.0	(207)
	χ^2	3.17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0	67.0	100.0	(30)
	300~399만원 이하	30.7	69.3	100.0	(90)
	400~499만원 이하	31.4	68.6	100.0	(103)
	500~599만원 이하	27.8	72.2	100.0	(78)
	600만원 이상	37.6	62.4	100.0	(89)
	χ^2	1.831			
총 자녀수	1명	36.9	63.1	100.0	(71)
	2명	29.9	70.1	100.0	(228)
	3명이상	33.7	66.3	100.0	(91)
	χ^2	1.369			
지역 규모	대도시	28.5	71.5	100.0	(148)
	중소도시	32.6	67.4	100.0	(181)
	읍면지역	39.1	60.9	100.0	(61)
	χ^2	2.43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53〉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1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1.7	23.6	11.9	11.5	0.0	0.0	11.5	0.0	29.8	100.0 (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0	40.2	20.2	9.8	0.0	0.0	0.0	0.0	29.7	100.0 (10)
	외벌이	28.3	0.0	0.0	13.9	0.0	0.0	27.9	0.0	29.9	100.0 (7)
	χ^2	9.981									
지역 규모	대도시	0.0	0.0	0.0	33.5	0.0	0.0	33.5	0.0	33.0	100.0 (3)
	중소도시	9.2	27.5	18.3	8.9	0.0	0.0	8.9	0.0	27.1	100.0 (12)
	읍면지역	31.8	31.8	0.0	0.0	0.0	0.0	0.0	0.0	36.5	100.0 (3)
	χ^2	6.85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54〉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1년)

단위 : %, (명)

구분	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부모 직접 돌봄	12.9	8.8	2.2	1.9
조부모 및 친인척	2.0	0.0	1.0	1.0
비혈연 육아도우미	4.9	0.0	3.0	1.9
학원	42.1	23.2	13.0	5.8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0.7	5.0	4.8	0.9
초등돌봄교실	36.6	22.5	9.7	4.4
방과후 학교	66.1	36.1	24.3	5.7
이웃, 친구	2.0	0.0	1.0	1.0
기타	30.2	4.4	5.1	20.7
무응답	0.0	0.0	0.0	0.0
(수)	(461)	(461)	(461)	(46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55〉 가구특성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2.0	51.9	8.8	6.1	4.0	8.8	6.4	0.3	0.8	1.1	100.0 (37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2	47.0	7.9	5.3	4.6	12.6	7.3	0.0	1.3	0.7	100.0 (151)
	외벌이	11.1	55.1	9.3	6.7	3.6	6.2	5.8	0.4	0.4	1.3	100.0 (225)
	χ^2	8.64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7	46.4	17.9	3.6	3.6	10.7	7.1	0.0	0.0	0.0	100.0 (28)
	300~399만원	4.7	65.1	5.7	4.7	4.7	5.7	6.6	0.0	0.9	1.9	100.0 (106)
	400~499만원	13.2	48.1	14.2	8.5	2.8	5.7	5.7	0.0	0.9	0.9	100.0 (106)
	500~599만원	16.4	46.3	4.5	4.5	3.0	11.9	9.0	1.5	1.5	1.5	100.0 (67)
	600만원 이상	17.4	44.9	5.8	7.2	5.8	14.5	4.3	0.0	0.0	0.0	100.0 (69)
	χ^2	40.144										
총 자녀수	1명	10.4	60.8	7.2	7.2	3.2	4.0	5.6	0.0	0.8	0.8	100.0 (125)
	2명	10.5	49.0	9.5	6.5	4.5	11.5	7.0	0.5	0.5	0.5	100.0 (200)
	3명이상	21.6	41.2	9.8	2.0	3.9	9.8	5.9	0.0	2.0	3.9	100.0 (51)
	χ^2	22.320										
지역 규모	대도시	14.3	48.6	9.7	5.7	5.1	7.4	7.4	0.0	0.6	1.1	100.0 (175)
	중소도시	11.3	57.0	7.7	4.9	1.4	10.6	4.9	0.0	1.4	0.7	100.0 (142)
	읍면지역	6.8	49.2	8.5	10.2	6.8	8.5	6.8	1.7	0.0	1.7	100.0 (59)
	χ^2	18.464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③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④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⑤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⑥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⑦ 아동학대 등 근절; ⑧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⑨ 기타; ⑩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56〉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1년)

단위 : %, (명)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모름/무응답	
전체		16.0	5.9	75.9	8.9	0.0	(2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5	5.2	78.8	8.3	0.0	(193)
	외벌이	22.7	9.1	63.6	11.4	0.0	(4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5.4	7.7	84.6	0.0	0.0	(13)
	300~399만원	34.5	6.9	55.2	17.2	0.0	(29)
	400~499만원	9.8	2.0	82.4	5.9	0.0	(51)
	500~599만원	16.9	4.2	77.5	8.5	0.0	(71)
	600만원 이상	12.3	9.6	76.7	9.6	0.0	(73)
총 자녀수	1명	7.4	5.3	86.2	5.3	0.0	(94)
	2명	16.4	6.9	73.3	12.1	0.0	(116)
	3명이상	44.4	3.7	51.9	7.4	0.0	(27)
지역 규모	대도시	7.8	6.0	81.9	10.3	0.0	(116)
	중소도시	21.3	5.3	73.4	8.5	0.0	(94)
	읍면지역	33.3	7.4	59.3	3.7	0.0	(27)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부표 4-57〉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9.8	33.1	11.2	18.2	10.3	5.8	0.8	0.8	100.0 (24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2.3	33.8	10.8	20.0	6.9	4.6	0.0	1.5	100.0 (130)
	외벌이	17.0	32.1	11.6	16.1	14.3	7.1	1.8	0.0	100.0 (112)
	χ^2	9.33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3	36.4	4.5	13.6	9.1	4.5	4.5	0.0	100.0 (22)
	300~399만원	19.0	37.9	8.6	13.8	13.8	6.9	0.0	0.0	100.0 (58)
	400~499만원	14.3	30.4	16.1	23.2	5.4	8.9	1.8	0.0	100.0 (56)
	500~599만원	27.1	33.3	10.4	14.6	8.3	4.2	0.0	2.1	100.0 (48)
	600만원 이상	17.2	29.3	12.1	22.4	13.8	3.4	0.0	1.7	100.0 (58)
	χ^2	21.943								
총 자녀수	1명	19.8	35.2	12.1	14.3	14.3	3.3	1.1	0.0	100.0 (91)
	2명	21.1	29.8	11.4	21.1	7.9	7.0	0.0	1.8	100.0 (114)
	3명이상	16.2	37.8	8.1	18.9	8.1	8.1	2.7	0.0	100.0 (37)
	χ^2	11.414								
지역 규모	대도시	20.6	38.2	10.8	17.6	6.9	5.9	0.0	0.0	100.0 (102)
	중소도시	23.7	29.8	8.8	17.5	14.0	3.5	0.9	1.8	100.0 (114)
	읍면지역	0.0	26.9	23.1	23.1	7.7	15.4	3.8	0.0	100.0 (26)
	χ^2	25.813*								

주: ①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②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③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④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⑤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⑥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⑦ 기타; ⑧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4-58〉 가구특성별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서비스 수준 제고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40.8	28.0	11.5	15.9	3.2	0.6	100.0 (15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2.0	30.4	11.6	10.1	4.3	1.4	100.0 (69)
	외벌이	39.8	26.1	11.4	20.5	2.3	0.0	100.0 (88)
	χ^2	4.68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3	18.5	11.1	25.9	7.4	3.7	100.0 (27)
	300~399만원	45.5	30.3	6.1	15.2	3.0	0.0	100.0 (33)
	400~499만원	47.7	34.1	6.8	11.4	0.0	0.0	100.0 (44)
	500~599만원	30.0	23.3	23.3	16.7	6.7	0.0	100.0 (30)
	600만원 이상	43.5	30.4	13.0	13.0	0.0	0.0	100.0 (23)
	χ^2	21.181						
총 자녀수	1명	54.0	20.0	8.0	10.0	6.0	2.0	100.0 (50)
	2명	34.7	31.6	14.7	18.9	0.0	0.0	100.0 (95)
	3명이상	33.3	33.3	0.0	16.7	16.7	0.0	100.0 (12)
	χ^2	22.552*						
지역 규모	대도시	44.2	22.1	16.9	16.9	0.0	0.0	100.0 (77)
	중소도시	36.8	35.3	5.9	14.7	5.9	1.5	100.0 (68)
	읍면지역	41.7	25.0	8.3	16.7	8.3	0.0	100.0 (12)
	χ^2	13.12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4-59〉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0.9	8.2	28.9	21.4	19.0	4.8	6.1	0.3	0.3	100.0 (29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4	8.5	32.9	18.3	17.1	6.7	5.5	0.6	0.0	100.0 (164)
	외벌이	11.5	7.7	23.8	25.4	21.5	2.3	6.9	0.0	0.8	100.0 (130)
	χ^2	9.93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6.3	18.8	25.0	12.5	6.3	25.0	0.0	6.3	100.0 (16)
	300~399만원	17.5	7.9	19.0	30.2	15.9	4.8	3.2	1.6	0.0	100.0 (63)
	400~499만원	6.8	6.8	30.1	19.2	32.9	1.4	2.7	0.0	0.0	100.0 (73)
	500~599만원	13.2	7.4	35.3	19.1	10.3	5.9	8.8	0.0	0.0	100.0 (68)
	600만원 이상	9.5	10.8	32.4	17.6	17.6	6.8	5.4	0.0	0.0	100.0 (74)
	χ^2	60.903**									
총 자녀수	1명	9.8	10.7	30.4	18.8	17.0	5.4	7.1	0.0	0.9	100.0 (112)
	2명	12.7	7.3	27.3	24.0	19.3	2.7	6.0	0.7	0.0	100.0 (150)
	3명이상	6.3	3.1	31.3	18.8	25.0	12.5	3.1	0.0	0.0	100.0 (32)
	χ^2	14.011									
지역 규모	대도시	9.9	7.2	27.0	21.6	19.8	6.3	8.1	0.0	0.0	100.0 (111)
	중소도시	10.7	10.0	30.7	18.6	20.7	2.9	5.7	0.7	0.0	100.0 (140)
	읍면지역	14.0	4.7	27.9	30.2	11.6	7.0	2.3	0.0	2.3	100.0 (43)
	χ^2	16.475									

주: 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②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③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④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⑥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⑦ 서비스 다양성 강화; ⑧ 기타; ⑨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4-60〉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현금 지원 수준 제고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44.7	8.6	24.4	21.9	0.4	0.1	100.0 (75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6.1	7.8	26.1	19.7	0.3	0.0	100.0 (295)
	외벌이	43.8	9.1	23.3	23.3	0.4	0.2	100.0 (464)
	χ^2	2.89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2	9.1	17.3	25.5	0.0	0.0	100.0 (110)
	300~399만원	44.1	8.8	22.9	24.2	0.0	0.0	100.0 (227)
	400~499만원	47.0	10.5	25.0	17.0	0.5	0.0	100.0 (200)
	500~599만원	42.6	5.2	29.6	22.6	0.0	0.0	100.0 (115)
	600만원 이상	40.2	7.5	28.0	21.5	1.9	0.9	100.0 (107)
	χ^2	25.349						
총 자녀수	1명	54.1	8.6	15.3	21.1	0.5	0.5	100.0 (209)
	2명	42.8	8.3	27.1	21.5	0.2	0.0	100.0 (409)
	3명이상	36.2	9.2	29.8	24.1	0.7	0.0	100.0 (141)
	χ^2	20.527*						
지역 규모	대도시	48.3	6.9	21.1	23.8	0.0	0.0	100.0 (261)
	중소도시	42.0	9.6	26.5	20.9	0.8	0.3	100.0 (374)
	읍면지역	45.2	8.9	25.0	21.0	0.0	0.0	100.0 (124)
	χ^2	9.35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4-61〉 가구특성별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전체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서비스 홍보 강화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자격기준 확대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29.5	20.0	6.7	8.6	21.0	13.3	1.0	0.0	100.0 (1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3	21.4	10.7	14.3	25.0	14.3	0.0	0.0	100.0 (28)
	외벌이	35.1	19.5	5.2	6.5	19.5	13.0	1.3	0.0	100.0 (77)
	χ^2	6.1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3	22.2	0.0	11.1	16.7	16.7	0.0	0.0	100.0 (18)
	300~399만원	42.1	21.1	7.9	5.3	10.5	13.2	0.0	0.0	100.0 (38)
	400~499만원	9.1	22.7	9.1	18.2	27.3	9.1	4.5	0.0	100.0 (22)
	500~599만원	20.0	13.3	13.3	0.0	40.0	13.3	0.0	0.0	100.0 (15)
	600만원 이상	33.3	16.7	0.0	8.3	25.0	16.7	0.0	0.0	100.0 (12)
	χ^2	23.422								
총 자녀수	1명	23.7	15.8	5.3	15.8	18.4	21.1	0.0	0.0	100.0 (38)
	2명	37.0	20.4	7.4	1.9	20.4	11.1	1.9	0.0	100.0 (54)
	3명이상	15.4	30.8	7.7	15.4	30.8	0.0	0.0	0.0	100.0 (13)
	χ^2	14.781								
지역 규모	대도시	26.3	23.7	5.3	0.0	26.3	15.8	2.6	0.0	100.0 (38)
	중소도시	33.3	16.7	10.4	8.3	18.8	12.5	0.0	0.0	100.0 (48)
	읍면지역	26.3	21.1	0.0	26.3	15.8	10.5	0.0	0.0	100.0 (19)
	χ^2	16.54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62〉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전체		52.4	9.4	5.9	9.9	22.4	100.0	(8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3.7	8.8	5.9	13.1	18.4	100.0	(374)
	외벌이	51.4	9.9	5.9	7.2	25.7	100.0	(444)
	χ^2	12.33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1	10.4	7.8	3.9	20.8	100.0	(77)
	300~399만원	48.6	13.0	6.5	9.2	22.7	100.0	(185)
	400~499만원	53.2	8.2	7.3	7.7	23.6	100.0	(220)
	500~599만원	55.7	8.2	5.1	13.3	17.7	100.0	(158)
	600만원 이상	50.6	7.9	3.4	12.9	25.3	100.0	(178)
	χ^2	18.194						
총 자녀수	1명	37.8	16.2	4.1	21.6	20.3	100.0	(74)
	2명	53.6	8.6	6.0	9.8	22.1	100.0	(521)
	3명이상	54.7	9.0	6.3	6.3	23.8	100.0	(223)
	χ^2	21.443**						
지역 규모	대도시	48.6	7.7	4.5	11.5	27.8	100.0	(313)
	중소도시	53.0	11.2	6.3	11.0	18.5	100.0	(383)
	읍면지역	60.7	8.2	8.2	2.5	20.5	100.0	(122)
	χ^2	22.201(8)**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4-63〉 가구특성별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초등돌봄 교실 확충	초등돌봄 교실 시간 확대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돌봄프로그램 개선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41.7	15.2	6.8	20.5	8.2	6.5	1.2	100.0 (42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3.8	14.4	6.5	21.4	8.0	5.5	0.5	100.0 (201)
	외벌이	39.9	15.8	7.0	19.7	8.3	7.5	1.8	100.0 (228)
	χ^2	2.81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1	18.2	11.4	20.5	6.8	9.1	0.0	100.0 (44)
	300~399만원	37.8	17.8	4.4	21.1	7.8	8.9	2.2	100.0 (90)
	400~499만원	43.6	12.8	7.7	18.8	9.4	6.8	0.9	100.0 (117)
	500~599만원	38.6	12.5	6.8	21.6	11.4	6.8	2.3	100.0 (88)
	600만원 이상	50.0	16.7	5.6	21.1	4.4	2.2	0.0	100.0 (90)
	χ^2	17.260							
총 자녀수	1명	32.1	17.9	14.3	17.9	10.7	3.6	3.6	100.0 (28)
	2명	41.6	15.1	5.7	21.9	7.9	7.2	0.7	100.0 (279)
	3명이상	44.3	14.8	7.4	18.0	8.2	5.7	1.6	100.0 (122)
	χ^2	7.539							
지역 규모	대도시	42.1	15.1	6.6	20.4	6.6	7.9	1.3	100.0 (152)
	중소도시	43.8	14.8	5.4	17.7	10.3	6.9	1.0	100.0 (203)
	읍면지역	35.1	16.2	10.8	28.4	5.4	2.7	1.4	100.0 (74)
	χ^2	10.99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64〉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공공 개별돌봄 인력 양성 확대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확대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공공 개별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공공 개별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20.8	32.5	13.0	10.4	14.3	9.1	0.0	0.0	100.0	(7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2	27.3	21.2	6.1	18.2	6.1	0.0	0.0	100.0	(33)
	외벌이	20.5	36.4	6.8	13.6	11.4	11.4	0.0	0.0	100.0	(44)
	χ^2	5.73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5	37.5	25.0	0.0	12.5	12.5	0.0	0.0	100.0	(8)
	300~399만원	20.8	37.5	0.0	4.2	20.8	16.7	0.0	0.0	100.0	(24)
	400~499만원	33.3	22.2	11.1	22.2	11.1	0.0	0.0	0.0	100.0	(18)
	500~599만원	15.4	15.4	23.1	15.4	23.1	7.7	0.0	0.0	100.0	(13)
	600만원 이상	14.3	50.0	21.4	7.1	0.0	7.1	0.0	0.0	100.0	(14)
	χ^2	22.777									
총 자녀수	1명	16.7	33.3	33.3	8.3	0.0	8.3	0.0	0.0	100.0	(12)
	2명	20.0	26.7	11.1	11.1	22.2	8.9	0.0	0.0	100.0	(45)
	3명이상	25.0	45.0	5.0	10.0	5.0	10.0	0.0	0.0	100.0	(20)
	χ^2	11.656									
지역 규모	대도시	25.0	25.0	12.5	12.5	16.7	8.3	0.0	0.0	100.0	(24)
	중소도시	23.3	30.2	7.0	11.6	16.3	11.6	0.0	0.0	100.0	(43)
	읍면지역	0.0	60.0	40.0	0.0	0.0	0.0	0.0	0.0	100.0	(10)
	χ^2	16.12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65〉 가구특성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서비스 수준 제고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시간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22.9	41.7	6.3	14.6	14.6	0.0	0.0	100.0 (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6	40.9	9.1	18.2	18.2	0.0	0.0	100.0 (22)
	외벌이	30.8	42.3	3.8	11.5	11.5	0.0	0.0	100.0 (26)
	χ^2	2.77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3	16.7	0.0	33.3	16.7	0.0	0.0	100.0 (6)
	300~399만원	16.7	50.0	8.3	16.7	8.3	0.0	0.0	100.0 (12)
	400~499만원	25.0	50.0	0.0	0.0	25.0	0.0	0.0	100.0 (16)
	500~599만원	25.0	50.0	12.5	12.5	0.0	0.0	0.0	100.0 (8)
	600만원 이상	16.7	16.7	16.7	33.3	16.7	0.0	0.0	100.0 (6)
	χ^2	14.036							
총 자녀수	1명	33.3	33.3	0.0	33.3	0.0	0.0	0.0	100.0 (3)
	2명	29.0	48.4	0.0	9.7	12.9	0.0	0.0	100.0 (31)
	3명이상	7.1	28.6	21.4	21.4	21.4	0.0	0.0	100.0 (14)
	χ^2	13.048							
지역 규모	대도시	28.6	28.6	0.0	21.4	21.4	0.0	0.0	100.0 (14)
	중소도시	20.8	50.0	8.3	4.2	16.7	0.0	0.0	100.0 (24)
	읍면지역	20.0	40.0	10.0	30.0	0.0	0.0	0.0	100.0 (10)
	χ^2	8.37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66〉 가구특성별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3.6	4.9	21.0	17.3	29.6	3.7	9.9	0.0	0.0	100.0	(8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3	4.1	22.4	16.3	28.6	6.1	6.1	0.0	0.0	100.0	(49)
	외벌이	9.4	6.3	18.8	18.8	31.3	0.0	15.6	0.0	0.0	100.0	(32)
	χ^2	4.84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3	0.0	33.3	0.0	33.3	0.0	0.0	0.0	0.0	100.0	(3)
	300~399만원	5.9	5.9	17.6	17.6	29.4	0.0	23.5	0.0	0.0	100.0	(17)
	400~499만원	0.0	5.9	35.3	11.8	41.2	5.9	0.0	0.0	0.0	100.0	(17)
	500~599만원	14.3	0.0	14.3	28.6	28.6	9.5	4.8	0.0	0.0	100.0	(21)
	600만원 이상	26.1	8.7	17.4	13.0	21.7	0.0	13.0	0.0	0.0	100.0	(23)
	χ^2	24.612										
총 자녀수	1명	6.3	0.0	18.8	25.0	43.8	0.0	6.3	0.0	0.0	100.0	(16)
	2명	17.6	7.8	21.6	13.7	29.4	3.9	5.9	0.0	0.0	100.0	(51)
	3명이상	7.1	0.0	21.4	21.4	14.3	7.1	28.6	0.0	0.0	100.0	(14)
	χ^2	14.373										
지역 규모	대도시	11.1	5.6	13.9	11.1	38.9	5.6	13.9	0.0	0.0	100.0	(36)
	중소도시	16.7	4.8	28.6	19.0	21.4	2.4	7.1	0.0	0.0	100.0	(42)
	읍면지역	0.0	0.0	0.0	66.7	33.3	0.0	0.0	0.0	0.0	100.0	(3)
	χ^2	12.642										

주: 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②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사용),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③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④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⑥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⑦ 서비스 다양성 강화; ⑧ 기타; ⑨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4-67〉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1년) : 초등학령기 자녀

단위 : %(명)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신설 및 확대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25.7	14.2	18.0	41.0	1.1	0.0	100.0 (18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7.5	21.7	14.5	34.8	1.4	0.0	100.0 (69)
	외벌이	24.6	9.6	20.2	44.7	0.9	0.0	100.0 (114)
	χ^2	6.5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3.8	6.3	12.5	37.5	0.0	0.0	100.0 (16)
	300~399만원	26.2	4.8	31.0	35.7	2.4	0.0	100.0 (42)
	400~499만원	17.3	13.5	21.2	48.1	0.0	0.0	100.0 (52)
	500~599만원	32.1	21.4	10.7	32.1	3.6	0.0	100.0 (28)
	600만원 이상	24.4	22.2	8.9	44.4	0.0	0.0	100.0 (45)
	χ^2	22.813						
총 자녀수	1명	33.3	13.3	26.7	26.7	0.0	0.0	100.0 (15)
	2명	25.2	13.9	17.4	41.7	1.7	0.0	100.0 (115)
	3명이상	24.5	15.1	17.0	43.4	0.0	0.0	100.0 (53)
	χ^2	3.126						
지역 규모	대도시	21.8	18.4	19.5	40.2	0.0	0.0	100.0 (87)
	중소도시	25.4	9.9	19.7	43.7	1.4	0.0	100.0 (71)
	읍면지역	40.0	12.0	8.0	36.0	4.0	0.0	100.0 (25)
	χ^2	9.45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록 참고문헌[1)]

〈부록 참고 문헌〉

대구광역시(2021).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

〈부록 홈페이지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민 복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5&bIdx=81688&page=1&menuId=1881&bcIdx=0 (인출일: 2021. 10. 26.).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민 복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5&bIdx=81689&page=1&menuId=1881&bcIdx=0 (인출일: 2021. 10. 26.).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 소식, 코로나19,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받으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2763487&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인출일: 2021. 6. 12.).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공정경기, 생계 위기자 지원방안!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378870&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인출일: 2021. 6. 12.).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공정경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모든 것,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28833&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6 (인출일: 2021. 6. 12.).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는 오늘, 희망경기, 취약노동자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6929640&menuId=1537 (인출일: 2021. 6. 12.).

1) 해당참고문헌은 부록에 관한 참고문헌의 목록이며, 본문의 참고문헌과 중복이 일부 있음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록에서 제시한 참고문헌은 포함되나, DB 작업 시 참조한 자료는 별도 표기하지 않았음.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 공지사항,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안내, https://ggwf.gg.go.kr/archives/51521 (인출일: 2021. 6. 12.).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문화예술인,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3 (인출일: 2021. 6. 13.).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소상공인,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2 (인출일: 2021. 6. 13.).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일반도민,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 (인출일: 2021. 6. 13.).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청년,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8_1 (인출일: 2021. 6. 13.).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시교통국 자료실, 201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6006010004&boardId=BBS_0000310&dataSid=131390 (인출일: 2021. 10. 26.).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https://www.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2_1.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등), https://www.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4_1.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진·방역인력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page.do?mnu_uid=2825&dept_code=&dept_name=&BD_CODE=wel_notice&bdName=&cmd=2&Start=0&B_NUM=74329801&B_STEP=74329800&B_LEVEL=0&key=0&word=&p1=0&p2=0&V_NUM=2590 (인출일: 2021. 6. 13.).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wel/

page.do?mnu_uid=2825&BD_CODE=bbs_gongji&cmd=2&B_NUM=74330001&B_STEP=74330000&V_NUM=) (인출일: 2021. 6. 13.).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종합지원시책, 지원시책, 생활&복지,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경상북도), https://gb.go.kr/data/ca/ca_minwon/corona_support/html/corona4_10.hwp.view.htm (인출일: 2021. 6. 13.).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gwangju.go.kr/c19/contentsView.do?pageId=corona3 (인출일: 2021. 6.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인출일: 2021. 10. 26.).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인출일: 2021. 10. 26.).

문화누리 홈페이지, 20201 카드 발급안내, https://www.mnuri.kr/munhwa/cardIssueGuide.do (인출일: 2021. 10.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14191 (인출일: 2021. 10.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D%98%EC%99%95%EC%8B%9C%20%EA%B5%AD%EA%B0%80%EB%B3%B4%ED%9B%88%EB%8C%80%EC%83%81%EC%9E%90%20%EB%93%B1%20%EC%98%88%EC%9A%B0%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 (인출일: 2021. 10. 2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 서비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5&PAGE=5&topTitle=%EC%84%9C%EB%B9%84%EC%8A%A4 (인출일: 2021. 10. 2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정책, 아동수당 지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EC%95%84%EB%8F%99%EC%88%98%EB%8B%B

9%20%EC%A7%80%EA%B8%89 (인출일: 2021. 10. 2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정책, 입양,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5&PAGE=5&topTitle=%EC%9E%85%EC%96%9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8&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2&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9&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0&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8&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3&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민간),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1&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1. 10. 26.).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https://www.busan.go.kr/womanfamily/instcare02 (인출일: 2021. 10. 26.).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연금(수당), https://www.busan.go.kr/welfare/ahdisperpension (인출일: 2021. 10. 26.).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인출일: 2021. 6. 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0 (인출일: 2021. 10. 2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1 (인출일: 2021. 10. 26.).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주거복지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인출일: 2021. 10. 2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tr_code=short (인출일: 2021. 6. 11.).

세종특별광역시 홈페이지,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종합지원대책, https://www.sejong.go.kr/covid19/sub01_0901.do (인출일: 2021. 6. 1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인출일: 2021. 10. 26.).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보건/건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ulsan.go.kr/u/health/contents.ulsan?mId=0010020020010 00000 (인출일: 2021. 6. 11.).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포털사이트,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life/youth.jsp (인출일: 2021. 10. 26.).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법인택시),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898 (인출일: 2021. 6. 11.).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예술인),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900 (인출일: 2021. 6. 11.).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건강.식품.체육, 홍보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전세버스 회사),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10/2064899 (인출일: 2021. 6. 1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70110240004 (인출일: 2021. 10. 2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80110325004 (인출일: 2021. 10. 2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70110240004 (인출일: 2021. 10. 2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900106236004 (인출일: 2021. 10. 2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6790122269002 (인출일: 2021. 10. 26.).

전라남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민복지,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504151000 (인출일: 2021. 6.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현황, 보도자료, 全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06&menuCd=DOM_000000110009000000&paging=ok&startPage=2&dataSid=541864 (인출일: 2021. 6.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현황, 보도자료, 전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06&menuCd=DOM_000000110009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547893 (인출일: 2021. 6. 12.).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인출일: 2021. 10. 26.).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길잡이,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인출일: 2021. 11. 1.).

청주시 홈페이지, 가족/복지, 아동/어린이 급식지원,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335 (인출일: 2021. 10. 26.).

충청남도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지원, 충남 재난지원금, http://www.chungnam.go.kr/corona/post_corona23.html (인출일: 2021. 6. 12.).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guide/bizVcUser.do (인출일: 2021. 10. 2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0C11/contents.do (인출일: 2021. 10. 26.).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37840ebcd7004927bbb095d0a1dd58d6 (인출일: 2021. 10. 26.).

i-누리 포털사이트, 도움누리, 코로나19 대응 가정연계놀이, https://i-nuri.go.kr/main/html.do?menu_idx=155 (인출일 : 2021. 10. 25.).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https://www.nhlife.co.kr/ho/ig/HOIG0001M00.nhl?prodCd=N0000847 (인출일: 2021. 10. 26.).

〈부록 보도자료〉

아시아뉴스통신(2021. 5. 20.). 울산시, 사회공헌 협약기업 20개사 공동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필품'전달,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420230 (인출일: 2021. 6. 11.).

CNBNEWS(2021. 3. 10.). 울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2767 (인출일: 2021. 6. 11.).

〈부록 통계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 부록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